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투 자 설 명 서	3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46
【 본 문 】	47
요약정보	47
1. 핵심투자위험	47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6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4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64
1. 공모개요	64
2. 공모방법	6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70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91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08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13
III. 투자위험요소	114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87
V. 자금의 사용목적	246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49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279
I. 회사의 개요	279
1. 회사의 개요	279
2. 회사의 연혁	281
3. 자본금 변동사항	283
4. 주식의 총수 등	284
5. 의결권 현황	285
6. 배당에 관한 사항	285
II. 사업의 내용	288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25
1. 요약재무정보	325
2. 연결재무제표	326
3. 연결재무제표 주식	330
4. 재무제표	451
5. 재무제표 주식	454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570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579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583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583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585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86
VI. 주주에 관한 사항	587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590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590
2. 임원의 보수 등	593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596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598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9
【 전문가의 확인 】	604
1. 전문가의 확인	604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604

정정 신고 (보고)

2017년 7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7월 14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가액 예정 : 32,500원 ~ 41,000원 모집총액 예정 : 799,630,000,000원 ~ 1,008,764,000,000원	모집가액 : 41,000원 모집총액 : 1,008,764,000,0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3)	(주3)
	(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나.	(주7)	(주7)
3. 기타위험 - 커.	(주8)	(주8)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주9)	(주9)
	(주10)	(주1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 한 자금조달 내역	(주11)	(주11)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2)	(주12)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24,604,000	1,000	32,500	799,63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532,200	439,796,500,000	4,268,621,500	총액인수
공동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영업소)	기명식보통주	8,611,400	279,870,500,000	2,716,395,500	총액인수
인수	맥쿼리증권	기명식보통주	1,230,200	39,981,500,000	388,056,50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기명식보통주	615,100	19,990,750,000	194,028,250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5,100	19,990,750,000	194,028,25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7.19 ~ 2017.07.20	2017.07.24	2017.07.19	2017.07.24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인 32,500원 ~ 4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1일간)
 -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주5)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6년 12월 2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7년 3월 1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24,604,000	1,000	41,000	1,008,76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532,200	554,820,200,000	5,409,493,050	총액인수
공동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영업소)	기명식보통주	8,611,400	353,067,400,000	3,442,404,670	총액인수
인수	맥쿼리증권	기명식보통주	1,230,200	50,438,200,000	491,772,10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7.19 ~ 2017.07.20	2017.07.24	2017.07.19	2017.07.24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1일간)
 -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주5)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6년 12월 2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7년 3월 1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

주7) 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주8)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금액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5.05%를 우선배정합니다.

【일반공모대상 배정내역】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32,500원	159,926,0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주	74.95%		599,303,25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3,360,900주	94.95%		759,229,250,000원	-
----	-------------	--------	--	------------------	---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2,500원 ~ 4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기업공개가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 주3)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32,500원	159,926,0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주	74.95%		599,303,25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40,400,750,000원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799,630,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 액	모집총액	배정대상
주1)	13,532,200주	55.0%	32,500 원	439,796,500,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 익 투자신탁포 함)
	8,611,400주	35.0%		279,870,500,000원	
	1,230,200주	5.0%		39,981,500,000원	
	615,100주	2.5%		19,990,750,000원	
	615,100주	2.5%		19,990,750,000원	
합계	24,604,000주	100.0%		799,630,000,000원	-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243,100주(5.05%)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인수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맥쿼리증권(주)는 당해 증권회사의 특성상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비고
주3)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32,500원	146,598,855,000원	-
	인수회사	신한금융투자		205,033주	
한화투자증권		205,033주		6,663,572,500원	
합계		4,920,800주			

-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주5) 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 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6)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파악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또는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합니다.

주9)

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백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중

주10)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정 후]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
주1) 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주2) 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5.05%를 우선배정합니다.

【일반공모대상 배정내역】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41,000원	201,752,8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주	74.95%		756,044,1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3,360,900주	94.95%		957,796,9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기업공개가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주3)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41,000원	201,752,8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 주	74.95%		756,044,1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50,967,100,000원	우선배정
합계	24,604,000 주	100.00%		1,008,764,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배정대상		
						인수비율	
주1)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13,532,200 주	55.0%	41,000 원	554,820,200,000 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포함)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영업 소)	8,611,400 주	35.0%			
인수회사	맥쿼리증권	1,230,200 주	5.0%	50,438,200,000 원			
	신한금융투자	615,100주	2.5%	25,219,100,000 원			
	한화투자증권	615,100주	2.5%	25,219,100,000 원			
합계	24,604,000 주	100.0%		1,008,764,000,000 0원			

주2) 금번 모집에서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243,100주(5.05%)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인수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맥쿼리증권(주)는 당해 증권회사의 특성상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3)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4,510,734주	41,000원	184,940,094,000원	-
인수회사	신한금융투자	205,033주		8,406,353,000원	
	한화투자증권	205,033주		8,406,353,000원	
합계		4,920,800주		201,752,800,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주5)

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 일 것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또는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합니다.
- 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발행

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4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상
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
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
회사 및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기재사항 추가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증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05	14	61	218	75	88	561
수량	246,700,900	30,222,700	103,206,600	182,344,600	102,278,352	37,119,200	701,872,352
경쟁률	13.38 : 1	1.64 : 1	5.60 : 1	9.89 : 1	5.55 : 1	2.01 : 1	38.06 : 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증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1	101,000	-	-	1	2,300,000	3	200,500	-	-	-	-	5	2,601,50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69	241,786,900	7	28,499,700	30	98,709,400	92	159,620,700	71	102,212,805	17	36,000	286	630,865,505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1	5,000	-	-	-	-	-	-	1	5,000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1	30,000	1	13,000	1	4,000	4	19,000	-	-	13	121,000	20	187,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3	2,142,200	2	1,627,000	4	532,000	20	1,938,500	-	-	15	15,000	54	6,254,7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1	74,000	1	2,000	-	-	2	8,000	-	-	5	5,000	9	89,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2	43,000	-	-	3	12,000	11	162,500	-	-	-	-	16	217,5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8	2,523,800	3	81,000	19	396,200	80	1,895,400	4	65,547	37	36,941,200	161	41,903,147
밴드하단미만	-	-	-	-	1	1,000	4	36,000	-	-	1	1,000	6	38,000
미제시	-	-	-	-	1	1,247,000	2	18,464,000	-	-	-	-	3	19,711,000
합계	105	246,700,900	14	30,222,700	61	103,206,600	218	182,344,600	75	102,278,352	88	37,119,200	561	701,872,35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41,000원 초과	5	2,601,500	0.37%
41,000원	285	630,862,505	89.88%
32,500원 이상 ~ 41,000원 미만	104	6,839,200	0.97%
32,500원	158	41,820,147	5.96%
32,500원 미만	6	38,000	0.01%
가격미제시	3	19,711,000	2.81%
합계	561	701,872,352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구분	신청수량(주)	비고
6개월 확약	2,952,000	-
3개월 확약	25,653,800	-
1개월 확약	40,168,290	-
15일 확약	18,688,100	-
합계	87,462,190	-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12.5%	-

주) 상기의 확약 신청수량은 수요예측 참여결과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배정내역은 이와는 상이합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4,604,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주1)	예정가액	32,5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799,63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19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7년 7월 24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주1)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 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청약단위

- 주2)
-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물량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주4)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용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②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주5) ③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④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 · 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⑤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4,604,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주1)	예정가액	32,500원	
	확정가액	41,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799,630,000,000원	
	확정가액	1,008,764,00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19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7년 7월 24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주1) **예정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청약단위

- 주2)
-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물량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주4)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용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②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주5)

③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④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 · 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⑤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 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4,268,621,500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2,716,395,500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388,056,5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94,028,250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194,028,250	
	합계	7,761,130,000	

주1)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5,409,493,050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3,442,404,670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491,772,1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45,886,040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45,886,040	
	합계	9,835,441,900	

주1)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총 공모금액의1.00%

경우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금액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나. 공모금액 사용 재량권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 중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7,69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850억원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모금액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결정한 공모금 용도에 대해 투자자가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금액은 약 7,996억원(공모가밴드 하단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7,69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850억원(사업자금(III))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별 세부 사용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232,568
사업자금(II)	5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790,074

당사 경영진은 당사 공모금액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금액 사용 재량권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 중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9,76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중 약 4,850억원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모금액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결정한 공모금 용도에 대해 투자자가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금액은 약 1조 88억원(확정공모금액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9,76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중 약 4,850억원(사업자금(III))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별 세부 사용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359,616
사업자금(II)	13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997,122

당사 경영진은 당사 공모금액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커. 주당순자산가치 희석 위험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개 시 형성되는 보통주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직후의 주당순자산 장부가액보다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주당순자산가치는 당사의 총자산(무형자산 제외)에서 당사의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 보통주 매입을 위해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대비 주당순자산가치가 약 25,485원 만큼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주당 공모가격을 36,750원(본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공모가 범위의 중간 값)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정정 후]

커. 주당순자산가치 희석 위험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개 시 형성되는 보통주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직후의 주당순자산 장부가액보다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주당순자산가치는 당사의 총자산(무형자산 제외)에서 당사의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 보통주 매입을 위해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대비 주당순자산가치가 약 **28,977원** 만큼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 공모가격을 **41,000원**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주9)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41,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

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47,480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31.5% ~ 13.6%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주1)	-

주)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 및 확정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47,480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31.5% ~ 13.6%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주1)	41,000원

주)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금액
신주모집금액 (1)	799,630,000,000
발행제비용 (2)	9,555,859,200
순수입금 [(1)-(2)]	790,074,140,800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금액인 32,500원 ~ 4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수료	7,761,130,000	<p>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구분</th> <th>인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td> <td>총 공모금액의 1.00%</td> </tr> <tr> <td>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td> <td>(1)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p> <p>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p> <p>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총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장심사수수료	15,0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자기자본 5천억원 초과 기업 : 1,500만원						
상장수수료	61,63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시가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 : 2,220만원+5천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등록세	98,416,000	증자자본금(24,604,000,000원)의 0.40%						
교육세	19,683,200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600,000,000	IR비용,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인쇄비, 광고비 등						
합계	9,555,859,200	-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금액인 32,500원 ~ 41,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금액
신주모집금액 (1)	1,008,764,000,000

발행제비용 (2)	11,641,791,100
순수입금 [(1)-(2)]	997,122,208,9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수료	9,835,441,900	<p>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td> <td>총 공모금액의 1.00%</td> </tr> <tr> <td>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td> <td>(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상기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구분	인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장심사수수료	15,0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자기자본 5천억원 초과 기업 : 1,500만원						
상장수수료	73,25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시가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 : 2,220만원+5천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등록세	98,416,000	증자자본금(24,604,000,000원)의 0.40%						
교육세	19,683,200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600,000,000	IR비용,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인쇄비, 광고비 등						
합계	11,641,791,1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주12)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232,568
사업자금(II)	5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790,074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계획은 희망공모금액인 32,500원 ~ 41,000원 중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으로, 수요예측 후 확정된 공모금액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해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사용계획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며, 유입된 자금을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전까지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 사업자금

당사는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License-in을 통한 제품군 확대,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사업자금(I)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비용	50,000	150,000	-	200,000
	제품군 확대(License-in)	32,568	-	-	32,568
	소계	82,568	150,000	-	232,568
사업자금(II)	판매 네트워크 확대 (직접판매 인프라 구축)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52,000	-	-	52,000
사업자금(III)	램시마 매입	205,000	-	-	205,000
	트록시마 매입	-	280,000	-	280,000
	소계	205,000	280,000	-	485,000
합계		339,568	430,000	-	769,568

(2) 상환자금

당사는 2017년 다음 차입금의 상환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상환자금(I)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단기차입금	KDB Bank Europe	외화 대출	2017.6.27	3M Libor+3.8%	10,506	2017년
단기차입금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대출	2017.6.28	4.45%	10,000	2017년
합계	-	-	-	-	20,506	-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359,616
사업자금(II)	13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997,122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해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사용계획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며, 유입된 자금을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전까지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 사업자금

당사는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License-in을 통한 제품군 확대,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사업자금(I)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비용	50,000	150,000	-	200,000
	제품군 확대(License-in)	33,000	76,000	50,616	159,616
	소계	83,000	226,000	50,616	359,616
사업자금(II)	판매 네트워크 확대 (직접판매 인프라 구축)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52,000	40,000	40,000	132,000
사업자금(III)	램시마 매입	205,000	-	-	205,000
	트룩시마 매입	-	280,000	-	280,000
	소계	205,000	280,000	-	485,000
합계		340,000	546,000	90,616	976,616

(2) 상환자금

당사는 2017년 다음 차입금의 상환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상환자금(I)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단기차입금	KDB Bank Europe	외화 대출	2017.6.27	3M Libor+3.8%	10,506	2017년
단기차입금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대출	2017.6.28	4.45%	10,000	2017년
합계	-	-	-	-	20,506	-

투자설명서

2017년 7월 14일

(발행회사명)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증권의종목과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4,604,000주

(모집또는매출총액)

1,008,764,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7년 7월 14일
2. 모집가액 : 41,000 원
3. 청약기간 : 2017년 7월 19일 ~ 2017년 7월 20일
4. 납입기일 : 2017년 7월 24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 본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19, 4층
3)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지점 : 별첨 참조
4)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2층
5)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소공동한화빌딩 3층
6)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지점 : 별첨 참조
7)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공 동 주 관 회 사 명)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하며,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주)"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공동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말하며, "유비에스", "유비에스증권",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또는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영업소)"는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말합니다.

"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업무를 맡고 있는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맥쿼리증권" 또는 "맥쿼리증권(주)"는 맥쿼리증권 주식회사를, "신한금융투자" 또는 "신한금융투자(주)"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를, "한화투자증권" 또는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	1588-3322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지점명	주소
IWC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7, 4층 (서현동, 코스콤빌딩)
IWC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IWC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1층 (대치동, 오로라월드빌딩)
IWC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1층 (금남로5가, 미래에셋대우빌딩)
IWC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6, 1·2층 (봉산동, 대성빌딩)
IWC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7, 1·2층 (둔산동, 영남빌딩)
IWC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25, 2·3층 (수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강남구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3층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강남센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3층 (서초동, 홍우빌딩)
갤러리아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4·5층 (청담동, 더트리니티플레이스)
교대역W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3층 (서초동, 건강빌딩)
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우래로 26, 4층 (반포동, 쌍동빌딩)
방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5, 1층 (방배동, 서경빌딩)
방배중앙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8, 3층 (방배동, 범양빌딩)
서초남WM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85, 2층 (서초동, 일복빌딩)
서초동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5, 3층 (서초동, 삼성화재 서초타워)
서초중앙W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2·3층 (서초동, 삼하빌딩)
신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4층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중심상가)
압구정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윙기빌딩)
압구정중앙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4층 (신사동, 압구정증권빌딩)
역삼동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2층 (역삼동, 풍림빌딩)
역삼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3층 (역삼동, 아주빌딩)
WM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남롯데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5, 3층 (대치동, 삼환아르누보2)
대치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대원빌딩)
도곡WM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2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도곡WM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동탄WM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 4층 (반송동, 워너스타)
미금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3층 (금곡동, 금산젬월드)
분당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1·2층 (서현동, 센트럴타워)
분당중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2층 (정자동, 인텔리지킨스타워)
수원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2층 (인계동, 남현프라자)
수원광교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2층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수원중앙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북동, 성북빌딩)
영통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정자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4, 2층 (정자동, 태남프라자)
한티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2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가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플라자)
건대역WM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3층 (자양동, 스타시티더클래식500)
광나루WM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5층 (광장동, 대한제지빌딩)
구리WM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1층 (수택동, 우진빌딩)
명일동WM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방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성동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송파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4, 3층 (석촌동, 대준빌딩)
신천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3층 (잠실동, 잠실파인애플상가)
올림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78, 2층 (방이동, 올림픽선수촌APT상가 C동)
왕십리역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6층 (행당동, 나래타워)
잠실WM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4층 (신천동, 시그마타워)
잠실WM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5층 (신천동, 잠실시그마타워)
장한평WM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1층 (용답동, 금풍빌딩)
청량리W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흥릉로 28, 1층 (청량리동, 성일빌딩)
테헤란밸리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혜미리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WM센터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광화문W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노원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4층 (상계동, 교보빌딩)
돈암동WM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2층 (동소문동5가, 강윤빌딩)
명동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3층 (을지로2가, 명동아르누보센터)
명동로얄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6층 (명동1가, 개양빌딩)
상계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7, 1·2층 (상계동, 은성빌딩)
서울역WM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2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서울파이낸스WM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빌딩)
센터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수유WM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5, 3층 (수유동, 수성타워)
용산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용산타워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의정부WM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2층 (의정부동, 구성타워)
중앙우체국WM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B2층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홍제동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64, 2층 (홍제동, 홍제빌딩)
강서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3층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강서중앙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1, 2층 (화곡동, 원풍빌딩)
개봉동WM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23, 2층 (개봉동, 도루코빌딩)

관악WM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17, 3층 (봉천동, 동진빌딩)
금천WM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5, 3층 (독산동, DDS빌딩)
디지털구로WM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마포WM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목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2층 (목동, 부영그린2차타워)
목동광장WM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9, 3층 (목동, 광장종합상가)
목동중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보라매WM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3층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상암WM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6층 (상암동, 전자회관빌딩)
신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2층 (노형동, 세기빌딩)
신촌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2층 (창천동, 거촌빌딩)
여의도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2층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영등포W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7, 5층 (영등포동4가, 신한은행빌딩)
영등포중앙W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 3층 (영등포동4가, 뉴포트빌딩)
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2층 (일도1동, 미래에셋대우빌딩)
거제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즈니스텔)
거제고현WM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25, 2층 (고현동, GJ빌딩)
김해WM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2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마산W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2층 (석전동, 무학빌딩)
북부산WM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 2층 (덕천동, 구포빌딩)
사상WM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0, 4층 (괘법동, M-City빌딩)
진주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3층 (동성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진주중앙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8, 2층 (동성동, 동성아트홀)
창원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2층 (중앙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창원시티W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2층 (대원동, 더시티세븐교육문화센터)
창원중앙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1층 (중앙동, 캔버라호텔)
통영WM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33, 2층 (무전동, 동인빌딩)
남인천W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8, 3층 (구월동, 오아시스빌딩)
부천WM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5, 3층 (중동, 금영프라자2차)
부평W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5층 (부평동, 금남빌딩)
산본WM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26, 3층 (산본동, 국민은행빌딩)
송도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 I A동)
송도중앙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2층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안산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1, 2층 (고잔동, 거품스카이팰리스)
안산중앙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3층 (고잔동, BYC빌딩)
연수WM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 2층 (청학동, 소망빌딩)
인천WM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72, 1·2층 (신생동, [舊] 미래에셋대우빌딩)
일산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3층 (주엽동, 한솔코아)
일산중앙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주안WM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3층 (주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중동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평촌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펀더)

평촌중앙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3층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A동)
화정W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2층 (화정동, 케이탑리츠빌딩)
경산W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2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주WM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1층 (성동동, KT경주지사)
구미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KDB산업은행)
대구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범어동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1, 3층 (범어동, 참타워빌딩)
상인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2층 (상인동, 상인프라자)
서대구WM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3층 (감삼동, 죽전메디빌)
성서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4층 (이곡동,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안동WM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25, 1층 (동부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칠곡WM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블딩)
포항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포항남W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8, 1층 (대도동, 태영빌딩)
남천동WM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33, 1층 (남천동, 한진빌딩)
범일WM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 1층 (범일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부산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 1층 (부전동, 부전이빌딩)
사하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 2층 (하단동, 삼영빌딩)
서면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7층 (부전동, 아이온시티빌딩)
서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 1층 (우거동, 대로빌딩)
센텀시티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층 (우동, 트럼프월드센텀1차상가)
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 2층 (삼산동, 더블유센터)
울산남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울산중앙WM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7, 2층 (약사동, 대호빌딩)
중앙동WM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5층 (중앙동2가, KDB산업은행빌딩)
하단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삼성전자빌딩)
해운대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7층 (우동, 마리나센터)
강릉WM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대전WM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2층 (은행동, 한솔빌딩)
동대전WM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36, 5층 (송촌동, 대덕메디칼빌딩)
동해WM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56, 2층 (천곡동, 동해빌딩)
둔산W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세종WM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205호 (어진동, 중앙타운)
속초WM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 2층 (교동, 보광빌딩)
온양WM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2, 5층 (온천동, 유엘시티)
원주WM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제천WM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3, 2층 (중앙로2가, 대명빌딩)
천안W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60, 2층 (쌍용동, 하이렉스타운)
천안아산역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대우빌딩)
청주중앙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6, 1층 (서운동)
춘천WM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2층 (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평택WM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 2층 (평택동)
군산WM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70, 2층 (나운동, 유엔미프라자)
두암동WM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52, 5층 (두암동, 동강빌딩)
목포WM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95, 3층 (상동, 쇼핑천국 포르모)
상무W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3층 (치평동, 아주청연빌딩)
서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10, 1층 (효자동1가, 동아빌딩)
수완WM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0, 2층 (수완동, 동원빌딩)
순천WM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순천연향WM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3층 (연향동, BYC빌딩)
신목포WM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60, 3층 (상동, 썬시티)
여수WM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1, 2층 (학동, 지구빌딩)
여천WM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2층 (학동, KDB산업은행)
익산WM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26, 4층 (어양동, 엘드타운)
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전주중앙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1층 (서노송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주1) 미래에셋대우 지점에 방문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방문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금융투자(주) 본 · 지정망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콜센터	1588-0365
홈페이지	https://www.shinhaninvest.com/

지점명	주 소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1층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역삼동) 삼흥빌딩 2층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43 (명동1가) 신한은행 명동지점 4층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0 2층(수성동 1가, 아성N타워)
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0 신한은행 2층
남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신한은행 지하1층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치평동) 동양빌딩 2층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88 (수송동) 청담빌딩 2층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4번길 3 (상남동) 범한빌딩 1층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 (학동) 신한금융투자빌딩 2층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동문로 8 (서귀동) 원복빌딩 3층
관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8 (봉천동) 대우디오슈페리움 2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대신빌딩 2층
동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2층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임당동) 동아빌딩 2층
제주	제주도 제주시 연복로 17 (노형동) 전문건설공제조합 2층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11 (석전동) 대아빌딩 2층
대구수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0 2층(수성동 1가, 아성N타워)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8-3 (중동) 신한금융투자빌딩 2층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6 (달동) 신한금융투자빌딩 1층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권선동) 안동빌딩 2층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 (호계동) 신한은행빌딩 3층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송정동) 신한금융투자빌딩 1층
노원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4 (상계동) 신한은행빌딩 3층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92 (봉명동) CJ나인파크 2층
삼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9 (서초동) 나라빌딩 2층
밀양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01 (내이동) 휴암빌딩 2층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문정동) GS문정프라자 3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둔산동) 동서빌딩 2층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7 (수내동) 흥국생명빌딩 3층
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 (목동) 하이퍼리온2차 206동 201호
답십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답십리동) 경원빌딩 2층
평택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52 (평택동) 신한은행빌딩 3층
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42 (수완동) 국선빌딩 2층
신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신당동) 신영빌딩 2층
논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7(논현동) 대용빌딩 1층
계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94 (작전동) 영화빌딩 4층
연희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3 (연희동) 은혜빌딩 1층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78 (옥동) 옥동빌딩 2층
울산남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신정동) 종하산업빌딩 2층
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6 신한은행 부산서면지점 사옥 7층
도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C동 4층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3층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신사동) 강남증권빌딩 1층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8 (의정부동) 신한은행빌딩 2층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고잔동) 웅신아트빌딩 5층
보라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3층
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3층
산본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72 (산본동) 신한은행빌딩 3층
삼성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4 (대치동) 세명빌딩 3층
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구로동) 뉴월드빌딩 3층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구서동) 금정타워 2층
시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5 (신매동) 동호빌딩 2층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17 (장항동) 허유재병원빌딩 2층
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7 (수내동) 흥국생명빌딩 3층
광화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내수동) 경희궁의아침4단지 3층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3 (북대동) 지웰시티몰 2층
강남중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서초동) 신덕빌딩 2층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1 (삼평동) 프라임스퀘어 3층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죽도동) 동양빌딩 1층

광고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삼각동) 신한은행 광고빌딩 1층
잠실신천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잠실동) 잠실트리지움상가 2층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3 (연수동) BYC 연수사옥 2층
대치센트레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07(대치동) 동부센트레빌상가 2층
신한PWM반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반포빌딩 12층
신한PWM서울파이낸스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 25층
신한PWM압구정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2 (신사동) 극동스포츠빌딩 2층
신한PWMPrivilege서울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 9층
신한PWM해운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상 가 9층
신한PWM압구정중앙센 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연주로 853 (신사동) 3층
신한PWM도곡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30길 39 (도곡동) SEI빌딩 7층
신한PWM태평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 2층
신한PWM스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0층
신한PWM목동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3 (목동) 서울이동통신빌딩 13층
신한PWMPrivilege강남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15층
신한PWM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25층
신한PWM잠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층
신한PWM여의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17층
신한PWM분당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정자동) 파크뷰오피스타워 21층
신한PWM강남대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12층
신한PWM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롯데호텔 16층
신한PWM방배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92 (방배동) 1~2층
신한PWM서초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서초동) 11,12층
신한PWM이촌동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93 (이촌동) 3,4층
신한PWM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5 (봉산동) 9층
신한PWM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4 (둔산동) 4층
신한PWM일산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장항동) 1311
신한PWM서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 (서교동) 4,5층
신한PWM분당중앙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6 (수내동) 3층
신한PWM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6
신한PWM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3 2층
평택PWM Lounge	경기 평택시 중앙로 52
종로PWM Loun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견지동) S&S빌딩 신한은행 종로금융 센터 내
성수동PWM Lounge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21 (성수동 2가) 신한은행 성수동 지점 내
경희궁PWM Lounge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광고영업부PWM Lounge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마포중앙PWM Lounge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2층
명동PWM Lounge	서울 중구 명동길 43
영업부PWM Lounge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의정부PWM Lounge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8
종로중앙PWM Lounge	서울 종로구 종로 180
과천PWM Lounge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1로 10
산본중앙PWM Lounge	경기 군포시 광정로 72
서여의도PWM Lounge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평촌PWM Lounge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
부산서면PWM Lounge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
울산PWM Lounge	울산 남구 삼산로 227

주1) 신한금융투자 지점에 방문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방문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콜센터	080-851-8282
홈페이지	https://www.hanwhawm.com

지역	지점명	주 소
서울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동주빌딩 1층
	강서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 비원빌딩 2층
	갤러리아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The트리니티빌딩 7층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1 청산빌딩 3층
	대치센트럴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동하빌딩 2층
	목동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트라펠리스 웨스턴에비뉴 3층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19 반포쇼피타운 8동 2층
	송파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운 서관 1층
	신촌지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3 캠퍼스프라자빌딩 1층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빌딩 1층
	올림픽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올림픽선수기자촌상가 1층
	이촌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8길 8 서울스튜디오빌딩 2층
	중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2층
	금융플라자 GFC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12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금융플라자63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생명빌딩 별관 1층
금융플라자시청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한화손해보험빌딩 2층	
인천/ 경기	과천지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 교보빌딩 2층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05 트리플타워에이동 2층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19 금화빌딩 2층
	송도IFEZ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 2층
	신갈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7 효진프라자빌딩 2층
	안성지점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45-8 YH빌딩 3층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노블레스빌딩 2층

	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한화생명빌딩 4층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2층
대전/ 충청	공주지점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20 은우빌딩 3층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층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2순환로 1240 MK빌딩 2층
	타임월드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9 타임월드백화점 업무동 3층
	홍성지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44번길 37, 중앙빌딩 2층
광주/ 전라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층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38 나운프라자 2층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 3층
	순천지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4 우리은행 2층
부산/ 울산/ 경남	거창지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11 현대빌딩 4층
	동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1 시온리버빌 2층
	마린시티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마리나센터 2층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25
	삼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2 한화손해보험빌딩 2층
	언양지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송강빌딩 1층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37번지 대구은행빌딩 6층
대구/ 경북	문경지점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로 6 KT빌딩 2층
	범어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3 요아킴빌딩 4층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국민연금대구회관 1층
	영주지점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32-1 동아빌딩 3층
	영천지점	경상북도 영천시 동문길 147 영동빌딩 2층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0 영진빌딩 1층
제주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07 1층

주1) 한화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방문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본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2 및 제 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1. 17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김 만 훈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이 한 기

(서명)

【 본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

사업위험

가. 셀트리온과 사업위험 등을 공유함에 따른 위험

당사의 계열회사인 셀트리온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 (mammalian cell-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의 개발 및 생산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 회사로서 셀트리온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여, 셀트리온과 당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및 여타 제약품에 대하여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사 고유의 사업위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마주하고 있는 사업위험 또한 일정부분 공유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등도 참고하여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리지널 의약품 및 여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의 경쟁 위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속해 있는 당사의 제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기타 기존 치료제와도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상업화가 되었거나, 향후 이용 가능한 여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와도 비슷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쟁의 심화는 당사가 판매 및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의 경쟁력이나 유용성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또는 유용성의 상실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정부 및 제3자 민간 보험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 관련 위험

EU, 미국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제3자 민간 보험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충분한 보장 및 보험급여를 획득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성공적인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시판이 어려워지고 당사의 매출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약가 인하 압박에 따른 재무적 위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경제적부담이 커짐에 따라 **약가 인하 압박의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2010년 3월 제정되는 등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수의 입법 노력이 이뤄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보건의료개혁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위축에 따른 위험

오리지널 의약품의 개량 버전이 원 개발사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투약법 또는 개선된 효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하고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잠재 시장을 잃게 되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불법 복제 및 미승인 판매채널에 따른 위험

당사의 브랜드 명으로 판매되는 불법복제 의약품 또는 도난 제품이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승인 판매채널을 통해 제3자가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가격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광범위한 약가 및 기타 시장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약가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약가 통제나 가격책정에 적용하는 규제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에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당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 제조 및 공급 관련 위험
(셀트리온과 전략적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의 계열사이자 단일 공급사인 셀트리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셀트리온의 개발,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당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승인 획득 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매입(환불 및 취소 불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제조하지 못하는 경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사는 여러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판매권부여기본계약 조건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및 조세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 별 부담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 간에 합의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자분할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그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단독적으로 매입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제품이 이전에 초기 안전재고를 매입할 경우, 재고자산 매입 이후 품목허가 승인 시점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판매시점의 시장 가격에 의해 당사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허가 승인의 지연 또는 거부 위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이나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 사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당사 제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당사에 공급한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 라벨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품목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품목허가 유지 요건에 대한 미준수 위험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도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판매, 광고, 판촉, 샘플링, 기록관리, 시판 후

회사위험

조사는 물론 안전성, 효능을 비롯한 기타 시판 후 정보 제출 등 미국 식품의약국 (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품목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이 제조, 생산, 품질관리, 판매과정 및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품목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품목허가 승인 유지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4)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 관련 위험

셀트리온이 임상 개발을 진행하거나 완료하기 이전 또는 시판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들의 안전성 및 약효와 관련한 엄격한 품목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를 위해 고비용의 오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을 위한 당사 및 셀트리온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지연에 따른 위험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경쟁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셀트리온과 당사가 신제품을 적시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적응증이 동일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당사보다 빨리 개발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현금흐름 및 영업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특허 소송 관련 위험

셀트리온과 당사는 현재 특허 소송들에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고 해당 소송에서 특허권자들은 당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바,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상당한 소송비용 및 부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판결 이전 또는 하급법원에서의 항소 판결 이전 다양한 법적 그리고 상업적 요인에 기반하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유럽 및 여타 시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셀트리온의 개발 및 생산 설비, 당사의 재고자산들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여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셀트리온 및 제3자 계약자에 대한 외주 관련 위험

당사는 당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셀트리온과 제3자의 완제공정, 라벨링 및 포장, 보관, 품질 검사, 부작용 모니터링 및 물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상표권 등 보호장치 관련 위험

당사는 상표권, 영업비밀 및 이 밖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제조와 관련된 노하우, 당사의 판매와 관련한 노하우 등 미등록 소유권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입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 적정 재고수준 유지 관련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공동개발자의 의무로서 보건당국별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셀트리온으로부터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일정 물량의 제품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매입수량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소 매입수량과 향후 당사의 시장 예측 및 셀트리온의 생산일정 등을 고려한 추가 매입수량을 더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사가 재고를 적정 수준보다 과잉 또는 과소 보유하거나 재고자산의 예상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당사의 역량은 향후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럽, 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성장률이나 매출규모가 당사가 예측한 바에 따라 실현될 지 여부, 그리고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불용 또는 평가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감리 조치결과에 따른 위험

2016년 5월 3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동사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6월 22일 현재 동 감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당사는 2015년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시 명목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관련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감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9일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의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수익 인식시기를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시점이 아닌 2017년 트룩시마의 공급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V' 단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감리결과 조치(주의)는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위험

당사 계열사 및 셀트리온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당사 간의 거래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동법에 따라 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제한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및 셀트리온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및 기타 관계회사와 이뤄진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셀트리온그룹 계열회사 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입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 등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사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계열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에 그 계열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제공하거나,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됨)에는 그 계열사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와 셀트리온의 거래 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외 셀트리온 등 8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기 계열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향후 당사와 상기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에 부칠 예정이며,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당시 보통주 시장가격 수준에 따라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 또는 교환 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큐어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사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케어 등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관련 사항은 해당회사에서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제한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 중 대부분은 Remsima® 와 Inflectr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제품 하나를 통해 창출되고 있으며,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을 시작으로 출시가 진행되고 있고,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당사의 경우, 핵심 제품 및 핵심 고객들에 대한 높은 당사의 의존도는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당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 의존 관계 따른 위험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판촉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판매구조 하에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및 영업역량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감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지출 등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직판 판매를 계획대로 확장하지 못하거나 여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 할 경우에도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제품 시장 수용성 미확보 및 마케팅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제품 허가를 득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의사, 병원, 약국, 환자 또는 제3자 보험자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품목허가 승인 이후 해당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시판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매출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위험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징은 특허 및 여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현재 특허 소송에 관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타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경쟁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배상책임, 사용금지가

처분, 비용증가, 신제품 개발 및 시판 상의 지연 등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차.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되는 특허 관련 위험

당사는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된 분자에 대한 중요 특허보호가 만료된 후에 제 3자의 유효하고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2차 특허(secondary patent)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제품 후보물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가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특허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허 관련성, 범위, 만료시점을 잘못 파악했을 경우, 당사의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 시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이해관계자 니즈 예측 및 대응에 따른 위험

당사 사업의 성공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품목허가 승인이나 허가를 적기에 획득하고,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이고시의 적절한방식으로 제조하며, 진화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당사 및 셀트리온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판촉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며, 제품 및 제품후보물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제품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감소 위험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 내에서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가격 정책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급사 및 대부분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마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는 약정 조건 하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불법행위 등의 관여에 따른 위험

당사, 당사 임직원, 주주, 중개인, 대리인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가 뇌물수수 방지법, 규제 기준 및 여타 요건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 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 처벌, 벌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 파트너사에 대한 제한적인 관리권한에 따른 위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당사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당사 제품 판매시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

우, 해당 제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시 당사의 평판, 매출 및 사업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재고자산 보관에 따른 제품 손상 위험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은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집니다. 제3자 판매업체 또는 장비 업체가 온도 통제와 관련하여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기간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손상되어 당사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전문 인력 유치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마케팅, 판매 및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사업 개발, 매출 증대 또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며,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판매망 미확보에 따른 위험

당사의 미래 성공 여부는 기존 판매망을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가 인수 및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당사의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할 수있으며, 추후 인수 또는 합작 투자 관련 여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수 또는 투자의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했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사업 전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

당사는 계약 면책조항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상의 법적 책임 제한 내용을 통해 소송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제품 및 기타 법적 책임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행정소송(governmental proceedings) 또는 기타 분쟁 등 우발채무의 영향을 받을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평판, 고객 유치 및 유지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 환율변동 위험

당사의 사업운영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은 여러 통화 간 환율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며, 유로화 및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평가절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 정보시스템 관련 위험

당사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분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손상, 사이버 공격 또는 네트워크 보안 침해 등 당사의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조세당국의 조치 위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한국 조세당국의 철저한 조사 대상입니다.
조세당국이 특수관계자와 당사 간의 거래가 독립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세무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교기업의 2016년 및 2017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상업화 단계 및 재무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기업(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금액 사용 재량권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 중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9,76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중 약 4,850억원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모금액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결정한 **공모금 용도에 대해 투자자가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심화된 규제 대상 위험

당사 보통주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국내의 다양한 금융 규제기관의 검토, 감독 및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환매청구권 미부여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본 기업공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②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 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 투자 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국 증권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 **보통주 투자금액의 시장가치는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세계 또는 지역 경제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한국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현재 사업 및 향후 성장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남북간의 긴장관계 고조는 당사 및 당사의 보통주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 증권관련 집단소송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 이해관계 상충 위험

당사 대주주 및 이사의 이해관계와 당사 또는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너. 상장 후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6,688,120주 중 29.03%에 해당하는 39,682,82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관투자자의 매도금지확약 기간 등이 종료 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상법 상 부여대상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상장 후 행사가능한 주식수는 2,814,967주 수준으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추가로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 미전환 전환사채 희석 위험

당사의 상장 이후 전환사채 행사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은 2,269,999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상장 이후에 해당 물량이 행사

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뿐만 아닌 추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의 주당 발행가격이 전환가격 미만인 경우, 보통주의 분할 및 병합, 보통주의 종류 변경 등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존재하여, 상장 후에도 추가적인 잠재 발행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영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버. 국가별 환율 변동 위험

당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또는 보통주 매각 시 수령하는 대금은 원화 대비 미달러화 등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pm 15\%$ 에서 $\pm 30\%$ 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 집행 불가능 가능성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해외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가간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 관련 규정의 상이 가능성

당사를 포함한 국내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관련 규정은 기타 국가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관련 규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처. 국가간 영업환경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위험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 등 국내 기업이 발행

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특히 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주당순자산가치 희석 위험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규상장 요건 미충족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 상장신청서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퍼.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예측을 토대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 공공매체를 통해 게재되는 정보의 오보 가능성

제3자가 공공매체를 통해 게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4,604,000	1,000	41,000	1,008,76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532,200	554,820,200,000	5,409,493,050	총액인수
공동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영업소)	기명식보통주	8,611,400	353,067,400,000	3,442,404,670	총액인수
인수	맥쿼리증권	기명식보통주	1,230,200	50,438,200,000	491,772,10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7.19 ~ 2017.07.20	2017.07.24	2017.07.19	2017.07.24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사업자금	976,616,208,900
차입금 상환	20,506,000,000
기타	-
발행제비용	11,641,791,1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24,604,000	1,000	41,000	1,008,76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532,200	554,820,200,000	5,409,493,050	총액인수
공동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영업소)	기명식보통주	8,611,400	353,067,400,000	3,442,404,670	총액인수
인수	맥쿼리증권	기명식보통주	1,230,200	50,438,200,000	491,772,10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15,100	25,219,100,000	245,886,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7.19 ~ 2017.07.20	2017.07.24	2017.07.19	2017.07.24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1일간)
 -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주5)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7년 7월 19일 ~ 20일 (2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16년 12월 2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7년 3월 1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7)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주8)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604,000주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 주1)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주2)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5.05%를 우선배정합니다.

【일반공모대상 배정내역】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41,000원	201,752,8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주	74.95%		756,044,1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3,360,900주	94.95%		957,796,9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기업공개가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주3)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23,360,900주	94.9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우선배정
합계	24,604,000주	10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4,920,800주	20.00%	41,000원	201,752,800,000원	-
기관투자자	18,440,100 주	74.95%		756,044,1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1,243,100주	5.05%		50,967,100,000원	우선배정
합계	24,604,000 주	100.00%		1,008,764,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배정대상
주1)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13,532,200 주	55.0%	41,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포함)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영업 소)	8,611,400 주	35.0%		
	인수회사	맥쿼리증권	1,230,200 주	5.0%		
		신한금융투자	615,100주	2.5%		
		한화투자증권	615,100주	2.5%		
	합계		24,604,000 주	100.0%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1,243,100주(5.05%)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인수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맥쿼리증권(주)는 당해 증권회사의 특성상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3)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4,510,734주	41,000원	184,940,094,000원	-
인수회사	신한금융투자	205,033주		8,406,353,000원	
	한화투자증권	205,033주		8,406,353,000원	
합계		4,920,800주		201,752,800,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주5)

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증권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파악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 일 것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또는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배정방법" 부분 참조)합니다.
- 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백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다. 매출의 방법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격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격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격	41,000원
확정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격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격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에게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상기 희망공모가격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격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	내용	비고
공고 일시	2017년 7월 3일(월)	-
기업 IR	2017년 6월 26일(월) ~ 2017년 7월 14일(금)	-
수요예측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 2017년 7월 14일(금)	-
공모가액 확정공고	2017년 7월 17일(월)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기간은 2017년 7월 3일 ~ 7월 14일이며,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외 모두 한국시간기준 2017년 7월 14일 오후 5시 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1.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 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임을 파악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24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01월 0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대우(주)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대우(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miraeassetdaewoo.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 (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 주1) 미청약, 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 주2)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주3)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횟수를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 주4) 의무보유 확약위반 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	-----	----

기관투자자	18,440,100주	74.95%
-------	-------------	--------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을 포함합니다.
-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4,604,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4,920,800주(20.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243,100주(5.05%)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8,440,100주 (기관배정수량)중 적은 수량	1,000주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 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
- 주1) 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8,440,1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	내용
수량단위	100주
가격단위	100원

- 주1)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7년 7월 14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주)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

- ① 홈페이지 접속: 'www.miraeassetdaewoo.com' 접속 → banking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대우(주)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

-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 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 (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통 서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집합투자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상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약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코빅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약약서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3부.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 3.수요예측 실시 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주)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8,440,1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미래에셋대우(주) Global Equity Sales팀을 통한 서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우편, 유선, E-mail 및 Fax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7년 7월 14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가능합니다. Fax 등으로 접수한 투자자는 Global Equity Sales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Fax
변앤드류	02-3774-3796	andrew.byun@miraeasset.com	0505-085-3796
손제호	02-3774-3799	jeho.son@miraeasset.com	0505-085-3796

【서면 접수 방법】 (해외 기관투자자만 해당)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주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3부.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 3.수요예측 실시 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주)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배 정수량인 18,440,1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

물리적 시간 및 공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해외IR 기간(2017년 7월 3일 ~ 2017년 7월 14일) 중 인편, 우편, 유선, E-Mail, FAX 등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장소	접수일시	문의처
------	------	-----

미래에셋대우 (주1)	2017년 7월 3일(월) ~ 2017년 7월 14일(금) 17:00	02-3774-7155 02-3774-7156 02-3774-7191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주2)	2017년 7월 3일(월) ~ 2017년 7월 14일(금) 17:00	02-3702-8744

주1)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7년 7월 13일(목) ~ 7월 14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및 미래에셋대우(주) IPO1팀 (16층)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16층 IPO1팀
TEL	02) 3774-7155, 7156, 7191
FAX	02) 3774-8399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7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대우(주)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접수방법	서면(우편/인편/E-mail 등)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TEL	02) 3774-3796, 3799
FAX	02) 0505-085-3796

주2)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7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접수방법	서면(우편/인편/E-mail/Fax 등)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2층

TEL	02) 3702-8744
FAX	02) 3702-8788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수요예측참여자 중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약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대우(주) 「www.miraeassetdaewoo.com ⇒ banking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IPO1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

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약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약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www.miraeassetdaewoo.com → बैं킹 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담당 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물량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8,440,1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8,440,1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주4)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주) 「www.miraeassetdaewoo.com ⇒ बैं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을 접수한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해 배정물량이 통보됩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05	14	61	218	75	88	561
수량	246,700,900	30,222,700	103,206,600	182,344,600	102,278,352	37,119,200	701,872,352
경쟁률	13.38 : 1	1.64 : 1	5.60 : 1	9.89 : 1	5.55 : 1	2.01 : 1	38.06 : 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1	101,000	-	-	1	2,300,000	3	200,500	-	-	-	-	5	2,601,50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69	241,786,900	7	28,499,700	30	98,709,400	92	159,620,700	71	102,212,805	17	36,000	286	630,865,505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1	5,000	-	-	-	-	-	-	1	5,000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1	30,000	1	13,000	1	4,000	4	19,000	-	-	13	121,000	20	187,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3	2,142,200	2	1,627,000	4	532,000	20	1,938,500	-	-	15	15,000	54	6,254,7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1	74,000	1	2,000	-	-	2	8,000	-	-	5	5,000	9	89,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2	43,000	-	-	3	12,000	11	162,500	-	-	-	-	16	217,5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8	2,523,800	3	81,000	19	396,200	80	1,895,400	4	65,547	37	36,941,200	161	41,903,147
밴드하단미만	-	-	-	-	1	1,000	4	38,000	-	-	1	1,000	6	38,000
미제시	-	-	-	-	1	1,247,000	2	18,464,000	-	-	-	-	3	19,711,000
합계	105	246,700,900	14	30,222,700	61	103,206,600	218	182,344,600	75	102,278,352	88	37,119,200	561	701,872,35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41,000원 초과	5	2,601,500	0.37%
41,000원	285	630,862,505	89.88%
32,500원 이상 ~ 41,000원 미만	104	6,839,200	0.97%
32,500원	158	41,820,147	5.96%
32,500원 미만	6	38,000	0.01%
가격미제시	3	19,711,000	2.81%
합계	561	701,872,352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구분	신청수량(주)	비고
6개월 확약	2,952,000	-
3개월 확약	25,653,800	-
1개월 확약	40,168,290	-
15일 확약	18,688,100	-
합계	87,462,190	-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12.5%	-

주) 상기의 확약 신청수량은 수요예측 참여결과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배정내역은 이와는 상이합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1,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4,604,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주1)	예정가액	32,500원	
	확정가액	41,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799,630,000,000원	
	확정가액	1,008,764,00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19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7월 19일
		종료일	2017년 7월 20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7년 7월 24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1)

청약단위

- 주2)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금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물량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 주3)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 주4)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용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 주5)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②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③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④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 · 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⑤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 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일자	신문
수요예측 안내공고	2017년 7월 3일(월)	인터넷 공고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	2017년 7월 17일(월)	인터넷 공고
청약공고	2017년 7월 19일(수)	매일경제신문
배정공고	2017년 7월 24일(월)	인터넷 공고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7년 7월 3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7년 7월 17일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17년 7월 19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되는 청약공고 시 함께 공고합니다.
-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7년 7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인수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및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일반 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17년 7월 2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이나 추가 청약을 접수하는 당해 증권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사무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주) 본·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30% (선배정)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1억원 이상 고객 (주식형상품 5천만원 이상) ② 개인연금저축 : 청약 직전월 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천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0원
일반	100%	70%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고객 ② 급여이체 :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한 고객 ③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 약정된 계좌에 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입금한 고객 ④ 신규고객 : 청약월 직전 3개월내 당사 최초 신규고객 (고객단위) ⑤ 개인연금저축 : 자동대체, CMS자동이체로 청약월 직 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또는 청약 직전월 평잔 1백만원 이상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백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건당 5,000원 온라인 0원
자격 미충족 고객	일반 그룹 50%	-	청약자격 기준없음 * 일반 청약자격 한도의 50%까지만 청약신청 가능함 * 온라인청약 및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영업점에서는 청약불가)	50%	온라인 0원 유선 5,000원

주1) 개인연금저축기준

- ① 개인연금저축 미평가 자산 : IRP, 퇴직연금, MMF, 예수금
- ② 수익증권 잔고는 결제일 기준 평가금액
- ③ 타사 개인연금 이전고객에 대해서는 그룹별 최초 1회 기준 개인연금 보유잔고와 합산하여 말잔으로 평가
- ④ 개인연금 이전 고객의 경우 청약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연금 이전 해당월 최초 1회만 말잔 반영됨
- 주2) 급여이체 조건 /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약정 관련 가입조건은 개인고객만 가능
- 주3) 자산합계 평잔, 주식형상품 평잔은 고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주4)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 홈페이지, MTS, ARS)청약과,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함. 온라인청약을 위해 사전에 전자거래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 주5) 우대그룹 / 온라인 청약고객 / 법인고객은 청약 수수료 면제 (고객등급과는 무관)
- 주6) 추가납입 미청약 고객의 다음 회차 청약시 청약증거금 100% 적용
우대그룹 배정 : 당사 공모주수의 30% 선배정
※ 우대그룹 배정주수 : ① + ②
- 주7) ① 우대그룹 공모주수 경쟁 배정
② 우대그룹 경쟁률 1:1 초과시 미배정 청약주수는 일반그룹 청약경쟁 배정
- 주8) 법인 고객 : 개인과 청약자격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 우대그룹은 청약한도만 200%를 적용하며, 일반그룹 경쟁으로 배정됨(우대그룹 30% 선배정 없음)

【신한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구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일 현재 청약가능한 당사 위탁 계좌 보유 고객 (청약 종료까지 계좌 개설 후 청약 가능. 단, 신한은행 FNA 계좌 및 제휴 은행 계좌는 청약 당일 당해 은행 업무 시간 내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청약수수료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프리미어</th> <th style="text-align: center;">에이스</th> <th style="text-align: center;">베스트</th> <th style="text-align: center;">클래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점내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r> </tbody> </table> - 신한 Tops Club은 6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0억원 이상, 에이스: 총자산 5억원 이상, 베스트: 총자산 1억원 이상, 클래식: 총자산 3,000만원 이상) -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500원	2,500원	지점내방	면제	면제	면제	1,500원	5,000원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500원	2,500원														
지점내방	면제	면제	면제	1,500원	5,000원														
청약채널 구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점내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HTS/WEB/ARS/스마트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지점내방	○	온라인(HTS/WEB/ARS/스마트폰)	○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X										
구분	내용																		
지점내방	○																		
온라인(HTS/WEB/ARS/스마트폰)	○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X																		

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에 대하여 우량고객(프리미어, 에이스 고객) 원배정수량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그 수량은 원배정수량의 1배를 초과하지 않음. 그 후에도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프리미어, 에이스 고객이 아닌 고객 중 최대 청약자의 내림순으로 1주씩 배정함.이후에 발생하는 잔여주식이 동일 청약수량 고객수를 미달할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서 배정함
----------------	--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구분	Off-line 청약 (영업점/고객지원센터 청약)	On-line 청약 (Web/HTS/ARS/MTS 청약)																				
청약자격	청약 초일의 전월로부터 소급한 3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3천만원 이상 고객 중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위탁계좌를 보유한 고객	청약자격 제한 없음																				
청약수수료	-고객 등급별 수수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Platinum 등급</td><td>면제</td></tr> <tr><td>VIP 등급</td><td>면제</td></tr> <tr><td>Gold 등급</td><td>5,000원</td></tr> <tr><td>Family 등급</td><td>5,000원</td></tr> <tr><td>일반</td><td>5,000원</td></tr> </table>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5,000원	Family 등급	5,000원	일반	5,000원	-고객 등급별 수수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Platinum 등급</td><td>면제</td></tr> <tr><td>VIP 등급</td><td>면제</td></tr> <tr><td>Gold 등급</td><td>1,000원</td></tr> <tr><td>Family 등급</td><td>1,000원</td></tr> <tr><td>일반</td><td>1,000원</td></tr> </table>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1,000원	Family 등급	1,000원	일반	1,000원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5,000원																					
Family 등급	5,000원																					
일반	5,000원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1,000원																					
Family 등급	1,000원																					
일반	1,000원																					
청약수수료 면제조건	고객등급 VIP 등급, Platinum 등급																					
청약한도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미만 고객 100%																					
청약한도 우대 조건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 고객 150%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5억원 이상 고객 200%																					
기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예탁자산의 잔고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평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수금</td> <td>당일마감잔고 - 현금미수/이자미납/기타대여/신용융자금은 차감 - 권리대용금은 미평가</td> </tr> <tr> <td>장내주식, ELW, ETF, 신주인수권, 해외주식</td> <td>당일종가</td> </tr> <tr> <td>수익증권</td> <td>매매기준가</td> </tr> <tr> <td>RP</td> <td>매입금액 잔액 (이자 제외)</td> </tr> <tr> <td>채권(장내/장외)</td> <td>액면가액</td> </tr> <tr> <td>신탁</td> <td>신탁계약 평가금액</td> </tr> <tr> <td>장외파생</td> <td>ELS/DLS 잔고금액</td> </tr> </tbody> </table> <p>(* 선물, 옵션, 제3시장주식, 장외주식 실적인 제외)</p>		구분	평가기준	예수금	당일마감잔고 - 현금미수/이자미납/기타대여/신용융자금은 차감 - 권리대용금은 미평가	장내주식, ELW, ETF, 신주인수권, 해외주식	당일종가	수익증권	매매기준가	RP	매입금액 잔액 (이자 제외)	채권(장내/장외)	액면가액	신탁	신탁계약 평가금액	장외파생	ELS/DLS 잔고금액				
구분	평가기준																					
예수금	당일마감잔고 - 현금미수/이자미납/기타대여/신용융자금은 차감 - 권리대용금은 미평가																					
장내주식, ELW, ETF, 신주인수권, 해외주식	당일종가																					
수익증권	매매기준가																					
RP	매입금액 잔액 (이자 제외)																					
채권(장내/장외)	액면가액																					
신탁	신탁계약 평가금액																					
장외파생	ELS/DLS 잔고금액																					

- 주1) 온라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주2) 한화투자증권(주)는 3개월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에게 우대한도를 적용합니다.
- 주3) 청약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지점/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 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을】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을
미래에셋대우(주)	4,510,734주	주1)	주2)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50,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5,000주 (10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한도 : 112,500주

주1)

(일반그룹 최고 청약한도의 5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50%
- 일반그룹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5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50%

주2)

(단,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 홈페이지, ARS)청약과 고객센터(스마트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1,000주
50,000주 초과 ~ 150,000주 이하	2,500주
150,000주 초과 ~ 450,000주 이하	5,000주

【 신한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신한금융투자(주)	205,033주	20,000주	50%

【 신한금융투자(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	205,033주	20,000주	50%

【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6)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①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7년 7월 19일 ~ 7월 20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 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7년 7월 19일 ~ 7월 20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접수한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에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공모주식의 5.05%(1,243,1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74.95%(18,440,100주)를 배정합니다.
- ③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4,920,800주)를 배정합니다.
- ④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금액으로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주)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 ③ 일반청약자의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이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자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 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01월 0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단, 6개월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 가능, 창업투자회사는 일반청약자로서 청약시 배정가능)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7년 7월 24일(월) 일반청약사무처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및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연고자 등, (iii)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iv)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대우(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주) 본·지점 2)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대우(주) 본·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대우(주)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신한금융투자(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HTS/홈페이지/ 스마트폰 청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	영업점 내방 및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다운로드) 후 청약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 내방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홈페이지 청 약	한화투자증권(주)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인터넷뱅킹 ⇒ 청약 ⇒ 청약신청/취소 ⇒ 청약신청 ⇒ 청약구분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함. 1) 다운로드, 2) e-mail수신, 3)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 약정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에서 해당 증권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주) 본·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 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17년 7월 24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7월 2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7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1센터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공고합니다.
-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 ③ 상기 ②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6년 12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3월 14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주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3,532,200주	총액인수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2층	8,611,400주	총액인수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소공동한화빌딩 3층	1,230,200주	총액인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615,100주	총액인수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615,100주	총액인수
합계		24,604,000주	-

주)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총액인수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5,409,493,050	-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3,442,404,670	
	맥쿼리증권 주식회사	491,772,1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45,886,040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45,886,040	
	합계	9,835,441,900	

주1) 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하는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금액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인수회사인 맥쿼리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화투자증권(주)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이후 180일(당일포함)까지, 발행회사, 어떠한 그 계열회사 및 이들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어떠한 자도 인수단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주식 또는 발행회사의 기타주식 또는 본 주식내지 발행회사의 기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공모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거나, 매도계약하거나, 어떠한 옵션, 권리, 워런트 또는 매수계약을 매도 또는 부여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옵션 또는 매도계약을 매수하거나, 대여하거나, 달리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B) 위 (A) 또는 (B)에 기재된 해당거래가 본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교부, 현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결제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주식 또는 발행회사의 기타 주식의 소유권의 경제적 결과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스왑, 기타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또는 (C) 해당 거래를 실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도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합니다. 다만, 전술 규정은 (a) 인수계약에 의한 본건 주식의 매도, (b)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본건 주식의 매도 또는 처분, (c) Hospira, Inc.가 보유하는 기존 전환사채의 그 발행조건에 따른 보통주 전환, 또는 (d) 기존 스톡옵션 일정에 따른 발행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스톡옵션의 제공 및 이러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그 소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중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text{조정가격} = \text{공모가격의 } 90\% \times [1.1 + (\text{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text{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div \text{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과 사업위험 등을 공유함에 따른 위험

당사의 계열회사인 셀트리온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mammalian cell-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의 개발 및 생산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 회사로서 셀트리온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여, 셀트리온과 당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및 여타 제약품에 대하여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사 고유의 사업위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마주하고 있는 사업위험 또한 일정부분 공유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등도 참고하여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인 셀트리온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mammalian cell-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를 개발, 생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고급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 설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그 동안 단백질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및 미국 FDA 등, 선진국 기준의 인증 설비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종합 생명공학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의 선도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다국적 제약사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 회사로서 셀트리온과 2008년 8월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여, 당사는 셀트리온이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게 될 또는 당사와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 하였거나 개발하게 될 모든 바이오시밀러 및 여타 제약품에 대하여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회사위험 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셀트리온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하여 당사는 당사 고유의 사업위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마주하고 있는 사업위험 또한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현황 및 전망 등도 참고하여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리지널 의약품 및 여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의 경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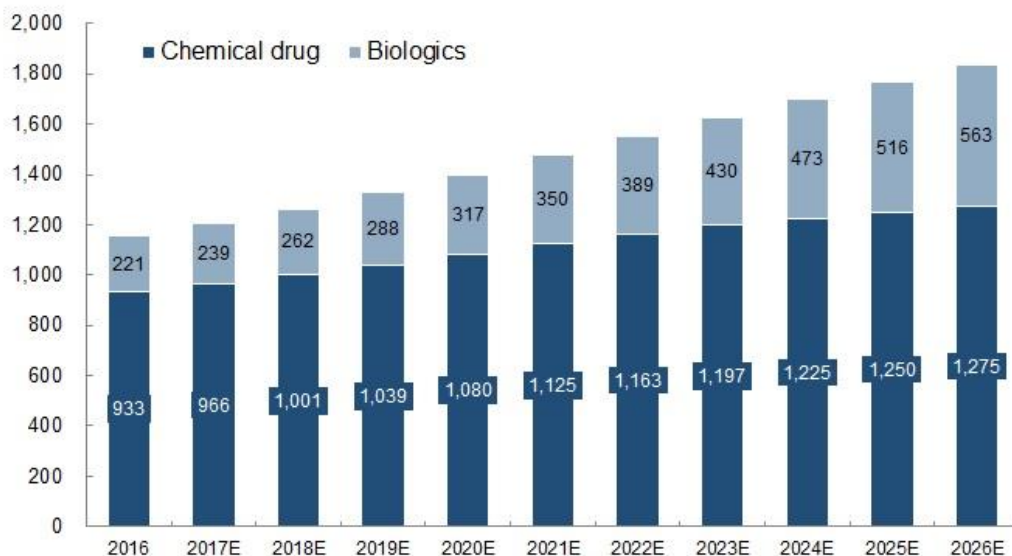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속해 있는 당사의 제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기타 기존 치료제와도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상업화가 되었거나, 향후 이용 가능한 여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와도 비슷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쟁의 심화는 당사가 판매 및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또는 제품 후보 물질의 경쟁력이나 유용성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또는 유용성의 상실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약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 연구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해 규모와 수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 2016년 1조 1,536억 달러에서 연평균 4.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1조 8,3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제약시장은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 등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저분자 제제)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저분자 제제를 가리킵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고분자 제제)의 활성 치료 성분은 크고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살아있는 세포/생체에서 생성 또는 추출된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여러 부분에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각각 약 9,328억 달러와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3.2% 및 9.8%로 성장하여 2026년 1조 2,755억 달러 및 5,6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약 19%에서 2026년 약 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2026년 세계 제약시장 예상규모(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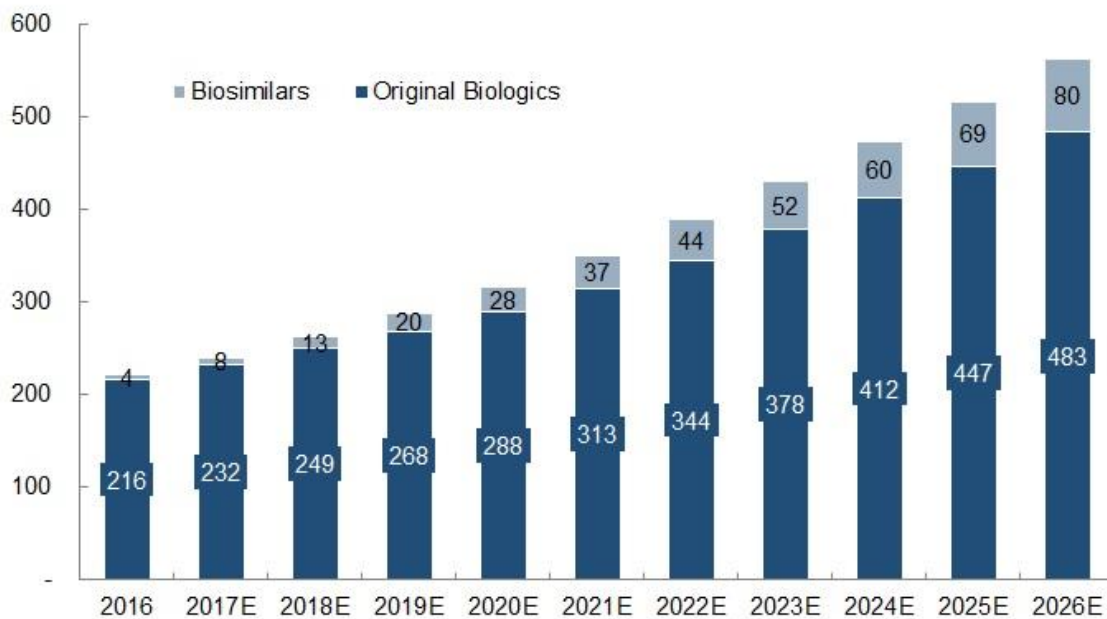
(1)글로벌의약품 시장 전망자료: Frost & Sullivan

최근 세계 제약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의 가계 가치분 소득의 꾸준한 증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특수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약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제약 시장 전체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약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9.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5,62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세계 바이오의약품 전체 시장의 대부분인 9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바이오시밀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2)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자료: Frost & Sullivan

당사가 속한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며, 산업의 핵심 경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 제품 후보물질의 성공적 개발을 완수하는 역량
- 제품의 안전성, 효능, 독성, 내성, 교차내성 및 투여량 프로파일

-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승인 시점 및 범위, 경쟁 제품과 일반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보험급여율 및 평균 판매가
- 원자재의 이용가능성 및 제조역량
- 제조 비용
- 특허권 및 특허보호 등 지적 재산 확립 및 유지
- 영업 및 마케팅 역량

당사의 제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이외의 기존 치료제와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업화 되었거나, 향후 이용 가능한 여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와도 비슷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infliximab), 리툽시맵(rituximab), 트라스투즈맵(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와 여타 당사 파이프라인상의 제품들의 경우, 기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허 관련 독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 개발사들 또한 보건당국의 승인을 획득하여 오리지널 제품을 바이오시밀러 승인 제품으로서 판촉하며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의 원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계열사를 통해, 또는 마케팅 파트너사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로서 승인 받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매출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사 중에는 Johnson & Johnson, Roche, Amgen, Merck 등 대형 제약사 및 바이오 제약사들이 포함됩니다. 오랜 사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대형 경쟁사들이 시판 또는 임상개발 중인 제품들은 당사의 인플릭시맵, 리툽시맵,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및 제품 후보물질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탐색, 비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의 설계 및 수행, 과도규제환경에서의 사업운영,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 판촉 및 판매 측면에서, 이들 경쟁사들은 당사 및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폭넓은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및 셀트리온보다 역량 및 경험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타 글로벌 제약사들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지 또는 지역 시장에서 (한국, 인도, 중국 포함) 당사 제품과 경쟁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국내 규제기관에게 승인을 득한 건들도 있으며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들 경쟁사들이 당사보다 더 성공적으로 제품 후보물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국(EMA), 또는 여타 규제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장에서 더 좋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의약품과 비교하여 경쟁사 제품들이 더욱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적고, 투여방식은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내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더욱 효과적으로 판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의 신약 또는 의약품군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이 성공적으로 시판 되기도 전에 경쟁력이나 유용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및 의약품군이 시장에 소개되고 기술 진보 또는 새로운 완제의약품이 시판됨에 따라 당사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리툽시맵,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또는 제품 후보물질이 기존 완제의약품, 신약 대비 경쟁우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주력제품에 대한 주요 경쟁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당사는 글로벌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세계 최초로 진입한 퍼스트무버(First Mover)이자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2016년 12월)한 기업으로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에서 경쟁사 대비 선도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는 제품은 Johnson & Johnson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Remicade에 대한 특허 보유) 및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한국에서는 2016년 7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16년 8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10월 일본에서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Aprogen 제품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Pfizer는 17년 5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마쳤고, Pfizer에게서 유럽에서의 개발/상업화 권한을 인수한 Sandoz는 17년 5월 EMA에 품목허가를 제출했습니다. Epirus 및 Amgen은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

당사는 유럽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최초로 품목허가 승인(2017년 2월)받고 최초로 출시(2017년 4월)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경쟁사 대비 선도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는 제품은 Biogen Idec (당사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Rituxan®/MabThera® 특허보유) 및 Sandoz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Sandoz의 경우, 2016년 5월 유럽 의약국(EMA)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4월 CHMP으로부터 허가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의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Biocad, Pfizer 및 Amgen과 현재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Merck 및 Gedeon Richter가 개발한 제품들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은 Genentech Inc. (당사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Herceptin 특허 보유), Mylan 및 Biocon,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Mylan 및 Biocon의 경우, 공동 개발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유럽의약국(EMA)에는 2016년 8월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는 2016년 11월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2016년 9월 유럽의약국(EMA)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Amgen 및 Allergan이 공동 개발하여 현재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이들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제품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특허가 만료되면 당사 또한 타사와 유사한 시기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나, 당사가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리툽시맵,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나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후보 물질이 타사 물질과 경쟁하는 동안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장점유율, 매출 또는 매출총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타사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는 경우 당사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점유율, 매출, 수익성

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경쟁 제품과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사업전망, 재무상태,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정부 및 제3자 민간 보험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 관련 위험

EU, 미국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제3자 민간 보험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충분한 보장 및 보험급여를 획득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성공적인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시판이 어려워지고 당사의 매출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미국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 및 제3자 민간 보험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보장 및 보험급여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당사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의 수익 실현을 위해 충분한 가격이 책정되어 유지될 만큼 보험 급여 승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승인 제품에 대한 제3자의 보장 및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신약과 신규 바이오의약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급여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민간 보험자를 포함한 제3자 보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말기 신장질환을 앓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주마다 상이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민간 보험자 및 여타 정부 보험자들이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보장 및 보험급여 관련 정책을 확립함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이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보장 및 보험급여 관련 제3자 보험자의 결정사항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3자 보험자들 간에 공유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일관된 보장 및 보험급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 별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보장 및 보험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에 유리한 보장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보험자 별로 당사 제품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그리고 임상적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최종적인 보장 및 충분한 보험급여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 약가 인하 압박에 따른 재무적 위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약가 인하 압박의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2010년 3월 제정되는 등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수의 입법 노력이 이뤄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보건의료개혁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수의 입법 노력이 이

뤘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지출 절감 또는 증가 억제, 불법행위 및 남용 방지책 개선,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업계에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 적용, 보건 산업을 대상으로 세금 및 수수료 신규 부과 및 추가적인 건강정책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2010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Medicaid Drug Rebate Program)은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최소 리베이트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조사의 리베이트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출하가(average manufacturer price)"의 정의를 수정하였는데, 이 또한 제조사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메디케이드 의약품의 리베이트 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또한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를 확대하고 특정 의약품의 리베이트 금액 증가를 위해 신규 제제에 대한 새로운 리베이트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개혁법은 2011년부터 브랜드 처방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연간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도넛 홀(donut hole)"이라 불리는 메디케이드 파트D의 처방약 보험공백기간(coverage gap)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기입한 처방약 가격에서 50% 할인을 제공하도록 제조사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특히 메디케어 프로그램 하에서 지속적인 가격인하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며 당사의 규제 준수 부담 및 운영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기관이 주정부, 개인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조항 또는 요건의 실행을 면제, 보류 또는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하원은 의회 위원회들에게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내용들을 폐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예산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017년 5월 4일, 하원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부분을 폐지하고 대체한다는 입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이 입법안은 상원에 부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보건의료 관련 추가 조치들이 도입되면 보건의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급금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수요 감소 또는 추가적인 가격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위축에 따른 위험

오리지널 의약품의 개량 버전이 원 개발사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투약법 또는 개선된 효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하고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잠재 시장을 잃게 되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사가 라이프사이클 연장 전략의 일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개량된 버전을 개발하고 관련 보건당국에 신규 또는 보충적 품목허가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개량된 바이오의약품 승인을 획득하게 된다면 해당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 시장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량된 의약품은 추가적인 특허권의 보호를 받아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특허 침해 주장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투약법과 개선된 효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진보하고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또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후보물질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는 신규 의약품이 승인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아예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 당사 또한 제품 후보물질의 잠재 시장을 잃게 되며 제품 파이프라인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기 언급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 불법 복제 및 미승인 판매채널에 따른 위험

당사의 브랜드 명으로 판매되는 불법복제 의약품 또는 도난 제품이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승인 판매채널을 통해 제3자가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준수하는 엄격한 제조 및 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법복제 의약품을 제3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 의약품을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브랜드 명으로 판매되는 불법복제 의약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 및 사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나 공장으로부터 또는 운송 중에 재고자산이 도난된 이후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승인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환자의 안전과 당사의 평판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가격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광범위한 약가 및 기타 시장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약가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약가 통제나 가격 책정에 적용하는 규제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에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당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제약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광범위한 약가 및 기타 시장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 책정 또한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제품 시판이 승인된 이후에도 정부 당국과의 가격 책정 협상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 책정 수준 또한 현지 수준 및 보험급여 제도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바이오시밀러 이외의 신약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또는 가격 책정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여타 가용한 치료제 대비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의 비용효과성을 대조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범위 혹은 금액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거나,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서 책정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및 기타 국가들에서 의료비 증가억제(cost-containment) 이니셔티브가 점점 더 강조되면서 의약품의 가격책정과 사용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아 왔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같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의약품 가격은 국가보건제도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약가 규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 스스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에서도 회사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합니다. 추가적인 약가 통제나 가격책정에 적용하는 규제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에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당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 제조 및 공급 관련 위험 (셀트리온과 전략적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의 계열사이자 단일 공급사인 셀트리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셀트리온의 개발,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당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승인 획득 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매입(환불 및 취소 불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제조하지 못하는 경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사는 여러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판매권부여기본계약조건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및 조세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 별 부담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 간에 합의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자 분할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그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단독적으로 매입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제품허가 이전에 초기 안전재고를 매입할 경우, 재고자산 매입 이후 품목허가 승인 시점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판매시점의 시장 가격에 의해 당사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허가 승인의 지연 또는 거부 위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이나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 사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당사 제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당사에 공급한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 라벨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품목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품목허가 유지 요건에 대한 미준수 위험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도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판매, 광고, 판촉, 샘플링, 기록관리, 시판 후 조사는 물론 안전성, 효능을 비롯한 기타 시판 후 정보 제출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품목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이 제조, 생산, 품질관리, 판매과정 및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품목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품목허가 승인 유지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4)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 관련 위험

셀트리온이 임상 개발을 진행하거나 완료하기 이전 또는 시판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들의 안전성 및 약효와 관련한 엄격한 품목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를 위해 고비용의 오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을 위한 당사 및 셀트리온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 지연에 따른 위험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경쟁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셀트리온과 당사가 신제품을 적시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적응증이 동일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당사보다 빨리 개발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현금흐름 및 영업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특허 소송 관련 위험

셀트리온과 당사는 현재 특허 소송들에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고 해당 소송에서 특허권자들은 당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바,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상당한 소송비용 및 부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판결 이전 또는 하급법원에서의 항소 판결 이전 다양한 법적 그리고 상업적 요인에 기반하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유럽 및 여타 시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셀트리온의 개발 및 생산 설비, 당사의 재고자산들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여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셀트리온 및 제3자 계약자에 대한 외주 관련 위험

당사는 당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셀트리온과 제3자의 완제품, 라벨링 및 포장, 보관, 품질 검사,

부작용 모니터링 및 물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상표권 등 보호장치 관련 위험

당사는 상표권, 영업비밀 및 이 밖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제조와 관련된 노하우, 당사의 판매와 관련한 노하우 등 미등록 소유권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입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승인 획득 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매입(환불 및 취소 불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제조하지 못하는 경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사는 여러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판매권부여기본계약조건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및 조세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 별 부담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 간에 합의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자 분할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그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단독적으로 매입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제품허가 이전에 초기 안전재고를 매입할 경우, 재고자산 매입 이후 품목허가 승인 시점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판매시점의 시장 가격에 의해 당사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모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당사의 계열사이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단일 공급사인 셀트리온의 활동은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당사를 통해서만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관계를 가집니다. 당사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재고자산(차변)"와 "매입채무(대변)"으로 반영하고 이 원료의약품을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글로벌 마케팅 및 파트너 회사의 주문에 따라 선적시기를 고려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추가가공(Fill&Finish)을 수행하는 시점에 "지급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며 완제의약품(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 회사(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재료비" 등 매입원가와 "지급수수료" 등 완제의약품 전환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고려한 "매출원가"가 발생합니다. 당사는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당사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들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품(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하는 셀트리온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셀트리온에서 진행 중인 비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

협 결과가 당사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의 지속적 개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의 여부, 또는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여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의 개발 추진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당사의 모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제조하며 당분간은 당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단일 제조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셀트리온의 제조 일정 또는 공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당사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제조하지 못하거나 제품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는 2024년 6월까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전달 하지 않는 이상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됩니다. 이로써 당사는 공동 개발자로서, 2024년 6월까지 셀트리온과 당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및 여타 제약품을 판매하는 독점적 권한(서브라이센스 권리 포함)을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매출의 상당 부분은 당사에게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통해 창출됩니다.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관계가 상호 유익한 관계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자체적으로 마케팅 및 판매 역량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셀트리온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상호 유익하고 상호보완적일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셀트리온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이나 제품 공급 약정이 어떤 사유에서든 종료 또는 재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다른 공급자를 통해 제품을 소싱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가 셀트리온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또는 이를 대체하여 신제품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자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판매권부여기본계약 상 핵심 계약조건 】

구분	내용
계약조건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전달 하지 않는 이상 5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제품	셀트리온이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게 될 또는 당사와 셀트리온이 공동개발 하였거나 개발하게 될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바이오시밀러, 제 3자 협력제품 및 신약에 적용됩니다.
판매권	당사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이 적용되는 제품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위탁판매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 조건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 별 부담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 간에 합의한 이익분할 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자 분할 하여 할당합니다.

초기안전재고	당사는 공동개발자의 의무로서 보건당국별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일정 물량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바이오시밀러 제품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매입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물량은 제품 개발 상황, 품목허가 신청 현황 및 시장조건등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셀트리온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매입물량은 해당 제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개발비용	제3자협력제품 및 신약에 대한 3상 비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이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이외의 제품 개발비용은 셀트리온이 부담합니다.
판매 예측자료	당사는 상업적 판매를 개시하기 전 24개월 이전에 24개월 동안의 판매예측자료를 셀트리온에게 제출하고 6개월 마다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따라 판매예측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초 6개월 분의 판매량에 해당하는 제품을 매입해야 합니다.
지적재산의 사용	셀트리온은 특허, 노하우, 상표권 및 브랜드 등 당사 제품과 관련한 지적재산을 소유합니다.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당사는 제품과 관련한 셀트리온의 상표권 및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종결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셀트리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중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의 종결 가능성 또한 포함됩니다.

주1) 당사는 이러한 이익분할비율이 다국적 기업 및 조세 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상 시장가, 양측이 부담하는 예상 비용, 시장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매권부여기본계약조건에 따라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매입가격을 매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당사 및 셀트리온은 매입가격을 매년 논의하고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분기마다 모니터링 하기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설립 하였습니다. 이익분할비율은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합니다. 혁신적 바이오신약의 경우, 각 제품별 공급계약을 통해 이익분할비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공동개발사인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제품별로 일정 물량의 초기안전재고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가 초기안전재고를 위해 지급한 매입금은 품목허가 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셀트리온과 개발위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초기안전재고의 물량 및 보유기간은 당사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특정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제품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진행상황 및 시장환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사는 적절한 재고 물량 및 보유기간을 수시로 재평가하여 재고자산 수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상당한 재고물량을 예상보다 오랜 기간 보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유방암에 대한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치료 가능성을 임상시험에 포함하는 경우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상시험 설계를 변경하면서 품목허가 승인 과정이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단일 공급자인 셀트리온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이익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당사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합당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약정 조건이 향후 언제나 당사에게 합당하고 공평하게 유지될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조건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및 조세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 별 부담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 간에 합의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자 분할하여 할당합니다. 예상시장가, 양측이 부담하는 예상비용, 시장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매권부여기본계약조건에 따라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원료 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매입가격을 매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의 과거 운영 실적이 합의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당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수익은 더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매입하는 시점과 관련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감안하면, 판매 시점의 실제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입 시점의 예측 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당사의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당사 및 셀트리온의 이익분할방식에 대해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트리온이 상기 사유들 또는 여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당사에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급을 하였음에도 향후 품목허가 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당사와 셀트리온 사이의 이익분할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품목허가 승인의 지연 또는 거부 위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이나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 사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당사 제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당사에 공급한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 라벨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품목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이나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 사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당사 제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별 심각성(미미한 반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성 수준은 다양함) 및 발생 빈도(미미하거나 빈번하게 발생)는 상이합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 사용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은 임상시험 또는 제품 상업화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또는 보건당국은 비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을 중단 또는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 라벨 내용이 제한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품목허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독성이나 여타 안전 문제 등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부작용 유병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 셀트리온은 추가 연구 또는 시험을 수행하거나 이들 제품 후보물질의 개발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셀트리온의 비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이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은 특정 또는 모든 적응증을 대상으로 셀트리온에게 제품 후보물질의 개발 진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보건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품 관련 부작용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 조건, 제조기법, 장비, 현장 및 여타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상 품목허가 승인 시점 전후로 셀트리온이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 효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 부작용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모집 여부나 참여한 환자들의 완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판 승인을 획득한 이후 하나 이상의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당국의 해당 제품에 대한 승인 철회
- 보건당국의 해당 제품의 라벨에 추가 경고 내용 요구
- 보건당국의 개선 계획 수립 요청(환자 대상 제품 유통 시 부작용 위험을 명시한 투약 지침, 의료진 대상 소통 계획,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기타 요소 등의 내용 포함)
- 해당 제품의 리콜(이러한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 및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 가능성 존재)
- 환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한 피소 및 법적 책임
- 평판 훼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특정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도 시장 입지를 확보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의 규제에 따라 당사는 부작용을 유발하였거나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인지한 시점과 부작용의 본질에 따라 당사의 보고 의무 시점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당사가 인지하게 된 부작용을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해당 사건이 부작용 사례라고 당사에 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거나 당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고대상인 부작용에 대해 당사의 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합니다. 당사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당사를 상대로 형사 기소, 민사상 벌금형, 당사 제품의 압수, 제품 후보물질의 승인 또는 허가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품목허가 유지 요건에 대한 미준수 위험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도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판매, 광고, 판촉, 샘플링, 기록관리, 시판 후 조사는 물론 안전성, 효능을 비롯한 기타 시판 후 정보 제출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품목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이 제조, 생산, 품질관리, 판매과정 및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품목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품목허가 승인 유지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제품 후보물질이더라도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판매, 광고, 판촉,

샘플링, 기록관리, 시판 후 조사는 물론 안전성, 효능을 비롯한 기타 시판 후 정보 제출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품목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들과 이들의 설비를 비롯하여 제조업체들과 이들의 설비 모두 현행 우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cGMP) 및 현행 우수유통관리기준(cGDP)을 준수하는 품질관리, 제조 및 판매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품목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당사 및 셀트리온이 현행 우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및 현행 임상시험관리기준(cGCP)을 준수하고 생물학적제제허가신청(BLA) 또는 시판허가신청(MAA) 등 신약을 신청하며 발생한 이행서약(commitment)을 이행하는지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와 셀트리온은 제조, 생산, 품질관리, 판매과정 및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품목허가 요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후보물질의 시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사례나 생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는 의약품시판 후안전관리기준(GVP)을 준수하는 부작용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품목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당사의 의약품시판후안전관리기준(GVP)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부작용 모니터링 과정 및 활동 등 모든영역에서 품목허가 요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이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제품의 홍보 및 판촉과 관련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방약의 판촉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별로 상이한 여러 법률 및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한편 판촉내용 또한 제품의 승인 라벨상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 시판을 위해 용도 표시를 허용하는 제품 관련 품목허가 승인 또는 부여 예정인 제품 후보물질 관련 품목허가 승인 모두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정 승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제품과 제품 후보물질의 효능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고가의 추가적인 임상시험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규 혹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미 승인을 획득한 제품, 제품 라벨링 또는 제조공정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특정 환자군 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시행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요청 받은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허가 승인 유지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4)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 관련 위험

셀트리온이 임상 개발을 진행하거나 완료하기 이전 또는 시판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들의 안전성 및 약효와 관련한 엄격한 품목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를 위해 고비용의 오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 획득을 위한 당사 및 셀트리온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임상 개발을 진행하거나 완료하기 이전 또는 시판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들의 안전성 및 약효와 관련한 엄격한 품목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를 위해 고비용의 오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셀트리온의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은 다음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정
- 기존 의약품 또는 개발 중인 제품 후보물질 대비 동등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선된 치료 효과 또는 여타 의학적 효용 제공
- 현재 및 미래의 비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및 효과성 입증
- 기대 효과 실현
- 부작용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품목허가 기준 충족
- 상업적으로 적합한 물량과 수용 가능한 비용으로 제품을 제형화하고 제조하는 역량 확보
- 보건당국의 시판 승인
- 성공적 상업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주력하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7월, 2013년 9월 그리고 2016년 4월 각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유럽 의약품국(EMA)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 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80개국에서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및 제품 출시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msima/Inflectra 품목허가 승인 및 출시 현황 】

지역	국가	품목허가 승인일	출시일
아시아	한국	2012년 7월	2012년 11월
	필리핀	2013년 5월	2013년 9월
	일본	2014년 7월	2014년 12월
	말레이시아	2015년 1월	2015년 11월
	태국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싱가포르	2016년 3월	2016년 7월
	스리랑카	2017년 1월	진행 중
	대만	2016년 9월	진행 중
	홍콩	2017년 3월	진행 중
유럽 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EEA)	2013년 9월	2013년 9월
	조지아	2013년 1월	2013년 10월

(CIS)	아제르바이잔	2013년 4월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2013년 7월	2014년 1월
	아르메니아	2014년 4월	2014년 8월
	터키	2014년 7월	2014년 10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5년 5월	2016년 2월
	세르비아	2015년 5월	2016년 5월
	러시아	2015년 7월	2016년 1월
	스위스	2015년 10월	2016년 3월
	마케도니아	2015년 2월	진행 중
	우크라이나	2016년 8월	진행 중
	우즈베키스탄	2014년 6월	진행 중
	몰도바	2013년 1월	2014년 7월
	벨로루시	2013년 3월	2014년 7월
	알바니아	2015년 10월	진행 중
중동	요르단	2014년 10월	2015년 3월
	이스라엘	2015년 10월	2016년 11월
	모로코	2015년 12월	2016년 5월
	사우디 아라비아	2016년 4월	2016년 5월
북미	미국	2016년 4월	2016년 12월
	캐나다	2014년 1월	2015년 3월
중미 및 남미	에과도르	2013년 8월	2016년 1월
	파나마	2013년 8월	진행 중
	온두라스	2013년 9월	진행 중
	페루	2013년 10월	2016년 1월
	엘살바도르	2013년 10월	진행 중
	과테말라	2013년 01월	진행 중
	파라과이	2013년 10월	2014년 9월
	칠레	2013년 12월	2014년 2월
	아루바	2014년 7월	진행 중
	멕시코	2014년 11월	2016년 3월
	콜롬비아	2014년 12월	2016년 1월
	브라질	2015년 4월	2016년 8월
	베네수엘라	2015년 4월	2016년 9월
	코스타리카	2016년 6월	진행 중
	도미니카 공화국	2016년 8월	진행 중
아르헨티나	2016년 11월	진행 중	
니카라과	2016년 11월	진행 중	
호주	호주	2015년 8월	2016년 1월
	뉴질랜드	2015년 9월	진행 중

주1)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2013년 9월 최초 출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2015년 2월 출시

■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

당사의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는 2016년 11월 그리고 2017년 2월 각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유럽 의약국(EMA)의 승인을 획득 하였습니다. 당사의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는 유럽 의약국(EMA)에서 최초 승인된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 입니다. 2017년 3분기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 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승인을 획득 하였으며, 2016년 10월 유럽 의약국(EMA)에 시판허가신청(MAA)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2017년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후기 임상시험의 결과 또한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의 지속을 뒷받침할 만큼 긍정적일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약업계와 바이오 제약업계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상당수가 탄탄한 입지와 성공적인 의약품 개발 이력 보유) 비임상 실험 또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의 전 단계에서 심각한 지연, 차질,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의약품 후보물질에 대한 완료된 비임상 연구 또는 초기단계의 임상시험 결과는 셀트리온이 추후 임상시험에서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만족할 만한 안전성 및 효능 결과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해당제품의 시판 및 유통에 필요한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또는 여타 국가의 보건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허가신청(BLA), 시판허가신청(MAA) 등의 제출용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의약품 후보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개발 또는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상당한 연구개발의 추가적인 노력, 당사와 셀트리온의 재정적 투자, 그리고 품목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의약품 후보물질의 성공적인 개발 단계 완료 또는 상업화가 가능한 의약품의 개발 여부를 보장할 수 없고, 개발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지연에 따른 위험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경쟁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셀트리온과 당사가 신제품을 적시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적응증이 동일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당사보다 빨리 개발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현금흐름 및 영업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 사업전략 하에서 제품의 적시 출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제품 또는 개량된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지 못하여 당사가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사들이 더 빨리 제품을 개발하여 당사 제품의 판매가 더욱 어려

위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 대체적으로 경쟁사 제품 대비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훨씬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에게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과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시장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컨드무버(Second Mover)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퍼스트무버(First Mover)와 경쟁하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의약품을 상대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는 크지 않습니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 시판 직후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양의 임상자료를 확보하므로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효익,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함에 있어 유용합니다. 이로써 세컨드무버(Second Mover)가 직면하게 될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이 Remicade®, Herceptin®, Rituxan®, MabThera®등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고 시판하기 위해 승인을 모색 중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당사 제품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동일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승인을 획득하여 당사의 후보물질보다 빨리 성공적인 상업화를 달성하는 경우, 당사는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입니다.

(6) 특허 소송 관련 위험

셀트리온과 당사는 현재 특허 소송들에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고 해당 소송에서 특허권자들은 당사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바,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상당한 소송비용 및 부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판결 이전 또는 하급법원에서의 항소 판결 이전 다양한 법적 그리고 상업적 요인에 기반하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유럽 및 여타 시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연구, 개발, 제조활동 및 당사의 상업화 활동 도중 타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침해한다는 혐의, 특허권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이 허가 없이 제3자의 독점 기술을 이용한다는 제3자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성, 제제, 제조법 또는 당사 제품의 사용이나 제조와 관련한 치료법에 대해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이 당사 후보물질을 비롯하여 후보물질의 연구, 개발, 제조, 상업화 및 사용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한 특정 활동들을 보류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상업적 마케팅이 포함됩니다. 결국 제품 후보물질을 상업화 하지 못하거나 일부 사업운영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침해 또는 특허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가 상업적으로합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거나 아예 계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획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라이선스 비용,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당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독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경쟁사들 또한 라이선스 약정대상인 동일한 지적재산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당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사용금지가처분 등의 구제 조치를 득하게 되는 경우

에는 하나 이상의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Hospira는 캐나다의 지방법원을 통해 Kennedy Trust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17년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Remicade®에 대한 Kennedy Trust 소유 특허의 무효성 및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Kennedy Trust는 Janssen Biotech, Inc., Janssen Inc. 및 Cilag GmbH International과 함께 당사, 셀트리온 및 Hospira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해당 특허의 만료 기한이 2017년 8월이므로 설사 당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3년 10월, Roche는 당사,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제약이 Roche 소유의 Herceptin®관련 특허 침해 혐의를 들어 국내 지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국내 특허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년 5월,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Roche가 청구를 수정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해당 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2016년 8월, Roche는 또한 사용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국내 지방법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 하였고, Roche의 사용금지가처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Roche의 2013년 특허 침해소송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Roche는 두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특허의 만료기한이 2017년 11월이므로 국내에서 설사 당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고하여도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출시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5년 3월, Janssen은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와 공동으로 당사, 셀트리온 및 Hospira를 상대로 Remicade®와 관련한 6개의 특허 침해혐의를 주장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중 2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Janssen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또다른 2개의 특허의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2018년 9월 만료 예정인) 항체특허 및 (2027년 2월 만료 예정인) 세포배양배지조성 특허관련 입니다. 2015년 5월, 미국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항체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Janssen은 항소 하였으나, 2016년 11월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는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8월, 미국지방법원 또한 항체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Janssen은 두건 모두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세포배양배지조성특허관련소송의 경우 미국 지방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2017년 5월 Biogen, F. Hoffman-La Roche AG(Roche AG) 및 Genentech는 셀트리온, 당사의 종속회사인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Mundipharma International Ltd. 및 그 현지법인(이하, Mundipharma)를 상대로 Rituxan®과 관련한 2건의 치료 용도 특허 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아일랜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3월, Biogen, Roche AG 및 Genentech은 Mundipharma를 상대로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용도특허들은 현재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계속 중에 있는 특허로, 과거 셀트리온이 2015년 12월 특허 취소 신청(revocation proceedings)을 하였을 때, Biogen, Roche AG 및 Genentech는 영국에서 위 특허들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기타 국가에서 당사 및 당사의 현지 판매 및 마케팅 파트너를 대상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침해 소송 이외에도 당사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Rituxan®에 관한 사용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Biogen은 Mundipharma를 상대로 2개의 치료 용도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2건의 사용금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iogen은 2건의 청구 중 1건을 철회했고, 나머지 1건은 2017년 5월 독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4월 Biogen 및 Roche가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및 Mundipharma Pharmaceuticals B.V.를 상대로 네덜란드에서 1건의 사용금지처분을 청구했고, 2017년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체코에서는 2017년 5월 체코 법원이 사용금지처분을 인용하여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및 당사의 현지 유통사에 대하여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의 수입, 제공 및 소개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가 항소를 제기했으며 위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용금지처분이 기타 국가에서 당사 및 당사의 현지 판매 및 마케팅 파트너를 대상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제품 출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당사의 성공적인 대응력 또는 특허 비침해 제품을 개발하는 셀트리온의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가 당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당사는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법적 비용 및 부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판결 이전 또는 하급법원에서의 항소 판결이전 다양한 법적 그리고 상업적 요인에 기반하여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이전에 미국, 유럽 또는 기타 국가들에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던 중 당사에게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제품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의 장래 매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 제품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특허권 소유자의 상실이익에 대한 배상금 또는 로열티의 형태로 특허 침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상당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 비용 및 기타 관련 부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셀트리온의 개발 및 생산 설비, 당사의 재고자산들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여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여 셀트리온이 한국의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 단일 생산설비에서 생산합니다. 현지 설비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공급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상당한 재고자산 또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셀트리온 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염, 정전, 설비 고장 및 작동오류,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눈보라 등)로 인한 설비 및 여타 재산의 파괴, 테러행위 또는 다른 제3자의 행위 등으로 인해 셀트리온의 제품 공급 능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 재고자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기

거나 당사 재고자산이 손상되는 경우, 고객 주문에 적시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해 점유율이 하락하고 여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당사의 평판이 훼손되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셀트리온 및 제3자 계약자에 대한 외주 관련 위험

당사는 당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셀트리온과 제3자의 완제품, 라벨링 및 포장, 보관, 품질 검사, 부작용 모니터링 및 물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은 현재 셀트리온과 제3자 계약자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당사 제품 판매와 관련한 완제품, 라벨링/포장, 보관, 품질 검사, 부작용 모니터링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셀트리온이나 여타 제3자 계약자가 당사와의 서비스 약정을 위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판매가 지연되고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사업의 생산성,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상의 중대한 문제 또는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피해를 입고 판매 프로세스가 지연될 것입니다. 조사, 수리, 향후 영업활동 차질 예방을 위한 조치 도입을 위해 상당한 자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자 계약자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 기술, 인프라 및 프로세스 이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3자 계약자와의 상업적 또는 여타약정 조건이 현재의 약정 대비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예 약정 자체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상표권 등 보호장치 관련 위험

당사는 상표권, 영업비밀 및 이 밖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 제조와 관련된 노하우, 당사의 판매와 관련한 노하우 등 미등록 소유권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은 한국, 미국, 유럽 및 여타 국가들의 지적재산권법을 비롯하여 상표권 및 영업비밀과 같은 보호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들은 경쟁 제품 대비 의미가 없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지적재산권을 성공적으로 추가 획득하거나 무허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한 노하우 및 영업비밀 등 미등록 소유권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제3자를 대상으로 당사와 셀트리온 소유의 정보 또는 기술에 대해 기밀유지 약정 체결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약정이 당사와 셀트리온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위한 의미 있는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 및 셀트리온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으며, 타사의 경우 유사하거나 동등한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하여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의 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타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쟁우위가 약화되거나 제거되어 매출 감소 또는 여타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셀트리온이 소유권을 보유한 정보가 경쟁사 등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타사가 가로채거나 침해하는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나. 적정 재고수준 유지 관련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공동개발자의 의무로서 보건당국별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셀트리온으로부터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일정 물량의 제품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매입수량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소 매입수량과 향후 당사의 시장 예측 및 셀트리온의 생산일정 등을 고려한 추가 매입수량을 더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사가 재고를 적정 수준보다 과잉 또는 과소 보유하거나 재고자산의 예상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당사의 역량은 향후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럽, 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성장률이나 매출규모가 당사가 예측한 바에 따라 실현될 지 여부, 그리고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불용 또는 평가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충분한 물량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고, 품목허가 승인 이전 초기 안전재고를 확보하며, 공동개발사로서 셀트리온과 개발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를 유지합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고 물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정책은 상업적 판매용인지 공동개발자로서의 리스크 분담용인지의 여부, 제품의 유효기한, 셀트리온의 제조 능력, 해당 제품에 대한 예상 수요, 제조에 필요한 예상기간 등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셀트리온과의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공동개발자의 의무로서 보건당국별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일정 물량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바이오시밀러 제품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물량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소 매입수량과 향후 당사의 시장 예측 및 셀트리온의 생산일정 등을 고려한 추가 매입수량을 더하여 정해지며, 해당 제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 재고자산은 1조 5,994억 원으로 총 자산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금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자산 유형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유형	내용	금액(백만원)	재고 비중
원료의약품	약리학적 활성을 제공하는 유효성분이지만, 유효성분의 발현이나 합성에 사용되는 중간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	1,317,236	82.36%
완제의약품	완제공정(fill/finish)을 완료한 상태로서, 원료의약품이 함유되어 완성된 제형을 갖추고 있는 상태	282,170	17.64%

상업 판매용 제품의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당사의 역량은 향후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유럽, 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성장률이나 매출규모가 당사가 예측한 바에 따라 실현될 지 여부, 그리고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할 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과잉, 재고부족 또는 평가절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제품의 유효기한 초과로 인한 폐기,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 승인 후 해당 보건당국은 안정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해 유효기한을 결정합니다. 현재 유럽 의약국(EMA)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허가 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당사의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당사의 재고자산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EMA와 FDA로부터 유효기간 승인을 받지 않은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하여 MFDS로부터 원료의약품은 $-40\pm 5^{\circ}\text{C}$ 하에서 60개월의 유효기간을 승인 받았으며, 완제의약품은 $5\pm 3^{\circ}\text{C}$ 하에서 60개월의 유효기간을 승인 받았습니다.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이 유럽 의약국(EMA)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재고자산이 해당 보건당국이 지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31일 현재 당사 재고자산 중 트라스투즈맵 제품의 비중은 8.8%이며 해당 보건당국이 지정한 유효기간은 당사의 예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건당국의 절차에 따라 안정성 검사 등 특정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한 문제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든시장에서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유효기한을 성공적으로 연장하거나 당사 제품의 유효기한을 효과적으로 감독 및 관리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 제품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유효기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또는 품목허가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승인자체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감리 조치결과에 따른 위험

2016년 5월 3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동사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6월 22일 현재 동 감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당사는 2015년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시 명목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관련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감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9일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의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수익 인식시기를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시점이 아닌 2017년 트룩시마의 공급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V' 단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감리결과 조치(주의)는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6년 5월 3일 상장예정법인의 위탁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는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최종 의결되며 종결되었습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년 5월 3일자 공문】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제67조에 따라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사는 위 법규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품질관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는 2016년 5월 3일자로 귀사의 제16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절차 진행 중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사실 관계의 재검토 후 전기 및 전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Biogaran, Kern Pharma, Mundipharma와 향후 품목허가 승인이 예상되는 트룩시마(Truxima) 제품에 대하여 각각 지역별로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구분	Biogaran	Kern Pharma	Mundipharma
계약이행보증금	EUR 15,000,000	EUR 6,500,000	EUR 27,000,000
계약체결일	2015-5-21	2015-10-29	2015-12-4
금액 수령일	2015-7-7	2015-11-11	2015-12-22

상기 계약이행보증금은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의 유효성 유지와 해외 파트너사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령한 것이며, 판매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사의 선택에 따라 당사로부터 환급받거나 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매입채무를 본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최초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 당시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 106억 원을 즉시 수익인식을 하였고 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당기순이익 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회계처리를 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AG64에 따라, 금융부채 최초 측정 시 받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가 부채의 인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 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파트너사와의 계약상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담보 성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취로 인해 당사가 해외 파트너사에 이행해야 하는 어떠한 추가적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계약상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3에서 기술하는 하나의 거래가 일련의 후속적인 거래를 통해서만 경제적 효과가 파악되는 경우에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동 거래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제3자간 계약에서 재구매약정처럼 현재가치할인차금 효과를 반영한 미래 재화공급 거래가 약정되지 않아 현재의무가 아니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후속적인 거래와 관계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시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금액이 확정되었고, 당사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1018호 문단 1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이 독점판매권 계약과 관련해 수령되었고,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바,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후속적인 제품공급 거래 이행을 하기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당사는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의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수익 인식시기를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시점이 아닌 2017년 트룩시마의 공급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계약의 사실관계 해석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당사는 과거의 수정 효과를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누적효과를 전기와 전전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16(전) 기말			제 16(전)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자산						
유동자산	1,512,462	-	1,512,462	1,241,806	-	1,241,806
비유동자산	60,432	2,632	63,064	141,876	17	141,893
이연법인세자산	9,448	2,632	12,080	91,906	17	91,923
자산총계	1,572,894	2,632	1,575,526	1,383,682	17	1,383,699
부채						
유동부채	699,282	992	700,274	1,053,018	-	1,053,018
선수수익	-	992	992	-	-	-
비유동부채	365,082	10,491	375,573	1,014,541	811	1,015,352
선수수익	-	10,629	10,629	-	992	992

이연법인세부채	138	(138)	-	181	(181)	-
부채총계	1,064,364	11,483	1,075,847	2,067,559	811	2,068,370
자본						
자본금	2,772	-	2,772	1,657	-	1,657
자본잉여금	1,323,556	-	1,323,556	144,211	-	144,211
기타자본	(46,600)	-	(46,600)	(50,433)	-	(50,4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90)	-	(3,390)	17,138	-	17,138
이익잉여금	(767,808)	(8,851)	(776,659)	(796,450)	(794)	(797,244)
자본총계	508,530	(8,851)	499,679	(683,877)	(794)	(684,671)
부채및자본총계	1,572,894	2,632	1,575,526	1,383,682	17	1,383,699

【 연결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16(전) 기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매출액	402,389	-	402,389
매출원가	252,738	-	252,738
매출총이익	149,651	-	149,651
판매비와관리비	37,746	-	37,746
영업이익	111,905	-	111,905
기타수익	57,547	-	57,547
기타비용	3,922	-	3,922
금융수익	160,992	(10,629)	150,363
금융비용	179,330	-	179,330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147,192	(10,629)	136,563
법인세비용	118,551	(2,572)	115,979
당기순이익	28,641	(8,057)	20,58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8,641	(8,057)	20,584
비지배지분	-	-	-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0,528)	-	(20,528)
총포괄이익	8,113	(8,057)	5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113	(8,057)	56
비지배지분	-	-	-
기본주당이익(원)	86,071	(24,211)	61,860
희석주당이익(원)	59,049	(16,610)	42,439

【 별도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16(전) 기말			제 16(전)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자산						
유동자산	1,506,554	-	1,506,554	1,166,786	-	1,166,786
비유동자산	65,496	2,796	68,292	133,588	225	133,813
이연법인세자산	7,739	2,796	10,535	91,906	225	92,131
자산총계	1,572,050	2,796	1,574,846	1,300,374	225	1,300,599
부채						
유동부채	695,569	930	696,499	922,800	-	922,800
선수수익	-	930	930	-	-	-
비유동부채	364,939	10,629	375,568	1,013,950	930	1,014,880
선수수익	-	10,629	10,629	-	930	930
부채총계	1,060,508	11,559	1,072,067	1,936,750	930	1,937,680
자본						
자본금	2,772	-	2,772	1,657	-	1,657
자본잉여금	1,323,556	-	1,323,556	144,211	-	144,211
기타자본	(46,600)	-	(46,600)	(50,433)	-	(50,433)
이익잉여금	(768,186)	(8,763)	(776,949)	(731,811)	(705)	(732,516)
자본총계	511,542	(8,763)	502,779	(636,376)	(705)	(637,081)
부채및자본총계	1,572,050	2,796	1,574,846	1,300,374	225	1,300,599

【 별도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16(전) 기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매출액	269,586	-	269,586
매출원가	206,525	-	206,525
매출총이익	63,061	-	63,061
판매비와관리비	32,287	-	32,287
영업이익	30,774	-	30,774
기타수익	58,848	-	58,848
기타비용	3,902	-	3,902
금융수익	161,069	(10,629)	150,440

금융비용	179,357	-	179,357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67,432	(10,629)	56,803
법인세비용	103,808	(2,572)	101,236
당기손손실	(36,376)	(8,057)	(44,433)
총포괄손실	(36,376)	(8,057)	(44,433)
기본주당손실(원)	(109,317)	(24,212)	(133,529)
희석주당손실(원)	(109,317)	(24,212)	(133,529)

자료 : (주)셀트리온헬스케어 2015년 감사받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이 미반영된 2015년 기준 수치입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9일 이와 같이 당사의 2014년 및 2015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으며, 2017년 6월 1일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V' 단계에 해당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I 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I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I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상기 감리결과 조치(주의)는 2017년 6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 후 당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 또는 제19조의 4제2항의 합병에 따른 제18조의 변경(추가)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 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시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재출한 내용 등과 현저한 차이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제2항 또는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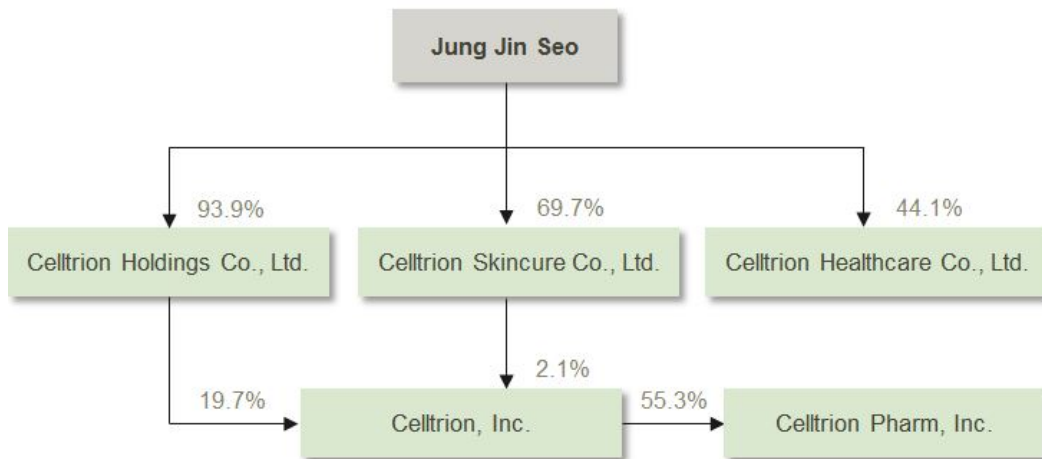
당사 계열사 및 셀트리온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당사 간의 거래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동법에 따라 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제한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및 셀트리온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및 기타 관계회사와 이뤄진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셀트리온그룹 계열회사 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입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 등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사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계열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에 그 계열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제공하거나,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됨)에는 그 계열사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와 셀트리온의 거래 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계열사 및 셀트리온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당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및 사업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동법에서는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 간의 부당한 재정적 지원이 성립하는 사업관계 및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주요 관계사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셀트리온 그룹의 주요 관계사 지분구조 】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하의 제한을 받습니다.

-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호 출자가 존재하는 경우 공시되어야 합니다.

- 계열사 간 순환출자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특정 경우는 제외되며, 이들 예외사례의 경우 취득한 주식은 공정거래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적용기간 이내에 처분 되어야 합니다.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경우 공시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공시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셀트리온 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들 제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집단 셀트리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이에 따라 셀트리온그룹 계열회사 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7. 4. 18.에 개정되어 2017. 7. 19.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의미함)에 속하는 회사는 동일인 또는 그의 친족("동일인 등"), 또는 동일인 등이 20%(상장회사는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동일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4항에 의하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하기 (4) 사유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3) 동일인 등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셀트리온그룹은 현행 공정거래법 기준으로는 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2017년 7월 19일부터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경우 셀트리온을 포함하는 셀트리온 그룹의 계열사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계열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에 그 계열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제공하거나,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됨)에는 그 계열사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와 셀트리온의 거래 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규제사항을 준수하며 계열사들과 여러 거래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의 계열사 및 셀트리온 그룹의 관계사와 당사 간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상거래는 이사회 승인 사항임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당사의 보통주를 상장하게 되면 더욱 엄격하고 신속한 공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계열사 및 셀트리온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당사 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혹은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셀트리온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외 셀트리온 등 8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기 계열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향후** 당사와 상기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에 부칠 예정이며,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당시 보통주 시장가격 수준에 따라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 또는 교환 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큐어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사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관련 사항은 해당회사에서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셀트리온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외 셀트리온 등 8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총 2개사이며, 비상장사는 총 6개사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장사 (2사)	(주)셀트리온	133-81-23603
	(주)셀트리온제약	214-86-71641
비상장사 (6사)	(주)셀트리온홀딩스	131-86-24858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주1)	107-87-63802
	(주)셀트리온화학연구소,	135-81-52064
	(주)셀트리온스킨큐어	105-86-13560
	(주)티에스이엔엠	113-81-82345
	(주)티에스이엔씨	122-81-87650

주1) (주)드림이엔엠은 2017년 3월 24일자로 사명을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2) (주)셀트리온에스티는 2017년 4월 11일자로 청산종결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 셀트리온그룹의 국내 계열회사간 지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제약	(주)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주)셀트리온 화학연구소	(주)셀트리온 에스티	(주)티에스 이엔엠
(주)셀트리온		55.29			100	
(주)셀트리온홀딩스	19.68		100			
(주)셀트리온스킨큐어	2.14					
(주)셀트리온제약				100		
(주)티에스이엔씨						60

2017년 3월 31일 기준 셀트리온그룹 국내 계열회사의 주요 지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기준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 %)

구 분	주요 지분 현황
(주)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19.68%), 셀트리온스킨큐어(2.14%), Ion Investments B.V.(14.30%)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서정진(44.12%), One Equity Partners IV,L.P.(22.20%), Ion Investments B.V.(15.45%)
(주)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55.29%)
(주)셀트리온홀딩스	서정진(93.86%)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홀딩스(100%)
(주)셀트리온화학연구소,	셀트리온제약(100%)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서정진(69.66%), 흥인표(6.21%)
(주)티에스이엔엠	(주)티에스이엔씨(60%), 박찬홍(33%)
(주)티에스이엔씨	박찬홍(70%), 최승희(30%)

2017년 3월 31일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해외 종속회사 지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 %)

종속기업명	지분율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100.00%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00.00%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99.99%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100.00%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00.0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00.0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99.99%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00.0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00.00%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기 계열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향후 당사와 상기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가능

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을 상정하고 의결에 부칠 예정이며,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이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는 당시 보통주 시장가격 수준에 따라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 또는 교환 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큐어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사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및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관련 사항은 해당회사에서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계열회사의 경영, 재무 및 영업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제한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 중 대부분은 Remsima® 와 Inflectr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제품 하나를 통해 창출되고 있으며,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을 시작으로 출시가 진행되고 있고,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당사의 경우, 핵심 제품 및 핵심 고객들에 대한 높은 당사의 의존도는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당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매출 중 대부분은 Remsima® 와 Inflectr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하나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여러 국가에 이어 미국에서 Inflectra®가 2016년 12월 출시되면서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2017년 4월에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출시하였습니다. 대체품이나 대체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는 개선된 품질을 제공한다거나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수요가 감소하게 되거나 당사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가 주요 시장에서 시장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매출 현황 】

(단위: 십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6.1분기	2017.1분기
유럽	75.4	342.4	427.2	49.0	67.2
북미	-	-	265.4	-	-
남미	-	-	6.6	-	2.2
아시아(한국 제외)	89.3	60.0	42.1	0.8	0.5

한국	-	-	9.8	-	-
오세아니아	-	-	6.6	3.0	-
합 계	164.7	402.4	757.7	52.8	69.9

자료: 회사제시자료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상의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5개, 바이오베터 후보물질 2개 및 혁신적 약물 후보물질 4개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 또는 여타 제품 후보물질이 성공적으로 개발 또는 상업화되지 못하거나 개발 또는 상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당사의 경우, 특정 제품이나 제품 후보물질의 실패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제품이나 후보물질과 관련한 경쟁에 있어서도 더욱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폭 넓은 제품 군을 보유한 경쟁사 대비 이익이나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 】

제품 (주1)	오리지널 의약품(INN)	주요 적응증	현재상황	마케팅 파트너사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Remsima® / Inflectra®)	레미케이드 (Remicade®) (인플릭시맙)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장질환 (자가면역질환)	한국: 출시(주2) 유럽연합: 출시(주3) 미국: 출시(주4)	유럽연합: Hospira,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Pharma Kern, Orion, Astropharma, Pinewood Healthcare, DEMO, Oktal Pharma, EGIS, iQone , Mustafa Nevzat 미국: Hospira 기타국가: 파트너 17개사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 (Truxima®)	리톡산(Rituxan®) / 맘테라(MabThera®) (리톡시맙)	비호지킨 림프종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출시(주5) 유럽연합: 출시(주6)	유럽연합: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Astropharma, Oktal, Orion, iQone, Medical Logistics, C.A.P, EGIS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2개사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 (Herzuma®)	허셉틴(Herceptin®) (트라스투즈맙)	유방암	한국: 판매허가(주7) 유럽연합: 신청(주8)	유럽연합: Orion, Kern Pharma, EGIS, Mustafa Nevzat, PharmaKern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8개사

자료: 회사제시자료

주1) Remsima®, Inflectra®, Truxima® 및 Herzuma® 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상품명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2)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2년 7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2년 11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3)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3년 9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3년 9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4)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2016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 12월 미국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부터 2016년 1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5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6)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7년 2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4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7)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4년 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주8) 유럽의약품국(EMA)을 통해 2016년 10월 신청하였습니다.

【 당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규모 (2016년)	치료분야	개발단계
CT-P5	엔브렐(Enbrel®) (에타네르셉트)	95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4	시나지스(Synagis®) (팔리비주맵)	14억 달러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세포주 개발
CT-P15	얼비투스(Erbix®) (세톡시맵)	17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6	아바스틴(Avastin®) (베바시주맵)	66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7	휴미라(Humira®) (아달리우맵)	164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자료: Frost & Sullivan, 회사제시자료

【 당사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램시마 SC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제3상 임상시험
CT-P26	종양질환 (Oncology)	비임상 준비

자료: 회사제시자료

【 당사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CT-P27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제2b상 임상시험
CT-P25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비임상 준비
CT-P24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CT-P19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자료: 회사제시자료

당사는 제한된 수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상당량의 당사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어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은 외주 판매사들(sub-distributors), 약국, 병원

, 정부기관 및 의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은 매출 예상치를 포함한 그들만의 추정치를 토대로 당사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를 기초로 하여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당사의 제품을 일정 기간에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판매량,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구성은 그들의 구매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이익율은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당사 영업이익율은 이러한 파트너사들의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당사의 매출 중 50% 이상 Hospira를 통해 창출되었으며, Hospira를 포함한 상위 5개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해 매출의 90% 이상이 창출되었습니다. 2017년 1분기에는 당사의 매출 중 60% 이상이 Mundipharma를 통해 창출되었으며, Mundipharma를 포함한 상위 5개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해 매출의 90% 이상이 창출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현재, 당사가 마케팅 파트너로부터 수령한 2017년 1분기 이후 납기가 단기에 도래하는 구매주문은 약 4,748억원(2017년 6월 22일 현재 환율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구매주문을 협의 및 수령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 금액은 당사의 공급시기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파트너사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이들 파트너사들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당사로의 적시 지급이 어렵거나,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 등 상기 요인들이 하나 이상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 의존 관계 따른 위험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판촉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판매구조 하에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및 영업 역량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감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지출 등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직판 판매망을 계획대로 확장하지 못하거나 여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 할 경우에도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사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함에 있어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통해 내부 판매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파트너사들의 영업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매구조 하에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및 영업 역량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 중 효과적으로 제품을 판촉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파트너사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매출 기준 최대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이며, 당사의 2016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Hospira와 판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Hospira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Inflectra®와 Remsima®라는 상표명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에서 독점적으로 판매 및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공동 독점 판매 및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ospira의 경우, 유럽지역의 여타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므로 가격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ospira를 인수한 Pfizer는 인플릭시

맵 바이오시밀러를 자체 개발하였음을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Pfizer는 Sandoz에 유럽경제지역(EEA)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매각 하였으며, 유럽경제지역(EEA) 외부에서 상업화 및 제조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와의 결제 관련 분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상호보완적이고 갈등이 없을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 중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당사와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 혹은 영구적으로 해지하는 파트너사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판매 파트너사로 대체한다고 하여도 적기에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이 대체한 판매 파트너사가 이전 판매 파트너사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는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이 여타 사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쟁 해결에 당사의 역량이 분산되는 한편 소송 또는 중재 절차와 관련한 상당한 비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 제품 및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

제품	지역	국가	파트너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유럽/남미 북미/오세아니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Hospira
	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서유럽국가들	Mundipharma
		프랑스	Biogaran
		스페인	Kern Pharma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북유럽국가들	Orion
		오스트리아	Astropharma
		아일랜드	Pinewood
		포르투갈	Pharma Kern
		키프로스	DEMO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기타 발칸반도국가들	Oktal Pharma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스위스	iQone
		터키	Mustafa Nevzat
	중동	이란	Tehran Chemi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기타 중동국가들	Hikma Pharmaceuticals
		이스라엘	Perrigo
	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Olimed
		콜롬비아	RB Pharmaceuticals S.A.S.
		페루	AC Farma
		파나마, 과테말라,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아루바, 보나이어, 퀴라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Laboratorios Stein S.A.
	아시아	태국	Indochina Healthcare Ltd.
		한국	Celltrion Pharm
		말레이시아	LF Asia Malaysia
		스리랑카	George Steuart Health Ltd.
		싱가포르	LF Asia Distribution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일본	Nippon Kayaku
		파키스탄	Atco Pharma International (PVT.) Ltd.
		인도네시아	PT Sanbe Farma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및 기타아프리카국가들	Adcock Ingram
리특시맵 바이오시밀러	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서유럽국가들	Mundipharma
		프랑스, 모나코	Biogaran
		스페인, 포르투갈, 안도라	Kern Pharma
		오스트리아	Astropharma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Oktal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Orion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iQone
		몰타	Medical Logistics
		키프로스	C.A.P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북미	미국, 캐나다	Teva
	아시아	한국	Celltrion Pharm
		일본	Nippon Kayaku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유럽	스페인, 안도라	Kern Pharma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북유럽국가들	Orion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터키	Mustafa Nevzat
		포르투갈	Pharma Kern
	북미	미국 및 캐나다	Teva
	중동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기타중동국가들	Hikma Pharmaceuticals
		이스라엘	Perrigo
	아시아	일본	Nippon Kayaku
		대만	Chunghwa Yuming Healthcare Co., Ltd.
		태국	Indochina Healthcare Ltd.
		한국	Celltrion Pharm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및 기타아프리카국가들	Adcock Ingram	

당사는 사업 전략에 따라 직판 유통망을 장기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계획한 바대로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판매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여타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제공자들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직판 판매망을 계획대로 확장하지 못하거나 여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제품 시장 수용성 미확보 및 마케팅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제품 허가를 득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의사, 병원, 약국, 환자 또는 제3자 보험자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품목허가 승인 이후 해당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시판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매출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판 및 유통을 계획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의사, 병원, 약국, 환자 또는 제3자 보험자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시판하고 유통하는 제품들에 대한 시장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 경쟁 치료법 대비 잠재적 경쟁우위
- 경쟁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대비 당사 제품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간의 유사성
-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명칭 관련 정책 및 시장관행
- 해당 제품의 승인 대상 질병 또는 증상의 유병률
- 해당 제품 관련 규제 조치
- 당사의 품목허가 요건 준수 역량
- 보건당국의 제품 라벨 승인 범위
- 해당 제품을 사용하게 될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용 및 경쟁사 제품 가격
- 편의성 및 투약의 용이성 등 기존 또는 대체 제품 대비 해당제품이 가지는 잠재적 강점
- 정부 및 제3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급여 확보 및 유지 역량
- 실제의 또는 파악된 부작용의 발병 및 유병상태, 그리고 심각성
- 목표 환자군의 신제품 시도 의향 및 의사들의 해당제품 처방 의향
- 병원 및 관리의료기관(managed care organization) 처방용으로 해당 제품이 승인되는 범위
- 당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경쟁사 제품 및 바이오 제약 업계 전반에 대한 평판
- 당사 마케팅 및 판매 역량의 효과성, 그리고 경쟁사 제품의 출시 시점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거나 의사들이 당사의 목표 환자군을 대상으로 당사의 제품을 처방 또는 투약할 지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의료업계와 제3자 보험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이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금이 넉넉한 대규모 제약회사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교육 노력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상관없이 당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경우,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매출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위험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징은 특허 및 여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현재 특허 소송에 관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적 재산과 관련한 기타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경쟁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배상책임, 사용금지가처분, 비용증가, 신제품 개발 및 시판 상의 지연 등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 바이오 제약,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징은 특허 및 여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저축 심사절차, 의의신청절차, 특허 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적 그리고 행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와 사실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들은 장시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매우 불확실합니다. 현재 당사 및 셀트리온이 관여하고 있는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상기 2.회사위험 가.(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 및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을 포함한 여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와 폭이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제3자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 건들은 당사와 셀트리온이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확대되고 특허 등록 건도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이 제3자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무효나 특허권 행사불능은 입증 어렵습니다. 특허 침해로 당사가 피소 당하는 경우, 당사의 제품, 제품 후보물질 및 관련 활동들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해당 특허권의 무효, 특허권 행사불능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특허권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록특허가 유효하다는 가정을 뒤집을 명료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또는 기타 특허 침해 소송이 최종적으로 당사에 유리한 판결로써 마무리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안 재판에서 유효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 이후의 사용금지가 처분 리스크가 발생하는 한편 특허권 보유자가 본안 재판 이전에도 사용금지가 처분 등의 임시 또는 예비적 구제조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 이전 제품 후보물질을 출시하거나 이미 출시한 제품을 상업화하는 당사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활동이 침해 행위가 아니었으며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및 사용금지가 처분의 리스크, 부당한 금지명령에 대한 보상 정도는 국가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를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당사는 상당한 금전 배상 또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다시 설계하거나 제3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 이상의 제품 후보물질의 상업화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보유자의 상실이익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되는 특허 관련 위험

당사는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된 분자에 대한 중요 특허보호가 만료된 후에 제3자의 유효하고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2차 특허(secondary patent)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제품 후보물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가 당사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특허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허 관련성, 범위, 만료시점을 잘못 파악했을 경우, 당사의 제품 또는 제품 후보물질 시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된 분자에 대한 중요 특허보호가 만료된 후에 제3자의 유효하고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2차 특허(secondary patent)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제품 후보물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유효성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사실관계를 처리해야 하며, 제3자는 당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당사가 허가 없이 그들의 독점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성, 제제, 제조법, 또는 당사 제품 후보물질의 사용이나 제조와 관련한 치료법에 대해 제3자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제품 후보물질에 대하여 실시한 비침해 분석이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당사 제품 후보물질의 상업화와 관련되거나 상업화에 필요한 모든 특허권 및 미래 출원 건에 대하여 파악하였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이 만료 전 특허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제품 후보물질 상업화를 계획하는 지역 내 관련 특허 출원 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사 결과 파악된 특허권 적용 범위 또는 내용을 부정확하게 해석하여 제품 후보물질이 실제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 또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을 포함한 여타 기업들이 EU 및 미국에서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장이 가능한 타 지역에서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 등 하나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출시가 향후 지체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기간을 부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특허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당사의 제품 상업화까지 지연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산업 내 시장참여자들이 이를 파악하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매주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이 발표되고 있으며, 특허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당사 제품의 후보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 해당 특허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일어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과학논문 또는 특허관련 논문에 게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 제조 또는 사용에 적용될 특허출원을 당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타사가 출원하거나 추후 출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출원 중인 건들이 이후 특허로 등록되어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 제조 또는 사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 이해관계자 니즈 예측 및 대응에 따른 위험

당사 사업의 성공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품목허가 승인이나 허가를 적기에 획득하고,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제조하며, 진화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당사 및 셀트리온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판촉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며,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성공은 보험자, 환자 및 의사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품목허가 승인이나 허가를 적기에 획득하고,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제조하며, 진화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당사 및 셀트리온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오리지널 제품 대비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될 할인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에 적용되는 할인폭이 당사의 예측보다 커지는 경우, 당사는 예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품 후보물질의 추후 판매가 실행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가격이 효과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장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사 제품의 시장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이후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제품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감소 위험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 내에서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가격 정책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급사 및 대부분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마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는 약정 조건 하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들은 보험자 및 가격 인하 압박을 행사하는 제3자 행정기관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가격책정 전략에 대해 당사와 논의하기는 하지만 당사가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와중에도 당사는 특정 수준 이하로 가격을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해 당사 제품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당사의 이익은 하락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단일 공급자인 셀트리온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 이익을 분할해야 하는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회사위험 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정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합의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파트너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진은 예상시장가격, 양측이 분담하는 리스크 및 책임, 시장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당사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합당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약정 조건이 항상 합당하고 공평할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제품 판매 후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합의된 마진을 조정하는 약정 하에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

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사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불법행위 등의 관여에 따른 위험

당사, 당사 임직원, 주주, 중개인, 대리인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가 뇌물수수 방지법, 규제 기준 및 여타 요건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 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 처벌, 벌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민관 부문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뇌물수수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다 보면 현지 관행과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가 속한 사업은 그 특성상 공공 혹은 민간 분야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뇌물수수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다 보면 현지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뇌물수수 방지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중개인이 사업 또는 여타 상업적 이익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지급 또는 여타 보상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와 중개인, 대리인, 계열사, 직원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 간의 대부분의 계약에 뇌물수수방지법과 관련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개인, 대리인, 계열사, 직원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의 무분별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당사가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통해 항상 방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 임직원, 주주, 중개인, 대리인 또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사기 또는 여타 불법행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지배주주이자 회장인 서정진 회장에 대하여 셸트리온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2014년 국내 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의 부당행위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불법 사용, 허위 또는 잘못된 데이터 생성, 또는 고의, 부주의, 태만 행위 혹은 승인되지 않은 행위로 다음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및 기타 정보를 해당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률포함한 당사 제품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2) 제조 규제 및 윤리적 기준 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3) 사기, 남용, 부패방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판매, 마케팅 및 사업 활동은 사기, 차별, 불법행위, 불법 리베이트, 사적 거래 및 여타 남용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 법규로 인해 광범위한 가격책정, 할인, 마케팅 및 판촉, 판매 수수료, 고객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여타 사업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정부 조사, 법적 절차 또는 소송이 당사를 대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해 당사가 성공적으로 변호하거나 당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 법적 조치들은 상당한 민사, 형사, 행정 처벌, 벌금, 특정 국가에서의 보건의료 프로그램 보조금 제외 가능성, 평판 훼손, 이익 및 장래 수익의 하락, 영업 제한 등의 형태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 파트너사에 대한 제한적인 관리권한에 따른 위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당사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당사 제품 판매시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시 당사의 평판, 매출 및 사업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와 독립적인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당사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당사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라이선스를 유지하거나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당사와의 판매 약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에게 당사 제품을 판매한 이후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당사 제품이 전달되기 이전까지 제품을 취급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제품 취급 및 보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 또한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사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모든 현행 우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및 우수유통관리기준(cGDP)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당사의 제품을 잘못 취급하여 제품손상 또는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당사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또는 파트너사들이 당사와의 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당사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으며 매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당사 제품 판매시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발생시 당사의 평판, 매출 및 사업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재고자산 보관에 따른 제품 손상 위험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은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집니다. 제3자 판매업체 또는 장비 업체가 온도 통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기간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손상되어 당사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은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집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당사의 창고 내 온도를 통제 관리하는 한편 당사의 창고를 출발하여 지역별 파트너사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자 판매업체 또는 장비 업체가 온도 통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기간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 제품의 상업적 사용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콜드 체인 상의 차질은 발생한 바 없으나 향후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적시 인도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전문 인력 유치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마케팅, 판매 및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 개발, 매출 증대 또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며,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약 마케팅 및 판매 사업을 확장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당사의 판매 인력 및 의료 전문가로 유지하여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경력과 높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의 판매인력 및 의료 전문가에 당사 사업 성공의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 직원의 약 37%가 의학 또는 약리학 분야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등 의학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적 마케팅, 판매 및 의료 인력을 유치, 고용,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당사 사업을 개발하고 성장시킬지 여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을 유지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발, 매출 증대 또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해 당사가 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상 및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 경우,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판매망 미확보에 따른 위험

당사의 미래 성공 여부는 기존 판매망을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가 인수 및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당사의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인수 또는 합작투자 관련 여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수 또는 투자의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했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사업 전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성공 여부는 기존 판매망을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합한 인수대상이나 합작 투자 후보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대상을 파악하더라도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수 경험이 제한적인 당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자산, 특히 규모가 더 크고복잡한 회사, 제품 또는 기술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확실합니다. 당사는 인수 및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기업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지출되고, 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 발생 부서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인수 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신용대출 차입금, 타인자본조달 또는 자기자본조달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수를 진행하는 경우 여타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금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파악하여완수 가능한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 인수 또는 합작 투자 후보 대상 실사, 거래 협상, 피인수 사업 또는 합작 투자 통합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진의 주의 분산
- 협상 및 통합 과정에서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 상당한 비용, 부과금 또는 감액(write-down)의 발생
- 피인수 기업의 고객이나 핵심인력의 이탈
- 피인수 기업 직원들을 당사 조직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문화 및 운영 상의 어려움 발생
- 시너지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및 여타 민사, 형사 소송 등 합작회사 또는 피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책임 발생
- 예상치 못한 영업권의 손상, 부과금 또는 상각의 발생
- 해고 직원, 고객, 이전 주주 또는 제3자가 피인수 기업과 관련한 소송 제기
- 반독점 규제기관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승인의 지연
- 거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바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

당사가 이러한 리스크나 추후 인수 또는 합작투자 관련 여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수 또는 투자의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했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사업 전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수를 추진하는 경우 신주 발행으로 인한 희석효과가 발생하거나 부채, 우발채무, 상각비용 또는 영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러.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

당사는 계약 면책조항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상의 법적 책임 제한 내용을 통해 소송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제품 및 기타 법적 책임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행정소송(governmental proceedings) 또는 기타 분쟁 등 우발채무의 영향을 받을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평판, 고객 유치 및 유지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당사가 제공하였던 제품이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 또는 상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해당 소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여타 불법행위, 규제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당사를 변호하며 상당한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매출 감소,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게 됩니다. 부당한 제소의 경우에도 당사의 평판이 훼손되고 상당한 법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조물 책임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과 관계 없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평판, 고객 유치 및 유지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면책조항과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상의 법적 책임 제한 내용을 통해 상기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제조물 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당사는 제품의 보관 및 판매상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셀트리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당사 및 셀트리온은 현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보험의 총 보장금액은 당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일반적인 가입 금액이고 예상 리스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기존 배상책임 보험이 충분치 않거나 당사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를 대상으로 미보험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보장만 가능하거나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피소 건에서 당사가 패소하거나 배상 정도가 상당하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 공급업체, 직원 또는 이 외의 제3자 등은 건강, 환경, 안전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그리고 방해 행위, 노동법 등의 준거 법규 미준수 및 태만 등을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민원 및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재무적 피해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에는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자원 및 관리 역량이 전용되어 더욱 이로운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중대한 고소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영업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타 우발채무 및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 환율변동 위험

당사의 사업운영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시장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은 여러 통화 간 환율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며, 유로화 및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가치의 평가절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사업운영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 시장에서 창출됩니다. 당사가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통화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이익은 여러 통화 간 환율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통화가 비용이 발생하는 통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이 일어나면 주로 유로화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 매출의 순매출액과 매출채권 금액이 원화금액 기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경우 외화표시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등 당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보유한 외화표시 부채는 KDB유럽에서 제공한 880만 유로의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로화 및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채무 매칭을 통해 환율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상쇄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월 환율 리스크를 분석하고 당사 거래에 적용되는 해외 통화를 다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율리스크 헤징을 위한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영업실적은 현재까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상기 전략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환율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리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03월 31일 기준으로 하기의 주요 외화 대비 원 환율이 6%, 9%, 7%, 4%로 등락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십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1분기	
		6% 평가절하	6% 평가절상	9% 평가절하	9% 평가절상	7% 평가절하	7% 평가절상	4% 평가절하

USD	3.53	(3.53)	3.61	(3.61)	14.12	(14.12)	0.77	(0.77)
EUR	0.08	(0.08)	3.66	(3.66)	1.43	(1.43)	(2.67)	2.67
HUF	-	-	(0.02)	0.02	0.01	(0.01)	(0.01)	0.01
합 계	3.61	(3.61)	7.25	(7.25)	15.56	(15.56)	(1.91)	1.91

버. 정보시스템 관련 위험

당사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분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손상, 사이버 공격 또는 네트워크 보안 침해 등당사의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재고자산의 설비 간 분배, 주문사항의 적시 수주/처리/발송, 고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대금청구 및 징수 관리, 공급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회계처리 및 지급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분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의 보안이 침해된다면 시스템 장애, 폐쇄 또는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보안 침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 손실 또는 낭용으로 인해 사업운영 차질을 비롯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한편 당사의 평판 또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암호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 접근망을 보호하는 기술이 손상되거나 침해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행위 등으로장기간 작동 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당사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조세당국의 조치 위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한국 조세당국의 철저한 조사 대상입니다. 조세당국이 특수관계자와 당사 간의 거래가 독립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부정적인 세무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 따라 당사 자회사, 계열사, 셀트리온 그룹 내의 기타회사, 기타 개인, 또는 당사와 관련된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가 독립거래 기준(arm's length basis)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간주되는 경우 한국 조세당국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세당국이 특수관계자와 당사 간의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독립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재정 지원으로 간주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거나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게는 부정적인 세무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16년 및 2017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상업화 단계 및 재무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기업(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16년 및 2017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 마케팅 및 판매회사로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 세 분야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약품 도매업(G46441)에 속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내 약 218개 기업(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이 속해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기업은 2개사(파마리서치프 로덕트, 씨티씨바이오)에 불과하며,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및 용도 측면에서 당사의 주요 제품인 바이오의약품과 크게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당사가 속해 있는 의약품 도매업(G46441) 뿐만 아니라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C20499), 의약품 화학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C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C21300),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상업화 단계 및 재무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기업(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비교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검토기준	기업수
----	------	--------	-----

1차	업종 유사성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G46441) 의약품 도매업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2개사
2차	사업 유사성	①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공급권 혹은 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8개사
3차	상업화 단계	① 바이오의약품 개발단계가 해외 임상3상 이상 진행 중에 있거나 국내 및 해외 모두 판매 중에 있을 것	10개사
4차	재무 유사성	① 2016년 온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시현하였거나 최근 12개월(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시현하였을 것	9개사
5차	일반 기준	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2사업연도(2015년, 2016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④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9개사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액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금액 사용 재량권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 중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9,76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850억원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모금액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결정한 공모금 용도에 대해 투자자가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금액은 약 1조 88억원(확정공모가액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금 등의 상환자금으로 205억원, 글로벌 판매망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일반적인 영업자본의 용도 등의 사업자금으로 9,76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850억원(사업자금(III))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램시마 및 트룩시마에 대한 매입대금 목적으로 셀트리온에 지급되는 4,850억원의 경우, 셀트리온이 램시마 및 트룩시마의 판매대금을 사용 또는 운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당사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별 세부 사용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359,616

사업자금(II)	13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997,122

당사 경영진은 당사 공모금액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금번 공모로 조성된 금액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 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식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 역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심화된 규제 대상 위험

당사 보통주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 규제기관의 검토, 감독 및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보통주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 규제기관의 검토, 감독 및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처벌이 당사에 부과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재무제표 감리에 따른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 요소 - 2. 회사위험 - 다. 감리조치 결과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환매청구권 미부여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본 기업공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본 기업공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본 공모주식의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②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 또한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2017년 1분기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보통주가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당사의 보통주 상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활발한 공개 시장이 형성 및 유지될 것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 보통주의 공모 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주관사단과 당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공모이후 당사의 보통주의 시장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재무 실적
- 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 당사의 경영에 대한 평가,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상태, 당사의 미래 시기별 매출 및 비용구조의 전망
- 성공적인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당사의 역량
- 당사와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마케팅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 국내외 증권시장 내 변동성

본건 상장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할 것입니다. 주가의 변동은 때때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영업성과와 대응되지 않거나 관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최초 상장 이후 시장가격이 크게 등락하여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소송이 당사에 제기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경영진의 관심 및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한국 증권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 보통주 투자금액의 시장가치는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보통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은 상장주권의 가격과 거래량에 있어서 상당한 폭의 변동을 기록해 왔고, 주가의 일일 상하 등락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타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코스닥 시장 또한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결제 불이행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하면 당사 보통주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주식들의 시장가치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계에 다양한 측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특정 산업의 잉여생산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합병을 유도하거나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의도한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향후 유사한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국내 코스닥 시장이 침체 또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치의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통주의 시가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세계 또는 지역 경제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 및 지역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 주택 및 금융 시장의 어려움, 상품 및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 낮은 경제성장률 등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추가 긴축정책, 유럽 내 재정 및 금융 여건의 악화 또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위축이 실현되는 경우, 당사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 수요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한국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현재 사업 및 향후 성장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사업운영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고유의 정치, 경제, 법률 및 규제 리스크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수년 간의 한국 경제지표에는 성장 및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관찰된 변동성 및 악조건, 석유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 전반적으로 부진한 글로벌 경제 등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한국 경제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화 대비 원화의 가치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불리한 경제 조건 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의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대량 매도 이후 매도 수익

금의 본국 송금 등은 원화 가치,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준비금, 그리고 한국 기업의 자금 조달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또는 글로벌 경제가 악화된다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전개사항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하락, 그리고 한국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의 소비 지출 둔화
- 중국,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한국의 주요수출시장, 또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신흥시장에서 불리한 경제상황 지속,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한 2016년 6월 국민 투표 이후 불확실성 증가
- 외환준비금 수준, 원자재가격(유가 포함), 환율(변동을 거듭하는 미화, 유로화 또는 엔화 환율, 또는 위안화 평가절상, 그리고 브렉시트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포함), 금리, 물가상승률, 또는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변화 또는 변동성
- 일부 국가의 국가부도 리스크가 증가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가계부채 수준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소매업체 또는 중소기업 차입자의 체납 및 신용부도 증가
- 비용(예를 들어, 수출시장이나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의 경쟁,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제조기지 이전 등)이 편익(예를 들어,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 계류 중인 또는 향후의 자유무역협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사회 및 노동 불안
- 한국 부동산 시장가격의 추가 하락
- 세수 감소를 비롯하여 경기부양책, 실업수당 및 기타 사회경제적 사업 등에 집행하는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부예산적자가 가중되는 경우
- 한국 기업집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대기업, 이들의 공급사, 또는 금융권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난 또는 구조조정상의 진전 미흡
- 기업회계부정 및 특정 한국 기업집단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 사안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 상실
- 한국 인구의 고령화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또는 한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생산성 감소
-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집단의 추가 공격 리스크
- 2015년 한국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이 한국 또는 세계 여타 지역에서의 중증 전염병 발병
-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또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나 이외의 영향을 미치는 인재 또는 자연재해(예를 들어, 한국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2014년 세월호 침몰)
- 한국과 한국의 무역상대국 또는 동맹국과의 경제 혹은 외교 관계 악화(예를 들어, 영토분쟁이나 무역분쟁, 또는 외교정책상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및 최근 한국에서의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시스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긴장
- 정치적 불확실성, 또는 국내 정당들 사이 또는 정당 내의 갈등 심화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산유국과 관련한 적대행위, 또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 그리고 실질적인 세계석유공급 차질 또는 유가 급증
- 러시아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긴장,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석유공급 또는 세계금융시장에의 부정적인 영향
-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적대행위 발발 또는 긴장구도 심화

파.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남북간의 긴장관계 고조는 당사 및 당사의 보통주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북의 긴장 구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급격히 고조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며 북한지도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역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에의 여파에 관한 우려 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명되며 권력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권력승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2017년 2월, 김정은의 이복형제인 김정남이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암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 등으로 인해 안보 관련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부 중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은 시시때때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비롯하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여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제재 또한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국의 로켓 발사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후 2016년 6월과 8월에는 각각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과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2월,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북한에 가하여진 제재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번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역내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은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며 최초의 수소 폭탄실험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위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와 같은 실험(2016년 2월에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 포함)에 대응하여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2016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및 유럽연합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북한은 다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며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위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하며 한국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 것이라 주장하며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군은 확성기를 겨냥한 대포를 수 차례 발사하면서 남북 모두 최고 단계 전투 준비태세를 발령하였습니다. 뒤 이어 개최된 남북 고위당국자들 간의 회담을 통해 2015년 8월 15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합의가 맺어졌습니다.

- 2010년 3월, 대한민국 해군 군함이 수중 폭발로 파괴되며 승선하고 있던 해군 다수가 사망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군함의 침몰은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에도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한국의 연평도를 겨냥하여 포탄 100여발 이상을 발사하여 사상자 및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북방한계선은 한반도 서해상에 설정되어 있는 사실상의 남북 해상 분계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공격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도발하는 경우 맹세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수위가 향후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리더십 위기가 촉발하거나,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렬 또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경우, 한국 경제는 물론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 증권관련 집단소송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면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訴)의 원인으로서는 (1)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2)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 제3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4)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함께 당사 경영진이 핵심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어 이는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이해관계 상충 위험

당사 대주주 및 이사의 이해관계와 당사 또는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중 당사의 지배주주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그 특수관계자 박준성이 44.35%, One Equity Partners IV, L.P. 및 OEP II Partners Co-Invest, L.P.(One Equity Partners)는 22.84%, 그리고 Ion Investments B.V.는 15.4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직후당사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중 서정진 회장 및 그 특수관계자 박준성이 49,714,160주로 36.37%, One Equity Partners는 25,605,200주로 18.73%, 그리고 Ion Investments B.V.는 17,319,600주로 12.6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어, 서정진 회장 및 그 특수관계자 박준성, One Equity Partners, Ion Investments B.V.는 92,638,960주로 67.7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대주주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당사의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당사의 중요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 및 대주주는 당사의 지분구조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및 대주주들은 회사 정관의 변경, 합병 제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 주주총회에서 표결에부처지는 안건 대부분의 결과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정진 회장은 당사의 계열사이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단일 공급사인 셀트리온의 회장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9.71%의 셀트리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 및 2.13%의 셀트리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셀트리온의 간접적인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및 당사의 이사로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당사 및 당사로의 셀트리온 제품 판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사안에 대해 의결합니다. 당사와 셀트리온 간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인 특정 이해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예상되는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그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와 셀트리온간의 거래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은 1,971,242,294,371원입니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동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동법 시행령 제35조제7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한편, 당사의 문광영 기타비상무이사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대표이사이며, 서정수 기타비상무이사는 셀트리온제약의 대표이사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의 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유현영 기타비상무이사는 셀트리온홀딩스의 대표이사이며, 셀트리온스킨큐어의 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Ion Investments B.V.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4.3%의 셀트리온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주이거나 셀트리온의 대주주이기도 한 지배주주 및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당사 또는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상장 후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6,688,120주 중 29.03%에 해당하는 39,682,82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관투자자의 매도금지확약 기간 등이 종료 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 50,327,560주(공모 전 44.90%, 공모 후 기준 36.82%) 및 기타 보호예수대상자 소유주식수 2,509,840주(공모 전 2.24%, 공모 후 기준 1.8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243,100주(공모 후 기준 0.91%)는 상장 이후 1년 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수는 청약일 이후 우리사주조합 신청(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 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자진보호예수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당사 주식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단(Underwriter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 발행회사 주식, 또는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 등 발행회사 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가 증권을 직간접적으로 발행, 공모, 담보 제공, 매도, 매도 계약을 체결, 매수옵션 또는 매수계약의 매도, 매도옵션 또는 매도계약의 매수, 매수 옵션, 권리, 또는 워런트의 부여, 대여 또는 달리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ii) 공모 주식 또는 공모 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증권의 소유권의 경제적 결과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스왑, 기타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또는 (iii) 위 (i) 또는 (ii)에 기재된 거래가 본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교부, 현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결제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거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실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데에 동의하며, 당사들이 각각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위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One Equity Partners와 Ion Investments B.V 각각은 자진보호예수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당사 주식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단(Underwriter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i) 당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발행, 공모, 담보 제공, 매도, 매도 계약을 체결, 매수옵션 또는 매수계약의 매도, 매도옵션 또는 매도계약의 매수, 매수 옵션, 권리, 또는 워런트의 부여, 대여 또는 달리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ii) 당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의 소유권의 경제적 결과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스왑, 기타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또는 (iii) 위 (i) 또는 (ii)에 기재된 거래가 본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교부, 현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결제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거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실행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유통가능주식수 등의 현황 】

구분		공모 후 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상장 후 매도제한 기간
유통제한물량	최대주주 등	50,327,560 주	36.82%	6개월
	기타 보호예수대상자	2,509,840 주	1.84%	6개월
	우리사주조합	1,243,100 주	0.91%	1년
	One Equity Partners	25,605,200 주	18.73%	180일
	Ion Investments B.V.	17,319,600 주	12.67%	180일
	소계	97,005,300 주	70.97%	
유통가능물량	기타구주주	16,321,920 주	11.94%	-
	공모주주	23,360,900 주	17.09%	-
	소계	39,682,820 주	29.03%	
합계		136,688,120 주	100.00%	

유통제한물량을 제외한 39,682,820주(공모 후 기준 29.03%)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바, 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 등의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실권 물량이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되어 당초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 보다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개인별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점을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최대주주 등 및 보호예수 대상자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상법 상 부여대상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상장 후 행사가능한 주식수는 2,814,967주 수준으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추가로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4회에 걸쳐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부여차수	부여일	부여대상인원	부여주식수	미행사주식수	행사기간
1차	2012.3.23	유현영 외 21인	2,308,000	1,596,100	2015.03.23~2021.03.22 까지
2차	2013.3.22	김은수 외 2인	160,000	140,000	2016.03.22~2022.03.21 까지
3차	2015.3.27	김성진 외 14인	707,976	707,976	2018.03.27~2024.03.26 까지
4차	2016.3.29	김만훈 외 6인	370,891	370,891	2019.03.29~2025.03.28 까지
합계			3,546,867	2,814,967	

주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퇴사 등으로 부여가 취소되어 행사가능주식수가 없는 경우는 제외 하였으며, 무상증자(2016.3.7, 1:40) 및 액면분할(2016.5.4, 5,000원→1,000원)를 반영하여 청구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주식수입니다.

주2)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인한 부여주식수의 조정과 무상증자로 인한 부여주식수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2,814,967주로 공모 후 주식수 136,688,120주 기준 2.06%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2,814,967주 중 상장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2,019,29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1.48%)로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수적 관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희망 공모가액 밴드 산정 시 당사의 적용 주식수에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가산하였습니다.

러. 미전환 전환사채 희석 위험

당사의 상장 이후 전환사채 행사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은 2,269,999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상장 이후에 해당 물량이 행사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공모가격뿐만 아닌 추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의 주당 발행가액이 전환가격 미만인 경우, 보통주의 분할 및 병합, 보통주의 종류 변경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존재하여, 상장 후에도 추가적인 잠재 발행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 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제 2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Hospira.Inc 가 전량 인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 중 전환권을 미행사한 주식은 5,724,019주(2016년 3월 무상증자와 5월의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전환가능 주식수 및 전환가액 조정)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9년 9월 30일 3 영업일 전까지입니다. 상장 이후에 동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해당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행 시 계약사항에 있는 전환가액 조정 조건에 따라 당사의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공모가격뿐만 아닌 추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의 주당발행가액이 전

환가액 미만인 경우, 보통주의 분할 및 병합, 보통주의 종류 변경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존재하여, 상장 후에도 추가적인 잠재발행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영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국내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상법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혹은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소수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소수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버. 국가별 환율 변동 위험

당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또는 보통주 매각 시 수령하는 대금은 원화 대비 미달러화 등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 보통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원화로 표시되고 거래됩니다. 당사 보통주에 대해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금배당 역시 원화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를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는 투자자께서는 원화 대비 미달러화 등 주요 국가별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 보통주 주주가 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보통주 주주가 당사 보통주를 국내에서 매각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의 외화환산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pm 15\%$ 에서 $\pm 30\%$ 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pm 15\%$ 에서 $\pm 30\%$ 로 확대 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 집행 불가능 가능성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해외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당사의 임원의 상당수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며, 당사의 자산, 당사 임원 및 간부 상당수의 개인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소장을 송달하거나 국외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당사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장을 송달하거나, 혹은 당사, 당사의 임원 또는 간부를 대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시행하는 증권법의 민사책임 조항에 입각하여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한국 외의 관할법원이 내린 유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 관할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송달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시행하는 증권법에 입각한 민사책임 관련 원소송(original action) 또는 미국 판결의 집행을 위한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집행가능성 여부는 한국 법원이 관할당국 및 소장의 적기송달 등 다수의 요인 등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 국가간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 관련 규정의 상이 가능성

당사를 포함한 국내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관련 규정은 기타 국가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공시관련 규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기준의 적용대상이며, 이와 같은 기준은 기타 국가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여러 측면에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 1인이상을 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근감사 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 규정 및 국내에서 통용되는 관행 등에 따라 당사 사업의 중대한 측면에 대한 공시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기준 및 공시 관련 규정은 일부 국가에서 기업에게 적용하는 회계기준 및 규정과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기업들이 공시하는 정보의 양은 여타 국가들의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이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정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당사, 공모 조건 및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재무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 국가간 영업환경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위험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 등 국내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특히 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로 미국 등 기타 국가와는 상이한 영업환경 및 문화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에 대한 투자는 미국 또는 유럽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과는 상이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정부가 금리 또는 환율의 갑작스러운 등락, 국제수지의 극심한 불안정성,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의 중대한 교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면 국내외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유가증권 매수, 매각, 기타 외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매각대금의 본국송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커. 주당순자산가치 희석 위험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개 시 형성되는 보통주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직후의 주당순자산 장부가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주당순자산가치는 당사의 총자산(무형자산 제외)에서 당사의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 보통주 매입을 위해 투자자가 지불한 금액 대비 주당순자산가치가 약 **28,977원** 만큼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 공모가격을 **41,000원**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터. 신규상장 요건 미충족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 상장신청서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23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3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 충족이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 등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7.3.14)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

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청구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 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만약,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일 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퍼.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예측을 토대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

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리스크에 더해,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전망자료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및 사법 부문의 불리한 변화
- 제3자와의 계약의 조건 및 이행 여부
- 금리 변동
- 당사의 부채 상환 능력
- 소비자의 신뢰 하락
- 국당사가 경쟁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산업에서의 경쟁 조건 변화
- 금융 시장 환경

상기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와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증가, 자본비용 증가, 투자지연 및 예상했던 실적개선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허. 공공매체를 통해 게재되는 정보의 오보 가능성

제3자가 공공매체를 통해 게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서 기재하는 모든 정보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부터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는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언급한 내용을 부정확하게 보도하거나, 또는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누락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건 공모주식 인수인이 당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아인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입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금번 공모주식7의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범위(공모가밴드) 제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투자자에게 투자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산업,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평가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권회사 (분석기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00111722
공동주관회사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00585857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명식 보통주식 24,604,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미래에셋 대우(주)	ECM본부	본부장	기승준	ECM 업무 총괄
	ECM본부 IPO1팀	팀장	성주완	IPO 업무 총괄
		부장	김형석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차장	한재용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차장	이단일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과장	김시영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리서치센터 신성장산업분석1팀	팀장	박원재	산업분석 및 주식가치평가
		수석연구원	김태희	산업분석 및 주식가치평가

(2) 공동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부문장	김철환	IPO 업무 총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총괄
		실장	문명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담당

(3)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주)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담당	이사	이한기	재무담당장
	재무담당	과장	이경범	회계팀장
	재무담당	대리	우성수	회계팀원
	재무담당	과장	정제윤	글로벌 재무팀장

	재무담당	과장	이재학	경영관리팀장
	재무담당	과장	윤 슨	경영관리팀원(IR)
	재무담당	과장	김현중	자금팀장
	US사업담당	상무	안익성	복미1담당장
	전략운영담당	상무	김호웅	전략운영본부장
	전략운영담당	과장	윤사룡	Marketing Planning팀장
	경영지원담당	과장	장원제	SCM팀원
	경영지원담당	대리	박시훈	경영지원팀원
	경영지원담당	대리	서승원	경영지원팀원
	재무담당	대리	한상균	경영관리팀원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주)셀트리온헬스케어를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업실사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2017년 1월부터는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 참조)

(1) 기업실사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51번길 19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및 공장)

(2) 일자 및 주요내용

구 분	일 자	실 사 내 용
대표주관계약 체결	15.12.30	대표주관계약 체결 (미래에셋대우(주))
Kick off 미팅	16.01.11	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분산 및 공모 규모 협의 - 향후 세부 일정에 대한 협의
기업실사 사전준비	16.01.18 ~ 02.26	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1) 기업실사 범위 및 방법 협의 2) 기업실사 참여자 구성 3) 자료 요청 및 인터뷰 - 사업 계획,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내규 등 -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명세서 - 조직도 및 인원현황

기업실사 1차	16.03.21 ~ 03.25	<p>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p> <p>1)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 및 영업현황 등에 관한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주요 Cycle별 담당자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구조 파악- 장단기 영업 및 구매 관련 Process 검토</p> <p>2) 지배구조 및 제반 규정 검토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사회 독립성 검토 - 최근 3개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역 검토 - 이사회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제반 규정 검토</p> <p>3) 주식 관련 사항 검토- 주주현황 및 자본금 변동사항 검토</p> <p>4) 재무자료 검토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검토</p> <p>5) 상장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p>
기업실사 2차	16.04.18 ~ 04.22	<p>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p> <p>1) 1차 실사시 이슈사항 F/U 2) 재무, 회계 관련 인터뷰 3) 상장 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p>
기업실사 3차	16.05.16 ~ 05.20	<p>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p> <p>1) 재무, 회계 관련 추가 인터뷰 2) 상장 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3) 각 사업부문별 성장성 및 사업성, 경쟁우위 및 경쟁열위 등 인터뷰 4) 회사의 영업위험 평가 5) 실사 후 보완사항 점검</p>
기업실사 4차	16.06.10	<p>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p> <p>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2) 보호예수관련 절차 설명</p>
기업실사 5차	16.11.07 ~ 11.11	<p>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p> <p>1) 2016년 3분기 실적에 대한 검토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p>
기업실사 6차	16.11.14 ~ 12.22	<p>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검토 2) 상장추천인의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p>
상장예비심사청구	16.12.23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16.12.23 ~ 17.03.13	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1) 한국거래소 심사대응 (재고자산, 고객, 산업 경쟁구도 등에 대한 질의응답 포함) 2)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변동사항 검토 3) 이전가격 및 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 4)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 5) 경영진의 전문성과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6)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산업 컨설턴트 포함)에 대한 실사 7) 2016년 실적에 대한 검토 8) 발행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9) 주요 고객사에 대한 검토
상장주관계약 체결	17.01.26	상장주관계약 체결 (미래에셋대우(주),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기업실사 7차	17.02.01 ~03.14	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1) 공모가액 협의 -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간 공모가액 협의 - 비교회사 검토 및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 검토 2) 증권신고서 작성 준비 3)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IR 일정 협의 4) 전문가 실사 및 bringdown 실사 5) 발행회사의 재고보관시설 방문 6) 관계자 거래 해당기관과의 질의응답
상장예비심사 승인	17.03.1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실사 8차	17.03.15 ~06.05	가. 장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본사 나. 참여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미래에셋대우(주),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다.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1) 공모가액 협의 -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간 공모가액 협의 - 비교회사 검토 및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 검토 2) 증권신고서 작성 3)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IR 일정 협의 4) 전문가 실사 및 bringdown 실사 5) 관계자 거래 해당기관과의 질의응답 6) 2017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검토 7) 한공회 감리 이슈, 진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검토

3.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수익성

동사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마케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여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및 기타 의약품을 총판하며, 해당 의약품은 직판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셀트리온과의 독점적 관계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세계적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판매 노하우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에 일정량을 선매입함으로써 셀트리온의 의약품 개발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 이후에 동사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계,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동사의 의약품을 전세계 시장에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 및 임상시험 등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준법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동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협업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각 지역의 효과적인 시장 침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사는 시장 접근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만 및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12개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15개국에서 활동하는 34개의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세계 최초의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및 항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하여 주로 바이오시밀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여러 물리화학적이고 구조적인 성질은 물론 약효, 안전성, 순도 및 효능 측면에서 먼저 승인된 오리지널 제제와의 유사성이 높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 】

제품 (주1)	오리지널 의약품(INN)	주요 적응증	현재상황	마케팅 파트너사
---------	---------------	--------	------	----------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Remsima® / Inflectra®)	레미케이드 (Remicade®) (인플릭시맵)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장질환 (자가면역질환)	한국: 출시(주2) 유럽연합: 출시(주3) 미국: 출시(주4)	유럽연합: Hospira,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Pharma Kern, Orion, Astropharma, Pinewood Healthcare, DEMO, Oktal Pharma, EGIS, iQone , Mustafa Nevzat 미국: Hospira 기타국가: 파트너 17개사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Truxima®)	리톡산(Rituxan®) / 맵테라(MabThera®) (리톡시맵)	비호지킨 림프종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출시(주5) 유럽연합: 출시(주6)	유럽연합: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Astropharma, Oktal, Orion, iQone, Medical Logistics, C.A.P, EGIS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2개사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Herzuma®)	허셉틴(Herceptin®) (트라스투즈맵)	유방암	한국: 판매허가(주7) 유럽연합: 신청(주8)	유럽연합: Orion, Kern Pharma, EGIS, Mustafa Nevzat, PharmaKern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8개사

자료: 회사제시자료

주1) Remsima®, Inflectra®, Truxima® 및 Herzuma® 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상품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2)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2년 7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2년 11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3)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3년 9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3년 9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4)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2016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 12월 미국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부터 2016년 1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5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6)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7년 2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4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7)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4년 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주8) 유럽의약품국(EMA)을 통해 2016년 10월 신청하였습니다.

동사는 상기 주력 제품 외에도 현재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및 4개 바이오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바이오베터 개발품목 중 하나인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으로서 동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동사는 적극적으로 상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초기 과정보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셀트리온과 공동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규모	치료분야	개발단계
------	----------	------	------	------

		(2016년)		
CT-P5	엔브렐(Enbrel®) (에타네르셉트)	95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4	시나지스(Synagis®) (팔리비주맵)	14억 달러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세포주 개발
CT-P15	얼비투스(Erbitux®) (세툽시맵)	17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6	아바스틴(Avastin®) (베바시주맵)	66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7	휴미라(Humira®) (아달리무맵)	164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자료: Frost & Sullivan, 회사제시자료

동사의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램시마 SC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제3상 임상시험
CT-P26	종양질환 (Oncology)	비임상 준비

자료: 회사제시자료

램시마 SC는 동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입니다. 램시마 SC는 Remsima® 대비 투여 주기가 짧고 투여방식 또한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일 현재 램시마 SC에 대한 글로벌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CT-P26은 유방암 치료용 항체-약물 결합(ADC)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단일클론항체가 세포 독성약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항체-약물 결합(ADC)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CT-P27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제2b상 임상시험
CT-P25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비임상 준비
CT-P24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CT-P19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자료: 회사제시자료

동사는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제품 이외에도 전염병, 암 및 백신 용도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며 축적한 역량 및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바이오 신약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셀트리온과 체결한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의거바이오 신약 개발 시 제3상 임상시험 및 후속 개발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G Pharmaceutical, 미국의 질병관리본부(U.S. CDC), 중국의 질병관리본부, 세브란스 병원, 국제백신연구소, SC World,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및 셀트리온화학연구소 등 바이오테크 기업, 정부, 영리 및 비영리 연구소는 물론 공동개발사들과 협업하면서 현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CT-P27 프로젝트입니다. CT-P27은 여러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중인 항체신약으로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CT-P27은 H1N1부터 H2N2, H3N2, H5N1, H9N2 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중화하는 인간단일클론항체(human mAb)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CT-P27에 대한 제2b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유럽 및 북미에서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상승하며 2014년 1,647억원에서 2015년 4,024억원, 2016년 7,577억원으로 각각 144.3%, 88.3%증가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은 유럽에서의 동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평균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58.1%에서 2015년 62.8%, 2016년 71.0%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상기 요인들이 작용하며 2014년 373억원에서 2015년 1,119억원, 2016년 1,786억원으로 각각 199.8%, 59.6%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금융수익, 금융비용 및 법인세비용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평가 및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주석과 같습니다.

【매출액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주1)	2014년(주1)
매출액	69,948	757,741	402,389	164,738
매출원가	46,321	537,831	252,738	95,771
매출원가율	66.2%	71.0%	62.8%	58.1%
매출총이익	23,627	219,910	149,651	68,967
영업이익	10,645	178,576	111,905	37,322
영업이익률	15.2%	23.6%	27.8%	22.7%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866	163,109	136,563	(406,879)

당기순이익	(1,804)	122,896	20,584	(369,986)
당기순이익률	N/A	16.2%	5.1%	N/A

자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연결감사보고서

주1)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평가 및 보통주 전환으로 인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익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항 목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978	4,218	112,154	22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	975	30,642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058)	(10,291)	(25,481)	(351,779)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	(95,495)	(54,793)
합계	(2,080)	(5,098)	21,820	(406,347)

나. 사업의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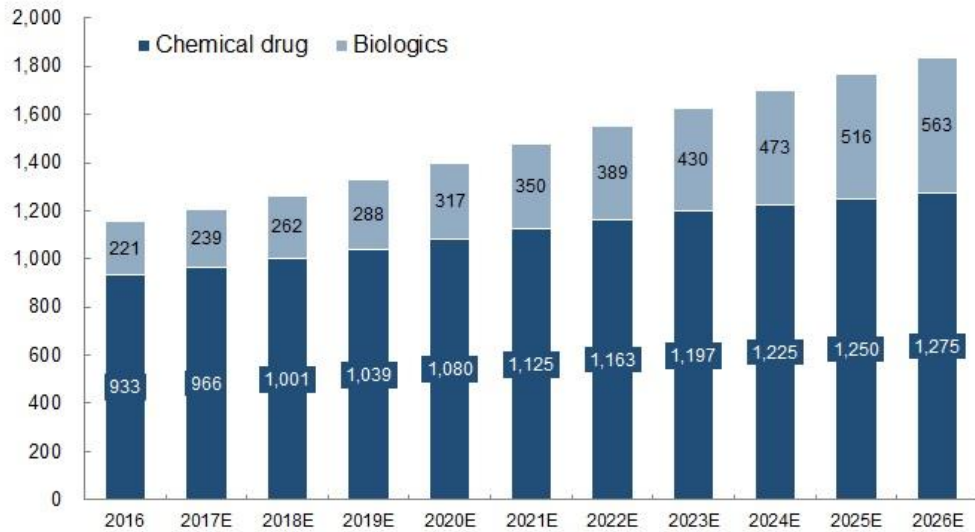
(1) 세계 제약시장

제약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 연구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해 규모와 수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 2016년 1조 1,536억 달러에서 연평균 4.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1조 8,3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제약시장은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 등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저분자 제제)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저분자 제제를 가리킵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고분자 제제)의 활성 치료 성분은 크고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살아있는 세포/생체에서 생성 또는 추출된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여러 부분에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각각 약 9,328억 달러와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3.2% 및 9.8%로 성장하여 2026년 1조 2,755억 달러 및 5,6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약 19%에서 2026년 약 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2026년 세계 제약시장 예상규모(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자료: Frost & Sullivan

최근 세계 제약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의 가계 가치분 소득의 꾸준한 증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특수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약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제약 시장 전체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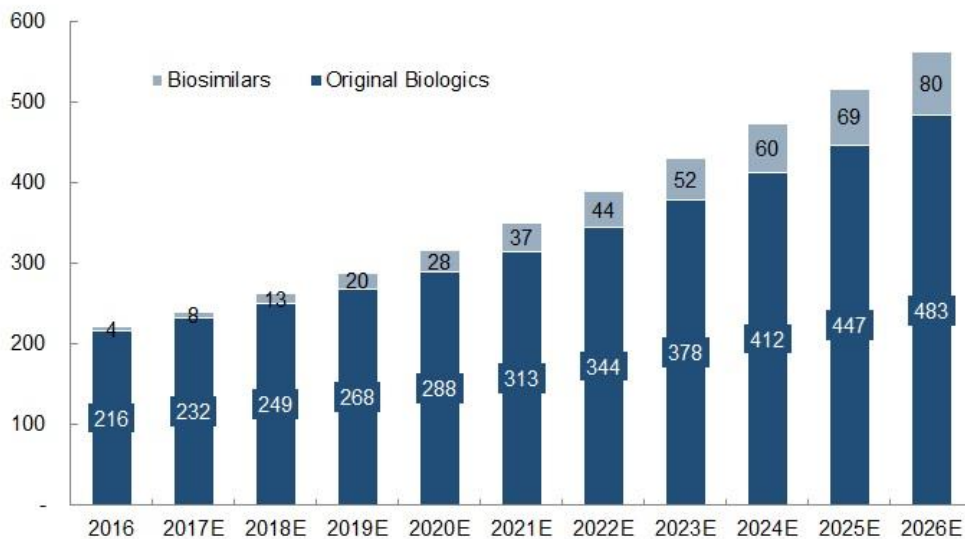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의 일종으로 백신, 혈액 및 혈액 구성성분, 알레르기, 체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 및 재조합 단백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다양한 생체 자원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당, 단백질, 핵산 혹은 이 물질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세포 및 조직과 같은 생체 물질 그 자체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근대과학이 이루어 낸 가장 정교하고 기술적인 선진적 성과 중의 하나이며,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바이오의약품은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적습니다. "2세대" 바이오 의약품(특정 조건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항체 등)이 등장한 이후, 지난 10년에서 15년간 바이오의약품이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방식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합성의약품보다 일반적으로 고

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만성질환, 중증 질환, 주요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소중한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세계 5대 바이오의약품의 연간 매출은 각각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약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의약품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약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9.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5,62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세계 바이오의약품 전체 시장의 대부분인 9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바이오시밀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자료: Frost & Sullivan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적인 합성의약품을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의약품이 가지는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료(생체재료)

합성의약품을 제조할 때 무생물인 화학적 시약을 사용하여 합성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의약

품 생산에는 생물체가 사용됩니다. 또한 화학의약품의 합성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지속적인 오염 위험을 방지하며 수용액의 온도를 통제하여 생산됩니다.

(나) 복잡성 및 민감성

바이오의약품은 전통적인 합성의약품에 비해 분자량이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큰 분자들로 구성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이 생체물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예: 온도, 전단력, 화학적 상태, 빛) 및 효소 반응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표적 특이성 및 약효

특정한 단백질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이오의약품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은 특정한 분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특정 질병에서 주요 발병 원인 역할을 하는 단일 분자를 표적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약효와 안전성을 보장하며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라) 면역원성

바이오의약품의 투여는 의약품에 대한 항체 생성, 과민증 또는 감각 림프구 등의 형태로 신체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 제조 공정

합성의약품의 제조공정이 명료하게 정의되고 동일한 품질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데 반해, 바이오의약품의 복잡한 생산공정은 통제도 어렵고 생산량도 소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생체물질은 제조공정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공정 상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바이오의약품 완제품의 기능성 및 효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조사는 의약품의 일관성, 품질 및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오랜 기간동안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독특성 및 수익성

데이터/특허 보호 및 바이오의약품의 정교한 개발/생산 과정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오의약품이 일단 성공적으로 시판되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다면 전통적인 합성의약품보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의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지식 집약적인 바이오 산업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분석기술 및 상업생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은 선행연구, 임상시험, 상업용 배치 생산 및 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해 상당한 장기성 자본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상업화에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 복잡한 등록절차, 시판제품의 마케팅 및 시판 후 안전성 조사 등이 수반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하고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보건당국의 승인 및 블록버스터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 늘어나는 등 주목할 만한 패러

다임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약효 개선 뿐만 아니라 부작용 감소를 수반한 기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예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 치료 등)
- 합성의약품 대비 약효가 뛰어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용도 증가
- 유전학 및 생화학 분야의 기술혁신 및 발달로 인해 생명공학 기업의 중요 연구개발 역량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가 작용하며 제약회사들의 수익 증대 가능성 증가
-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와 의료비 절감에 대한 압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2016년 전세계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바이오의약품의 브랜드명, 성분명, 개발사, 주요 적응증 및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글로벌 10대 바이오의약품 】

(단위 : 십억 USD)

순위	브랜드명	성분명	매출액	판매사	주요 적응증
1	Humira	Adalimumab	16.4	Abbvie	Rheumatoid arthritis
2	Enbrel	Etanercept	9.2	Amgen	Rheumatoid arthritis
3	Remicade	Infliximab	8.8	Janssen	Rheumatoid arthritis
4	Rituxan	Rituximab	7.1	Roche	Non-hodgkin's lymphoma
5	Avastin	Bevacizumab	6.6	Roche	Cancers (colon, lung, kidney, etc.)
6	Herceptin	Trastuzumab	6.6	Roche	Breast cancer
7	Lantus	Insulin glargine	6.1	Sanofi	Diabetes
8	Prenvar 13	Pneumococcal 13-valent Conjugate Vaccine	5.7	Pfizer	Pneumococcal pneumonia
9	Neulasta	Pegfilgrastim	4.6	Amgen	Neutropenia
10	NovoRapid	Insulin aspart	2.8	Novo Nordisk	Diabetes

자료: Frost & Sullivan

(3)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여 약효, 안전성, 순도, 효능뿐

만 아니라 여러 물리화학적, 구조적 특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여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더라도, 이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네릭 합성의약품의 경우 브랜드 제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구조적 차이를 가져오거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로트 사이에서도 고유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실험(lab) 단계에서 상업생산 단계로 적절히 scale-up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특성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임상 1상과 3상만을 요구하고 표적 발굴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며, 이는 바이오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생성 후에는 제형화, 혼합 또는 (액상 또는 동결건조분말의) 최종 형태로 원료의약품을 가공 하고 최종 용기에 충전, 밀봉하는 완제공정(fill/finish)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고객 요건에 따른 라벨링/포장 서비스를 완료하면 완제의약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는 전략적 계획 및 상업화를 위한 인프라가 요구되며, 3자 마케팅, 물류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마케팅 아웃소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에는 (1) 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약품 급여관리기관, 환자, 의사 과약 및 이들 간 상호작용, (2) 도소매 업체, 종합병원, 개인병원, 정부기관,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판매 채널 등이 포함됩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온도 및 여타 환경적 조건을 정밀하게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의 수용범위를 벗어나는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약효 및 임상시험 평가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며, 나머지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에서 2026년 14.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4%로 예상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34.0%로 성장세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의 경우 특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43억 달러에서 2021년 366억 달러로 연평균 5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Humira®, Avastin®, Herceptin® 및 Benlysta®와 같은 일부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등한 효능 및 저비용의 특징을 가지는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등한 효능 및 저비용

단일클론항체, 시토키인, 치료백신 등 복잡한 구조의 바이오의약품은 암,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난치성 질병의 치료방식 혁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치료비용이 발생하는 치

료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동일한 효능을 제공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10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들은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다수는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독점기간이 종료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보유한 특허 및 여타 지적재산권이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견인될 것입니다.

● 규제환경 변화

바이오시밀러는 대조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및 시판과 관련하여 법규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합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는 2006년 유럽 시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3월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규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전 세계 보건당국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간소화 노력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승인과 관련한 법규 체계가 점차 명확화 및 간소화되고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하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건의료 재정의 압박 증가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및 고령화 인구로 말미암아 보건의료 재정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부기관, 보험사 및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창출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시장에서는 대조의약품 대비 적절한 가격의 복제의약품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 비용으로 공급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데 비하여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향후 5년에서 10년 간 미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및 여타 주요 시장에서도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해당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기준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지역별 시장규모(EU, 미국, 기타 지역)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



자료: Frost & Sullivan

(5)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법규체계

미국 및 EU에서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규체계는 제네릭 합성의약품에 대한 법규체계보다는 복잡하지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법규체계보다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EU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인 CHMP/437/04는 2005년 10월 확립되었으며, 미국의 승인 절차인 351-(k)는 2010년 3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 가이드라인은 임상 안전성 및 약효가 동등한 제품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전세계 정부 및 보험자들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게 더욱 유리한 규제 및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보다 더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바이오시밀러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정부는 오리지널의약품인 Remicade가 승인 받은 전체 적응증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동사의 Infliximab biosimilar 제품으로 스위칭 (switching)할 때 안전성과 약효를 평가하는 연구 기금을 충당하였습니다. 2016년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동사의 infliximab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광범위한 사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정부 기관은 류마티즘 관절염과 같은 특정 적응증에 대해서는 Remicade에서 동사의 infliximab biosimilar 제품으로 스위칭

(switching)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4년에 치료과정을 시작할 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대체처방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단일클론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장려를 위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2017년 1월 바이오시밀러 허가 준비와 검토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승인은 2006년(EU) 및 2015년(미국)에서 각각 인체성장호르몬 및 G-CSF 바이오시밀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또한 EU 규제절차와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규제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을 위하여 규제기관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불활성 성분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성, 약효, 면역원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간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들 규제기관들에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권고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신청인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다음 단계를 파악합니다. 유럽의약품국(EMA)이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지침에서는 품질, 약효,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엄격하게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럽의약품국(EMA)에서는 유사한 품질을 입증하기 위하여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활성성분 구조 및 생물학적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요구합니다. 약효 및 안전성의 비교 연구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간에 효과 및 면역 반응 부작용 등의 위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증거자료의 총합성(totality of evidence)" 접근법에 대한 유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접근법은 생물학적 유사성을 평가하고 구조적, 물리화학적, 기능적 특성분석, 비임상 동물연구결과, 임상 약동학 및 약력학(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 화학적, 생리적 효과), 임상 약효 및 안전성을 포함한 제출 데이터 및 정보의 총합성을 고려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최초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허가한 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허가한 시점으로부터 1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적인 허가 신청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8년 데이터 독점권 기간 만료 시점까지 제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0년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시판할 수 없으며, 만료 시기는 1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규제

바이오의약품은 BLA(Biological License Application,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의 승인과 함께 지속적인 후속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바이오의약품의 승인 시점부터 마케팅과 판촉활동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off-label) 판촉,

업체가 후원하는 과학 및 교육 활동, 인터넷을 이용한 판촉 활동에 대한 표준 및 규제가 포함됩니다. 이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 미충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이 해당 기업에 발행되거나, 추후의 광고 및 판촉 자료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연방 또는 해당 주의 민사, 형사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승인된 적응증에 대해서만, 승인된 라벨링 내용에 맞게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 라벨링, 또는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등 승인된 신청서의 일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이 적용되기 이전 신규 BLA나 BLA 보조자료를 제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BLA 보조자료로는 일반적으로 원 신청서 상의 임상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요구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BLA를 검토할 때와 동일한 절차와 활동을 통하여 BLA 보조자료를 검토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및 승인된 바이오의약품 판매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여타 관련 연방, 주정부 기관에 사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cGMP, cGVP 요건 및 여타 관련 법 준수 확인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여타 연방, 주정부 기관의 주기적인 불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업체는 해당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주 내의 의약품 제조사 및 도매 판매업체 등록을 요구하는 주정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조사와 판매업체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제조사와 판매업체에게 판매망 상의 의약품 계보 (pedigree)를 만들거나 판매망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마케팅 범규준수 프로그램 확립, 정기 보고, 매출, 마케팅, 가격, 임상시험 및 여타 활동에 대한 정기적 공시 그리고/또는 영업인력 등록을 요구하고, 약국 및 여타 보건의료 주체들이 특정 처방 데이터를 판매 및 마케팅 용도로 제약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약회사의 판매 및 마케팅 관행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내 부정행위 및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 보건 의료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및 여타 국가의 다양한 보건의료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법에는 불법 리베이트 및 허위청구 방지법도 포함됩니다. 불법 리베이트 방지법은 일반적으로 바이오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의 구매나 처방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 제공,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허위청구 방지법은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약품비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제 3자 보험자를 대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거나 그러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럽연합은 관련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유럽연합 내외에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해당 정보를 수신한 이후 늦어도 15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의 보건당국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시판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대로 또는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요청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획득 전후 주기적으로 안전성 보고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과 관련하여 유럽 의약국의 의견 변화를 초래하거나 이상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관련의 보류, 변동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현행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의 원칙 및 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여 의약품 제조사 및 관련보유자 부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또는 반복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에서 불이행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임상 또는 상업 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자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또는 상업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해당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시장 철수 또는 리콜, 혹은 추후 마케팅을 금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유럽의약품국의 여타 조치 등의 규제가 제품, 제조업체 또는 관련보유자를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7) 주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역량

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의 합성의약품 대비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규제기관을 통해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승인을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및 임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기준은 규제, 임상 측면에서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생산 물량 확대 과정 모두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요구되는 재원 수준이 높다는 것도 추가적인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시한 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분야에서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 개발 및 제조 역량

높은 수준의 역가(titer)와 순도를 가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만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가가 높다는 것은 세포 계 개발, 세포 배양 조건 및 정제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개발의 각 단계는 최종 생산량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거의 동일한 특성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생산하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세포 계 및 세포배양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 능력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제품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가변성이 적은 제품 생성과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을 위해서는 강력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분석법이 요구됩니다.

● 임상시험 설계 및 관리 역량

임상시험 관련 비용이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오시밀러 제약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임상시험 및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모집 기간을 단축하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다수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적 재산 관련 전략적 역량

품목 허가 절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므로 바이오시밀러 제약회사에게 지적 재산과 관련한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위 “조성물 (composition-of-matter)” 또는 합성물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고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승인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지적 재산과 관련한 소송 및 여타 위협 요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특허 환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잠재적 지적 재산 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피 설계 (design-around), 특허침해 예방 그리고/또는 특허 무효화 등의 전략을 통해 제품이 승인되고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제 관련 역량

규제기관들이 요구하는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고, 비용 소모가 늘어나며, 점차 진화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자들은 글로벌 규제 전문성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는 확보되어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의 강력한 규제 대처 역량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정적인 상업화 물량 공급 역량

환자, 보험자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건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공급 역량의 입증 없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 해당 기업은 시장이 요구하는 상업화 물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또한 내부 역량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기승인 제품의 글로벌 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통품질 보증 역량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제조 및 보관 환경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콜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특화된 온도 조절 유통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온도, 습도, 여타 환경적 조건을 보장하는 유통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 특정 의약품에 특화된 유통망 계획 및 구축, (2) 적정 온도 및 여타 조건 보장을 위한 유통망 개별 단계 모니터링 및 관리, (3) 유통 과정 상의 의약품 안전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규제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 판매 및 마케팅 역량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판매 업체는 환자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기존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 및 광범위한 상업 경험을 활용하면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여타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학회, 업계회의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주최하는 한편 학술지 논문 게재, 단행본 발간 및 발표자료 작성 등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통해 의료계 및 환자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부작용 모니터링 역량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은 공공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활동 및 여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권보유자가 제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데이터 수집, 리스크 평가 및 분석, 환자, 의료진 및 대중에게 적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부작용모니터링 활동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스위칭(itching) 데이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스위칭(itching)"과 관련한 시판 이후 임상데이터 및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데이터에 따라 상업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자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 처방사례가 많아 이로부터 스위칭(itching)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시장에서의 우월한 입지는 물론 더욱 경제적인 대체재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용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동사는 다음의 주요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사업 플랫폼

동사는 현지화된 의약품 전문성 및 글로벌 판매 채널 접근성을 가진 뛰어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개발/제조 파트너사의 제품이 전세계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파트너사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현지 규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와 함께 동사 제품에 적합한 지역 시장을 창출하고자 모색합니다. 동사는 셀트리온과 함께 공동 개발사로서 전세계적으로 셀트리온과 공동개발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는 세계 최초 단일클론 항체인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세계 최초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셀트리온의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파이프라인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성을 활용하여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사의 상업화 플랫폼이 가진 특유의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우수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동사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과 신뢰를 구축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 및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fizer, Teva, Mundipharma 등의 우수 글로벌 제약사, 주요 현지 제약사 및 강력한 판매역량 및 유통망을 갖춘 현지 판매업체들을 포함하여

115개 국가에서 34개 파트너 업체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사는 바이오시밀러 판매 노하우를 파트너 업체들의 탄탄한 현지 판매망 및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병원 및 의사 등 핵심 산업주체들을 관리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사용, 효과, 부작용 및 제품 관련 기타 임상적 측면 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시판 이후의 임상시험과 함께 제품 교육 세미나, 메디컬 심포지엄 등 기타 판촉활동을 기획합니다. 또한 동사는 환자집단을 대변하는 유관 조직을 후원하여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술지 논문 게재 및 기타 의학 간행물 및 발표자료를 발행하는 등의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파트너사들과 함께 추진합니다.

● 심도 깊은 바이오시밀러 영업 노하우 및 글로벌 의료 데이터

동사는 세계 최초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80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글로벌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극소수의 마케팅 및 판매 전문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시장 및 지역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 및 100,000년 이상의 환자연수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 기반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효율적인 제품 마케팅/판매 및 상업화 계획과 로드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사는 동사가 보유한 임상 및 약리경제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보건 의료 예산 및 보험 지급비용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대비 효능을 설득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 보험사로 하여금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에 유리한 지침 및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사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및 처방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 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의료 커뮤니티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조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콜드 체인 유통 역량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마케팅/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하여 동사는 글로벌 수준으로 콜드체인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여 동사의 제품이 사용기간, 안전성, 품질이 보장된 상태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사는 동사에서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지점에서 동사의 유통망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EU, 미국 및 여타 지역의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제품 품질 보증 및 영업활동

동사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중의 안전한 제품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 시점 이후의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동사는 환자, 의료진 및 대중을 대상으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사 제품을 사용하며 발생한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스크를 평가 및 분석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 3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영위하는 영업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여합니다. 동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시판 이후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기업 중 하나로서 EU 및 미국 등 대규모 시장에서 파이프라인 제품군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특유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유수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기업이 되었으며, 동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의 상업화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폭넓은 글로벌 마케팅 및 의료 전문성

동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 전략적 마케팅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임상 데이터 및 스위칭(transition)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와 같은 증거에 기반하여 동사의 제품을 설명하고 판촉하기 위해 홍보 행사 및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모두를 활용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촉하는 최적의 영업채널은 물론 의사, 규제당국 및 공공이익집단 등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동사의 의료 전문성, 맞춤형 의약품 사용 및 편의성에 초점을 둔 마케팅 역량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예를 들어, 피하 약물전달 시스템 및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 키트 개발) 시장에 접근한 덕분에 대중에게 동사의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저렴한 대체품임을 확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파이프라인 제품들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 성공적으로 상업화 될 수 있도록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하고 판매하며 습득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와 파트너사들의 영업 및 마케팅 역량 간의 결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출시 후 빠른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 귀결될 것입니다.

(3)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선도적 위치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단일클론 항체 의약품인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3년 9월 유럽의약품국(EMA)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제품명은 Inflectra®). 2017년 3월말 기준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EU,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한국을 비롯한 80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동사가 파트너사들과 협업하며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동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다수의 지역별 시장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Remicade®의 대표적인 대체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2016년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은 2015년 대비 85.9% 증가하여 7,4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동사의 Inflectra®(동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제품명) 출시를 위하여 마케팅 파트너사인 Hospira에게 판매한 Inflectra® 매출액은 약 2억 2,660만 달러입니다. 2015년 Pfizer는 Hospira를 인수하였습니다. Pfizer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Hospira가 미국에서 판매한 Inflectra® 매출액은 17백만 달러입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동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점유율은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분기 유럽 기준 37.0%, 2016년 온기 기준 30.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사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Inflectra®의 성공적인 출시는 동사의 시장선도적 위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최초의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동사의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7년 2월 유럽의약품국(EMA)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3분기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BLA(생물학적 제제허가신청)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리툽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48개 국가에서 14개 현지 파트너 업체와 판매 및 유통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리툽시맵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71억 달러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입지 및 존재감을 통해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타 인플릭시맵 및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경쟁업체가 직면하게 될 시장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놓았습니다. 신규 시장진입 업체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뿐만 아니라 동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모두에 대한 생물학적 유사성(biosimilarity)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사 및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4) 높은 가시성을 자랑하는 제품 후보물질 상업화 계획

동사는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과 관련하여 상당히 가시적인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플릭시맵 및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등 이미 승인을 획득한 2개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개발 단계에 있는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4개 바이오신약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품목허가 승인의 첫 주자가 될 것입니다. 동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 1월에 한국에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10월 유럽 의약품국(EMA)에 승인신청을 위한 MAA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 하반기 동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신청을 위하여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BLA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 상위 10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인 Herceptin®을 사용하는 환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트라스투즈맵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66억 달러입니다.

동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사보다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EU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에서 Herzuma®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획득이 예상되는 가운데 58개국에서 해당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기 위해 Teva, EGIS, Orion, Hikma 등의 파트너사들과 마케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동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제 버전인 "Remsima SC"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램시마 SC에 대한 제3상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5)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강력한 지원

동사는 바이오의약품의 마케팅과 판매 관련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 과학, 기술, 영업 및 판매 인력을 전세계에서 영입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은 15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김만훈 대표이사는 32년의 판매 및 마케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말 기준 동사 직원 중 약 37%가 의사 및 의료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의학 또는 약학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투자자들이 동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사가 최선의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안정성

동사는 2014년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및 2016년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 추이 】

(단위: 백만원)

과목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 (주1)	2014년 (주1)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337	30,435	32,010	(252,6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3)	(162)	(373)	(3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800)	21,791	(914)	219,04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0,106)	52,064	30,723	(33,598)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498)	6,942	1,712	2,618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5,867	36,861	4,426	35,406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3	95,867	36,861	4,426

자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주1) 동사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말 현재 동사의 부채비율은 206.40%, 유동비율은 170.47%, 차입금의존도는 9.50%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 동사의 부채비율(215.31%)은 외상매입금의 비교적 장기적인 결제조건 등 요인으로 인하여 업종평균(70.08%)을 상회하고 있으며, 유동비율(215.98%)과 차입금의존도(10.77%)는 업종평균(유동비율 188.10%, 차입금의존도 24.30%) 대비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말	2016년말	2015년말(주1)		2014년말 (주1)
	동사	동사	동사	업종평균 (주2)	동사
부채비율	186.35%	206.40%	215.31%	70.08%	(302.10%)
유동비율	176.78%	170.47%	215.98%	188.10%	117.93%
차입금의존도	7.76%	9.50%	10.77%	24.30%	23.24%

자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015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주1) 동사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업종평균은 2015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기준

【 주요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주1)	2014년(주1)
자산총계	1,849,194	1,987,441	1,575,526	1,383,699
부채총계	1,203,424	1,338,788	1,075,847	2,068,370
자본총계 (주2)	645,770	648,653	499,679	(684,671)
유동자산	1,811,039	1,949,153	1,512,462	1,241,806
유동부채	1,024,477	1,143,372	700,275	1,053,018
장단기 금융부채	143,506	188,775	169,712	321,519

자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주1)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K-IFRS 도입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 및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2014년말 기준 자본총계에서 653,263백만원이 감소하고 부채총계에서 동 금액이 증가하였음

2017년 1분기말 동사의 현재 장단기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분기말 현재 동사의 단기차입금은 220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차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내역	이자율(%)	만기	제 18(당) 기 1분기
단기 차입금	KDB BANK EUROPE	외화대출	3M Libor+3.8%	2017-06-27	10,506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5.50%	2017-06-27	1,500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대출	4.45%	2017-06-28	10,000
합계					22,006

자료: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검토보고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발행일	만기일	액면금액
제2회 전환사채	Hospira, Inc	6.00%	2014-09-30	2019-09-30	149,540

동사의 이자비용은 2014년 약 426억원에서 2016년 약 326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2014년 약 373억원에서 2016년 약 1,78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자보상배율은 2014년 0.88배에서 2016년 5.48배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큰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2017년 1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동사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10,645백만원)은 전년 동기(2016년 1분기) 영업이익(575백만원) 대비 1,751% 증가하였습니다.

【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배)

구분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주1)	2014년(주1)
영업이익	10,645	178,576	111,905	37,322
이자비용	7,926	32,597	56,467	42,588
이자보상배율	1.34	5.48	1.98	0.88

주1)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능력

동사는 바이오의약품의 마케팅과 판매 관련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 과학, 기술, 영업 및 판매 인력을 전세계에서 영입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은 15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만훈 대표이사는 32년의 판매 및 마케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투명성

(1) 기업 지배구조

(가)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서정진 회장 및 김만훈 대표이사 외에 기타비상무이사 3명(문광영, 유현영, 서정수), 사외이사 4명(David Han, Gregory Belinfanti, 박정륜, 이준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독립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사외이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사외이사직

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 구성 및 구성원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 현황 】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
회장 (상근/등기)	서정진 (1957.10.23)	(주)셀트리온/회장(02~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이사(03.02~15.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회장(15.03~현재)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만훈 (1958.10.29)	(주)셀트리온제약/수석부사장(11.10~13.08) (주)셀트리온제약/대표이사(13.09~15.12) (주)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이사(16.02~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문광영 (1966.03.09)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내이사(10.10~14.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4.03~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유현영 (1961.02.09)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내이사(10.11~14.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7.03~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서정수 (1959.12.05)	(주)셀트리온/비서실장(12.01~15.12) (주)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5.07~현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David Han (1956.03.11.)	Cornell University B.A.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M.B.A Vice President at Morgan Stanley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04~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2.03~13.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3.03~16.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03~현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Gregory Belinfanti (1974.12.20)	New York University B.A. (Politics) Harvard University J. D. Vice President at Lehman Brothers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06~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2.03~13.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3.03~16.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03~현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박정륜 (1979.05.23)	Tufts University B.A.(01)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M.S.(02) Director of Temasek International Pte Ltd (07.05~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11~현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준근 (1962.09.09)	서울대학교 경영학(90) 메리츠자산운용/경영관리본부장(08.05~09.03) 메리츠화재/리스크관리본부장(09.04~12.03) 메리츠금융지주/리스크관리실장(12.04~13.03) KTB투자증권/경영관리본부장(15.04~16.06)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전무(16~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11~현재)
------------------	---------------------	--

(나) 감사의 독립성

동사의 2016년말 현재 자산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상근감사 1인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존재합니다. 동사의 상근감사인 황석영 감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감사직을 수행할수 있는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 현황 】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
감사 (상근/등기)	황석영 (1963.06.24)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감사(08.03~현재)

(2) 내부통제제도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의한 신주의 발행, 주주총회의 운영, 주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상장법인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정비하였으며,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른 내부거래에 관한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3) 공시체계

(가) 회계처리 투명성

동사는 2010년 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한 이후 동 규정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은 재무팀을 주축으로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운영평가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까지 내부회계관리자인 이한기 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나) 적정 공시능력

동사는 2014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해당기준에 맞춰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 왔으며, 상장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조직 및 인력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며,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공시교육 등을 성실하게 이수하게 함으로써 상장 후에도 적절한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현황 】

구분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김만훈	경영총괄	(주)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공시 담당자	정	이사	이한기	재무담당	삼일회계법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담당
	부	과장	이재학	경영관리	(주)셀트리온헬스케어 경영관리팀장

또한 동사는 상장 후 상장법인으로서의 공시의무사항과 기타 회사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정보가 집중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며, 기업공개 후 내부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 표준 내부정보관리 규정' 등을 참고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동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및 정관을 준수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사회규정을 통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예상되는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그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와 셀트리온간의 거래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와 셀트리온은 최종 제품의 시장가격과 양사가 공동개발자로서 부담하는 위험 및 역할을 고려하여 양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 가격은 최종 제품의 시장가격을 비롯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동사와 셀트리온의 객관적인 원료의약품 매입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OECD Guideline에 따른 양사의 합리적인 이익배분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와 해외 종속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비롯

하여 외부자문 및 내부 전문가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OECD Guideline에 따라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문서를 매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1) 2017년 1분기말, 2016년말 및 2015년말 현재 동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7년 1분기말	2016년말	2015년말
지배인	서정진	서정진	서정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
	-	-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주)드림이엔엠(*)	(주)드림이엔엠(*)
	-	-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지배인인 서정진은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1분기, 2016년 및 2015년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
단기종업원급여	459	2,024	1,351
퇴직급여	62	203	60
주식기준보상	141	506	872
합 계	662	2,733	2,283

동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급여, 비화폐성 급여 및 퇴직급여제도에 대한기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1분기, 2016년 및 201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7년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7	166,850	9,115
	(주)셀트리온제약	226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2
합 계		233	166,850	9,117

② 201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매출	기타수입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530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22
	(주)셀트리온	-	102	514,847	36,310
	(주)셀트리온제약	9,814	3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7
합 계		9,814	105	514,847	36,889

③ 201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유형자산의 취득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118
	ONE EQUITY PARTNERS IV,L.P.	-	-	-	6,500
	ION INVESTMENTS B.V.	-	-	-	12,538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881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6,613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	-	-	538
	(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2,674
	(주)셀트리온	123	466,853	2	38,919
	(주)셀트리온제약	-	-	-	976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4
	(주)드림이앤엠	-	-	-	1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19
합 계		123	466,853	2	69,801

(4) 2017년 1분기말, 2016년말 및 2015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7년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부채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23
	(주)셀트리온	-	28	566,592	31,679
	(주)셀트리온제약	10,526	-	-	-
합 계		10,526	28	566,592	31,702

② 2016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부채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7	635,262	33,261
	(주)셀트리온제약	11,820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
합 계		11,820	7	635,262	33,263

③ 2015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권	채무		
		기타채권	매입채무	금융부채	기타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10
	ONE EQUITY PARTNERS IV,L.P.	-	-	-	457
	ION INVESTMENTS B.V.	-	-	-	881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5,789	62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617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8	580,201	-	35,524
합 계		8	580,201	5,789	37,551

(5) 2017년 1분기 및 2016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으며, 201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자금차입	
		차입	상환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46,500	46,500
	(주)셀트리온지에스씨	10,000	10,000
합 계		56,500	56,500

(6) 2017년 1분기말 현재 동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 천EUR, 원화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 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담보권자
	특수관계자	제공자	담보제공사실 또는 보증내용	담보 또는 보증금액		
지급보증	지배인	서정진	차입금 연대보증	1,800	1,500	한국산업은행
				13,000	10,000	(주)한국씨티은행
				EUR 8,809	10,506	KDB BANK EUROPE LTD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격을 4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격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격	41,000원
확정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격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의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및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2016년까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영업능력,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과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절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

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금번 공모를 위한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16년 및 2017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절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동사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 마케팅 및 판매회사로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신약 세 분야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약품 도매업(G46441)에 속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내 약 218개 기업(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이 속해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기업은 2개사(파마리서치프로덕트, 씨티씨바이오)에 불과하며,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및 용도 측면에서 동사의 주요 제품인 바이오의약품과 크게 상이합니다. 그러므로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실질적인 사업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사가 속해 있는 의약품 도매업(G46441) 뿐만 아니라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C20499),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C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C21300),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상업화 단계 및 재무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기업(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검토기준	기업수
1차	업종 유사성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G46441) 의약품 도매업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2개사
2차	사업 유사성	①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공급권 혹은 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8개사
3차	상업화 단계	① 바이오의약품 개발단계가 해외 임상3상 이상 진행 중에 있거나 국내 및 해외 모두 판매 중에 있을 것	10개사
4차	재무 유사성	① 2016년 온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시현하였거나 최근 12개월(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시현하였을 것	9개사
5차	일반 기준	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2사업연도(2015년, 2016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④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9개사

(나)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1차 선정기준]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	해당기업
(C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나노신소재, 디엔에프, 라이온켄텍, 미원상사, 미원화학, 보락, 솔브레인, 송원산업, 애경유화, 에코프로,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제이씨케미칼, 케이디켄, 케이피엠테크, 켈트로닉스,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 휴켄스

(C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SK바이오랜드, 녹십자셀, 대봉엘에스, 대웅제약, 대정화금, 대화제약, 셀트리온, 에스텍파마, 케어젠,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 콜마비앤에이치, 펙트론, 프로스테믹스, 하이텍팜, 화일약품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강스템바이오텍,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바이오니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루메드, 쉘바이오텍, 안트로젠, 애니젠, 에이티젠,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제노포커스, 중앙백신연구소,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테고사이언스, 파미셀, 휴젤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MG제약, JW중외제약, 경남제약, 경동제약, 경보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명문제약, 바이넥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에스티팜, 에이프로젠제약, 영진약품공업, 오리엔트바이오, 우리들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연제약,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일성신약, 일양약품,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이더블유신약, 제일약품, 조아제약,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진양제약, 진원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테라젠이텍스, 팬젠, 퓨처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나이백, 녹십자엠에스, 메타바이오메드, 바디텍메드, 세운메디칼, 씨젠, 아스타, 액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오스코텍, 이수앱지스, 파나진, 피씨엘, 한스바이오메드
(G46441) 의약품 도매업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씨티씨바이오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레고켄바이오사이언스, 메지온, 바이로메드, 바이오리더스, 바이오톡스텍, 신라젠, 씨트리, 아이진, 알테오젠, 우정비에스씨, 제넥신, 지엘팜텍, 진매트릭스, 켐온, 큐리언트, 크리스탈지노믹스
(M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녹십자랩셀, 마크로젠

자료: KISLINE

[2차 선정기준]

- ①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공급권 혹은 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번호	기업명	바이오의약품	2 차 선정
----	-----	--------	--------

1	셀트리온	CT-P13(램시마,인플렉트라) 미국, 유럽, 한국 출시 CT-P10(트록시마) 유럽, 한국 출시 CT-P6(허쥬마) 유럽 허가신청, 한국 판매허가 CT-P13SC(램시마,인플렉트라SC제형) 글로벌3상 진행중 CT-P27(인플루엔자) 글로벌2b상 진행중 CT-P05(엔브렐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7(휴미라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6(아바스틴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5(어비투스 시밀러) 1상 준비중 CT-P26(허셉틴 바이오베터) 비임상 준비중	○
2	유한양행	YH24931(면역항암제) 전임상 진행중 YH25348(당뇨병) 후보물질 최적화 YH25723(당뇨,NASH) 후보물질 최적화	○
3	녹십자	IVIG SN(1차성 면역결핍질환) 미국 허가신청 MGAH22(허셉틴 바이오베터) 미국3상 진행중 (MacroGenics와 공동) GreenGene F(A형 혈우병) 중국3상 진행중 Hunterase(헌터증후군) 미국2상 진행중	○
4	한미약품	HM10460A(호중구감소증) 미국3상 진행중 * Eflapegrastim (LAPS-GCSF) HM11260C(지속형당뇨병치료제) 미국2상 진행중 * Efpeglenatide (LAPS-CA-Exendin-4) HM10560A(인성장호르몬) 유럽2상 완료 * Efpegsomatropin (LAPS-hGH)	○
5	대웅제약	HL036(안구건조증) 한국1상 완료 (한올바이오파마) HL161(자가면역질환) 전임상 진행중 (한올바이오파마)	○
6	종근당	CKD-11101(네스프 시밀러) 한국3상 진행중 CKD-12101(호중구감소증) 전임상 진행중	○
7	동아에스티	DA-3880(네스프 시밀러) 일본3상 진행중, 유럽1상 완료 DMB-3111(허셉틴 시밀러) 유럽3상 준비중, 일본1상 완료 DMB-3113(휴미라 시밀러) 일본1상 진행중 듀라스틴(호중구감소증) 한국 출시 고나도핀(보조생식술시 난포과자극) 한국 출시	○
8	한독	HL2351(자가면역질환) 한국1상 완료 / 한국2상 중단 (제백신과 공동) HL2356(성장호르몬 결핍증) 유럽/한국2상 진행중 (제백신과 공동)	○
9	한올바이오파마	HL036(안구건조증) 한국1상 완료 HL161(자가면역질환) 전임상 진행중	○
10	에이프로젠제약	GS071(레미케이드 시밀러) 일본 허가신청 (에이프로젠)	○

11	제백신	GX-188E(자궁경부전암) 유럽/한국2상 진행중 GX-H9(지속형 성장호르몬) 유럽/한국2상 진행중 (한독과 공동) GX-G3(호중구감소증) 유럽/한국2상 진행중 (ILKO와 공동) GX-E2(빈혈치료제) 한국2상 진행중 (녹십자와 공동) GX-I7(림프구감소증) 한국1상 진행중	○
12	이수엠피시스	클로티넵(항혈전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애브서틴(고셔병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파바갈(파브리병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
13	레고캠바이오 사이언스	LCB14-0110(허셉틴 ADC) 전임상 진행중 LCB14-17nn(Mesothelin ADC) 전임상 진행중	○
14	알테오젠	hGH-NexP(지속형 성장호르몬) 한국2상 준비중 (CJ헬스케어와 공동) ALT-02(허셉틴 시밀러) 캐나다1상 완료 ALT-P7(허셉틴 ADC) 한국1상 준비중	○
15	아이진	EG-Mirotin(당뇨망막증) 유럽2a상 진행중 EG-Decorin(육창) 한국1/2상 진행중 EG-HPV(자궁경부암) 한국1상 완료	○
16	메디톡스	메디톡신(보툴리눔독신A) 일본, 남미, 러시아, 한국 출시 이노톡스(보툴리눔독신A) 미국3상 준비중	○
17	휴젤	보툴렉스(보툴리눔독신A) 일본, 남미, 동남아, 한국 출시 보툴렉스(보툴리눔독신A) 미국/독일/중국/폴란드 3상 준비중	○
18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티슈진-C, 퇴행성관절염) 미국3상 준비중, 한국 허가 신청	○
19	이연제약	VM202-DPN(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3상 진행중, 한국2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PAD(허혈성 지체질환) 미국3상 진행중, 한국/중국 2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미국2상 준비중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CAD(허혈성 심장질환) 한국2상 진행중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6RY(유방암) 한국1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
20	바이로메드	VM202-DPN(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3상 진행중, 한국2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VM202-PAD(허혈성 지체질환) 미국3상 진행중, 한국/중국 2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VM202-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미국2상 준비중(이연제약과 공동) VM202-CAD(허혈성 심장질환) 한국2상 진행중(이연제약과 공동) VM206RY(유방암) 한국1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

21	차바이오텍	PLX-PAD(간혈성파행증) 미국/독일2상 진행중 CB-AC-01(급성 뇌졸중) 한국1/2a상 완료 CB-AC-02(알츠하이머병) 한국1/2a상 진행중 CB-AC-03(퇴행성 디스크질환) 한국1/2a상 진행중 hESC-RPE(진행된 위축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증) 한국1/2a상 진행중 hESC-RPE(스타가르트병) 한국1상 완료	○
22	메디포스트	카티스템(관절연골손상) 한국 출시, 미국1/2a상 진행중 뉴모스템(기관지폐이형성증) 한국2상 완료, 미국1/2상 진행중 뉴로스템(알츠하이머병) 한국1/2a상 진행중	○
23	파미셀	Cellgram-AMI(급성 심근경색) 한국 출시 Cellgram-SCI(척수손상) 한국2/3상 진행중 Cellgram-IS(급성 뇌경색) 한국3상 진행중 Cellgram-LC(간경변) 한국2상 완료 Cellgram-CLI(중증 하지허혈) 한국1상 진행중 Cellgram-ED(발기부전) 한국1상 진행중	○
24	코아스템	뉴로나타-알(루게릭병) 한국 출시 CS20AT04(전신홍반루푸스) 한국1상 진행중 CS10BR05(다계통위축증) 한국1상 준비중	○
25	테고사이언스	홀로덤(3도화상) 한국 출시 칼로덤(심부2도화상, 당뇨성족부궤양) 한국 출시 네오덤(3차원 배양피부모델) 한국 출시 TPX-103(로스미르) 한국 허가신청 TPX-105(주름개선) 한국 허가신청 (3상 조건부) TPX-111(화상) 한국3상 진행중	○
26	안트로젠	큐피스템(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한국 출시 ALLO-ASC-DFU(당뇨성족부궤양) 미국1/2a상 준비중, 한국2상 진행중 ALLO-ASC-BI(심재성 2도화상) 한국2상 진행중 ALLO-ASC-TI(힘줄손상) 한국2상 진행중 ALLO-ASC-EB(수포성 표피 박리증) 한국1상 진행중 ALLO-ASC-CD(크론병) 한국1상 진행중	○
27	일동제약	iCP-Parkin(파킨슨병) 비임상 진행중 (셀리버리와 공동)	○
28	인트론바이오 테크놀로지	N-Rephasin SAL200(슈퍼박테리아 감염증) 한국2상 진행중	○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홈페이지, 기업분석보고서 및 언론보도

[3차 선정기준]

- ① 바이오의약품 개발단계가 해외 임상3상 이상 진행 중에 있거나 국내 및 해외 모두 판매 중에 있을 것

번호	기업명	바이오의약품	3 차 선정
1	셀트리온	CT-P13(램시마,인플렉트라) 미국, 유럽, 한국 출시 CT-P10(트록시마) 유럽, 한국 출시 CT-P6(허쥬마) 유럽 허가신청, 한국 판매허가 CT-P13SC(램시마,인플렉트라SC제형) 글로벌3상 진행중 CT-P27(인플루엔자) 글로벌2b상 진행중 CT-P05(엔브렐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7(휴미라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6(아바스틴 시밀러) 1상 준비중 CT-P15(어비투스 시밀러) 1상 준비중 CT-P26(허셉틴 바이오베터) 비임상 준비중	O
2	유한양행	YH24931(면역항암제) 전임상 진행중 YH25348(당뇨병) 후보물질 최적화 YH25723(당뇨,NASH) 후보물질 최적화	X
3	녹십자	IVIG SN(1차성 면역결핍질환) 미국 허가신청 MGAH22(허셉틴 바이오베터) 미국3상 진행중 (MacroGenics와 공동) GreenGene F(A형 혈우병) 중국3상 진행중 Hunterase(헌터증후군) 미국2상 진행중	O
4	한미약품	HM10460A(호중구감소증) 미국3상 진행중 * Eflapegrastim (LAPS-GCSF) HM11260C(지속형당뇨병치료제) 미국2상 진행중 * Efpeglenatide (LAPS-CA-Exendin-4) HM10560A(인성장호르몬) 유럽2상 완료 * Efpegsomatropin (LAPS-hGH)	O
5	대웅제약	HL036(안구건조증) 한국1상 완료 (한올바이오파마) HL161(자가면역질환) 전임상 진행중 (한올바이오파마)	X
6	종근당	CKD-11101(네스프 시밀러) 한국3상 진행중 CKD-12101(호중구감소증) 전임상 진행중	X
7	동아에스티	DA-3880(네스프 시밀러) 일본3상 진행중, 유럽1상 완료 DMB-3111(허셉틴 시밀러) 유럽3상 준비중, 일본1상 완료 DMB-3113(휴미라 시밀러) 일본1상 진행중 듀라스틴(호중구감소증) 한국 출시 고나도핀(보조생식술시 난포과자극) 한국 출시	O
8	한독	HL2351(자가면역질환) 한국1상 완료 / 한국2상 중단 (제넥신과 공동) HL2356(성장호르몬 결핍증) 유럽/한국2상 진행중 (제넥신과 공동)	X
9	한올바이오파마	HL036(안구건조증) 한국1상 완료 HL161(자가면역질환) 전임상 진행중	X
10	에이프로젠제약	GS071(레미케이드 시밀러) 일본 허가신청 (에이프로젠)	O

11	제백신	GX-188E(자궁경부전암) 유럽/한국2상 진행중 GX-H9(지속형 성장호르몬) 유럽/한국2상 진행중 (한독과 공동) GX-G3(호중구감소증) 유럽/한국2상 진행중 (ILKO와 공동) GX-E2(빈혈치료제) 한국2상 진행중 (녹십자와 공동) GX-I7(림프구감소증) 한국1상 진행중	X
12	이수엠피스	클로티넵(항혈전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애브서틴(고셔병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파바갈(파브리병 항체치료제) 한국 출시	X
13	레고캠바이오 사이언스	LCB14-0110(허셉틴 ADC) 전임상 진행중 LCB14-17nn(Mesothelin ADC) 전임상 진행중	X
14	알테오젠	hGH-NexP(지속형 성장호르몬) 한국2상 준비중 (CJ헬스케어와 공동) ALT-02(허셉틴 시밀러) 캐나다1상 완료 ALT-P7(허셉틴 ADC) 한국1상 준비중	X
15	아이진	EG-Mirotin(당뇨망막증) 유럽2a상 진행중 EG-Decorin(육창) 한국1/2상 진행중 EG-HPV(자궁경부암) 한국1상 완료	X
16	메디톡스	메디톡스(보툴리눔독신A) 일본, 남미, 러시아, 한국 출시 이노톡스(보툴리눔독신A) 미국3상 준비중	O
17	휴젤	보툴렉스(보툴리눔독신A) 일본, 남미, 동남아, 한국 출시 보툴렉스(보툴리눔독신A) 미국/독일/중국/폴란드 3상 준비중	O
18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티슈진-C, 퇴행성관절염) 미국3상 준비중, 한국 허가 신청	O
19	이연제약	VM202-DPN(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3상 진행중, 한국2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PAD(허혈성 지체질환) 미국3상 진행중, 한국/중국 2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미국2상 준비중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2-CAD(허혈성 심장질환) 한국2상 진행중 (바이로메드와 공동) VM206RY(유방암) 한국1상 완료 (바이로메드와 공동)	O
20	바이로메드	VM202-DPN(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3상 진행중, 한국2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VM202-PAD(허혈성 지체질환) 미국3상 진행중, 한국/중국 2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VM202-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미국2상 준비중(이연제약과 공동) VM202-CAD(허혈성 심장질환) 한국2상 진행중(이연제약과 공동) VM206RY(유방암) 한국1상 완료 (이연제약과 공동)	O

21	차바이오텍	PLX-PAD(간혈성파행증) 미국/독일2상 진행중 CB-AC-01(급성 뇌졸중) 한국1/2a상 완료 CB-AC-02(알츠하이머병) 한국1/2a상 진행중 CB-AC-03(퇴행성 디스크질환) 한국1/2a상 진행중 hESC-RPE(진행된 위축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증) 한국1/2a상 진행중 hESC-RPE(스타가르트병) 한국1상 완료	X
22	메디포스트	카티스템(관절연골손상) 한국 출시, 미국1/2a상 진행중 뉴모스템(기관지폐이형성증) 한국2상 완료, 미국1/2상 진행중 뉴로스템(알츠하이머병) 한국1/2a상 진행중	X
23	파미셀	Cellgram-AMI(급성 심근경색) 한국 출시 Cellgram-SCI(척수손상) 한국2/3상 진행중 Cellgram-IS(급성 뇌경색) 한국3상 진행중 Cellgram-LC(간경변) 한국2상 완료 Cellgram-CLI(중증 하지허혈) 한국1상 진행중 Cellgram-ED(발기부전) 한국1상 진행중	X
24	코아스템	뉴로나타-알(루게릭병) 한국 출시 CS20AT04(전신홍반루푸스) 한국1상 진행중 CS10BR05(다계통위축증) 한국1상 준비중	X
25	테고사이언스	홀로덤(3도화상) 한국 출시 칼로덤(심부2도화상, 당뇨성족부궤양) 한국 출시 네오덤(3차원 배양피부모델) 한국 출시 TPX-103(로스미르) 한국 허가신청 TPX-105(주름개선) 한국 허가신청 (3상 조건부) TPX-111(화상) 한국3상 진행중	X
26	안트로젠	큐피스템(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한국 출시 ALLO-ASC-DFU(당뇨성족부궤양) 미국1/2a상 준비중, 한국2상 진행중 ALLO-ASC-BI(심재성 2도화상) 한국2상 진행중 ALLO-ASC-TI(힘줄손상) 한국2상 진행중 ALLO-ASC-EB(수포성 표피 박리증) 한국1상 진행중 ALLO-ASC-CD(크론병) 한국1상 진행중	X
27	일동제약	iCP-Parkin(파킨슨병) 비임상 진행중 (셀리버리와 공동)	X
28	인트론바이오 테크놀로지	N-Rephasin SAL200(슈퍼박테리아 감염증) 한국2상 진행중	X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홈페이지, 기업분석보고서 및 언론보도

[4차 선정기준]

- ① 2016년 온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시현하였거나 최근 12개월(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기준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시현하였을 것

(단위: 원)

번호	기업명	2016년 순이익 (주1)	최근 12개월 순이익 (주1)	4차선정
1	셀트리온	177,994,502	234,849,285	○
2	녹십자	62,969,547	62,300,368	○
3	한미약품	23,325,623	4,176,777	○
4	동아에스티	10,628,241	(5,468,025)	○
5	에이프로젠제약	(3,917,715)	(5,952,756)	X
6	메디톡스	59,231,020	62,573,137	○
7	휴젤	43,272,526	56,095,624	○
8	코오롱생명과학	12,665,387	10,838,217	○
9	이연제약	11,792,016	12,317,704	○
10	바이로메드	550,028	211,632	○

자료 :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최종 선정기준]

- ①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②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2사업연도(2015년, 2016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③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 ④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16년) 및 당해 사업연도(2017년) 평가기준일까지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번호	기업명	신규상장후 1년 경과	최근 2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최근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 도 평가기준일까지 합병, 영업 양수도, 기업분할 등 중요한 경 영상의 변동 없음	최근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 도 평가기준일까지 투자경고종 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조치받은 사실 없음	최종선정
1	셀트리온	○	○	○	○	○
2	녹십자	○	○	○	○	○
3	한미약품	○	○	○	○	○
4	동아에스티	○	○	○	○	○
5	메디톡스	○	○	○	○	○
6	휴젤	○	○	○	○	○
7	코오롱생명과학	○	○	○	○	○
8	이연제약	○	○	○	○	○
9	바이로메드	○	○	○	○	○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이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이라고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 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17년 5월 2일 ~ 6월 1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17년 5월 26일 ~ 2017년 6월 1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17년 6월 1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일자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2017-05-02	89,000	165,000	309,000	92,600	513,900	476,000	137,200	27,250	91,200
2017-05-04	90,100	166,000	316,500	95,000	512,800	471,300	141,000	27,400	92,300
2017-05-08	94,800	170,000	349,000	98,900	522,100	475,000	144,300	27,800	95,800
2017-05-10	96,500	170,500	353,000	97,500	524,800	473,500	142,800	27,800	95,300
2017-05-11	95,300	176,000	380,500	99,500	533,800	473,900	145,300	27,700	95,600
2017-05-12	95,500	175,000	378,500	98,300	526,400	464,600	144,400	27,500	93,300
2017-05-15	95,900	174,500	373,000	96,100	526,600	476,000	148,800	27,900	94,500
2017-05-16	94,900	173,500	364,000	94,100	509,700	484,900	145,200	27,400	91,700
2017-05-17	94,700	175,000	364,000	94,600	517,400	486,000	144,000	27,200	91,700
2017-05-18	94,000	171,000	358,000	94,200	512,300	477,500	144,600	27,000	90,200
2017-05-19	94,800	171,000	358,000	93,800	514,200	473,800	144,200	27,350	93,000
2017-05-22	93,900	172,500	356,500	94,100	510,000	471,000	148,000	27,250	95,500
2017-05-23	93,500	173,000	371,500	94,700	505,700	468,400	157,600	27,650	96,600
2017-05-24	95,000	176,500	367,000	97,500	511,800	471,500	158,000	28,000	96,500
2017-05-25	93,800	175,500	363,500	97,900	505,000	464,500	160,000	28,200	95,200

2017-05-26	93,800	176,000	364,000	98,000	506,800	451,900	162,700	28,100	96,500
2017-05-29	93,600	174,000	358,500	95,800	506,000	439,200	161,100	28,000	95,000
2017-05-30	95,800	177,000	367,000	99,500	502,600	442,500	160,100	28,300	96,300
2017-05-31	95,600	180,000	382,000	103,500	522,000	467,500	162,900	28,750	100,800
2017-06-01	95,000	180,000	388,500	104,000	524,500	488,600	168,600	29,000	101,600
1개월 증가 평균(A)	94,275	173,600	361,100	96,980	515,420	469,880	151,040	27,778	94,930
1주일 증가 평균(B)	94,760	177,400	372,000	100,160	512,380	457,940	163,080	28,430	98,040
평가기준일 증가(C)	95,000	180,000	388,500	104,000	524,500	488,600	168,600	29,000	101,600
기준주가(MIN={A,B,C})	94,275	173,600	361,100	96,980	512,380	457,940	151,040	27,778	94,930

(4)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16년도 3분기(1월~9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출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16년도 온기(1월~12월) 실적에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ER 배수 = 기준주가 ÷ 주당순이익(EPS)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 비교기업 PER 산출

동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분기별 매출액 및 순이익의 변동성이 존재하며 일시적인 실적 변동성으로 인해 PER 산출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2016년 온기 순이익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과 ② 최근 12개월(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각각 PER를 산출하였습니다.

① 2016년 온기 순이익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

(단위: 천원, 원, 주)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순이익(천원) (주1)	177,994,502	62,969,547	23,325,623	10,628,241	59,231,020	43,272,526	12,665,387	11,792,016	550,028
발행주식총수(주) (주2)	122,604,401	11,686,538	11,163,452	8,443,868	5,656,535	3,284,058	7,610,890	12,900,000	15,956,260
주당순이익(원) (주3)	1,452	5,388	2,089	1,259	10,471	13,177	1,664	914	34
기준주가(원) (주4)	94,275	173,600	361,100	96,980	512,380	457,940	151,040	27,778	94,930
PER(배)	64.94	32.22	172.82	77.05	48.93	34.75	90.76	30.39	2,753.91
포함여부 (주5)	○	×	×	○	○	×	×	×	×
평균 PER(배)	63.64								

- 주1) 순이익은 2016년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 주2)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2017년 6월 1일) 기준
- 주3) 주당순이익은 2016년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을 평가기준일(2017년 6월 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수치
- 주4)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 종가,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가장 낮은 가액
- 주5) 극대값 및 극소값의 존재로 인해 평균 산정시 왜곡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산정시 극대값 3개 및 극소값 3개를 제외함

② 최근 12개월(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

(단위: 천원, 원, 주)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순이익(천원) (주1)	234,849,285	62,300,368	4,176,777	(5,468,025)	62,573,137	56,095,624	10,838,217	12,317,704	211,632
발행주식총수(주) (주2)	122,604,401	11,686,538	11,163,452	8,443,868	5,656,535	3,284,058	7,610,890	12,900,000	15,956,260
주당순이익(원) (주3)	1,916	5,331	374	(648)	11,062	17,081	1,424	955	13
기준주가(원) (주4)	94,275	173,600	361,100	96,980	512,380	457,940	151,040	27,778	94,930
PER(배)	49.22	32.56	965.13	(149.76)	46.32	26.81	106.06	29.09	7,157.37
포함여부 (주5)	○	×	×	×	○	×	×	×	×
평균 PER(배)	47.77								

순이익은 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단위: 천

원)

주1)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 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 드
2016년 2분기	59,297,140	16,081,761	20,079,602	(3,027,814)	15,940,407	11,625,790	2,334,432	2,319,611	1,612,604
2016년	58,130,610	22,392,800	4,789,785	(388,658)	14,606,010	12,564,560	2,401,429	2,284,041	195,301

3분기	7	8			1	4			
2016년	49,652,40	19,229,52	(39,619,4	9,365,992	15,068,83	13,565,15	5,827,550	3,062,854	(477,818)
4분기	1	5	70)		5	5			
2017년	67,769,12	4,596,274	18,926,86	(11,417,5	16,957,88	18,340,11	274,806	4,651,198	(1,118,45
1분기	7		0	45)	4	5			5)
최근 12개	234,849.2	62,300,36	4,176,777	(5,468,02	62,573,13	56,095,62	10,838,21	12,317,70	211,632
월	85	8		5)	7	4	7	4	

- 주2)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2017년 6월 1일) 기준
주3) 주당순이익은 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을 평가기준일(2017년 6월 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수치
주4)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 종가,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중 가장 낮은 가액
주5) 극대값 및 극소값의 존재로 인해 평균 산정시 왜곡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산정시 극대값 3개 및 극소값 3개를 제외함

(나) PER를 적용한 주당 상대가치 산출

구 분	①	②	비 고
순이익 (주1)	122,896,341천원	124,976,097천원	A
적용 PER	63.64배	47.77배	B
평가 시가총액	7,821,032백만원	5,969,816백만원	C = A X B
적용 주식수 (주2)	145,227,106주		D
주당 평가가액 (주3)	53,854원	41,107원	E = C / D
최종 평가가액	47,480원		F = {E(①)+E(②)}/2

- 주1) ① 순이익은 2016년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② 순이익은 2016년 2분기 ~ 2017년 1분기 (연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기준
적용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112,084,120주) + 신주모집 주식수
주2) (24,604,000주)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한 희석가능주식수(5,724,019주) +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주식수(2,814,967주) = 145,227,106주
주3) 상기 산식에 따른 계산 수치와 실제 기재수치의 차이는 소수점 이하 단수에 따라 발생함

(다)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 및 **확정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PER 적용 주당 평가가액	47,480원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	31.5% ~ 13.6%
희망공모가액	32,500원 ~ 41,000원
확정공모가액 (주1)	41,000원

주)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공동주관회사인 유비에스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 연관성,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종류, 상업화 단계 및 재무적 유사성, 일반 기준 등 검토를 통해 9개 기업(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주요 매출(개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및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사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 비교기업 2014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자산총계	2,322,385	1,330,351	1,033,335	1,081,858	168,511	97,250	208,896	191,246	70,369
유동자산	793,036	662,881	537,719	499,711	103,247	52,253	68,857	125,324	16,425
비유동자산	1,529,349	667,470	495,615	582,148	65,264	44,996	140,039	65,921	53,944
부채총계	974,604	409,725	444,088	593,521	86,921	54,576	72,721	35,740	3,305
유동부채	493,937	334,370	182,354	223,983	34,997	54,277	37,536	29,856	1,131
비유동부채	480,667	75,354	261,734	369,538	51,925	299	35,185	5,884	2,173
자본총계	1,347,781	920,627	589,246	488,337	81,590	42,674	136,175	155,506	67,064
자본총계(지배)	1,247,394	892,662	527,463	488,073	81,590	42,674	136,175	155,506	67,064
자본금	103,570	58,433	24,361	38,510	2,828	1,120	3,345	6,450	7,099
자본잉여금	365,447	316,514	419,009	227,364	13,903	10,577	56,417	12,706	88,283
이익잉여금	845,040	513,426	79,683	41,946	89,923	29,479	76,763	118,083	-28,318
기타자본	-70,099	-13,912	-1,745	-606	-24,997	1,071	-351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436	18,200	6,154	180,859	-67	426	0	18,266	0
비지배주주지분	100,387	27,965	61,783	263	0	0	0	0	0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매출액	471,046	975,327	761,280	578,640	75,892	40,350	130,633	112,112	6,138
매출원가	129,908	664,828	338,777	268,512	6,862	11,959	97,548	48,695	583
매출총이익	341,138	310,500	422,503	310,128	69,030	28,391	33,085	63,417	5,555
영업이익	201,469	96,966	34,452	49,369	49,958	15,488	9,396	16,723	246
당기순이익	117,482	86,789	43,295	37,550	43,628	13,150	5,855	11,593	159

당기순이익(지배)	112,676	83,945	35,510	37,412	43,628	13,150	5,855	11,593	159
당기순이익(비지배)	4,805	2,844	7,786	137	0	0	0	0	0
총포괄이익	120,830	84,066	32,506	29,253	43,419	13,730	5,105	17,047	96
총포괄이익(지배)	116,018	81,352	24,253	29,133	43,419	13,730	5,105	17,047	96
총포괄이익(비지배)	4,812	2,715	8,253	120	0	0	0	0	0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 2015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자산총계	2,748,231	1,415,128	1,722,593	1,063,539	203,552	233,572	228,616	260,929	70,610
유동자산	1,096,837	743,462	1,145,121	529,632	103,481	107,499	82,379	119,829	10,154
비유동자산	1,651,393	671,667	577,472	533,907	100,071	126,073	146,237	141,100	60,456
부채총계	938,390	417,424	977,785	509,765	90,069	18,380	93,174	43,101	3,413
유동부채	665,751	307,735	673,621	238,289	47,535	17,872	38,441	20,479	1,211
비유동부채	272,639	109,689	304,163	271,476	42,534	508	54,733	22,622	2,203
자본총계	1,809,841	997,704	744,808	553,773	113,483	215,191	135,442	217,828	67,197
자본총계(지배)	1,694,234	956,809	674,945	553,613	113,483	207,847	135,442	217,828	67,197
자본금	112,432	58,433	25,577	40,179	2,828	1,642	3,345	6,450	7,099
자본잉여금	648,640	311,314	417,793	253,965	13,903	140,772	56,417	12,706	88,283
이익잉여금	994,025	595,453	228,143	100,032	123,484	63,071	76,031	126,196	-28,186
기타자본	-69,375	-13,912	-2,153	-641	-26,747	2,460	-351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8,512	5,522	5,585	160,079	14	-97	0	72,476	0
비지배주주지분	115,607	40,895	69,863	160	0	7,345	0	0	0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매출액	603,413	1,047,812	1,317,535	567,940	88,505	65,066	121,175	114,507	7,695
매출원가	234,569	708,816	398,251	273,659	14,169	26,561	95,284	47,522	639
매출총이익	368,844	338,997	919,284	294,281	74,336	38,504	25,891	66,985	7,057
영업이익	258,954	91,680	211,800	53,863	51,662	17,757	2,183	19,837	1,072
당기순이익	158,282	95,687	162,060	48,573	42,293	35,857	800	11,338	257
당기순이익(지배)	154,090	94,967	154,443	48,562	42,293	33,929	800	11,338	257
당기순이익(비지배)	4,192	720	7,617	11	0	1,928	0	0	0
총포괄이익	163,334	84,043	155,970	43,004	42,187	34,996	604	65,547	132
총포괄이익(지배)	159,166	83,802	147,891	42,987	42,187	33,068	604	65,547	132
총포괄이익(비지배)	4,168	241	8,079	16	0	1,928	0	0	0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 2016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	------	-----	------	-------	------	----	-------------	------	-------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자산총계	3,021,941	1,550,615	1,596,971	1,066,617	324,030	294,303	354,573	223,858	227,540
유동자산	1,254,069	801,377	840,742	561,517	68,598	151,349	196,816	114,842	144,877
비유동자산	1,767,872	749,237	756,229	505,099	255,432	142,954	157,757	109,016	82,663
부채총계	822,974	491,604	862,454	477,395	176,352	20,363	94,784	30,440	7,108
유동부채	610,253	303,297	544,145	386,146	76,561	19,912	70,212	18,688	844
비유동부채	212,721	188,306	318,309	91,249	99,790	451	24,573	11,752	6,264
자본총계	2,198,967	1,059,011	734,517	589,222	147,679	273,940	259,788	193,418	220,432
자본총계(지배)	2,053,638	993,071	659,461	589,222	147,679	252,799	259,788	193,418	220,432
자본금	116,598	58,433	26,088	42,219	2,828	1,642	3,805	6,450	7,978
자본잉여금	747,584	324,532	417,282	286,469	13,903	144,801	169,922	12,706	240,216
이익잉여금	1,168,691	637,243	228,894	100,778	172,813	106,454	86,412	134,118	-27,763
기타자본	14,252	-35,702	-9,280	-641	-42,112	90	-351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6,513	8,565	-3,523	160,396	246	-188	0	40,143	0
비지배주주지분	145,328	65,940	75,056	0	0	21,141	0	0	0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매출액	670,581	1,197,904	882,725	560,535	133,256	124,189	158,284	121,847	6,844
매출원가	273,978	845,826	421,869	283,769	24,080	29,790	109,688	51,529	543
매출총이익	396,603	352,078	460,856	276,766	109,175	94,400	48,597	70,318	6,301
영업이익	249,694	78,452	26,772	14,843	75,172	63,260	18,459	15,473	303
당기순이익	180,452	65,152	30,300	10,642	59,231	50,901	12,665	11,792	550
당기순이익(지배)	177,995	62,970	23,326	10,628	59,231	43,273	12,665	11,792	550
당기순이익(비지배)	2,457	2,183	6,974	14	0	7,628	0	0	0
총포괄이익	178,453	66,813	17,256	9,109	59,156	50,921	11,050	-20,540	423
총포괄이익(지배)	175,995	65,069	12,063	9,095	59,156	43,293	11,050	-20,540	423
총포괄이익(비지배)	2,458	1,743	5,193	14	0	7,628	0	0	0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 2017년 1분기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자산총계	3,071,181	1,544,197	1,478,085	1,015,007	333,664	318,361	341,572	223,588	229,433
유동자산	1,298,331	789,083	672,943	515,440	70,173	174,441	178,570	120,032	134,980
비유동자산	1,772,850	755,114	805,142	499,567	263,491	143,920	163,002	103,556	94,452
부채총계	838,278	493,112	736,532	442,378	177,930	21,717	83,079	34,267	10,120
유동부채	615,602	289,748	419,202	357,367	91,420	21,118	56,974	23,940	1,019
비유동부채	222,676	203,364	317,330	85,011	86,509	599	26,105	10,327	9,101
자본총계	2,232,903	1,051,085	741,553	572,629	155,734	296,644	258,493	189,321	219,313
자본총계(지배)	2,088,212	984,078	663,839	572,629	155,734	272,907	258,493	189,321	219,313
자본금	122,427	58,433	27,909	42,219	2,828	1,642	3,805	6,450	7,978
자본잉여금	747,584	324,423	415,462	286,469	15,924	144,801	169,922	12,706	240,216

이익잉여금	1,230,632	627,536	247,821	85,085	182,885	124,788	85,117	134,254	-28,881
기타자본	-20,313	-35,702	-15,730	-736	-45,861	1,916	-351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7,883	9,388	-11,621	159,591	-43	-240	0	35,911	0
비지배주주지분	144,691	67,007	77,714	0	0	23,737	0	0	0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매출액	196,578	275,385	233,550	133,107	40,477	44,251	25,595	33,244	397
매출원가	77,262	201,531	99,152	67,453	7,444	9,581	17,811	13,915	80
매출총이익	119,316	73,854	134,398	65,653	33,033	34,669	7,784	19,330	317
영업이익	89,394	13,680	31,368	4,792	21,182	25,839	-146	6,073	-1,296
당기순이익	67,094	6,967	24,646	-11,418	16,958	20,936	275	4,651	-1,118
당기순이익(지배)	67,769	4,596	18,927	-11,418	16,958	18,340	275	4,651	-1,118
당기순이익(비지배)	-675	2,371	5,719	0	0	2,596	0	0	0
총포괄이익	68,462	7,774	13,486	-12,278	16,668	20,878	225	418	-1,118
총포괄이익(지배)	69,139	5,382	10,828	-12,278	16,668	18,282	225	418	-1,118
총포괄이익(비지배)	-677	2,392	2,658	0	0	2,596	0	0	0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 비교기업의 2014년 주요 재무비율 】

(단위 : %, 회)

구분	비율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108.2%	9.8%	4.3%	15.5%	93.9%	38.3%	-6.4%	2.2%	6.8%
	영업이익 증가율	101.8%	23.0%	-44.3%	24.1%	198.2%	33.7%	-48.8%	-4.1%	-34.9%
	당기순이익 증가율	14.7%	20.5%	-14.3%	특자전환	205.0%	80.0%	-66.0%	2.7%	-39.7%
	총자산 증가율	17.4%	20.5%	17.3%	16.1%	112.2%	24.6%	1.0%	7.2%	1.1%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42.8%	9.9%	4.5%	8.5%	65.8%	38.4%	7.2%	14.9%	4.0%
	매출액 순이익율	24.9%	8.9%	5.7%	6.5%	57.5%	32.6%	4.5%	10.3%	2.6%
	총자산 순이익율	5.5%	7.1%	4.5%	3.7%	35.2%	15.0%	2.8%	6.3%	0.2%
	자기자본 순이익율	9.6%	9.9%	8.2%	8.1%	61.3%	37.8%	4.5%	7.8%	0.2%
안정성 (%)	부채비율	72.3%	44.5%	75.4%	121.5%	106.5%	127.9%	53.4%	23.0%	4.9%
	차입금의존도	36.4%	12.1%	26.3%	41.5%	5.0%	39.1%	26.8%	7.8%	1.8%
	유동비율	160.6%	198.3%	294.9%	223.1%	295.0%	96.3%	183.4%	419.8%	1452.2%
	당좌비율	115.3%	109.0%	221.9%	184.4%	284.2%	93.3%	70.0%	354.8%	1387.3%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22	0.80	0.80	0.57	0.61	0.46	0.63	0.61	0.09
	재고자산 회전율	2.61	3.56	6.37	6.44	27.72	23.15	3.04	5.29	8.19
	매출채권 회전율	1.45	3.93	3.02	6.26	6.78	2.63	6.90	2.20	1.54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의 2015년 주요 재무비율 】

(단위 : %, 회)

구분	비율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8.1%	7.4%	73.1%	-1.9%	16.6%	61.3%	-7.2%	2.1%	25.4%

(%)	영업이익 증가율	28.5%	-5.5%	514.8%	9.1%	3.4%	14.7%	-76.8%	18.6%	335.1%
	당기순이익 증가율	34.7%	10.3%	274.3%	29.4%	-3.1%	172.7%	-86.3%	-2.2%	62.1%
	총자산 증가율	18.3%	6.4%	66.7%	-1.7%	20.8%	140.2%	9.4%	36.4%	0.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42.9%	8.8%	16.1%	9.5%	58.4%	27.3%	1.8%	17.3%	13.9%
	매출액 순이익율	26.2%	9.1%	12.3%	8.6%	47.8%	55.1%	0.7%	9.9%	3.3%
	총자산 순이익율	6.2%	7.0%	11.8%	4.5%	22.7%	21.7%	0.4%	5.0%	0.4%
	자기자본 순이익율	10.0%	10.0%	24.3%	9.3%	43.4%	27.8%	0.6%	6.1%	0.4%
안정성 (%)	부채비율	51.9%	41.8%	131.3%	92.1%	79.4%	8.5%	68.8%	19.8%	5.1%
	차입금의존도	29.0%	9.4%	21.3%	35.0%	12.3%	0.6%	32.5%	0.8%	1.4%
	유동비율	164.8%	241.6%	170.0%	222.3%	217.7%	601.5%	214.3%	585.1%	838.8%
	당좌비율	129.6%	136.1%	146.5%	181.7%	205.4%	556.7%	120.0%	478.2%	788.7%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24	0.76	0.96	0.53	0.48	0.39	0.55	0.51	0.11
	재고자산 회전율	2.64	3.36	9.05	6.20	18.41	13.53	3.07	5.55	11.48
	매출채권 회전율	1.16	3.95	2.48	6.13	6.00	3.27	7.08	2.19	1.56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의 2016년 주요 재무비율 】

(단위 : %, 회)

구 분	비율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11.1%	14.3%	-33.0%	-1.3%	50.6%	90.9%	30.6%	6.4%	-11.1%
	영업이익 증가율	-3.6%	-14.4%	-87.4%	-72.4%	45.5%	256.3%	745.7%	-22.0%	-71.7%
	당기순이익 증가율	14.0%	-31.9%	-81.3%	-78.1%	40.1%	42.0%	1482.9%	4.0%	114.0%
	총자산 증가율	10.0%	9.6%	-7.3%	0.3%	59.2%	26.0%	55.1%	-14.2%	222.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37.2%	6.6%	3.0%	2.7%	56.4%	50.9%	11.7%	12.7%	4.4%
	매출액 순이익율	26.9%	5.4%	3.4%	1.9%	44.5%	41.0%	8.0%	9.7%	8.0%
	총자산 순이익율	6.3%	4.4%	1.8%	1.0%	22.5%	19.3%	4.3%	4.9%	0.4%
	자기자본 순이익율	9.0%	6.3%	4.1%	1.9%	45.4%	20.8%	6.4%	5.7%	0.4%
안정성 (%)	부채비율	37.4%	46.4%	117.4%	81.0%	119.4%	7.4%	36.5%	15.7%	3.2%
	차입금의존도	22.5%	16.1%	20.8%	27.4%	31.3%	0.1%	17.2%	0.9%	2.1%
	유동비율	205.5%	264.2%	154.5%	145.4%	89.6%	760.1%	280.3%	614.5%	17166.1%
	당좌비율	175.2%	158.5%	119.5%	118.0%	80.6%	692.1%	230.9%	502.1%	17101.6%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23	0.81	0.53	0.53	0.51	0.47	0.54	0.50	0.05
	재고자산 회전율	3.20	3.71	5.07	5.54	20.95	11.53	4.46	5.68	11.90
	매출채권 회전율	0.94	3.81	1.72	4.95	6.01	4.80	8.59	2.30	1.17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 비교기업의 2017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단위 : %, 회)

구 분	비율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휴젤	코오롱 생명과학	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81.3%	12.0%	-8.9%	-11.6%	40.7%	95.3%	-17.3%	9.6%	-29.9%
	영업이익 증가율	231.3%	25.9%	39.0%	-60.4%	28.9%	194.0%	N/A	17.0%	N/A
	당기순이익 증가율	468.5%	8.4%	-39.9%	N/A	24.6%	209.3%	-86.9%	12.7%	N/A
	총자산 증가율	1.6%	-0.4%	-7.4%	-4.8%	3.0%	8.2%	-3.7%	-0.1%	0.8%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45.5%	5.0%	13.4%	3.6%	52.3%	58.4%	-0.6%	18.3%	-326.5%
	매출액 순이익율	34.1%	2.5%	10.6%	-8.6%	41.9%	47.3%	1.1%	14.0%	-281.7%
	총자산 순이익율	2.2%	0.5%	1.6%	-1.1%	5.2%	6.8%	0.1%	2.1%	-0.5%
	자기자본 순이익율	3.0%	0.7%	3.3%	-2.0%	11.2%	7.3%	0.1%	2.4%	-0.5%
안정성 (%)	부채비율	37.5%	46.9%	99.3%	77.3%	114.3%	7.3%	32.1%	18.1%	4.6%
	차입금의존도	22.1%	15.1%	22.1%	28.9%	29.4%	0.1%	16.4%	0.9%	3.3%
	유동비율	210.9%	272.3%	160.5%	144.2%	76.8%	826.0%	313.4%	501.4%	13250.1%
	당좌비율	182.6%	155.7%	115.2%	114.9%	67.8%	757.0%	240.4%	413.5%	13189.7%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06	0.18	0.15	0.13	0.12	0.14	0.07	0.15	0.00
	재고자산 회전율	1.09	0.84	1.23	1.26	5.39	3.15	0.67	1.58	0.69
	매출채권 회전율	0.27	0.86	0.94	1.27	1.41	1.44	1.37	0.64	0.07

자료 : 각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공시자료

주1)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 기준

주2) 총자산 증가율은 2016년말 대비 2017년 1분기 기준

주3)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은 2017년 1분기 기준

주4) 총자산 순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2017년 1분기 순이익 대비 2016년말과 2017년 1분기말 평균 총자산 및 자기자본 기준

주5)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7년 1분기 매출액 대비 2016년말과 2017년 1분기말 평균 총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기준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분	산식	설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frac{\text{당기말 유동자산}}{\text{당기말 유동부채}} \times 100$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frac{\text{당기말 총부채}}{\text{당기말 자기자본}} \times 100$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frac{\text{당기말 차입금 등}}{\text{당기말 총자산}} \times 100$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frac{\text{당기 영업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산}+\text{기말총자산})/2} \times 100$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자기자본}+\text{기말자기자본})/2} \times 100$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frac{\text{당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100$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영업이익}}{\text{전기영업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frac{\text{당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100$	기업에 투자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총자산}+\text{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재고자산}+\text{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매출채권}+\text{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라. 참고: 본질가치(자산가치) 산출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기준인 본질가치(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오니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는 2016년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금 액
1. 자본총계	648,652,738,198

(1) 가산항목	-
- 자기주식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액	-
- 결산기 이후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해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자산재평가 적립금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잉여금	-
(2) 차감항목	1,015,767,052
- 무형자산	1,015,767,052
- 회수불능채권	-
-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와의 차이	-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대가	-
-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결산기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2. 순자산 : 1+(1)-(2)	647,636,971,146
3. 발행주식총수	112,084,120
- 최근 사업년도말 발행주식수	112,084,120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주식수	-
- 결산기 이후 무상증자주식수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증가 주식수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결산기 이후 유상감자 주식 수 등 감소 주식수	-
4. 1주당 자산가치 : 2.÷3.	5,778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금액
신주모집금액 (1)	1,008,764,000,000
발행제비용 (2)	11,641,791,100
순수입금 [(1)-(2)]	997,122,208,9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9,835,441,900	<p>총 인수대가는 공모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모든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수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td> <td>총 공모금액의 1.00%</td> </tr> <tr> <td>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td> <td>(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상기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총 공모금액의 0.25%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구분	인수수수료							
공모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총 공모금액의 1.00%							
공모비율이 15.0% 초과인 경우	(1)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1.00%와 (2) 총 공모금액 중 공모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분의 0.85%를 합산한 금액							
상장심사수수료	15,0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자기자본 5천억원 초과 기업 : 1,500만원						
상장수수료	73,25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시가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 : 2,220만원+5천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등록세	98,416,000	증자자본금(24,604,000,000원)의 0.40%						
교육세	19,683,200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600,000,000	IR비용, 법률자문수수료, 회계법인수수료, 인쇄비, 광고비 등						
합계	11,641,791,1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 기준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업자금(I)	359,616
사업자금(II)	132,000
사업자금(III)	485,000
상환자금(I)	20,506
합계	997,122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금액인 4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해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사용계획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며, 유입된 자금을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전까지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 사업자금

당사는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License-in을 통한 제품군 확대,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사업자금(I)	바이오신약 공동개발 비용	50,000	150,000	-	200,000
	제품군 확대(License-in)	33,000	76,000	50,616	159,616
	소계	83,000	226,000	50,616	359,616
사업자금(II)	판매 네트워크 확대 (직접판매 인프라 구축)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52,000	40,000	40,000	132,000
사업자금(III)	램시마 매입	205,000	-	-	205,000
	트록시마 매입	-	280,000	-	280,000
	소계	205,000	280,000	-	485,000
합계		340,000	546,000	90,616	976,616

(2) 상환자금

당사는 2017년 다음 차입금의 상환에 본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상환자금(I)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단기차입금	KDB Bank Europe	외화 대출	2017.6.27	3M Libor+3.8%	10,506	2017년
단기차입금	한국씨티은행	운영자금 대출	2017.6.28	4.45%	10,000	2017년
합계	-	-	-	-	20,506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장조성	안정조작
장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간	시작일자	-	-
	종료일자	-	-
공시방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구체적 내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주식에 대해 일반청약자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풋백옵션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에 관한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

투자자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대한 다음의 논의 및 분석을 비롯하여 "선별된 재무정보 및 보충정보", 연결재무제표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결재무제표 주석 등을 열람해야 합니다. 본 논의에서는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수반되는미래 예측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제 실적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인들을 비롯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리스크 요인"에서 논의한 요인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기의 내용은 당사의 해외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중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부분이며 재무수치는 각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기재의 목적은 국내 및 해외투자자들에게 동일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영문 해외 투자설명서의 해당 섹션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개요

당사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마케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여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및 기타 의약품을 총판하며, 해당 의약품은 직판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셀트리온과의 독점적 관계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세계적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판매 노하우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에 일정량을 선매입함으로써 셀트리온의 의약품 개발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 이후에 당사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계,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의약품을 전세계 시장에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 및 임상시험 등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준법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협업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각 지역의 효과적인 시장 침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시장 접근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만 및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12개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15개국에서 활동하는 34개의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세계 최초의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와 항암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하여 주로 바이오시밀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여러 물리화학적이고 구조적인 성질은 물론 약효, 안전성, 순도 및 효능 측면에서 먼저 승인된 오리지널 제제와의 유사성이 높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는 2016년 약 43억 달러에서 2026년은 801억 달러로 연평균 34.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 】

제품 (주1)	오리지널 의약품(INN)	주요 적응증	현재상황	마케팅 파트너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Remsima® / Inflectra®)	레미케이드 (Remicade®) (인플릭시맵)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장질환 (자가면역질환)	한국: 출시(주2) 유럽연합: 출시(주3) 미국: 출시(주4)	유럽연합: Hospira,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Pharma Kern, Orion, Astropharma, Pinewood Healthcare, DEMO, Oktal Pharma, EGIS, iQone , Mustafa Nevzat 미국: Hospira 기타국가: 파트너 17개사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Truxima®)	리톡산(Rituxan®) / 맵테라(MabThera®) (리톡시맵)	비호지킨 림프종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출시(주5) 유럽연합: 출시(주6)	유럽연합: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Astropharma, Oktal, Orion, iQone, Medical Logistics, C.A.P, EGIS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2개사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Herzuma®)	허셉틴(Herceptin®) (트라스투즈맵)	유방암	한국: 판매허가(주7) 유럽연합: 신청(주8)	유럽연합: Orion, Kern Pharma, EGIS, Mustafa Nevzat, PharmaKern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8개사
--------------------------------	-----------------------------	-----	------------------------------	--

자료: 회사제시자료

주1) Remsima®, Inflectra®, Truxima® 및 Herzuma® 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상품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2)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2년 7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2년 11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3)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3년 9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3년 9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4)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2016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 12월 미국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부터 2016년 1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5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6)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7년 2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4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7)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4년 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주8) 유럽의약품국(EMA)을 통해 2016년 10월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주력 제품 외에도 현재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및 4개 바이오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바이오베터 개발품목 중 하나인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으로서 당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당사가 관측 및 유통하는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당사는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공동개발 및 제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관측하고 유통함에 있어 당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로 하는 해외 시장침투를 위한 더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사업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셀트리온과 상호 협업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각 지역의 효과적인 시장 침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시장 접근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만 및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형태로 자재를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형태의 재고들은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셀트리온을 포함한제3자의 아웃소싱을 통해 완제공정(fill/finish) 및 라벨링/포장 공정을 통하여 완제의약품 형태로 전환됩니다.

당사는 2014년 1,647억원, 2015년 4,024억원, 2016년 7,577억원 및 2017년 1분기 69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4년 3,7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에는 각각 206억원 및 1,229억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에는 1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당사의 총 자산은 1조 8,492억 원이며, 총 자본은 6,458억원입니다.

2017년 6월 22일 현재, 당사가 마케팅 파트너로부터 수령한 2017년 1분기 이후 납기가 단기에 도래하는 구매주문은 약 4,748억원(2017년 6월 22일 현재 환율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구매주문을 협의 및 수령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 금액은 당사의 공급시기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당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일부의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 및 전개 사항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규제승인 및 규제요건 준수
- 경쟁력, 시장의 수용 확보 능력 및 신제품의 출시 시기
-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매 역량을 가진 공급사와 핵심 지역 별 파트너사들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능력
- 정부 및 제3자 보험자의 충분한 보장 및 보험급여 정책
- 적정 수준의 재고 유지 능력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평가손익의 손익 효과
- 환율 변동

(1) 규제 승인 및 규제요건 준수

당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은 주요시장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한편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당사 제품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당사 및 셀트리온의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향후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7월 식약처, 2013년 9월 유럽의약국, 그리고 2016년 4월 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 기준으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80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7년 2월 유럽의약국의 제품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맵(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2016년 10월 유럽의약국에 시판허가신청(MAA)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시장에서 미국식품의약국 및 유럽의약국 등 규제당국이 당사 제품 및 제품 후보물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당사의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제조, 라벨링, 포장, 보관, 유통, 광고, 판촉, 샘플링, 기록관리, 시판 후 조사는 물론 안전성, 효능을 비롯한 기타 시판후 정보 제출 등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국(EMA), 한국식약처(MFDS) 및 여타 국가의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리콜 또는 압수, 금전적 제재,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가처분, 영업 제한, 민사 또는 형사 제재, 혹은 기존 승인 철회 또는 보류 중인 승인 거부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과

제품 후보물질은 물론 제품과 제품 후보물질의 연구, 개발, 제조, 상업화 및 사용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당사 및 셀트리온이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특허가 무효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제품 후보물질의 상업화를 위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해당 제품 후보물질과 관련한 일부 활동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쟁력, 시장의 수용 확보 능력 및 신제품의 출시 시기

당사의 제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물론 이 외의 기존 치료제와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용화가 되었거나, 개발 중이거나, 향후 이용 가능한 여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기타 치료제와도 비슷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리툽시맵,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와 여타 당사 파이프라인상의 제품들의 경우, 기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리툽시맵,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나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후보물질은 타사 물질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매출 또는 매출총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성공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이를 충족하고, 규제 승인이나 허가를 적기에 획득하고,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이고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제조하며, 진화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당사 및 셀트리온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하는 능력은 제품 수익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제품 출시를 위한 승인을 획득하는 회사들이 추가되고 이로써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폭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초 시판(first-to-market)"의 지위를 선점하는 회사의 경우, 당분간은 오리지널 의약품만이 유일한 경쟁 대상이므로 기타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까지는 높은 수준의 매출 및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품 과 제품 후보물질을 적기에 출시하여 "최초 시판(first-to-market)"의 지위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규제승인 및 신제품 출시 시점 또한 당사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승인을 획득한 이후 당사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은 시판 이후의 판매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을 득한 제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제품 출시 이후 각 유통 약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초기안전재고 확보 차원에서 다량의 초기 매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Hospira의 경우 자사의 판매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미국 시장을 위하여 2,266억 달러에 달하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출시 이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다량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초기 매입 규모가 상당한 경우 매출상의 변동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특정 기간 동안 나타난 당사의 영업실적이 반드시 향후 실적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매 역량을 가진 공급사와 핵심 지역 별 파트너사들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능력

당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사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유통함에 있어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통해 내부 유통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전 세계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효율적이며 효과

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통 구조 하에서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및 영업 역량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 중 효과적으로 제품을 판촉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파트너사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성과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당사의 제품을 일정 기간에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특정 기간 동안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구성은 그들의 구매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이러한 파트너사들의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에 따라 마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당사의 Hospira 향 매출은 당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당사 매출의 90% 이상은 Hospira를 포함한 상위 5개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분기 당사의 Mundipharma 향 매출은 당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1분기 당사 매출의 90% 이상은 Mundipharma를 포함한 상위 5개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해 창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 중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당사와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 혹은 영구적으로 해지하는 파트너사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파트너사로 대체한다고 하여도 적기에 대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이 대체한 파트너사가 이전 파트너사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 실적에는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에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원료의약품 비용과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판매하는 당사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 조건을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 및 조세 행정에 해당하는 국내 규정 및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당사자별 부담 리스크, 책무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셀트리온과 당사간에 합의한 이익분할비율에 따라 예상이익을 양사 분할하여 배분합니다. 예상 시장가, 양측이 부담하는 예상비용, 시장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매권부여기본계약 조건에 따라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매입가격을 매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실제 시장가가 예상시장가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셀트리온으로부터의 매입가격은 적시에 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상 시장가를 바탕으로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합의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파트너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진은 예상 시장가, 양측이 부담하는 리스크 및 책임사항, 시장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 적용되므로 시장가가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및 제3자 보험자의 충분한 보장 및 보험급여 정책

규제 승인 이후 상용화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는 다수 시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여러 약가 규제 방법을 포함하는 의약품 보험급여제도 및 직접적인 약가 규제의 적용대상입니다. 공공-민간 건강보험자는 유통사와 할인율을 협의하는 한편 동일한 치료제 군 내에서 여타 치료제 대비 특정 약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단계별 처방(tiered formularies)과 기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비용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약가 책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험자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약물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보험급여 또는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설정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제3자 보험자들은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용효과성을 검토하며,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승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보험급여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및 일부 관할당국에서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그리고/또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변경하는 입법조치 및 규제조치 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약가통제, 보장 및 보험급여 제한, 제네릭 및 바이오의약품의 대체 요건 등의 조치가 해당됩니다. 통제 및 조치가 이미 적용 중인 관할당국에서 약가 통제 및 비용억제 조치가 채택되는 한편 더욱 제한적인 정책이 도입되는 경우,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며, 제품 후보물질을 상용화하는 당사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5) 적정 수준의 재고 유지 능력

당사는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충분한 물량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고, 규제승인 이전 초기안전재고를 확보하며, 공동개발사로서 셀트리온과 개발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를 유지합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고 물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업 판매용 제품의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당사의 역량은 향후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유럽, 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성장률이나 매출규모가 당사가 예측한 바에 따라 실현될 지 여부, 그리고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획득할 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과잉, 재고부족 또는 평가절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수준이 너무 낮으면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 수준이 너무 높으면 재고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이 초과되어 폐기하고,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문제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든 시장에서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성공적으로 연장하거나 당사 제품의 유통기한을 효과적으로 감독 및 관리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공동개발사인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규제승인을 획득하기 이전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각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의 초기안전재고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초기안전재고 매입을 위해 셀트리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로써 당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초기안전재고를 위해 지급한 매입금은 규제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 불가합니다. 이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셀트리온과 개발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초기안전재고의 물량 및 보유기간은 당사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특정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개발 및 규제승인 진행상황 및 시장환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평가손익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일부 금융상품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Hospira는 당사 발행 전환사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금융상품들을 내재과생상품으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후의 재무보고 기말 시점마다 해당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사의 연결손

익계산서에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자기자본 가치, 신규상장 시점 및 미래의 추정현금흐름 등 다수의 요인들이 공정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자기자본 가치가 증가하면 당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손실로 이어집니다.

(7) 환율 변동

당사는 한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사업운영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 시장에서 창출됩니다. 당사가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통화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매출이익은 두 통화 간환율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통화가 비용이 발생하는 통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이 일어나면 주로 유로화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 매출의 순매출액과 매출채권 금액이 원화금액 기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경우 외화표시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등 당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로화 및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절하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채권 매칭을 통해 환율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상쇄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월 환율 리스크를 분석하고 당사 거래에 적용되는 해외 통화를 다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율 리스크 헤징을 위한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영업 실적은 현재까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상기 전략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환율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수익 및 비용 구성요소

(1) 매출액

당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통해 창출되며,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판매되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창출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 순수익률, 거래점 할인 및 물량할인으로 측정합니다.

(2)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당사 매출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의약품 매입
- 완제공정, 포장 및 라벨링 서비스 유관 비용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값입니다.

(3) 판매비와 관리비

당사 판매비와 관리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및 급여 등 급여지불총액,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 고객에의 제품 배송을 위한 선적 관련 운송비
-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 및 품질검사 등의 외주 서비스 명목으로 셀트리온 및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관측활동, 의료학회 및 기타 마케팅 활동 관련 광고선전비
- 당사 제품 마케팅 관련 해외출장비
- 보관검체 및 출하시험 관련 시험연구비
- 스톡옵션 보상비

(4) 영업이익

당사의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값입니다.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당사의 영업실적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5)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영업외수익 및 비용은 매출채권은 포함하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외화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한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유형자산 처분 손익, 종속기업 투자주식처분손익, 수수료 수익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구성됩니다.

(6) 금융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 및 비용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현금, 현금성자산 및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처분 손익,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 손익 및 매출채권 거래 손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7) 법인세비용(수익)

당사의 법인세 비용(수익)은 당기 및 이연 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8(분기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석 29(온기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7(분기재무제표 기준) 주석 28(온기재무제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당기순이익(손실)

당사의 당기순이익(손실)은 법인세 차감 이전 법인세비용(수익)을 공제한 당사의 이익(손실)입니다.

라. 주요회계정책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에 따라 당사 재무제표상의 재무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적합한 가정 및 추정을 선별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

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정책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경영진이 내리는 판단은 본질적으로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해당 판단은 과거 경험, 기존 계약 조건, 업계 동향에 대한 당사의 관찰 사항, 고객이 제공한 정보, 그리고 기타 외부 출처를 통해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판단합니다. 주어진 상황 하에서는 당사의 예측과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당사의 추정 및 판단의 정확성 여부 그리고 미래 시점에 보고되는 실제 수치와 현재 일부 항목을 회계처리하며 반영한 당사 기대치의 일치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들이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의 영업실적과 당사의 영업 실적 간의 비교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회계기준에 따라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특정 금융상품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금융상품들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평가 측정일자의 당사 보통주의 공정가치 추정치, 당사 주가의 변동성추정치,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대가의 행사기간 등을 포함한 투입변수에 근거한 옵션가격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보고기간 종료일 시점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중간연결재무제표 및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방법론에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방법론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 :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의 허가 가능성 및 유효기간 만료, 관련 법적 위험 및 판매 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분 상품에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당사는 해당 지분상품의 본질적인 내재가치를 측정하고 지분상품의 수에 기초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 급여(당기비용)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당기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무위험수익률, 추가변동성, 기대만기, 배당수익률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가정이 필요한 이항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변동성은 각 기대만기가 동등한 기간의 일별 추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유사 상장 회사의 주 환산 추가변동성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추가변동성 가정을 당사의 주식의 추가변동성에 대한 역사적 정보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4) 수익인식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환입 및 가격정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은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규제 당국의 허가 이전에 지불하는 라이선스노동 파트너사들로의 재화의 판매 거래와는 구분이 됩니다. 라이선스 수익은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각 판매권부여계약의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수익인식 기준을 만족하기 이전에 수취한 라이선스 수익은 연결재무상태표에 이연하여 표시합니다.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들과의 판매 계약에서 정의되는 판매량 관련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후 조정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회계관련 최근 변동사항

K-IFRS에 따라 변동된 회계 관련 최근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재작성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감리조치 결과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영업실적 -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 실적

다음은 2016년 1분기 및 2017년 1분기 당사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변동 내역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6.1분기	2017.1분기	변동금액	변동율(%)
매출	52.8	69.9	17.1	32.4
매출원가	43.1	46.3	3.2	7.4
매출총이익	9.7	23.6	13.9	143.3
판매비와관리비	9.1	13.0	3.9	42.9
영업이익	0.5	10.6	10.1	2,020.0
영업외수익	3.5	11.7	8.2	234.3
영업외비용	2.8	18.1	15.3	546.4

금융수익	3.8	18.6	14.8	389.5
금융비용	8.7	20.9	12.2	140.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7)	1.9	5.6	N/A
법인세비용	0.2	3.7	3.5	1,750.0
분기순손실	(3.9)	(1.8)	2.1	N/A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였습니다.

(1) 매출액

다음은 2016년 1분기 및 2017년 1분기 지역 별 매출액 세부내역 및 증감 비교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6.1분기	2017.1분기	변동금액	변동율(%)
유럽	49.0	67.2	18.2	37.1
북미	-	-	-	N/A
남미	-	2.2	2.2	N/A
아시아(한국제외)	0.8	0.5	(0.3)	(37.5)
한국	-	-	-	N/A
오세아니아	3.0	-	(3.0)	(100.0)
합계	52.8	69.9	17.1	32.4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였습니다.

2017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654억원,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36억원, 기타 제품에 대한 매출 9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유럽에서의 매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528억원에서 2017년 1분기 699억원으로 171억원 증가하며 32.4% 상승하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매출액은 유럽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한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판매량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구매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매출 증가로 인한 유럽에서의 평균 단가의 증가 및 2017년 4월 유럽지역에서의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로 인한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로부터의 구매 주문의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490억원에서 2017년 1분기 672억원으로 182억원 증가하며 37.1% 상승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인 Hospira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충분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2017년 1분기 북미지역에 대한 당사의 매출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 미국에서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기 위해 Hospira가 2016년 하반기에 초기 재고자산으로 상당한 양을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2) 매출원가

당사의 매출원가는 상기 설명한 판매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6년 1분기 431억원에서 2017년 1분기 463억원으로 32억원 증가하며 7.4% 상승하였습니다.

(3) 매출총이익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2016년 1분기 97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36억원으로 139억원 증가하며 143.3%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은 2016년 1분기 18.4%에서 2017년 1분기 33.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당사의 리특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 뿐만 아니라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평균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은 2016년 1분기 및 2017년 1분기 당사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 및 증감비교 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6.1분기	2017.1분기	변동금액	변동율(%)
임금 및 급여	1.8	2.2	0.4	22.2
운반비	0.3	0.8	0.5	166.7
수수료	1.4	2.7	1.3	92.9
세금과공과	0.5	0.0	(0.5)	(100.0)
광고선전비	0.4	1.8	1.4	350.0
해외출장비	0.6	1.1	0.5	83.3
시험연구비	2.2	1.8	(0.4)	(18.2)
주식보상비용	1.1	1.1	(0.0)	(0.0)
기타(주1)	0.8	1.5	0.7	87.5
합계	9.1	13.0	3.9	42.9

주1)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판매촉진비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광고선전비, 수수료 및 운반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6년 1분기 91억원에서 2017년 1분기 130억원으로 39억원 증가하며 42.9%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분기 17.2%에서 2017년 1분기 18.6%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선전비는 컨퍼런스 및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과의 미팅 등과 같은 판촉활동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4억원에서 2017년 1분기 18억원으로 14억 증가하며 350.0% 상승하였습니다.
- 수수료는 외주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및 특허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2016년 1분기 14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7억원으로 13억원 증가하며 92.9% 상승하

였습니다.

- 운반비는 유럽 관련한 당사 제품의 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2016년 1분기 3억원에서 2017년 1분기 8억원으로 5억원 증가하며 166.7% 상승하였습니다.

(5) 영업이익

당사의 영업이익은 상기 요인들이 작용하며 2016년 1분기 5억원에서 2017년 1분기 106억 원으로 10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1분기 0.9%에서 2017년 1분기 15.2%로 상승하였습니다.

(6)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영업외수익은 외화환산이익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35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117억 원으로 82억 원 증가하며 234.3%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외 비용은 외화환산손실 및 외환차손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28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181억 원으로 1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1분기 달러 및 유로화에 대한 원화 강세 및 전분기 대비 큰 환율 변동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7억 원의 순외환차익 및 20억 원의 순외화환산손실을 2016년 1분기에 기록한 반면, 119억 원의 순외환차손 및 48억 원의 순외화환산이익을 2017년 1분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화 강세는 달러 및 유로화로 표시된 매출채권의 회수 당시 매출채권의 원화가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순외환차손을 증가시켰으며,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외화자산 대비 잔액이 많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순외화환산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큰 환율 변동과 2017년 1분기 달러 및 유로화에 대한 원화 강세로 인하여 달러화와 유로화로 표시된 매출채권 원화가치가 감소하면서 순외환차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7) 금융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순비용은 외환차손의 증가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손실로 부분적으로 상쇄된 전환사채상환이익을 주된 요인으로, 2016년 1분기 49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23억 원으로 26억 원 감소하며 53.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분기 Hospira에 대한 전환사채 상환으로 인하여 전분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166억 원의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기의 요인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 2017년 1분기 외화에 대한 원화 강세로 인하여 외화 보증금의 원화가치가 감소하면서 순외환차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4억 원의 순외환차익을 기록한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에는 83억 원의 순외환차손을 기록
- 10억 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이익을 기록한 2016년 1분기 대비 21억 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손실을 기록

(8) 법인세비용(수익)

당사의 법인세비용은 2016년 1분기 2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37억 원으로 35억 원 증가하였

습니다. 2017년 1분기 당사의 유효세율이 196.7%로 당사의 적용세율인 24.2% 보다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전환사채의 전환과 관련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효과의 반영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약 20억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주석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기순이익(손실)

당사는 상기 요인들로 인해 분기순손실은 2016년 1분기 39억원에서 2017년 1분기 18억원으로 2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아. 영업실적 - 2015년 대비 2016년 실적

다음은 2015년 및 2016년 당사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변동 내역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5	2016	변동금액	변동율(%)
매출	402.4	757.7	355.3	88.3
매출원가	252.7	537.8	285.1	112.8
매출총이익	149.7	219.9	70.2	46.9
판매비와관리비	37.8	41.3	3.5	9.3
영업이익	111.9	178.6	66.7	59.6
영업외수익	57.5	19.2	(38.3)	(66.6)
영업외비용	3.9	13.0	9.1	233.3
금융수익	150.4	25.0	(125.4)	(83.3)
금융비용	179.3	46.7	(132.6)	(7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6.6	163.1	26.5	19.4
법인세비용	116.0	40.2	(75.8)	(65.3)
당기순이익	20.6	122.9	102.3	496.6

(1) 매출액

다음은 2015년 및 2016년 지역 별 매출액 세부내역 및 증감 비교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5	2016	변동금액	변동율(%)
유럽	342.4	427.2	84.8	24.8
북미	-	265.4	265.4	N/A
남미	-	6.6	6.6	N/A
아시아(한국제외)	60.0	42.1	(17.9)	(29.8)
한국	-	9.8	9.8	N/A

오세아니아	-	6.6	6.6	N/A
합계	402.4	757.7	355.3	88.3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유럽 및 북미에서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5년 4,024억원에서 2016년 7,577억원으로 3,553억원 증가하며 88.3% 상승하였으나, 아시아 매출이 감소하며 이러한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로 인하여 유럽에서의 당사 매출액은 2015년 3,424억원에서 2016년 4,272억원으로 848억원 증가하며 24.8%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평균가격이 인하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미국에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이후, 북미에서의 당사 매출액은 2016년 2,65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북미지역 마케팅 및유통 파트너사인 Hospira가 북미지역에서의 출시이후 다량의 당사 제품을 매입함에 기인합니다.
- 일본에서의 매출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시아에서의 당사 매출(한국 제외)은 2015년 600억원에서 2016년 421억원으로 179억원 감소하며 29.8%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분은 중동 매출이 신장되며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당사 매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일본의 보험보장정책 하에서는 고객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교체복용을 하여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른 판매량 감소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일본지역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인 Nippon Kayaku의 경우 2015년 다량의 당사 제품을 매입한 이후 예상보다 낮은 시장보급율로 인해 2016년에는 당사 제품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2) 매출원가

당사의 매출원가는 상기 설명한 판매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5년 2,527억원에서 2016년 5,378억원으로 2,851억원 증가하며 112.8% 상승하였습니다.

(3) 매출총이익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상기 요인들이 작용하며 2015년 1,497억원에서 2016년 2,199억원으로 702억원 증가하며 46.9%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은 유럽에서의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평균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5년 37.2%에서 2016년 29.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분은 당사 인플릭시맵바이오시밀러의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서의 판매량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4)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은 2015년 및 2016년 당사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 및 증감비교 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5	2016	변동금액	변동율(%)
임금 및 급여	7.1	9.0	1.9	26.7
대손충당금환입	-	(2.9)	(2.9)	N/A
운반비	2.8	3.2	0.4	14.3
수수료	7.0	8.9	1.9	27.1
세금과공과	1.6	0.9	(0.7)	(43.8)
광고선전비	2.0	3.5	1.5	75.0
해외출장비	3.5	2.5	(1.0)	(28.6)
시험연구비	4.1	7.1	3.0	73.2
주식보상비용	4.3	4.5	0.2	4.7
기타(주2)	5.4	4.6	(0.8)	(14.8)
합계	37.8	41.3	3.5	9.3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및 판매촉진비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시험연구비, 임금 및 급여, 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5년 378억원에서 2016년 413억원으로 35억원 증가하며 9.3% 상승하였으나, 대손충당금환입 및 해외출장비로 인하여 이러한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4%에서 2016년 5.5%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연구비는 판매량 증가로 인해 보관검체(retention sample) 및 제품 판매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출하시험(release test)이 증가하여, 2015년 41억원에서 2016년 71억원으로 30억원 증가하며 73.2% 상승하였습니다.
- 임금 및 급여는 직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71억원에서 2016년 90억원으로 19억원 증가하며 26.7% 상승하였습니다.
- 수수료는 외주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2015년 70억원에서 2016년 89억원으로 19억원 증가하며 27.1% 상승하였습니다.
- 광고선전비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판촉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20억원에서 2016년 35억원으로 15억원 증가하며 75.0% 상승하였습니다.
- 대손충당금환입은 2013년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였던 당사의 남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인 Olimed에 대한 채권에 대한 회수로 인하여 2016년 대손충당금환입 2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손충당금환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출장비는 2015년 서유럽에서의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관련하여 제품 홍보를 위해 해외출장이 잦았으나, 2016년에는 해외 출장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5년 35억원에서 2016년 25억원으로 10억원 감소하며 28.6% 하락하였습니다.

(5) 영업이익

당사의 영업이익은 상기 요인들이 작용하며 2015년 1,119억원에서 2016년 1,786억원으로 667억원 증가하며 59.6%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27.8%에서 2016년 23.6%로 하락하였습니다.

(6)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영업외수익은 Pfizer의 Hospira 인수 이후 당사의 리톡시맙 및 트라스투즈맙에 대한 유통약정을 해지하며 지급한 해지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기인하여, 2015년 575억원에서 2016년 192억원으로 383억원 감소하며 66.6%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에 수령한 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외비용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실 및 외환차손 증가로 인하여, 2015년 39억원에서 2016년 130억원으로 91억원 증가하며 233.3% 상승하였습니다.

(7) 금융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순비용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등 당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의 처분 및 평가와 관련한 손익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5년 289억원에서 2016년 217억원으로 72억원 감소하며 24.9%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49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처분순손실을 기록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10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처분순이익 기록
- 2015년의 전환사채 전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인한 순이자비용이 2015년 509억원에서 2016년 266억원으로 243억원 감소하며 47.7% 하락
- 867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이익을 기록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61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손실을 기록

당사에게 부채로 인식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순손실을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순이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보다 보통주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처분순손실을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는 해당 금융상품의 처분순이익을 인식합니다.

(8) 법인세비용(수익)

당사의 법인세비용은 2015년 1,160억원에서 2016년 402억원으로 758억원 감소하며 65.3%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유효세율은 2015년 84.9%에서 2016년 24.6%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유효세율이 2015년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은 2015년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전환 및 행사한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였을 당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며, 해당 사채가 2015년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제거 되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기순이익(손실)

당사는 상기 요인들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229억원으로 1,023억원 증가하며 496.6% 상승하였습니다.

자. 영업실적 - 2014년 대비 2015년 실적

다음은 2014년 및 2015년 당사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변동 내역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4	2015	변동금액	변동율(%)
매출	164.7	402.4	237.7	144.3
매출원가	95.8	252.7	156.9	163.8
매출총이익	68.9	149.7	80.8	117.3
판매비와관리비	31.6	37.8	6.2	19.6
영업이익	37.3	111.9	74.6	200.0
영업외수익	5.5	57.5	52.0	945.5
영업외비용	3.2	3.9	0.7	21.9
금융수익	3.4	150.4	147.0	4,323.5
금융비용	449.9	179.3	(270.6)	(60.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손실)	(406.9)	136.6	543.5	N/A
법인세비용	(36.9)	116.0	152.9	N/A
당기순이익(손실)	(370.0)	20.6	390.6	N/A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였습니다.

(1) 매출액

다음은 2014년 및 2015년 지역 별 매출액 세부내역 및 증감 비교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4	2015	변동금액	변동율(%)
유럽	75.4	342.4	267.0	354.1
아시아	89.3	60.0	(29.3)	(32.8)
합계	164.7	402.4	237.7	144.3

당사의 매출액은 유럽에서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상승하여 2014년 1,647억원에서 2015년 4,024억원으로 2,377억원 증가하며 144.3% 상승하였으나, 아시아 매출이 감소하며 이러한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릭시맵 분자에 대한 1차 특허가 만료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2015년 2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럽에서의 당사 매출액은 2014년 754억원에서 2015년 3,424억원으로 2,670억원 증가하며 354.1%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판매되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평균가격은 2015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 수요 하락으로 인한 일본에서의 판매량 감소, 그리고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한일본 지

역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로의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평균 판매가격 하락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시아에서의 당사 매출액은 2014년 893억원에서 2015년 600억원으로 293억원 감소하며 32.8% 하락하였습니다.

(2) 매출원가

당사의 매출원가는 상기 설명한 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2014년 958억원에서 2015년 2,527억원으로 1,569억원 증가하며 163.8% 상승하였습니다.

(3) 매출총이익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상기 요인들이 작용하며 2014년 689억원에서 2015년 1,497억원으로 808억원 증가하며 117.3%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은 2014년 41.8%에서 2015년 37.2%로 하락하였습니다.

(4)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은 2014년 및 2015년 당사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 및 증감비교 수치입니다.

(단위: 십억 원, %)

	2014	2015	변동금액	변동율(%)
임금 및 급여	7.3	7.1	(0.2)	(2.7)
운반비	0.8	2.8	2.0	250.0
수수료	10.5	7.0	(3.5)	(33.3)
세금과공과	0.0	1.6	1.6	3,071.4
광고선전비	1.7	2.0	0.3	17.6
해외출장비	1.8	3.5	1.7	94.4
시험연구비	2.3	4.1	1.8	78.3
주식보상비용	3.3	4.3	1.0	30.3
기타(주1)	3.9	5.4	1.5	38.5
합계	31.6	37.8	6.2	19.6

주1)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및 판매촉진비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운반비, 시험연구비, 해외출장비 및 세금과공과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316억원에서 2015년 378억원으로 62억원 증가하며 19.6% 상승하였으나, 수수료가 감소하며 이러한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2%에서 2015년 9.4%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반비는 유럽으로의 당사 제품 선적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8억 원에서 2015년 28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하며 250.0% 상승하였습니다.

- 시험연구비는 보관검체(retention sample) 및 제품 판매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출하시험(release test)이 2015년 서유럽 국가들에서 제품 출시로 인하여 증가함에 따라, 2014년 23억원에서 2015년 41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하며 78.3% 상승하였습니다.
- 해외출장비는 서유럽에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 판촉을 위한 출장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18억원에서 2015년 35억원으로 17억원 증가하며 94.4% 상승하였습니다.
- 세금과공과는 유럽에서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 헝가리 자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0.5억원에서 2015년 16억원으로 16억 증가하였습니다.
- 수수료는 당사의 캐나다 지역 담당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였던 Kabi가 2014년 지급한 33억원의 해지 수수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105억원에서 2015년 70억원으로 35억원 감소하며 33.3% 하락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영업이익

당사의 영업이익은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2014년 373억원에서 2015년 1,119억원으로 746억원 증가하며 200.0%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 증가에 비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22.6%에서 2015년 27.8%로 상승하였습니다.

(6)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영업외수익은 Pfizer가 Hospira를 인수한 이후, 당사의 리톡시맵 및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관련하여 Hospira와의 유통약정이 종료되어 Hospira로 부터 수령한 해지수수료로 인하여, 2014년 55억원에서 2015년 575억원으로 520억 증가하며 945.5%에 달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외비용은 외화환산손실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32억원에서 2015년 39억원으로 7억원 증가하며 21.9% 상승하였으며,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의 감소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7) 금융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순비용은 2014년 4,465억원에서 2015년 289억원으로 4,176억원 감소하며 93.5% 하락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모든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일부의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3,516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손실 대비 2015년 867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손익은 전환사채에서 분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5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순이익은 다음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 2014년 9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순이자비용이 2014년 397억원에서 2015년 509억으로 112억원 증가하며 28.2% 상승하였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일부 전환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처분순손실은 2014년 548억원에서, 2015년 649억원으로 101억원 증가.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으로 인한

931억원 처분순손실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137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145억원의 처분순이익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8) 법인세비용(수익)

2014년 369억원의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한 반면, 2015년에는 1,160억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가 상승한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유효세율은 2015년 84.9%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유효세율이 2015년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은 2015년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전환 및 행사한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기순이익(손실)

당사는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3,7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2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습니다.

차. 유동성 및 자본재원

당사 유동성의 주된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급금, 라이선스수수료 및 이행보증금 등을 포함한 제품 판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장단기 차입금, 사채 발행 및 증자(capital increase)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당사의 주요 현금 수요 또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의약품 매입, 임금 및 급여, 수수료 비용 등 상기에서 설명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
- 장단기 차입금 및 채권에 대한 이자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당사의 운전자본(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값)은 2014년, 2015년 및 2016년의 12월31일 기준으로 각각 1,888억원, 8,122억원 및 8,05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는 7,8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자산에는 상당한 양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재고자산 규모는 1조 5,994억원입니다. 이는 당사 총자산 및 유동부채의 86.5% 및 156.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사가 다량의 재고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는 우선, 규제 승인 획득 이전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 별 일정 양의 초기안전재고를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은 일반적으로 규제를 획득하여 제품을 출시하면 대량으로 당사의 제품을 매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제품에 대한 판매량 증가를 대비하여 충분한 물량의 재고를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유동부채는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31일 시점 및 2017년 3월 31일 시점을 포함하여 과거 기준으로 재고자산 제외 기준 유동자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31일 시점 및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1조 1,868억원, 1조 3,993억원 및 1조 4,721억원, 1조 5,994억원 입니다. 당사는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양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당사는 가까운 미래에도 상당한 양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

의 셀트리온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은 유동부채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된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적정수준의 순운전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유입액, 현재 및 향후의 자금조달 약정, 그리고 기존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영업활동을 위한 필요자본, 자본적 지출 및 부채상환을 위한 필요자본 등 운전자본으로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현금흐름

다음은 기간별 현금흐름 세부내역입니다.

(단위: 십억 원)

	2014	2015	2016	2016.1분기	2017.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2.6)	32.0	30.4	(48.2)	19.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0)	(0.4)	(0.2)	(0.0)	(0.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9.0	(0.9)	21.9	17.2	(58.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3.6)	30.7	52.1	(31.0)	(40.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6	1.8	6.9	(0.0)	(2.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5.4	4.4	36.9	36.9	95.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4	36.9	95.9	5.9	53.3

■ 영업활동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482억원의 순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던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193억원의 순현금유입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4분기 매출액의 증가가 2017년 1분기 지역 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들로부터의 현금 회수 증가로 이어짐에 기인하며, 이러한 증가는 2017년 1분기 매입채무의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16년 30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2015년 101억원에서 2016년 230억원으로 증가함에 기인하며,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2015년 205억원에서 2016년 129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2,526억원의 순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던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320억원의 순현금유입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판매 증가에 힘입어 2015년도에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로부터 수취한현금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2014년 103억원에서 2015년 205억원으로 증가하고 법인세 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10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 투자활동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은 무형자산 취득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1분기 4백만원에서 2017년 1분기 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은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기타장기미수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2015년 4억원에서 2016년 2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은 임차보증금과 자산 취득으로 인한 기타장기미수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2014년 0.3억원에서 2015년 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재무활동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172억원의 순현금유입액이 발생하였던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588억원의 순현금유출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당분기 Hospira에 대한 588억원의 전환사채 상환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가 발행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9억원의 순현금유출을 기록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219억원의 순현금유입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에 2,083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이 존재하였던 반면, 2015년에는 장기 자금 조달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주된 요인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2,190억 원의 순현금유입을 기록하였던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9억원의 순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 차입금, 사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당사의 전환사채를 포함하는 단기차입금은 2,185억원이며, 장기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은 7,860억원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기준 비파생상품 부채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십억 원)

	합 계	6개월 이내	6~12개월
차입금	22.2	22.2	-
전환사채	154.0	154.0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793.4	456.0	337.4
합 계	969.6	632.2	337.4

주1)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장단기 차입 거래 및 사채발행 등 여러 옵션을 통해 당사의 자금 조달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타인자본조달(debt-financing)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으며 이 중 일부 요인은 당사가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경제상황, 국내외 자본 시장의 유동성, 원화 및 외화 차입과 관련한 정부 정책 등의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외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당사의 역량,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의 제한 및 금리나 만기에 있어 당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Hospira는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약정 및 계약상 의무

당사는 여러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 시장의 관행 및 통상적으로 영위해 오던 사업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업적 약정을 체결합니다. 당사의 약정 및 우발채무(contingencies)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에서 별기하는 분기연결재무제표 주석 31 및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본적지출

당사는 사업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 자본적 지출을 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설비투자금액은 2014년 4,000만원, 2015년 1억 8,000만원 그리고 2016년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주로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약 3억 원의 자본적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당사의 영업활동 및 은행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설비투자 관련 당사의 향후 계획은 시장환경, 사업전망, 사업계획 상의 변경사항, 금리변동, 규제 관련 고려사항 및 기타 요인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 부외거래

2017년 3월 31일 기준 비연결대상과 관련한 중대한 부외거래는 없습니다.

타.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미래현금흐름이나 당사가 보유한 금융상품 가치에 대한 그 영향을 포함하여 시장시세의 부정적인 변동과 관련된 손실 위험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수익을 최적화하는 한편 허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당사는 주로 기초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환율위험 및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파악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도 및 규제를 설정하고 위험 및 한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수립됩니다. 위험관리정책 및 시스템은 시

장상황 및 당사의 활동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교육 및 관리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그들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는 규율화 되고 건설적인 통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를 감시하는지 감독하고, 당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1) 환율위험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율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월 환율위험을 분석하고 당사 거래에 적용되는 해외 통화를 다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율위험 헤징을 위한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기의 주요 외화대비율 환율이 6%, 9%, 7%, 4%로 등락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환율변동은 당해 기간 동안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외화의 가중평균 변동율을 바탕으로 측정합니다.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1분기	
	6% 평가절하	6% 평가절상	9% 평가절하	9% 평가절상	7% 평가절하	7% 평가절상	4% 평가절하	4% 평가절상
USD	3.53	(3.53)	3.61	(3.61)	14.12	(14.12)	0.77	(0.77)
EUR	0.08	(0.08)	3.66	(3.66)	1.43	(1.43)	(2.67)	2.67
HUF	-	-	(0.02)	0.02	0.01	(0.01)	(0.01)	0.01
합 계	3.61	(3.61)	7.25	(7.25)	15.56	(15.56)	(1.91)	1.91

(2) 금리위험

당사는 주로 변동이자부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금리변동 및 그러한 변동이 이자수익과 비용 및 당사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에 대한 당사의 상환능력 및 당사의 영업, 자본지출 및 확장계획을 위한 당사의 신규 차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금리위험노출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차입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고금리 차입금은 지양하며, 고정금리 차입금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며, 국내외 금리의 변동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자금조달의 대안을 마련하며, 변동금리부 유동성 차입과 변동금리부 예금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30bp, 20bp, 10bp, 10bp 변동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금리변동은 당해 기간 동안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합니다.

(단위: 십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1분기	
	30bp 상승	30bp 하락	20bp 상승	20bp 하락	10bp 상승	10bp 하락	10bp 상승	10bp 하락
당기순손익	(0.025)	0.025	(0.012)	0.012	(0.008)	0.008	(0.008)	0.008

(3) 인플레이션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가격지수 상승률은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1.3%, 0.7% 및 1.0%이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인플레이션이 최근 당사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추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주간 계약

(1) Ion Investments B.V. 주주간 계약

Ion Investments B.V.는 2011년 당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12월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의 회장이자 지배주주인 서정진은 Ion Investments B.V.와 2011년 8월 주주간 계약(동 계약의 개정, 변경, 보충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Ion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on 주주간 계약"은 당사의 특정 기업 지배구조 및 기타 합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Ion Investments B.V. 및 그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Ion 주주간 계약"은 해지됩니다.

"Ion 주주간 계약"에 의거, 당사는 이사회 내 최소 6명의 이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Ion Investments B.V.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당사의 이사회에 1명의 이사를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on 주주간 계약"은 서정진 및 서정진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이 일정 지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on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당사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 합병, 인수, 상당한 규모의 자산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 발생, 자본금 변동, 정관(Constitutional documents) 개정 등 당사의 경영 활동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Ion Investments B.V.의 동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on 주주간 계약"은 Investments B.V.와 서정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rights of first offer) 및 Ion Investments B.V.에 대한 공동매각권(tag-along rights) 부여 등(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기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거. 이해관계 상충 위험』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on 주주간 계약"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One Equity Partners 주주간 계약

One Equity Partners는 2012년 당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12월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의 회장이자 지배주주인 서정진은 One Equity Partners 및 당사와 2012년 1월 주주간 계약(동 계약의 개정, 변경, 보충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OEP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EP 주주간 계약"은 당사와 관련하여 특정 기업 지배구

조 및 기타 합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One Equity Partners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OEP 주주간 계약"은 해지됩니다.

"OEP 주주간 계약"에 의거, One Equity Partners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당사의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OEP 주주간 계약"은 서정진 및 서정진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이 일정 지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P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당사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동, 판매권부여기본계약 (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만료 혹은 중대한 개정, 합병, 인수, 상당한 규모의 자산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 발생, 자본금 변동, 정관(Constitutional documents) 개정 등 당사의 경영 활동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One Equity Partners의 동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EP 주주간 계약"은 One Equity Partners와 서정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rights of first offer) 및 One Equity Partners에 대한 공동매각권(tag-along rights) 부여 등(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기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거. 이해관계 상충 위험』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EP 주주간 계약"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이고, 영문명은 "Celltrion Healthcare Co., Ltd." 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99년 12월 29일 "주식회사 테크인"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후, 2000년 6월 10일 상호를 "주식회사 넥솔"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3월 19일 현재의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4층
대표번호 : 032-850-6400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elltrionhealthcare.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바이오 신약)들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현재는 바이오의약품 중 최근 들어 시장의 수요가 높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EMA(유럽의약품청) 및 FDA(미국 식품의약품국)로부터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렘시마(Remicade 시밀러)'를 위시로 하여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셀트리온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8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총 2개사이며, 비상장사는 총 6개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회사명
상장사 (2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비상장사 (6사)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주)셀트리온화학연구소,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티에스이엔엠, (주)티에스이엔씨

주1) ㈜드림이엔엠은 2017년 3월 24일자로 사명을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2) ㈜셀트리온에스티는 2017년 4월 11일자로 청산종결 하였습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의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 사업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근거	주요종속 회사여부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10.09.16	Gayrettepe Mah Yildiz Posta Caddesi Yildiz residence No.24/8, Besiktas, Istanbul, Turkey	의약품 도소매	7,390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0.05.10	1051, Budapest, Bajcsy-zsilinszky ut 12 4/410, Hungary	의약품 도소매	30,65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 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12.05.16	Unit 2206 Philippine Axa Life Centre, Sen. Gil Puyat Avenue, 1200 Makati City, Philippines	의약품 도소매	305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12.06.13	B4-3, Jalan Ampang Utama 2/2, Taman Ampang Utama, 68000, Ampang, Selangor, Malaysia	의약품 도소매	20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12.05.10	21/F, Tung Sun Commercial Centre, 194-200 Lockhart Road, Wan Chai, Hong Kong	의약품 도소매	2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2.05.25	Q House Lumpini Tower, Level 27th, Room 2779, 1 South Sathorn R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의약품 도소매	112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2.07.13	Rua Santo Antonio, 175, Piso Terreo, Centro, Caieiras, Sao Paulo, Brazil	의약품 도소매	152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2.06.01	19 Keppel Road, #03-10 Jit Poh Building, Singapore	의약품 도소매	124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12.10.01	PASEO DE LA REFORMA 222 100 PISO 1 JUAREZ CUAUHEMOC DISTRITO FEDERAL, Mexico	의약품 도소매	3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4.07.09	St.Luke`s Garden Tower 28F, 1-8 Akashi-cho, Chuo-ku, Tokyo 104-0044Japan	의약품 도소매	1,986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4.08.18	EPFL Innovation Park, batiment C, c/o Fondation EPFL Innovation Park, 1015 Lausanne	의약품 도소매	1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6.10.11	7F, No.23, XiangYang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의약품 도소매	113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주1)	14.01.12	21 Lekhi Street, Bnei Brak 51200 ISRAEL	의약품 도소매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주1) 이스라엘 법인은 2017년 5월 3일 청산되었습니다.

아.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연결	-	-
연결제외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법인 청산

주) 인도법인은 2017년 2월 13일 청산되었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최근 5사업연도 당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주소	비고
2014.04.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4층 (송도동, (주)셀트리온 사무동)	도로명 주소로 변경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최근 5사업연도 당사 경영진의 중요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직위	변경전	변경후
----	----	-----	-----

2012.03.23	대표이사	서정진	서정진
	사내이사	문광영	문광영
			유현영
			이근경
	기타비상무이사	유호은	유호은
	사외이사	정일부	정일부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감사	황석영	황석영	
2014.03.27	대표이사	서정진	서정진
	사내이사	문광영	남승헌
		유현영	이병률
		이근경	-
	기타비상무이사	정일부	정일부
		David Han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Gregory Belinfanti
		-	문광영
		-	이근경
		-	Fidah Alsagoff
	감사	황석영	황석영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 변동 이력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최근 5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최근 5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최근 5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최근 5사업연도 기간동안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용
2012.07.20	램시마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시판 허가
2013.01.31	Orion과 램시마 판매계약 체결 (북유럽)
2013.09.10	램시마 EMA(유럽의약품청) 시판 허가
2013.12.02	Kern Pharma와 램시마 판매계약 체결 (스페인)
2013.12.17	Biogaran과 램시마 판매계약 체결 (프랑스)
2013.12.23	Mundipharma와 램시마 판매계약 체결 (서/남유럽 6개국)
2015.05.21	Biogaran과 트록시마 판매계약 체결 (프랑스)
2015.10.29	Kern Pharma와 트록시마 판매계약 체결 (스페인)
2015.12.04	Mundipharma와 트록시마 판매계약 체결 (서/남유럽 6개국)
2016.02.19	김만훈 사장 대표이사 취임
2016.04.05	램시마 FDA(미국 식품의약국) 시판 허가
2016.10.04	글로벌 제약사 TEVA와 트록시마/허주마 북미지역 판매계약 체결
2016.10.19	램시마 누적수출액 1조원 돌파
2016.11.16	트록시마(Rituxan 시밀러) MFDS 시판 허가
2017.02.21	트록시마 EMA 시판 허가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최근 5사업연도 기간동안 당사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비고(주1)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 (감소)가액	
2012.01.31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주2)	110,080	5,000	2,307,500	제3자 배정방식 증자비율 30%
2015.04.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20	5,000	2,307,500	0.03%
2015.07.2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12	5,000	2,307,500	0.07%
2015.12.30	전환권행사	보통주	25,972	5,000	2,307,500	5%
2015.12.3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5,972	5,000	2,307,500	5%
2015.12.31	전환권행사	보통주	10,645	5,000	2,307,500	2%

2015.12.3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3,029	5,000	2,307,500	2%
2016.01.2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63	5,000	2,307,500	0.08%
2016.03.07	무상증자	보통주	21,643,284	5,000	5,000	주주배정 (1주에 39주)
2016.04.11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1,020	5,000	57,687	0.09%
2016.04.1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1,760	5,000	57,687	0.05%
2016.05.04	액면분할	보통주	88,924,080	1,000	-	-
2016.07.1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6,500	1,000	11,537	0.03%
2016.07.15	전환권행사	보통주	476,820	1,000	11,537	0.43%
2016.10.1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15,700	1,000	11,537	0.37%

주1) 비교란은 증자 비율을 표시하였습니다.

주2) 동 상환전환우선주는 2015년 12월 30일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미상환 전환사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 주식수	
제 2회 전환사채	2014.09.30	2019.09.30	208,340,000,000	보통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3영업일 전까지	100%	26,125	149,540,000,000	5,724,019	

주1) 당사는 Hospira Inc.와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Hospira Inc.가 보유한 전환사채 잔존가액 149,540,000,000원의 상환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 30일 90,236,255,960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잔액 59,303,744,040원(전환가능주식수 2,269,999주)은 향후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주2)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당사가 제공한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담보설정일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Hospira Inc.	제2회 전환사채	2014-10-15	재고자산	209,820	357,204

주1) 상기 장부금액은 2017년 1분기말 기준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200,000,000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2,084,120	7,137,720	119,221,840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137,720	7,137,720	
1. 감자	-	-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	7,137,720	7,137,720	14년 3월, 15년 12월 2회에 걸쳐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
IV. 발행주식의 총수(II-III)	112,084,120	-	112,084,120	
V. 자기주식수	-	-	-	
VI. 유통주식수(IV-V)	112,084,120	-	112,084,120	

주) 2016년 3월의 무상증자와 동년 5월의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09년, 11년 그리고 12년에 각각 발행되어 14년 3월과 15년 12월 2회에 걸쳐 전량 보통주로 전환된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효과를반영하여 자료 작성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2,084,120	
	우선주	-	
의결권 없는 주식수(B)	보통주	-	
	우선주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수기수(C)	보통주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E)	보통주	112,084,120	
	우선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 60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61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상법 제 464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주요배당지표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제 17기	제 16기	제 15기
주당 액면가액(원)		1,000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2,896	20,584	(369,986)
(개별)당기순이익(백만원)		107,297	(44,433)	(354,038)
(연결)주당순이익(원)		1,103	309	(5,72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율(%)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율(%)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	-----	---	---	---

주1) 주당순이익은 신고서 제출일 기준 액면가인 1,000원 기준입니다.

II. 사업의 내용

[용어]

순번	용어	영문용어	설명
1	교체처방/스위칭	Switching	대조의약품을 투약하던 환자의 처방을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바꾸는 것
2	단일클론항체	Monoclonal Antibody	특이한 친세포(parent cell)의 클론들이 면역세포일 경우, 이들 세포가 생산하는 동일한 항체들은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단일클론항체라고 한다. 이러한 특이적인 기능에 의해 단일클론항체는 특정 물질을 추적하거나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대조의약품 오리지널의약품	Reference Drug Original Drug	바이오시밀러의 동등성 비교 대상이 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4	면역원성	Immunogenicity	인체 내에서 면역을 유도하는 항원의 강도. 의약품의 면역원성이 강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체내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5	바이오의약품	Biologic	생물학적제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이나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
6	비교동등성	Comparability	시험약과 대조약을 인체에 각각 투여하여 통계학적으로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었을 때 비교동등성을 보인다고 한다.
7	부작용모니터링	Pharmacovigilance	의약품의 시판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활동
8	역가	Titer	단위당 함유된 항체의 농도
9	임상 약동학	Pharmacokinetics	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동태적 연구
10	약력학	Pharmacodynamics	약물의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효과와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11	적응증	Indication	어떤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12	콜드체인	Cold-chain	의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저온을 유지하면서 배송할 수 있는 저온 유통시스템
13	합성의약품	Chemical Drug	유기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14	항체	Antibody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혈액서 생성된 당단백질
15	항체의존세포매개독성	ADCC	항체와 결합된 면역 세포들이 항체에 의해 활성화되어 항체가 결합하고 있는 세포들을 용해하는 현상
16	BLA	Biologic License Application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서. 각 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제출 서류
1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관리하는 기준
18	GVP	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	약물감시계획 수립, 의약품 위해감소전략,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 부작용 정기보고, 실마리 정보분석 등 의약품 허가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관리하는 기준
19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EU의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
20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동물약, 장난감 등 소비자가 평소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에 대해 그 허가나 위반품 단속으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21	MAA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규제기관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행위
22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시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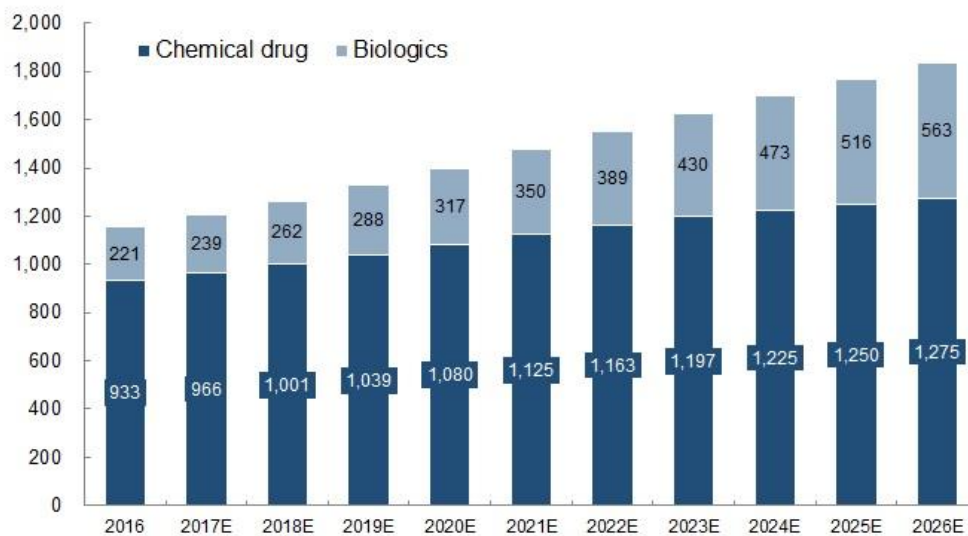
(1) 세계 제약시장

제약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 연구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해 규모와 수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 2016년 1조 1,536억 달러에서 연평균 4.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1조 8,3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제약시장은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 등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저분자 제제)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저분자 제제를 가리킵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고분자 제제)의 활성 치료 성분은 크고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살아있는 세포/생체에서 생성 또는 추출된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여러 부분에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각각 약 9,328억 달러와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3.2% 및 9.8%로 성장하여 2026년 1조 2,755억 달러 및 5,6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약 19%에서 2026년 약 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2026년 세계 제약시장 예상규모(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자료: Frost & Sullivan

최근 세계 제약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의 가계 가치분 소득의 꾸준한 증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특수약품의 필요로하는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약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약품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제약 시장 전체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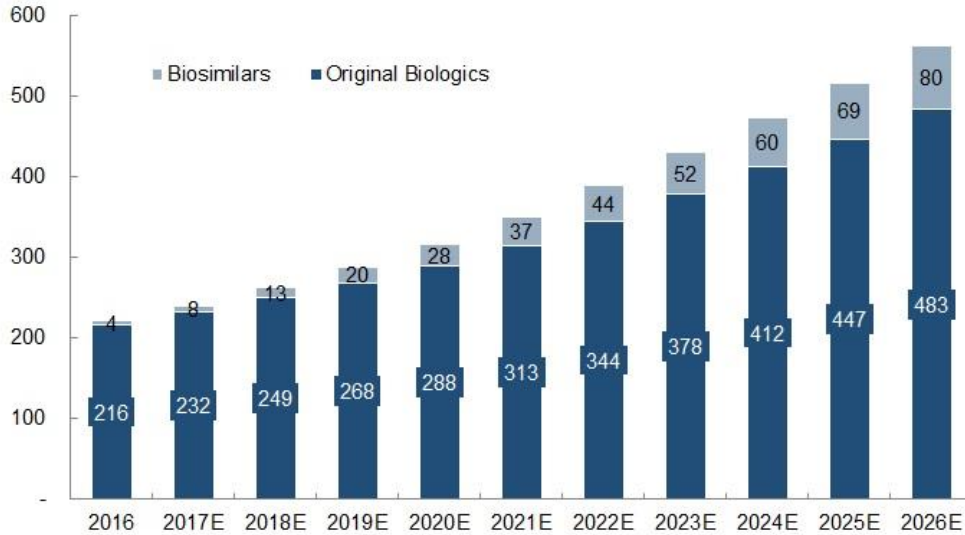
(2)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바이오의약품은 약품의 일종으로 백신, 혈액 및 혈액 구성성분, 알레르기, 체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 및 재조합 단백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약품을 지칭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다양한 생체 자원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당, 단백질, 핵산 혹은 이 물질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세포 및 조직과 같은 생체 물질 그 자체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근대과학이 이루어 낸 가장 정교하고 기술적인 선진적 성과 중의 하나이며,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바이오의약품은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적습니다. "2세대" 바이오 약품(특정 조건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항체 등)이 등장한 이후, 지난 10년에서 15년간 바이오의약품이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방식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합성의약품보다 일반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만성질환, 중증 질환, 주요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소중한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블록버스터 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약품을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세계 5대 바이오의약품의 연간 매출은 각각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약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약품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약 2,208억 달러에서 연평균 9.8%로 성장하여 2026년 약 5,62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세계 바이오의약품 전체 시장의 대부분인 9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바이오시밀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



자료: Frost & Sullivan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적인 합성의약품을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의약품이 가지는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료(생체재료)

합성의약품을 제조할 때 무생물인 화학적 시약을 사용하여 합성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의약품 생산에는 생물체가 사용됩니다. 또한 화학의약품의 합성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지속적인 오염 위험을 방지하며 수용액의 온도를 통제하여 생산됩니다.

(나) 복잡성 및 민감성

바이오의약품은 전통적인 합성의약품에 비해 분자량이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큰 분자들로 구성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이 생체물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예: 온도, 전단력, 화학적 상태, 빛) 및 효소 반응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표적 특이성 및 약효

특정한 단백질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이오의약품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은 특정한 분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특정 질병에서 주요 발병 원인 역할을 하는 단일 분자를 표적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약효와 안전성을 보장하며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라) 면역원성

바이오의약품의 투여는 의약품에 대한 항체 생성, 과민증 또는 감각 림프구 등의 형태로 신

체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 제조 공정

합성의약품의 제조공정이 명료하게 정의되고 동일한 품질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데 반해, 바이오의약품의 복잡한 생산공정은 통제도 어렵고 생산량도 소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생체물질은 제조공정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공정 상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바이오의약품 완제품의 기능성 및 효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조사는 의약품의 일관성, 품질 및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오랜 기간동안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독특성 및 수익성

데이터/특허 보호 및 바이오의약품의 정교한 개발/생산 과정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오의약품이 일단 성공적으로 시판되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다면 전통적인 합성의약품보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의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지식 집약적인 바이오 산업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분석기술 및 상업생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은 선행연구, 임상시험, 상업용 배치 생산 및 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해 상당한 장기성 자본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상업화에는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는 복잡한 등록절차, 시판제품의 마케팅 및 시판 후 안전성 조사 등이 수반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하고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보건당국의 승인 및 블록버스터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 늘어나는 등 주목할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약효 개선 뿐만 아니라 부작용 감소를 수반한 기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예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 치료 등)
- 합성의약품 대비 약효가 뛰어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용도 증가
- 유전학 및 생화학 분야의 기술혁신 및 발달로 인해 생명공학 기업의 중요 연구개발 역량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가 작용하며 제약회사들의 수익 증대 가능성 증가
-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와 의료비 절감에 대한 압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2016년 전세계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바이오의약품의 브랜드명, 성분명, 개발사, 주요 적응증 및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브랜드명	성분명	매출액	판매사	주요 적응증
1	Humira	Adalimumab	16.4	Abbvie	Rheumatoid arthritis
2	Enbrel	Etanercept	9.2	Amgen	Rheumatoid arthritis
3	Remicade	Infliximab	8.8	Janssen	Rheumatoid arthritis
4	Rituxan	Rituximab	7.1	Roche	Non-hodgkin's lymphoma
5	Avastin	Bevacizumab	6.6	Roche	Cancers (colon, lung, kidney, etc.)
6	Herceptin	Trastuzumab	6.6	Roche	Breast cancer
7	Lantus	Insulin glargine	6.1	Sanofi	Diabetes
8	Prenvar 13	Pneumococcal 13-valent Conjugate Vaccine	5.7	Pfizer	Pneumococcal pneumonia
9	Neulasta	Pegfilgrastim	4.6	Amgen	Neutropenia
10	NovoRapid	Insulin aspart	2.8	Novo Nordisk	Diabetes

자료: Frost & Sullivan

(3)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여 약효, 안전성, 순도, 효능뿐만 아니라 여러 물리화학적, 구조적 특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여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더라도, 이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네릭 합성의약품의 경우 브랜드 제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구조적 차이를 가져오거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로트 사이에서도 고유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실험(lab) 단계에서 상업생산 단계로 적절히 scale-up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특성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임상 1상과 3상만을 요구하고 표적 발굴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며, 이는 바이오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생성 후에는 제형화, 혼합 또는 (액상 또는 동결건조분말의) 최종 형태로 원료의약품을 가공 하고 최종 용기에 충전, 밀봉하는 완제공정(fill/finish)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고객 요건에 따른 라벨링/포장 서비스를 완료하면 완제의약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는 전략적 계획 및 상업화를 위한 인프라가 요구되며, 3자 마케팅, 물류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마케팅 아웃소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에는 (1) 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약품 급여관리기관, 환자, 의사 파악 및 이들 간 상호작용, (2) 도소매 업체, 종합병원, 개인병원, 정부기관, 약국에 제품

을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판매 채널 등이 포함됩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온도 및 여타 환경적 조건을 정밀하게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의 수용범위를 벗어나는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약효 및 임상시험 평가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며, 나머지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에서 2026년 14.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4%로 예상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34.0%로 성장세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의 경우 특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43억 달러에서 2021년 366억 달러로 연평균 5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Humira®, Avastin®, Herceptin® 및 Benlysta®와 같은 일부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등한 효능 및 저비용의 특징을 가지는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등한 효능 및 저비용

단일클론항체, 시토키인, 치료백신 등 복잡한 구조의 바이오의약품은 암,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난치성 질병의 치료방식 혁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치료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동일한 효능을 제공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10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들은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다수는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독점기간이 종료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보유한 특허 및 여타 지적재산권이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견인될 것입니다.

● 규제환경 변화

바이오시밀러는 대조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및 시판과 관련하여 법규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합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는 2006년 유럽 시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3월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규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하

였습니다. 전 세계 보건당국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간소화 노력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승인과 관련한 법규 체계가 점차 명확화 및 간소화되고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하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건의료 재정의 압박 증가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및 고령화 인구조로 말미암아 보건의료 재정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부기관, 보험사 및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창출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시장에서는 대조의약품 대비 적절한 가격의 복제의약품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 비용으로 공급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데 비하여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향후 5년에서 10년 간 미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및 여타 주요 시장에서도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해당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기준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지역별 시장규모(EU, 미국, 기타 지역)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



자료: Frost & Sullivan

다. 국내의 시장여건

(1)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법규체계

미국 및 EU에서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규체계는 제네릭 합성의약품에 대한 법규체계보다는 복잡하지만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법규체계보다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EU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인 CHMP/437/04는 2005년 10월 확립되었으며, 미국의 승인 절차인 351-(k)는 2010년 3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 가이드라인은 임상 안전성 및 약효가 동등한 제품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전세계 정부 및 보험자들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게 더욱 유리한 규제 및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보다 더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바이오시밀러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정부는 오리지널의약품인 Remicade가 승인 받은 전체 적응증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당사의 Infliximab biosimilar 제품으로 스위칭 (switching)할 때 안전성과 약효를 평가하는 연구 기금을 충당하였습니다. 2016년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당사의 infliximab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광범위한 사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정부 기관은 류마티즘 관절염과 같은 특

정 적응증에 대해서는 Remicade에서 당사의 infliximab biosimilar 제품으로 스위칭 (switching)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4년에 치료과정을 시작할 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대체처방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단일클론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장려를 위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2017년 1월 바이오시밀러 허가 준비와 검토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승인은 2006년(EU) 및 2015년(미국)에서 각각 인체성장호르몬 및 G-CSF 바이오시밀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또한 EU 규제절차와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규제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생물학적 유사성 입증에 위하여 규제기관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불활성 성분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성, 약효, 면역원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간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들 규제기관들에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권고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신청인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다음 단계를 파악합니다. 유럽의약품국(EMA)이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지침에서는 품질, 약효,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엄격하게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럽의약품국(EMA)에서는 유사한 품질을 입증하기 위하여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활성성분 구조 및 생물학적 활동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요구합니다. 약효 및 안전성의 비교 연구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간에 효과 및 면역 반응 부작용 등의 위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증거자료의 총합성(totality of evidence)" 접근법에 대한 유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접근법은 생물학적 유사성을 평가하고 구조적, 물리화학적, 기능적 특성분석, 비임상 동물연구결과, 임상 약동학 및 약력학(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 화학적, 생리적 효과), 임상 약효 및 안전성을 포함한 제출 데이터 및 정보의 총합성을 고려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최초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허가한 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허가한 시점으로부터 1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법적인 허가 신청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8년 데이터 독점권 기간 만료 시점까지 제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0년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시판할 수 없으며, 만료 시기는 1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규제

바이오의약품은 BLA(Biological License Application,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의 승인과 함께 지속적인 후속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바이오의약품의 승인 시점부터 마케팅과 관측활동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off-label) 판촉, 업계가 후원하는 과학 및 교육 활동, 인터넷을 이용한 판촉 활동에 대한 표준 및 규제가 포함됩니다. 이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 미충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이 해당 기업에 발행되거나, 추후의 광고 및 판촉 자료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연방 또는 해당 주의 민사, 형사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승인된 적응증에 대해서만, 승인된 라벨링 내용에 맞게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 라벨링, 또는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등 승인된 신청서의 일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이 적용되기 이전 신규 BLA나 BLA 보조자료를 제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BLA 보조자료로는 일반적으로 원 신청서 상의 임상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요구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BLA를 검토할 때와 동일한 절차와 활동을 통하여 BLA 보조자료를 검토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및 승인된 바이오의약품 판매업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여타 관련 연방, 주정부 기관에 사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cGMP, cGVP 요건 및 여타 관련 법 준수 확인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여타 연방, 주정부 기관의 주기적인 불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업체는 해당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주 내의 의약품 제조사 및 도매 판매업체 등록을 요구하는 주정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조사와 판매업체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제조사와 판매업체에게 판매망 상의 의약품 계보 (pedigree)를 만들거나 판매망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마케팅 범규준수 프로그램 확립, 정기 보고, 매출, 마케팅, 가격, 임상시험 및 여타 활동에 대한 정기적 공시 그리고/또는 영업인력 등록을 요구하고, 약국 및 여타 보건의료 주체들이 특정 처방 데이터를 판매 및 마케팅 용도로 제약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약회사의 판매 및 마케팅 관행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내 부정행위 및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 보건 의료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및 여타 국가의 다양한 보건의료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법에는 불법 리베이트 및 허위청구 방지법도 포함됩니다. 불법 리베이트 방지법은 일반적으로 바이오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의 구매나 처방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 제공,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허위청구 방지법은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약품비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제 3자 보험자를 대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거나 그러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럽연합은 관권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유럽연합 내에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해당 정보를 수신한 이후 늦어도 15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의 보건당국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시판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대로 또는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요청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권 획득 전후 주기적으로 안전성 보고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과 관련하여 유럽 의약품의 의견 변화를 초래하거나 이상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관권의 보류, 변동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현행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의 원칙 및 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의약품 제조사 및 관련보유자 부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또는 반복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에서 불이행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임상 또는 상업 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자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또는 상업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해당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시장 철수 또는 리콜, 혹은 추후 마케팅을 금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유럽의약품국의 여타 조치 등의 규제가 제품, 제조업체 또는 관련보유자를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경쟁상황

당사의 제품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및 기존 치료제 그리고 현재 상업화되었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장벽은 연구개발, 생산설비 및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본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확보하고 적합한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또한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이 조금만 변화하여도 최종 생산물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시판을 위한 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표준 운영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최초 기업(First Mover)은 후발 경쟁사 대비 상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은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컨드무버(Second Mover)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기업(First Mover)과 경쟁하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뿐만 아니라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의약품을 상대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는 크지 않습니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은 시판 직후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임상자료를 확보하므로 자사 바이오시밀러의 효익,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함에 있어 유용합니다. 그 결과 세컨드무버(Second Mover)이 직면하게 될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주력제품에 대한 주요 경쟁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Remsima® / Inflectra®)

당사는 글로벌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세계 최초로 진입한 퍼스트무버(First Mover)이자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출시(2016년 12월)한 기업으로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에서 경쟁사 대비 선도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는 제품은 Johnson & Johnson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Remicade에 대한 특허 보유) 및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한국에서는 2016년 7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16년 8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10월 일본에서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Aprogen 제품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Pfizer는 2017년 5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마쳤고, Pfizer에게서 유럽에서의 개발/상업화 권한을 인수한 Sandoz는 17년 5월 EMA에 품목허가를 제출했습니다. Epirus 및 Amgen은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 Remsima/Inflectra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vial)

구분	15년 1분기	15년 2분기	15년 3분기	15년 4분기	16년 1분기	16년 2분기	16년 3분기	16년 4분기
Remicade	908,088	887,605	893,373	861,324	810,748	798,883	761,736	716,319
Flixabi	-	-	-	-	-	-	22	317
Remsima/Inflectra	34,714	85,633	134,364	186,868	248,203	304,276	356,874	420,929
합계	942,802	973,238	1,027,737	1,048,192	1,058,951	1,103,159	1,118,632	1,137,565
시장점유율	3.7%	8.8%	13.1%	17.8%	23.4%	27.6%	31.9%	37.0%

자료 : Frost & Sullivan

■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Truxima®)

당사는 유럽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최초로 품목허가 승인(2017년 2월)받고 최초로 출시(2017년 4월)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경쟁사 대비 선도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는 제품은 Biogen Idec (당사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Rituxan/MabThera® 특허 보유) 및 Sandoz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Sandoz의 경우, 2016년 5월 유럽의약국(EMA)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4월 CHMP으로부터 허가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의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Biocad, Pfizer 및 Amgen과 현재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Merck 및 Gedeon Richter가 개발한 제품들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Herzuma®)

당사는 2016년 10월 유럽의약국(EMA)에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은 Genentech Inc. (당사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Herceptin® 특허 보유), Mylan 및 Biocon,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Mylan 및 Biocon의 경우, 공동 개발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유럽의약국(EMA)에는 2016년 8월 그리고 미국 식품

의약국(FDA)에는 2016년 11월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2016년 9월 유럽의약국(EMA)의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Amgen 및 Allergan이 공동 개발하여 현재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이들의 트라스투주맵 바이오시밀러 제품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의 합성의약품 대비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규제기관을 통해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승인을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및 임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기준은 규제, 임상 측면에서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생산 물량 확대 과정 모두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요구되는 재원 수준이 높다는 것도 추가적인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시한 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분야에서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 개발 및 제조 역량

높은 수준의 역가(titer)와 순도를 가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만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가가 높다는 것은 세포 계 개발, 세포 배양 조건 및 정제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개발의 각 단계는 최종 생산량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거의 동일한 특성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생산하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세포 계 및 세포배양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 능력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제품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가변성이 적은 제품 생성과 생물학적 유사성 검증을 위해서는 강력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분석법이 요구됩니다.

● 임상시험 설계 및 관리 역량

임상시험 관련 비용이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오시밀러 제약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임상시험 및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모집 기간을 단축하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다수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적 재산 관련 전략적 역량

품목 허가 절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므로 바이오시밀러 제약회사에게 지적 재산과 관련한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위 “조성물 (composition-of-matter)” 또는 합성물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고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승인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지적 재산과 관련한 소송 및 여타 위협 요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특허 환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잠재적 지적 재산 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피 설계(design-around), 특허침해 예방 그리고/또는 특허 무효화 등의 전략을 통해 제품이 승인되고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제 관련 역량

규제기관들이 요구하는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고, 비용 소모가 늘어나며, 점차 진화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자들은 글로벌 규제 전문성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는 확보되어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의 강력한 규제 대처 역량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안정적인 상업화 물량 공급 역량

환자, 보험자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건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공급 역량의 입증 없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 해당 기업은 시장이 요구하는 상업화 물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또한 내부 역량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기승인 제품의 글로벌 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통품질 보증 역량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제조 및 보관 환경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콜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특화된 온도 조절 유통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온도, 습도, 여타 환경적 조건을 보장하는 유통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 특정 의약품에 특화된 유통망 계획 및 구축, (2) 적정 온도 및 여타 조건 보장을 위한 유통망 개별 단계 모니터링 및 관리, (3) 유통 과정 상의 의약품 안전성 및 품질 검증을 위한 규제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 판매 및 마케팅 역량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판매 업체는 환자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기존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브랜드 및 광범위한 상업 경험을 활용하면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여타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학회, 업계회의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주최하는 한편 학술지 논문 게재, 단행본 발간 및 발표자료 작성 등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통해 의료계 및 환자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부작용 모니터링 역량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은 공공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활동 및 여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권보유자가 제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데이터 수집, 리스크 평가 및 분석, 환자, 의료진 및 대중에게 적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부작용모니터링 활동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스위칭(itching) 데이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스위칭(itching)"과 관련한 시판 이후 임상데이터 및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데이터에 따라 상업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자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 처방사례가 많아 이로부터 스위칭(itching)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시장에서의 우월한 입지는 물론 더욱 경제적인 대체재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용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 회사의 현황

당사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마케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여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및 기타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짐으로써, 해당 의약품을 직접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셀트리온과의 독점적 관계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세계적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판매 노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하기 이전에 일정량을 선매입함으로써 셀트리온의 의약품 개발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 이후에 당사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계,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의약품을 전세계 시장에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작용 모니터링활동 및 임상시험 등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준법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12개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15개국에서 활동하는 34개의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하고있습니다.

당사는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따라 셀트리온과 상호 협업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각 지역의 효과적인 시장 침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시장 접근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만 및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주로 바이오시밀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는 여러 물리화학적이고 구조적인 성질은 물론 약효, 안전성, 순도 및 효능 측면에서 먼저 승인된 오리지널 제제와의 유사성이 높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Frost & Sullivan

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는 366억 달러로 연평균 5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주력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

제품 (주1)	오리지널 의약품(INN)	주요 적응증	현재상황	마케팅 파트너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Remsima® / Inflectra®)	레미케이드 (Remicade®) (인플릭시맵)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장질환 (자가면역질환)	한국: 출시(주2) 유럽연합: 출시(주3) 미국: 출시(주4)	유럽연합: Hospira,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Pharma Kern, Orion, Astropharma, Pinewood Healthcare, DEMO, Oktal Pharma, EGIS, iQone , Mustafa Nevzat 미국: Hospira 기타국가: 파트너 17개사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 (Truxima®)	리톡산(Rituxan®) / 맵테라(MabThera®) (리톡시맵)	비호지킨 림프종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출시(주5) 유럽연합: 출시(주6)	유럽연합: Mundipharma, Biogaran, Kern Pharma, Astropharma, Oktal, Orion, iQone, Medical Logistics, C.A.P, EGIS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2개사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Herzuma®)	허셉틴(Herceptin®) (트라스투즈맵)	유방암	한국: 판매허가(주7) 유럽연합: 신청(주8)	유럽연합: Orion, Kern Pharma, EGIS, Mustafa Nevzat, PharmaKern 미국: Teva 기타국가: 파트너 8개사

자료: 회사제시자료

주1) Remsima®, Inflectra®, Truxima® 및 Herzuma® 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상품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2)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2년 7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2년 11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3)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3년 9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3년 9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4)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2016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 12월 미국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부터 2016년 1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5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6) 유럽의약품국(EMA)으로부터 2017년 2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7년 4월 유럽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주7)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2014년 1월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주8) 유럽의약품국(EMA)을 통해 2016년 10월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당사는 상기 주력 제품 외에도 현재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및 4개 바이오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바이오베터 개발품목 중 하나인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으로서 당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

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모든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의약품은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개발/생산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전 세계 판매 역량은 당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각 지역의 효과적인 시장 침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약 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시장 접근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리핀, 대만 및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셀트리온으로부터 원재료(Drug Substance) 형태로 자재를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형태의 재고들은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완제공정(fill/finish) 및 라벨링/포장 공정을 진행하여 완제의약품 형태로 전환합니다. 해당 공정은 셀트리온을 비롯한 외부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4년 1,647억원에서 2015년 4,024억원, 2016년 7,57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4년 3,7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2015년 206억원, 2016년 1,22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총자산은 1조 8,491억원이며, 총자본은 6,458억원입니다.

바.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다음의 주요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사업 플랫폼

당사는 현지화된 의약품 전문성 및 글로벌 판매 채널 접근성을 가진 뛰어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제조 파트너사의 제품이 전세계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파트너사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현지 규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와 함께 당사 제품에 적합한 지역 시장을 창출하고자 모색합니다. 당사는 셀트리온과 함께 공동 개발사로서 전세계적으로 셀트리온과 공동개발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단일클론 항체인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세계 최초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셀트리온의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파이프라인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성을 활용하여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상업화 플랫폼이 가진 특유의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우수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당사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과 신뢰를 구축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 및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Pfizer, Teva, Mundipharma 등의 우수 글로벌 제

약사, 주요 현지 제약사 및 강력한 판매역량 및 유통망을 갖춘 현지 판매업체들을 포함하여 115개 국가에서 34개 파트너 업체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판매 노하우를 파트너 업체들의 탄탄한 현지 판매망 및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병원 및 의사 등 핵심 산업주체들을 관리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사용, 효과, 부작용 및 제품 관련 기타 임상적 측면 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시판 이후의 임상시험과 함께 제품 교육 세미나, 메디컬 심포지엄 등 기타 판촉활동을 기획합니다. 또한 당사는 환자집단을 대변하는 유관 조직을 후원하여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술지 논문 게재 및 기타 의학 간행물 및 발표자료를 발행하는 등의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파트너사들과 함께 추진합니다.

● 심도 깊은 바이오시밀러 영업 노하우 및 글로벌 의료 데이터

당사는 세계 최초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80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글로벌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극소수의 마케팅 및 판매 전문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시장 및 지역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 및 100,000년 이상의 환자연수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 기반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효율적인 제품 마케팅/판매 및 상업화 계획과 로드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임상 및 약리경제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보건 의료 예산 및 보험 지급비용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대비 효능을 설득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 보험사로 하여금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에 유리한 지침 및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및 처방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 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의료 커뮤니티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조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콜드 체인 유통 역량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마케팅/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하여 당사는 글로벌 수준으로 콜드체인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여 당사의 제품이 사용기간, 안전성, 품질이 보장된 상태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지점에서 당사의 유통망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EU, 미국 및 여타 지역의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제품 품질 보증 및 영업활동

당사는 당사의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중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 시점 이후의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당사는 환자, 의료진 및 대중을 대상으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 제품을 사용하며 발생한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스크를 평가 및 분석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 3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영위하는 영업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여합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시판 이후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기업 중 하나로서 EU 및 미국 등 대규모 시장에서 파이프라인 제품군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특유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유수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기업이 되었으며, 당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의 상업화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폭넓은 글로벌 마케팅 및 의료 전문성

당사는 전 세계적으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하고 판매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 전략적 마케팅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처방사례에 기반한 임상 데이터 및 스위칭(switching)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와 같은 증거에 기반하여 당사의 제품을 설명하고 판촉하기 위해 홍보 행사 및 보건의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모두를 활용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촉하는 최적의 영업채널은 물론 의사, 규제당국 및 공공이익집단 등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임상데이터에 기반한 당사의 의료 전문성, 맞춤형 의약품 사용 및 편의성에 초점을 둔 마케팅 역량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예를 들어, 피하 약물전달 시스템 및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 키트 개발) 시장에 접근한 덕분에 대중에게 당사의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저렴한 대체품임을 확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제품들이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이후 성공적으로 상업화 될 수 있도록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마케팅하고 판매하며 습득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와 파트너사들의 영업 및 마케팅 역량 간의 결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출시 후 빠른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 귀결될 것입니다.

(3)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선도적 위치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단일클론 항체 의약품인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3년 9월 유럽의약품국(EMA)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제품명은 Inflectra®). 2017년 3월말 기준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EU,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한국을 비롯한 80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협업하며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다수의 지역별 시장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Remicade®의 대표적인 대체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2016년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은 2015년 대비 85.9% 증가하여 7,4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당사의 Inflectra®(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제품명) 출시를 위하여 마케팅 파트너사인 Hospira에게 판매한 Inflectra® 매출액은 약 2억 2,660만 달러입니다. 2015년 Pfizer는 Hospira를 인수하였습니다. Pfizer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Hospira가 미국에서 판매한 Inflectra® 매출액은 17백만 달러입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점유율은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분기 유럽 기준 37.0%, 2016년 온기 기준 30.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Inflectra®의 성공적인 출시는 당사의 시장선도적 위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최초의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당사의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7년 2월 유럽의약품국(EMA)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3분기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BLA(생물학적 제제허가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리톡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48개 국가에서 14개 현지 파트너 업체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리톡시맙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71억 달러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입지 및 존재감을 통해 개발 및 품목허가 승인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타 인플릭시맙 및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업체가 직면하게 될 시장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놓았습니다. 신규 시장진입 업체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뿐만 아니라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모두에 대한 생물학적 유사성(biosimilarity)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사 및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4) 높은 가치성을 자랑하는 제품 후보물질 상업화 계획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과 관련하여 상당히 가치적인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플릭시맙 및 리톡시맙 바이오시밀러와 같이 이미 승인을 획득한 2개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개발 단계에 있는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4개 바이오신약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개발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중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품목허가 승인의 첫 주자가 될 것입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 1월에 한국에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10월 유럽의약품국(EMA)에 승인신청을 위한 MAA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 하반기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신청을 위하여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BLA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 상위 10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인 Herceptin®을 사용하는 환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트라스투즈맙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66억 달러입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맙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사보다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EU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에서 Herzuma®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 획득이 예상되는 가운데 58개국에서 해당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기 위해 Teva, EGIS, Orion, Hikma 등의 파트너사들과 마케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제 버전인 "Remsima SC"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램시마 SC에 대한 제3상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5)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강력한 지원

당사는 바이오의약품의 마케팅과 판매 관련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 과학, 기술, 영업 및 판매 인력을 전세계에서 영입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은 15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김만훈 대표이사는 32년의 판매 및 마케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말 기준 당사 직원 중약 37%가 의사 및 의료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의학 또는 약학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투자자들이 당사의 주요 주주로서 당사가 최선의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회사의 성장전략

당사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놀라운 성장 잠재력에 기반하여 당사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당사는 당사의 리톡시맵 그리고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하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여타 바이오시밀러 제품 후보물질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즉시 주요 시장에 출시하여 시장 조기진입의 이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후보 제품 중 바이오베터이자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제 버전인 Remsima SC가 개발의 가장 최종 단계에 이른 제품으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 후보물질 4개가 다양한 개발 단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및 혁신적 완제의약품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제약이 개발한 화학합성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당사의 글로벌 영업망과 판매 파트너사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라이센싱 및 제3자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제품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으로 글로벌 판매망 및 판매역량 구축.**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세계의 우수 제약사들과 강력한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는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신규 시장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최고 판매업체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직접판매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판매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사업 성장력과 확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의 강화는 셀트리온이라는 브랜드와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필리핀에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판매역량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인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 시장에도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 직접 판매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및 혁신적 바이오 신약 판매역량 강화 지속.** 보건의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하려는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바이오의약품 대비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는 이러한 국가들을 견고히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과 지역으로부터 임상시험 및 환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히 당사의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판매와 마케팅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니즈와 개발 및 상용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품 개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업계 리더들과 정부기관, 보험사, 보험자, 병원,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고객 기반을 넓히고 향후 바이오베터 및 혁신적 완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활용하여 신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당 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며, 평판을 쌓기 위해 판매역량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활동 최적화.** 당사는 기존의 파트너십 및 영업망 뿐만 아니라 영업역량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거나 효과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영업 및 판매망 인수기회 또한 함께 모색하여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신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당사는 또한 주요시장과 신흥시장에서 인라이센싱, 파트너십, 합작 투자 등 간접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장점유율 및 현지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램시마 (Remsima®. Infleximab 바이오시밀러 제품)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Remicade®)(인플릭시맵)의 바이오시밀러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및 소아크론병, 건선, 건선성 관절염 및 성인 및 소아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입니다. 인플릭시맵은 TNF- α 와 결합하여 TNF- α 의 활성을 중화시키며, 염증 증상을 완화하고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Remsima® 및 Inflectra®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수성의 형태로 정맥 내 주사를 위해 100mg 파우더를 담은 유리용기 형태로 판매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 Remsima/Inflectra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vial)

구분	15년 1분기	15년 2분기	15년 3분기	15년 4분기	16년 1분기	16년 2분기	16년 3분기	16년 4분기
Remicade	908,088	887,605	893,373	861,324	810,748	798,883	761,736	716,319
Flixabi	-	-	-	-	-	-	22	317
Remsima/Inflectra	34,714	85,633	134,364	186,868	248,203	304,276	356,874	420,929
합계	942,802	973,238	1,027,737	1,048,192	1,058,951	1,103,159	1,118,632	1,137,565
시장점유율	3.7%	8.8%	13.1%	17.8%	23.4%	27.6%	31.9%	37.0%

자료 : Frost & Sullivan

지적 재산. 인플릭시맵(Remicade®)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얀센 바이오테크(Janssen Biotech), 미국의 뉴욕대학교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플릭시맵(Remicade®)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5년 2월 만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릭시맵(Remicade®)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 만료일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미국 지방 법원에서는 당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허가 현황.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초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로써 EMA 및 FDA가 승인한 단일클론항체입니다. 당사는 여러 국가에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련보유자입니다. 관련보유자라 함은 의약품을 관련시장에 시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써 해당 의약품을 판촉 하는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7월, 2013년 9월 그리고 2016년 4월 각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유럽의약국(EMA)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기준으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80개국에서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및 제품출시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Remsima/Inflectra 품목허가 승인 및 출시 현황 】

지역	국가	품목허가 승인일	출시일
아시아	한국	2012년 7월	2012년 11월
	필리핀	2013년 5월	2013년 9월
	일본	2014년 7월	2014년 12월
	말레이시아	2015년 1월	2015년 11월
	태국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싱가포르	2016년 3월	2016년 7월
	스리랑카	2017년 1월	진행 중
	대만	2016년 9월	진행 중
	홍콩	2017년 3월	진행 중
유럽 독립국가연합 (CIS)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EEA)	2013년 9월	2013년 9월
	조지아	2013년 1월	2013년 10월
	아제르바이잔	2013년 4월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2013년 7월	2014년 1월
	아르메니아	2014년 4월	2014년 8월
	터키	2014년 7월	2014년 10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5년 5월	2016년 2월
	세르비아	2015년 5월	2016년 5월
	러시아	2015년 7월	2016년 1월
	스위스	2015년 10월	2016년 3월
	마케도니아	2015년 2월	진행 중
	우크라이나	2016년 8월	진행 중
	우즈베키스탄	2014년 6월	진행 중
	몰도바	2013년 1월	2014년 7월
	벨로루시	2013년 3월	2014년 7월
알바니아	2015년 10월	진행 중	
중동	요르단	2014년 10월	2015년 3월
	이스라엘	2015년 10월	2016년 11월
	모로코	2015년 12월	2016년 5월
	사우디 아라비아	2016년 4월	2016년 5월
북미	미국	2016년 4월	2016년 12월
	캐나다	2014년 1월	2015년 3월
중미 및 남미	에과도르	2013년 8월	2016년 1월
	파나마	2013년 8월	진행 중
	온두라스	2013년 9월	진행 중
	페루	2013년 10월	2016년 1월
	엘살바도르	2013년 10월	진행 중
	과테말라	2013년 01월	진행 중
	파라과이	2013년 10월	2014년 9월

	칠레	2013년 12월	2014년 2월
	아루바	2014년 7월	진행 중
	멕시코	2014년 11월	2016년 3월
	콜롬비아	2014년 12월	2016년 1월
	브라질	2015년 4월	2016년 8월
	베네수엘라	2015년 4월	2016년 9월
	코스타리카	2016년 6월	진행 중
	도미니카 공화국	2016년 8월	진행 중
	아르헨티나	2016년 11월	진행 중
	니카라과	2016년 11월	진행 중
	호주	호주	2015년 8월
뉴질랜드		2015년 9월	진행 중

주1)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2013년 9월 최초 출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2015년 2월 출시

마케팅 및 판매. 당사는 2012년 이후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국가에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판촉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Remicade® 및 관련 바이오시밀러의 전 세계 매출액은 8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온기 및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액은 각각 7,479억 원 및 654억 원입니다. 2013년 9월, 유럽에서의 시판 이후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차별화 된 가격 경쟁력 및 유럽 정부들이 채택한 우호적인 공공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속도로 시장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기존의 Remicade®에서 당사의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로 스위칭(switching)하는 경우에도 효능이 뒤쳐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인플릭시맵의 판매수량 기준 유럽시장 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온기 기준 30.1%, 2016년 4분기 37.0%로 증가하였다고 Frost & Sullivan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릭시맵의 2016년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노르웨이 93.6%, 핀란드 88.9%, 네덜란드 44.5%, 영국 48.0%, 이탈리아 37.4%, 독일 20.9%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시장에서 Inflectra®를 출시한 이후 바이오의약품의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flectra® 브랜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Hospira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트룩시마 (Truxima®, Rituximab 바이오시밀러 제품)

당사의 리룩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Rituxan®/MabThera® (리룩시맵)의 바이오시밀러이며,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선백혈병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리룩시맵은 과 발현된 CD20 단백질과 B-림프구 약제 표면에서 결합하여 항체의존세포매개독성(ADCC) 작용기전 의해 B세포 용해를 매개합니다. 당사의 리룩시맵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Truxima®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적 재산. 리룩시맵 (Rituxan®/MabThera®)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바이오젠 아이덱 (Biogen Idec)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룩시맵 (Rituxan®/MabThera®)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3년 11월 만료되었습니다. 미국의 리투시맵 (Rituxan®/MabThera®)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8년 7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허가 현황. 당사의 리투시맵 바이오시밀러는 2016년 11월 그리고 2017년 2월 각각 식약처 및 유럽의약품국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세계 최초로 EMA 승인을 받은 리투시맵 바이오시밀러입니다. 2017년 3분기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품국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판매. 당사는 2016년 12월부터 셀트리온제약(“Celltrion Pharm”)을 통해 당사의 리투시맵 바이오시밀러를 한국에 판촉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당사는 세계 최초로 리투시맵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시판하였으며 48개 국가에서 14개 현지 파트너 업체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 리투시맵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액은 각각 98억원 및 36억원입니다.

다. 허주마 (Herzuma®. 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 제품)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Herceptin® (trastuzumab)의 바이오시밀러이며, HER2 수용체 과 발현에 따른 전이성 초기 유방암을 치료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트라스투즈맵은 HER2 수용체로부터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여 인체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Herceptin®은 HER2 양성 초기 또는 전이성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의 치료제로써 미국 식품의약품국 및 유럽의약품국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Herzuma®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적 재산. 트라스투즈맵 (Herceptin®)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Roche AG 및 제넨텍 (Genentech)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유럽의 트라스투즈맵 (Herceptin®)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라스투즈맵(Herceptin®) 분자에 대한 물질특허는 2019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가 현황.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는 2014년 1월 식약처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10월 유럽의약품국에 시판허가신청(MAA)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7년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품국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판매. 주요 시장에서 당사의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북미의 Teva, 일본의 Nippon Kayaku, 유럽의 Orion, Kern Pharma 및 EGIS 등 여러 파트너사들과 판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라.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당사는 상기 주력 제품 외에도 현재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5개 바이오시밀러, 2개 바이오베터 및 4개 바이오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바이오베터 개발품목 중 하나인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으로서 당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 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 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당사는 적극적으로 상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초기 과정보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셀트리온과 공동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규모 (2016년)	치료분야	개발단계
CT-P5	엔브렐(Enbrel®) (에타네르셉트)	95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4	시나지스(Synagis®) (팔리비주맵)	14억 달러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세포주 개발
CT-P15	얼비투스(Erbitux®) (세특시맵)	17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6	아바스틴(Avastin®) (베바시주맵)	66억 달러	종양질환 (Oncology)	임상시험 준비
CT-P17	휴미라(Humira®) (아달리무맵)	164억 달러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임상시험 준비

자료: Frost & Sullivan, 회사제시자료

당사의 바이오베타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바이오베타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렘시마 SC	자가면역질환 (Immunology)	제3상 임상시험
CT-P26	종양질환 (Oncology)	비임상 준비

자료: 회사제시자료

렘시마 SC는 당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의 피하주사 제형입니다. 렘시마 SC는 Remsima® 대비 투여 주기가 짧고 투여방식 또한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렘시마 SC에 대한 글로벌 제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제품을 통해 기존 정맥주사용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를 보완하는 동시에 목표시장을 인플릭시맵 시장에서 전체 TNF-α 억제제 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TNF-α 억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353억 달러입니다.

CT-P26은 유방암 치료용 항체-약물 결합(ADC)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단일클론항체가 세포독성약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항체-약물 결합(ADC)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

제품구분	치료분야	현재상황
CT-P27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제2b상 임상시험
CT-P25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비임상 준비
CT-P24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CT-P19	감염질환 (Infectious diseases)	공정개발

자료: 회사제시자료

당사는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제품 이외에도 전염병, 암 및 백신 용도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며 축적한 역량 및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바이오 신약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셀트리온과 체결한 판매권부여기본계약(Master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의거 바이오 신약 개발 시 제3상 임상시험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이오테크 기업, 정부, 영리 및 비영리 연구소는 물론 공동개발사들과 협업하면서 현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CT-P27 프로젝트입니다. CT-P27은 여러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중인 항체신약으로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함께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CT-P27은 H1N1부터 H2N2, H3N2, H5N1, H9N2 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인간단일클론항체(human mAb)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CT-P27에 대한 제2b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

가. 원재료 주요 공급처 현황

당사는 계열회사인 셀트리온과 체결된 판매권부여기본계약 및 제품공급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은 당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입니다.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은 당사가 공동개발자로서 독점판매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과 의무에 대한 계약이며, 제품공급계약은 판매권부여기본계약을 통해 확보된 독점판매권에 따라 셀트리온이 당사에 제품을 공급해야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기간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램시마 원료의약품	272,000	432,950	514,750	166,850

주1) 매입금액은 반제품(원료의약품)만을 포함하였음

나. 원재료 가격 변동

당사와 셀트리온은 최종 제품의 시장가격과 양사가 공동개발자로서 부담하는 위험 및 역할을 고려하여 양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 가격은 최종 제품의 시장가격을 비롯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셀트리온의 객관적인 원료의약품 매입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사의 합리적인 이익배분비율을 설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유효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의 형태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완제의약품 가공을 위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과의 위탁가공계약을 통하여 해당 추가가공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을 통해 당사가 셀트리온에 추가가공을 요청하는 경우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다른 외주업체를 통해 추가가공을 수행하고 완제의약품을 당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제품	램시마	수출	65,408	747,860	402,273	164,738
		내수	-	-	-	-
		합계	65,408	747,860	402,273	164,738
	트룩시마	수출	3,642	-	-	-
		내수	-	9,814	-	-
		합계	3,642	9,814	-	-
용역	램시마	수출	6	67	116	-
		내수	-	-	-	-
		합계	6	67	116	-
기타	License 수익 외	수출	892	-	-	-
		내수	-	-	-	-
		합계	892	-	-	-
합 계		수출	69,948	747,927	402,389	164,738
		내수	-	9,814	-	-
		합계	69,948	757,741	402,389	164,738

주) 상기 매출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나, 2014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나. 판매경로와 방법

당사의 판매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내외의 제약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하는 간접판매 방식과 당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직접판매 방식입니다.

당사의 첫 번째 상업제품의 경우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판매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매입한 원료의약품을 재고로 보관하면서, 해외 판매사로부터 선적요청에 따라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여 동 제품을 해외 판매사로 판매하고, 현지 국가에서는 해외 판매사가 직접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제품개발 초기 전 세계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경우에도 해외 파트너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간접판매모델과 현재 해외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직접판매모델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접판매를 위해 당사는 유럽, 아시아, 남미 등지에 12개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확대와 두 번째 상업제품의 출시에 앞서 해외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해외 판매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접판매 방식에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Fill & Finish 업체를 활용한 현지 추가가공을 통해 물류비, 가공비를 절감하고 전세계에서의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제품 및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지역	국가	파트너사
인플릭시맵 바이오시밀러	유럽/남미 북미/오세아니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Hospira
	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서유럽국가들	Mundipharma
		프랑스	Biogaran
		스페인	Kern Pharma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북유럽국가들	Orion
		오스트리아	Astropharma
		아일랜드	Pinewood
		포르투갈	Pharma Kern
		키프로스	DEMO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및 기타 발칸반도국가들	Oktal Pharma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스위스	iQone
		터키	Mustafa Nevzat
	중동	이란	Tehran Chemi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기타중동국가들	Hikma Pharmaceuticals
		이스라엘	Perrigo
	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Olimed

		콜롬비아	RB Pharmaceuticals S.A.S.
		페루	AC Farma
		파나마, 과테말라,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아루바, 보나이어, 퀴라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Laboratorios Stein S.A.
	아시아	태국	Indochina Healthcare Ltd.
		한국	Celltrion Pharm
		말레이시아	LF Asia Malaysia
		스리랑카	George Steuart Health Ltd.
		싱가포르	LF Asia Distribution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일본	Nippon Kayaku
파키스탄		Atco Pharma International (PVT.) Ltd.	
인도네시아	PT Sanbe Farma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및 기타아프리카국가들	Adcock Ingram	
리특시업 바이오시밀러	유럽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서유럽국가들	Mundipharma
		프랑스, 모나코	Biogaran
		스페인, 포르투갈, 안도라	Kern Pharma
		오스트리아	Astropharma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Oktal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Orion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iQone
		몰타	Medical Logistics
		키프로스	C.A.P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북미	미국, 캐나다	Teva
	아시아	한국	Celltrion Pharm
		일본	Nippon Kayaku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트라스투즈맵 바이오시밀러	유럽	스페인, 안도라	Kern Pharma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북유럽국가들	Orion
		동유럽국가들 및 독립국가연합(CIS)	EGIS
		터키	Mustafa Nevzat
		포르투갈	Pharma Kern
	북미	미국 및 캐나다	Teva
	중동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기타중동국가들	Hikma Pharmaceuticals
		이스라엘	Perrigo
	아시아	일본	Nippon Kayaku
		대만	Chunghwa Yuming Healthcare Co., Ltd.
		태국	Indochina Healthcare Ltd.
		한국	Celltrion Pharm
		필리핀	Globo Asiatico Enterprises, Inc.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및 기타아프리카국가들	Adcock Ingram	

6. 수주상황

당사는 마케팅 파트너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구매주문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 파트너의 구매 주문은 단기간 내 납기가 도래하는 형태로서 납기가 중장기인 거래는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현재, 당사가 마케팅 파트너로부터 수령한 2017년 1분기 이후 납기가 단기에 도래하는 구매주문은 약 4,748억원(2017년 6월 22일 현재 환율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구매주문을 협의 및 수령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 금액은 당사의 공급시기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외환 위험

연결실체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 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실체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매일 외환시장의 모니터링과 각 관계기관에서 발행된 외환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환위험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매일 Var환율을 통한 환위험의 분석을 통해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헷지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위험이 금융자산 측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헷지하기 위해외화 금융부채의 발생을 통한 Matching이나, Lead and Lag 방법을 통해 환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종속기업들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간주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기능통화 이외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3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USD	98,531	73,169	351,560	85,479	64,980	12,046
EUR	15,466	103,491	94,903	67,915	53,709	96
HUF	7	243	241	18	7	276
THB	192	-	178	-	-	-
TRY	-	-	206	1	-	-
JPY	632	-	656	-	-	-
SGD	35	-	38	-	-	-
GBP	-	192	-	15	-	-

합 계	114,863	177,095	447,782	153,428	118,696	12,418
-----	---------	---------	---------	---------	---------	--------

당분기, 전기 및 전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4% (전기 7%, 전전기 9%) 변동시 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2016년도		2015년도	
	4% 상승	4% 하락	7% 상승	7% 하락	9% 상승	9% 하락
USD	769	(769)	14,118	(14,118)	3,611	(3,611)
EUR	(2,669)	2,669	1,432	(1,432)	3,657	(3,657)
HUF	(7)	7	12	(12)	(18)	18
THB	6	(6)	9	(9)	-	-
TRY	-	-	11	(11)	-	-
JPY	19	(19)	35	(35)	-	-
SGD	1	(1)	2	(2)	-	-
GBP	(6)	6	(1)	1	-	-
합 계	(1,887)	1,887	15,618	(15,618)	7,250	(7,250)

다만, 민감도 분석 대상 외화는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를 의미하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위험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명목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3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18,873	35,311	17,608
금융부채	(161,040)	(219,840)	(215,346)
합 계	(142,167)	(184,529)	(197,738)

변동이자율			
금융부채	(10,506)	(11,166)	(7,860)

당분기, 전기 및 전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전기 10BP, 전전기 20BP) 변동시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이자율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2016년도		2015년도	
	10BP 상승	10BP 하락	10BP 상승	10BP 하락	20BP 상승	20BP 하락
세후 손익	(8)	8	(8)	8	(12)	12

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 수준의 추정 및 자금수지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며, 계획대비 실적관리를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실체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실체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① 2017년 3월 31일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합 계
차입금	22,237	-	22,237
전환사채	154,026	-	154,0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5,971	337,410	793,381
합 계	632,234	337,410	969,644

② 2016년 12월 31일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23,130	-	-	23,130
전환사채	6,250	211,465	-	217,7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9,892	334,962	36,255	831,109
합 계	489,272	546,427	36,255	1,071,954

③ 2015년 12월 31일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9,592	-	7	9,599
전환사채	6,250	12,716	217,715	236,6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9,038	223,534	62,106	704,678
합 계	434,880	236,250	279,828	950,958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시장가격 위험

연결실체는 연결채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상대방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체결시기	계약기간
(주)셀트리온	독점판매권 부여	2008.08.08	2009.06.30일로부터 15년. 5년간 자동연장
(주)셀트리온	완제품 위탁생산	2012.06.01	10년. 5년간 자동 연장
(주)셀트리온	제품 공급계약(램시마,허쥬마)	2012.08.22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5년간 자동 연장
(주)셀트리온제약	판매권 부여	2008.10.24	2009.06.30일로부터 15년. 5년간 자동연장
(주)셀트리온제약	제품 공급계약	2010.05.20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5년간 자동 연장

Hospira Inc.	램시마 공급계약	2009.12.22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EGIS	램시마 공급계약	2010.01.29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Nippon Kayaku	램시마/허쥬마 공급계약	2010.11.01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Orion	램시마/허쥬마 공급계약	2011.12.14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Kern Pharma	램시마 공급계약	2013.12.02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4년
Biogaran	램시마 공급계약	2013.12.17	첫 상업판매 이후 5년
Mundipharma	램시마 공급계약	2013.12.23	최종 런칭국가의 첫 상업판매 이후 5년
Biogaran	트록시마 공급계약	2015.05.21	첫 상업판매 이후 5년
Kern Pharma	트록시마 공급계약	2015.10.29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6년
Mundipharma	트록시마 공급계약	2015.12.04	최종 런칭국가의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TEVA	사업협력 계약	2016.10.04	제품별/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주)셀트리온	제품 공급계약(트록시마)	2017.03.09	국가별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5년간 자동 연장
(주)셀트리온제약	제품 공급계약(트록시마)	2017.05.10	첫 상업판매 이후 10년. 5년간 자동 연장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특허권, 노하우 및 상표권 (Trademark/Brand)은 셀트리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셀트리온과 체결한 판매권부여기본계약에 따라, 상표권(Trademark/Brand)의 소유는 셀트리온이 하고 있으나 당사 또는 당사의 관계사는 셀트리온의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Trademark/Brand)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1,811,039,117,810	1,949,152,715,180	1,512,461,880,762	1,241,805,794,568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2,602,534	95,866,623,436	36,861,139,014	4,426,000,726
재고자산	1,599,406,046,049	1,472,119,935,679	1,399,284,676,177	1,186,797,001,988
기타유동자산	158,370,469,227	381,166,156,065	76,316,065,571	50,582,791,854
[비유동자산]	38,154,466,990	38,288,411,720	63,064,163,729	141,893,325,936
유형자산	200,048,798	111,963,705	193,095,196	345,458,933
무형자산	1,363,328,195	1,015,767,052	955,276,824	853,237,138
기타비유동자산	36,591,089,997	37,160,680,963	61,915,791,709	140,694,629,865
자 산 총 계	1,849,193,584,800	1,987,441,126,900	1,575,526,044,491	1,383,699,120,504
[유동부채]	1,024,477,014,228	1,143,372,070,224	700,274,764,177	1,053,018,160,010
[비유동부채]	178,946,215,742	195,416,318,478	375,572,633,115	1,015,351,992,953
부 채 총 계	1,203,423,229,970	1,338,788,388,702	1,075,847,397,292	2,068,370,152,963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772,465,000	1,657,630,000
[자본잉여금]	380,642,454,831	380,642,454,831	1,323,555,701,456	144,210,737,418
[기타자본항목]	(44,978,033,521)	(46,052,082,226)	(46,599,610,643)	(50,433,357,1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77,218,960)	(3,624,978,901)	(3,390,401,829)	17,137,786,722
[이익잉여금]	203,799,007,030	205,603,195,552	(776,659,538,979)	(797,243,899,263)
지배기업소유지분	645,770,329,380	648,652,709,256	499,678,615,005	(684,671,102,285)
비지배지분	25,450	28,942	32,194	69,826
자 본 총 계	645,770,354,830	648,652,738,198	499,678,647,199	(684,671,032,459)
매출액	69,947,522,276	757,741,186,525	402,389,163,972	164,737,923,013
영업이익	10,645,201,522	178,575,872,670	111,904,677,485	37,321,639,9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65,796,477	163,109,250,312	136,563,156,751	(406,879,451,460)
당기순이익(손실)	(1,804,190,391)	122,896,329,425	20,584,346,616	(369,986,277,498)
지배기업소유지분순이익(손실)	(1,804,188,522)	122,896,340,971	20,584,360,284	(369,986,263,630)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1,869)	(11,546)	(13,668)	(13,868)
기본주당이익(손실)	(16)	1,103	309	(5,725)
희석주당이익(손실)	(16)	1,089	212	(5,72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3	14	13	14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1,794,364,907,890	1,923,039,916,826	1,506,553,574,523	1,166,786,237,266
현금및현금성자산	34,597,435,974	67,627,591,386	20,172,431,825	2,702,763,685
채고자산	1,572,752,600,799	1,468,299,381,930	1,395,581,275,685	1,112,848,632,008
기타유동자산	187,014,871,117	387,112,943,510	90,799,867,013	51,234,841,573
[비유동자산]	46,796,098,597	48,202,377,545	68,292,291,331	133,813,141,067
투자자산	10,732,131,924	10,702,603,924	7,592,380,567	7,159,613,964
유형자산	144,277,428	61,250,018	134,926,447	261,844,046
무형자산	626,234,226	277,740,810	221,479,836	119,379,873
기타비유동자산	35,293,455,019	37,160,782,793	60,343,504,481	126,272,303,184
자 산 총 계	1,841,161,006,487	1,971,242,294,371	1,574,845,865,854	1,300,599,378,333
[유동부채]	1,021,921,142,960	1,139,437,225,058	696,498,797,340	922,801,015,111
[비유동부채]	178,946,117,172	195,416,210,375	375,567,601,400	1,014,879,470,758
부 채 총 계	1,200,867,260,132	1,334,853,435,433	1,072,066,398,740	1,937,680,485,869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772,465,000	1,657,630,000
[자본잉여금]	380,642,454,831	380,642,454,831	1,323,555,701,456	144,210,737,418
[기타자본항목]	(44,978,036,268)	(46,052,084,973)	(46,599,622,064)	(50,433,345,223)
[이익잉여금(결손금)]	192,545,207,792	189,714,369,080	(776,949,077,278)	(732,516,129,731)
자 본 총 계	640,293,746,355	636,388,858,938	502,779,467,114	(637,081,107,536)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매출액	97,867,289,359	733,462,408,733	269,585,790,624	196,416,479,555
영업이익	18,165,657,436	161,921,624,960	30,773,539,548	55,852,510,2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141,134,777	145,395,786,976	56,802,930,081	(387,523,765,194)
당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107,297,052,798	(44,432,947,547)	(354,038,135,142)
기본주당이익(손실)	25	963	(668)	(5,478)
희석주당이익(손실)	25	951	(668)	(5,478)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 산				
유동자산	1,811,039,117,810	1,949,152,715,180	1,512,461,880,762	1,241,805,794,568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2,602,534	95,866,623,436	36,861,139,014	4,426,000,726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39,301,921,165	364,155,666,448	62,130,889,685	40,831,943,610
재고자산	1,599,406,046,049	1,472,119,935,679	1,399,284,676,177	1,186,797,001,988
당기법인세자산	33,695,005	127,403,527	20,697,941	20,058,834
기타유동자산	19,034,853,057	16,883,086,090	14,164,477,945	9,730,789,410
비유동자산	38,154,466,990	38,288,411,720	63,064,163,729	141,893,325,93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7,564,350	23,100,234,909	18,882,277,96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2,624,195,315	2,365,035,068	30,953,434,706	34,155,747,699
유형자산	200,048,798	111,963,705	193,095,196	345,458,933
무형자산	1,363,328,195	1,015,767,052	955,276,824	853,237,138
이연법인세자산	9,889,330,332	11,695,410,986	12,080,079,035	106,538,882,166
자 산 총 계	1,849,193,584,800	1,987,441,126,900	1,575,526,044,491	1,383,699,120,504
부 채				
유동부채	1,024,477,014,228	1,143,372,070,224	700,274,764,177	1,053,018,160,010
단기금융부채	143,505,812,684	188,774,850,904	15,149,205,506	176,914,915,4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032,910	100,247,704,069	7,182,751,806	318,242,560,47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6,041,827,651	787,428,941,396	642,279,126,454	361,781,173,913
당기법인세부채	3,155,789,784	35,983,397,692	19,036,849,570	8,530,573,961
기타유동부채	16,760,551,199	30,937,176,163	16,626,830,841	187,548,936,258
비유동부채	178,946,215,742	195,416,318,478	375,572,633,115	1,015,351,992,953
장기금융부채	-	-	154,563,044,008	144,603,653,80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91,192,681,481	778,555,127,547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830,599,235	52,278,601,489	6,566,319,802
기타비유동부채	178,946,117,172	162,585,611,140	77,538,183,894	85,626,752,482
이연법인세부채	98,570	108,103	122,243	139,313
부 채 총 계	1,203,423,229,970	1,338,788,388,702	1,075,847,397,292	2,068,370,152,963
자 본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772,465,000	1,657,630,000
자본잉여금	380,642,454,831	380,642,454,831	1,323,555,701,456	144,210,737,418
기타자본항목	(44,978,033,521)	(46,052,082,226)	(46,599,610,643)	(50,433,357,16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77,218,960)	(3,624,978,901)	(3,390,401,829)	17,137,786,722
이익잉여금(결손금)	203,799,007,030	205,603,195,552	(776,659,538,979)	(797,243,899,263)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45,770,329,380	648,652,709,256	499,678,615,005	(684,671,102,285)
비지배지분	25,450	28,942	32,194	69,826
자 본 총 계	645,770,354,830	648,652,738,198	499,678,647,199	(684,671,032,459)
부채와자본총계	1,849,193,584,800	1,987,441,126,900	1,575,526,044,491	1,383,699,120,504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매출액	69,947,522,276	757,741,186,525	402,389,163,972	164,737,923,013
매출원가	46,321,263,133	537,831,077,005	252,737,986,752	95,770,819,448

매출총이익	23,626,259,143	219,910,109,520	149,651,177,220	68,967,103,565
판매비와관리비	12,981,057,621	41,334,236,850	37,746,499,735	31,645,463,650
영업이익	10,645,201,522	178,575,872,670	111,904,677,485	37,321,639,915
기타수익	11,680,663,999	19,179,518,216	57,547,515,325	5,506,160,262
기타비용	18,181,191,674	12,994,111,908	3,921,914,086	3,211,443,914
금융수익	18,649,898,348	25,052,659,473	150,363,050,206	3,424,896,474
금융비용	20,928,775,718	46,704,688,139	179,330,172,179	449,920,704,19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65,796,477	163,109,250,312	136,563,156,751	(406,879,451,460)
법인세비용(수익)	3,669,986,868	40,212,920,887	115,978,810,135	(36,893,173,962)
당기순이익(손실)	(1,804,190,391)	122,896,329,425	20,584,346,616	(369,986,277,49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804,188,522)	122,896,340,971	20,584,360,284	(369,986,263,630)
비지배지분	(1,869)	(11,546)	(13,668)	(13,868)
기타포괄손익	(2,152,240,368)	(234,577,452)	(20,528,189,155)	18,018,661,46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152,240,368)	(234,577,452)	(20,528,189,155)	18,018,661,468
총포괄이익(손실)	(3,956,430,759)	122,661,751,973	56,157,461	(351,967,616,03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956,428,581)	122,661,763,899	56,171,733	(351,967,600,329)
비지배지분	(2,178)	(11,926)	(14,272)	(15,70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6)	1,103	309	(5,725)
희석주당이익(손실)	(16)	1,089	212	(5,725)

다.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결손금		
2014년 1월 1일 (제15기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500,000,000	-	(53,777,594,099)	(880,876,579)	(427,257,635,633)	55,208	(480,416,051,103)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	(369,986,263,630)	(13,868)	(369,986,277,49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	18,018,663,301	-	(1,833)	18,018,661,46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 인식	-	-	3,344,267,256	-	-	-	3,344,267,256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57,630,000	144,210,737,418	-	-	-	-	144,368,367,418
종속기업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	(30,319)	-	-	30,319	-
2014년 12월 31일 (제15기 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657,630,000	144,210,737,418	(50,433,357,162)	17,137,786,722	(797,243,899,263)	69,826	(684,671,032,459)
2015년 1월 1일 (제16기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657,630,000	144,210,737,418	(50,433,357,162)	17,137,786,722	(797,243,899,263)	69,826	(684,671,032,459)
총포괄손익							

당기손이익	-	-	-		20,584,360,284	(13,668)	20,584,346,6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실	-	-	-	(20,528,188,551)	-	(604)	(20,528,189,15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인식	-	-	4,297,128,263	-	-	-	4,297,128,263
주식선택권의 행사	2,160,000	1,458,085,104	(463,405,104)	-	-	-	996,840,000
전환사채의 전환	183,085,000	193,815,282,296	-	-	-	-	193,998,367,29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195,005,000	206,433,892,041	-	-	-	-	206,628,897,041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734,585,000	777,637,704,597	-	-	-	-	778,372,289,597
기타	-	-	23,360	-	-	(23,360)	-
2015년 12월 31일 (제16기 기말)	2,772,465,000	1,323,555,701,456	(46,599,610,643)	(3,390,401,829)	(776,659,538,979)	32,194	499,678,647,199
2016년 1월 1일 (제17기 기초)	2,772,465,000	1,323,555,701,456	(46,599,610,643)	(3,390,401,829)	(776,659,538,979)	32,194	499,678,647,199
총포괄손익							
당기손이익	-	-	-	-	122,896,340,971	(11,546)	122,896,329,42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실	-	-	-	(234,577,072)	-	(380)	(234,577,45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무상증자	108,216,420,000	(108,216,420,000)	-	-	-	-	-
결손금의 보전	-	(859,366,393,560)	-	-	859,366,393,560	-	-
주식선택권의 인식	-	-	4,461,711,306	-	-	-	4,461,711,306
주식선택권의 행사	618,415,000	11,472,142,975	(3,914,174,215)	-	-	-	8,176,383,760
전환사채의 전환	476,820,000	13,197,423,960	-	-	-	-	13,674,243,960
기타	-	-	(8,674)	-	-	8,674	-
2016년 12월 31일 (제17기 기말)	112,084,120,000	380,642,454,831	(46,052,082,226)	(3,624,978,901)	205,603,195,552	28,942	648,652,738,198
2017년 1월 1일 (제18기 기초)	112,084,120,000	380,642,454,831	(46,052,082,226)	(3,624,978,901)	205,603,195,552	28,942	648,652,738,198
총포괄손익							
분기순손실	-	-	-	-	(1,804,188,522)	(1,869)	(1,804,190,39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실	-	-	-	(2,152,240,059)	-	(309)	(2,152,240,36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인식	-	-	1,074,048,705	-	-	-	1,074,048,705
기타	-	-	-	-	-	(1,314)	(1,314)
2017년 3월 31일 (제18기 1분기말)	112,084,120,000	380,642,454,831	(44,978,033,521)	(5,777,218,960)	203,799,007,030	25,450	645,770,354,830

라.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336,110,337		30,435,615,542		32,010,255,466		(252,611,433,96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7,327,408,526		66,200,295,056		62,432,834,443		(242,348,048,338)	
이자의 수취	165,672,091		149,204,930		183,494,255		537,833,558	

이자의 지급	(2,716,457,029)		(12,919,299,880)		(20,520,043,950)		(10,313,293,210)	
법인세의 납부	(15,440,513,251)		(22,994,584,564)		(10,086,029,282)		(487,925,97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2,535,830)		(162,213,059)		(373,018,895)		(31,986,32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0,867,421		5,000,000		2,160,540		12,165,799,24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6,691		-		447,300		12,160,493,422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2,000,000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5,000,000		604,560		-	
유형자산의 처분	203,457		-		1,108,680		3,305,818	
무형자산의 처분	170,637,273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13,403,251)		(167,213,059)		(375,179,435)		(12,197,785,561)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05,095,348		10,707,364		16,164,704		12,152,770,882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5,000,000		180,000,000		593,835	
유형자산의 취득	108,307,903		44,498,302		41,292,741		23,254,545	
무형자산의 취득	500,000,000		107,007,393		137,721,990		21,166,29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800,000,000)		21,790,802,375		(914,169,018)		219,044,94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4,765,282,581		66,946,814,141		219,044,940,000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116,588,898,821		65,943,747,922		10,704,940,000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		-		6,226,219		208,340,000,000	
보통주의 발행	-		8,176,383,760		996,84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8,800,000,000)		(102,974,480,206)		(67,860,983,159)		-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102,968,719,686		67,860,247,922		-	
장기금융부채의 감소	-		5,760,520		735,237		-	
전환사채의 상환	58,800,000,0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0,106,425,493)		52,064,204,858		30,723,067,553		(33,598,480,2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497,595,409)		6,941,279,564		1,712,070,735		2,618,033,454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5,866,623,436		36,861,139,014		4,426,000,726		35,406,447,562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2,602,534		95,866,623,436		36,861,139,014		4,426,000,726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8(당)기 1분기 2017년 3월 31일 현재

제 17(전)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지배기업")는 1999년 12월 29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0년 11월 25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로 이전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12,084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서정진	49,454,360 주	44.12%
ONE EQUITY PARTNERS IV,L.P.	24,887,000 주	22.20%
ION INVESTMENT B.V.	17,319,600 주	15.45%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5,211,620 주	4.65%
OEP II PARTNERS CO-INVEST, L.P.	718,200 주	0.64%
기타 주주	14,493,340 주	12.94%
합 계	112,084,120 주	100.00%

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약분기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방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 금융상품 공정가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 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적용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31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 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종속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인도	의약품 도소매업	-	99.96%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터키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헝가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필리핀	의약품 도소매업	99.99%	99.99%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홍콩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태국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브라질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멕시코	의약품 도소매업	99.99%	99.99%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일본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스위스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대만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00%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이스라엘	의약품 도소매업	-	-

(2)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 유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청산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내부거래 제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분기순손익	총포괄손익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	-	-	-	-	5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6,393	4,314	2,079	-	(158)	(427)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98,789	78,919	19,870	50,360	4,522	3,412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124	96	28	65	(28)	(33)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16	8	8	1	-	(1)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31	5	26	-	(23)	(25)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79	49	30	-	(9)	(1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22	693	(571)	80	22	49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18	11	107	1	-	(5)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35	11	24	-	-	-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714	52	1,662	-	(210)	(278)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	-	1	-	-	-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42	51	(9)	-	(118)	(119)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	-	-	-

②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내부거래 제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	-	-	-	(1)	(1)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7,390	4,884	2,506	7,186	288	(125)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30,657	14,199	16,458	152,529	14,139	13,941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305	244	61	378	(3)	(5)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20	11	9	25	-	-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27	6	21	-	(138)	(136)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12	71	41	-	(87)	(82)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52	772	(620)	404	111	(28)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24	12	112	16	(2)	(1)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37	14	23	-	(47)	(50)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986	45	1,941	-	(447)	(557)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	-	1	-	(8)	(8)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13	3	110	-	(21)	(16)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	-	-	-

(4) 당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5. 영업부문

(1)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영업부문별 재무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지역별 정보

연결실체가 운영하는 영업부문은 전세계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나, 판매법인은 주로 한국, 헝가리, 터키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역별 정보는 지배기업의 소재지와 기타 국가별로 연결실체의 수익과 비금융자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표시함에 있어서 부문 수익은 고객의 지역별 위치에, 부문자산은 자산의 지역별 위치에 근거하였습니다.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비유동자산(*)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국내	-	-	770	339
유럽	67,242	48,989	10	12
아시아	463	792	19	8
남미	2,243	-	764	769
오세아니아	-	3,027	-	-
합 계	69,948	52,808	1,563	1,128

(*) 비유동자산 중 금융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금액은 각각 54,817백만원, 41,073백만원 입니다.

6.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조정된 자본과 조정된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조정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부채총계	1,203,423	1,338,788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3	95,867
조정 부채	1,150,160	1,242,921
자본총계	645,770	648,653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자본	-	-
조정 자본	645,770	648,653
조정 부채 비율	178.11%	191.62%

7.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표 및 정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실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53,252	95,853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41,926	366,52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3,100
소 계	219,256	485,474
신용보강	-	-
최대 노출정도	219,256	485,474

② 손상차손

당분기 및 전기 중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잔액	(16)	(3,475)
손상차손 환입	-	2,888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	-	571
기말잔액	(16)	(16)

연결실체는 과거의 채무불이행율을 고려하였을 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과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를 초과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집합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연결실체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결실체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 됩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만기 미도래	142,644	367,465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합 계
차입금	22,237	-	22,237
전환사채	154,026	-	154,0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5,971	337,410	793,381
합 계	632,234	337,410	969,644

②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23,130	-	-	23,130
전환사채	6,250	211,465	-	217,7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9,892	334,962	36,255	831,109
합 계	489,272	546,427	36,255	1,071,95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① 환위험

연결실체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기능통화 이외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USD	98,531	73,169	351,560	85,479
EUR	15,466	103,491	94,903	67,915
HUF	7	243	241	18
THB	192	-	178	-
TRY	-	-	206	1
JPY	632	-	656	-
SGD	35	-	38	-
GBP	-	192	-	15
합 계	114,863	177,095	447,782	153,428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4% (전기 7%) 변동시 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4% 상승	4% 하락	7% 상승	7% 하락
USD	769	(769)	14,118	(14,118)
EUR	(2,669)	2,669	1,432	(1,432)
HUF	(7)	7	12	(12)
THB	6	(6)	9	(9)
TRY	-	-	11	(11)
JPY	19	(19)	35	(35)
SGD	1	(1)	2	(2)
GBP	(6)	6	(1)	1
합 계	(1,887)	1,887	15,618	(15,618)

다만, 민감도 분석 대상 외화는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를 의미하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위험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명목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18,873	35,311
금융부채	(161,040)	(219,840)
합 계	(142,167)	(184,529)
변동이자율		
금융부채	(10,506)	(11,166)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전기 10BP) 변동시 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이자율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0BP 상승	10BP 하락	10BP 상승	10BP 하락
세후 손익	(8)	8	(8)	8

③ 기타 시장가격 위험

연결실체는 요약분기연결채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8.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3	53,263	95,867	95,86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4,078	23,100	23,10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41,926	141,926	366,521	366,521
합 계	219,267	219,267	485,488	485,488
금융부채				
차입금	22,006	22,006	22,666	22,666
전환사채	121,500	133,596	166,109	184,21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75,013	100,248	100,2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6,042	786,042	820,260	820,260
합 계	1,004,561	1,016,657	1,109,283	1,127,392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서열체계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24,078	-	-	23,100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75,013	-	-	100,248
- 전환사채	-	133,596	-	-	184,218	-

②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초잔액	23,100	100,248	18,882	98,376
총손익	978	3,058	4,218	10,291
당기손익 인식	978	3,058	4,218	10,291
보통주 전환	-	-	-	(8,419)
전환사채의 상환	-	(28,293)	-	-
기말금액	24,078	75,013	23,100	100,248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분기 및 전기 중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16	(2,116)	2,042	(2,042)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1,634)	11,054	(15,429)	14,630

(*) 동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주가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주가의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연결실체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05%
				무위험이자율	1.59%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4%
				무위험이자율	1.6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5.79%
				무위험이자율	1.4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2%
				무위험이자율	1.65%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및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53,263	53,263	-	95,867	95,867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139,302	139,302	-	364,156	364,156
소 계	-	192,565	192,565	-	460,023	460,023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2,624	2,624	-	2,365	2,36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	24,078	23,100	-	23,100
소 계	24,078	2,624	26,702	23,100	2,365	25,465
합 계	24,078	195,189	219,267	23,100	462,388	485,488

(2) 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	75,013	100,248	-	100,248
단기금융부채	-	143,506	143,506	-	188,775	188,7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6,042	786,042	-	787,429	787,429
소 계	75,013	929,548	1,004,561	100,248	976,204	1,076,452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32,831	32,831
합 계	75,013	929,548	1,004,561	100,248	1,009,035	1,109,283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9,387)	293
- 처분손익	-	(49)
- 이자손익	397	1,376
- 외환손익	(9,784)	(1,03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78	551
- 평가손익	978	55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3,058)	486
- 평가손익	(3,058)	486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22,337	(8,625)
- 처분손익	16,355	-
- 이자손익	(7,926)	(7,777)
- 외환손익	13,908	(848)
합 계	10,870	(7,295)

10.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보유현금	11	14
은행예금 및 단기은행예치금	53,252	95,853
합 계	53,263	95,867

11.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자산		
매출채권	139,247	364,144
미수금	47	9
미수수익	8	3
소 계	139,302	364,156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2,203	2,142
보증금	421	223
소 계	2,624	2,365
합 계	141,926	366,521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비유동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3,100

13.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반제품	1,592,004	1,471,076
제품	7,402	1,044
합 계	1,599,406	1,472,120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각각 209,820백만원, 211,912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능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차량운반구	67	(41)	26	70	(40)	30
비품	984	(810)	174	884	(802)	82
합 계	1,051	(851)	200	954	(842)	112

(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기타	분기말금액
차량운반구	30	-	-	(3)	(1)	26
비품	82	108	(3)	(11)	(2)	174
합 계	112	108	(3)	(14)	(3)	200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기타	기말금액
차량운반구	36	-	-	(13)	7	30
비품	157	44	(1)	(119)	1	82
합 계	193	44	(1)	(132)	8	112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영업권	734	-	734	734	-	734
소프트웨어	305	(176)	129	305	(161)	144
회원권	500	-	500	138	-	138
합 계	1,539	(176)	1,363	1,177	(161)	1,016

(2)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분기말금액
영업권	734	-	-	-	734
소프트웨어	144	-	-	(15)	129
회원권	138	500	(138)	-	500
합 계	1,016	500	(138)	(15)	1,363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영업권	734	-	-	734
소프트웨어	83	107	(46)	144
회원권	138	-	-	138
합 계	955	107	(46)	1,016

16.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선급금	1,781	1,037
부가세선급금	17,131	15,724
선급비용	123	122
합 계	19,035	16,88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선수금	3,877	15,659
예수금	295	739
선수수익	12,589	14,539
소 계	16,761	30,937
비유동부채		
선수금	159,200	159,200
선수수익	19,746	3,386
소 계	178,946	162,586
합 계	195,707	193,523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매입채무	572,173	641,305
미지급금	54,741	41,747
미지급비용	4,519	5,032
이행보증금	92,216	66,010
기타금융부채	62,393	33,335
소 계	786,042	787,429
비유동부채		
장기기타금융부채	-	32,831
합 계	786,042	820,260

18. 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은행차입금	22,006	22,666
전환사채	121,500	166,10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100,248
합 계	218,519	289,02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만기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이자율	만기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KDB BANK EUROPE LTD	3M Libor+3.8%	2017-06-27	10,506	11,166
한국산업은행	5.50%	2017-06-27	1,500	1,500
(주)한국씨티은행	4.45%	2017-06-28	10,000	10,000
합 계			22,006	22,666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전환사채 액면금액	149,540	208,340
거래원가	(2,564)	(3,572)
순 현금유입액	146,976	204,768
전환권조정	(44,810)	(62,430)
발생이자(누적)	19,334	23,771
기말 장부금액	121,500	166,109
- 유동	121,500	166,109
- 비유동	-	-

당분기 중 제2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58,8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전기 중 제1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5,501백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의 변동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8, 9, 19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2회 전환사채(*3)(*4)
발행일	2014.9.30
만기일	2019.9.30
액면금액(*1)	149,540백만원
발행가액(*1)	146,976백만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6%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6%(연복리)
상환방법	전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0%를 일시 상환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1)(*2)	기명식 보통주 5,724,019주(액면가액 1,000원)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의 3영업일전까지
전환가격(*2)	26,125원

(*1) 당분기 중 전환사채의 상환에 따른 변동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가격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및 전
시 발행할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

(*3)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
은 주석18 (4)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

(*4) 연결실체는 계약 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습
니다. 니

(4)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분리되어 인식된 당기손익인식금융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금액	100,248	98,376
감소금액	(28,293)	(8,419)
평가금액	3,058	10,291
기말금액	75,013	100,248
- 유동	75,013	100,248
- 비유동	-	-

19. 자본금 등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 주	200,000,000 주
주당 액면금액	1,000	1,000
발행주식수	112,084,120 주	112,084,120 주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 당분기 및 전기 중 지배기업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 발행주식수	112,084,120	554,493
무상증자	-	21,643,284
액면분할	-	88,924,080
전환사채의 전환	-	476,820
주식선택권의 행사	-	485,443
기말 발행주식수	112,084,120	112,084,12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380,642	380,642

(4) 당분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금액	380,642	1,323,556
무상증자	-	(108,217)
결손금의 보전	-	(859,366)
주식선택권의 행사	-	11,472
전환사채의 전환	-	13,197
기말금액	380,642	380,642

전기 중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시 보통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역은 주석 8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감자차손	(59,369)	(59,369)
주식선택권	14,391	13,317
합 계	(44,978)	(46,052)

(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해외사업환산손익	(5,777)	(3,625)

20.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이익잉여금	203,799	205,603

21.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지배기업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손실	(1,804,188,522)	(3,883,944,241)
보통주 분기순손실	(1,804,188,522)	(3,883,944,24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084,120 주	110,968,813 주
기본주당손실	(16)	(3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2,084,120	110,898,600
주식선택권의 행사	-	70,21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084,120	110,968,813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반희석 효과가 발생하여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2.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부여	2차 부여	3차 부여	4차 부여
부여시점	2012년 03월 23일	2013년 03월 22일	2015년 03월 27일	2016년 03월 29일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지배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3년 경과 시점에서 최초부여주식의 40%, 4년 경과 시점에서 30%, 5년 경과 시점에서 30% 를 행사			
발행할 주식수	2,998,000 주	388,000 주	937,688 주	370,891 주
행사가격	11,537 원	11,537 원	24,082 원	26,062 원

(2) 공정가치 측정

지배기업은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4차 부여 분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12,410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26,468
행사가격	26,062
주가변동성(*1)	7.15% ~ 7.72%
배당수익률	-
기대만기(*2)	4년 ~ 6년
무위험수익률	1.50% ~ 1.63%

(*1) 주가변동성은 각 기대만기기간의 일별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유사 상장 회사의 주 환산 주가변동성입니다.

(*2)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양도 불가능에 대한 영향을 기대 만기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3)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량	행사가격	수량	행사가격
기초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3,396,888 주	15,000
기중 상실	-	-	(244,112) 주	23,342
기중 행사	-	-	(708,700) 주	11,537
기중중 부여	-	-	370,891 주	26,062
기말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2,814,967 주	16,606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1,688,100 주	11,537	947,700 주	11,53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잔여기간의 가중평균치는 각각 0.9년과 1.0년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총보상원가	25,790	25,790
기인식 주식보상원가	17,695	13,233
당기에 인식한 주식보상원가	1,074	1,132
분기말 누적인식 주식보상원가	18,769	14,365

23. 매출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재화판매	69,050	52,773
용역제공	6	35
기타매출	892	-
합 계	69,948	52,808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128,786)	(46,112)
반제품의 매입	166,850	85,200
종업원급여	3,813	3,277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9	50
용역비	-	38
지급수수료	10,456	5,371
광고선전비	1,842	358
운반비	839	260
해외출장비	1,073	579
지급임차료	774	175
기타	2,412	3,037
합 계	59,302	52,233

25. 종업원급여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급여	2,197	1,757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	102	121
복리후생비	221	135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219	13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1,074	1,132
합 계	3,813	3,277

26.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급여	2,197	1,757
퇴직급여	219	132
복리후생비	323	256
운반비	839	260
지급임차료	241	157
지급수수료	2,732	1,414
감가상각비	14	41
무형자산상각비	15	9
세금과공과	25	545
광고선전비	1,842	358
판매촉진비	21	69
해외출장비	1,073	579
시험연구비	1,830	2,175
주식보상비	1,074	1,132
기타	536	286
합 계	12,981	9,170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외화환산이익	11,077	487
외환차익	56	3,068
무형자산처분이익	33	-
기타수익	504	-
기타	11	-
합 계	11,681	3,55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외화환산손실	6,239	2,453
외환차손	11,934	379
유형자산처분손실	3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5	-
합 계	18,181	2,832

28.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1,850	1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1,820	617
세무상결손금으로 인한 변동	-	(373)
소 계	1,820	244
법인세비용	3,670	245

(*) 연결실체는 전기 이전부터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 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가 당 분기말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는 향후 기간 동안 추정된 과세소득규모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분기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1,326백만원이며, 차기로 이월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66	(3,639)
지배기업의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705	(455)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2,259	278
비과세수익	-	(131)
기업소득환류세제	146	-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110	8
기타	450	545
법인세비용	3,670	245
유효세율	196.7%	-

2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1. 금융수익		
이자수익	397	1,376
외화환산이익	660	92
외환차익	-	89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978	1,440
사채상환이익	16,615	-
소 계	18,650	3,803
2. 금융비용		
이자비용	7,926	7,777
외화환산손실	1,374	8
외환차손	8,311	503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058	403
매출채권처분손실	-	49
금융부채매출채권처분손실	260	-
소 계	20,929	8,740
3. 순금융손익 (1-2)	(2,279)	(4,937)

30.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분기순손실	(1,804)	(3,884)
조정:	(7,518)	8,722
감가상각비	14	41
무형자산상각비	15	9
외화환산손실	7,613	2,461
매출채권처분손실	-	49
금융부채처분손실	260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5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058	403
유형자산처분손실	3	-
주식보상비	1,074	1,132
이자비용	7,926	7,777
법인세비용	3,670	245
외화환산이익	(11,737)	(579)
무형자산처분이익	(33)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978)	(1,440)
사채상환이익	(16,615)	-
이자수익	(397)	(1,376)
기타수익	(504)	-
기타매출	(892)	-
운전자본의 변동 :	46,649	(40,380)
매출채권	218,077	6,131
기타수취채권	(39)	27
재고자산	(127,171)	(43,898)
기타유동자산	(2,558)	3,767
매입채무	(68,670)	2,064
기타채무	27,066	(2,641)
기타유동부채	(56)	(5,83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7,327	(35,542)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무상증자	-	108,217

결손금의 보전	-	859,366
장기선수금의 유동성 대체	-	2,048
장기이행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7,843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33,528	-
이행보증금의 선수금대체	3,642	-
선수금의 장기선수수익대체	15,805	-

3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지배기업은 (주)셀트리온과 공동개발자로서 양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전세계독점 판매 및 유통권한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개발 중인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동 계약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국내외 제약회사와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중 일부 유통업체와 인센티브, 매입할인, 가격정산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정사항이 존재합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담보설정일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Hospira Inc.	제2회 전환사채	2014-10-15	재고자산	209,820	357,204

(3) 지배기업은 2010년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와 분할 전 기존채무(분할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주마 제형 특허 소송

2013년 10월,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는 허셉틴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지배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분기말 현재대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6일자로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의 제형 특허가 진보성 근거로 무효하며, 이에 따라 2016년 가처분 신청과 2013년 침해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② 램시마 MTX 병용특허 특허소송

2013년 10월 Kennedy Trusts for Rheumatology Research와 Janssen Biotech, Inc.는 Hospira Inc., (주)셀트리온 및 지배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제기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이 캐나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램시마 특허소송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Janssen Biotech, Inc.와 Janssen, Inc.(이하 "얀센")과의 특허 관련 소송 2건이 미국에서 하기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ibody Patent(2018년 9월 만료)는 2015년 5월 중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Patent Trial and Review Board에 2016년 11월 항소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중 동 특허에 대하여 미국지방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ulture Media Composition Patent(2027년 2월 만료)는 미국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기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특수관계자거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지배인	서정진	서정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드림이앤엠(*)	(주)드림이앤엠(*)

(*) 지배인인 서정진은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59	315
퇴직급여	62	49
주식기준보상	141	80
합 계	662	444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급여, 비화폐성 급여 및 퇴직급여제도에 대한기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기타수입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7	166,850	9,115
	(주)셀트리온제약	226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2
합 계		233	166,850	9,117

② 제 17(전)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239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1
	(주)셀트리온	85,200	5,629
	(주)셀트리온에스티	-	6
합 계		85,200	5,875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부채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23
	(주)셀트리온	-	28	566,592	31,679
	(주)셀트리온제약	10,526	-	-	-
합 계		10,526	28	566,592	31,702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부채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7	635,262	33,261
	(주)셀트리온제약	11,820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
합 계		11,820	7	635,262	33,263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 천EUR, 원화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 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담보권자
	특수관계자	제공자	담보제공사실 또는 보증내용	담보 또는 보증금액		
지급보증	지배인	서정진	차입금 연대보증	1,800	1,500	한국산업은행
				13,000	10,000	(주)한국씨티은행
				EUR 8,809	10,506	KDB BANK EUROPE LTD

제 17(당)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지배기업")는 1999년 12월 29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0년 11월 25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로 이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12,084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서정진	49,454,360	44.12%
ONE EQUITY PARTNERS IV,L.P.	24,887,000	22.20%
ION INVESTMENT B.V.	17,319,600	15.45%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5,211,620	4.65%
OEP II PARTNERS CO-INVEST, L.P.	718,200	0.64%
기타 주주	14,493,340	12.94%
합 계	112,084,120	100.00%

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 종속기업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 재고자산

- 주석 26 : 종업원급여

- 주석 29 : 법인세비용

- 주석 32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방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 금융상품 공정가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 :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7년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 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 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부분과 기타요소부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무적으로 신뢰성 있게 지급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대상으로 파악된 약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대가가 지급되면 부채는 감소하고, 부채에 대한 내재 금융원가는 구매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 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 및 전환가격이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15)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 급여(당기비용)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당기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환입 및 가격정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은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라이선스 수익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계약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이연하여 수익인식 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약정은 유통업체로의 재화의 판매 거래와는 구분이 됩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전략운영위원회를 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3)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 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종속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제 17(당) 기	제 16(전) 기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인도	의약품 도소매업	99.96%	99.96%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터키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헝가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필리핀	의약품 도소매업	99.99%	99.99%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홍콩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태국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브라질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멕시코	의약품 도소매업	99.99%	99.98%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일본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스위스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100%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대만	의약품 도소매업	100.00%	-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이스라엘	의약품 도소매업	-	-

(2)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 유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신규 설립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

①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내부거래 제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	-	-	-	(1)	(1)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7,390	4,884	2,506	7,186	288	(125)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30,657	14,199	16,458	152,529	14,139	13,941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305	244	61	378	(3)	(5)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20	11	9	25	-	-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27	6	21	-	(138)	(136)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12	71	41	-	(87)	(82)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52	772	(620)	404	111	(28)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24	12	112	16	(2)	(1)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37	14	23	-	(47)	(50)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986	45	1,941	-	(447)	(557)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	-	1	-	(8)	(8)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13	3	110	-	(21)	(16)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	-	-	-

②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내부거래 제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4	3	1	-	-	-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9,121	6,489	2,632	5,429	160	(284)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9,474	16,957	2,517	178,594	9,546	5,347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193	127	66	266	6	7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9	-	9	3	(2)	(3)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11	2	9	-	(117)	(114)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6	183	(167)	-	(83)	(79)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64	756	(592)	184	(606)	(444)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21	8	113	-	(14)	(15)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32	9	23	20	(40)	(44)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281	617	(336)	-	(205)	(22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0	2	8	-	(11)	(10)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1	1	-	-	(1)	(1)

(4) 당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5. 영업부문

(1)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영업부문별 재무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지역별 정보

연결실체가 운영하는 영업부문은 전세계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나, 판매법인은 주로 한국, 헝가리, 터키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역별 정보는 지배기업의 소재지와 기타 국가별로 연결실체의 수익과 비금융자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표시함에 있어서 부문 수익은 고객의 지역별 위치에, 부문자산은 자산의 지역별 위치에 근거하였습니다.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비유동자산(*)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국내	9,814	-	339	356
유럽	427,240	342,430	12	11
아시아	42,114	59,959	8	8
북미	265,395	-	-	-
남미	6,589	-	769	773
오세아니아	6,589	-	-	-
합 계	757,741	402,389	1,128	1,148

(*) 비유동자산 중 금융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금액은 각각 595,168백만원, 327,664백만원 입니다.

6.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조정된 자본과 조정된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조정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부채총계	1,338,788	1,075,84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95,867	36,861
조정 부채	1,242,921	1,038,986
자본총계	648,653	499,679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자본	-	-
조정 자본	648,653	499,679
조정 부채 비율	191.62%	207.93%

7.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자 연결실체 전체에 대한 위험관리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금융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금융위험관리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금융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실체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실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예치금을 (주)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주)한국씨티은행, BNP Paribas,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장기간 거래가능성과 연결실체와 사업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우량 거래처를 선별 후 독점적인 판권을 부여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Letter of Credit을 통해 처리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95,853	36,856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366,521	93,08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18,882
소 계	485,474	148,822
신용보강	-	-
최대 노출정도	485,474	148,822

② 손상차손

당기 및 전기 중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잔액	(3,475)	(5,940)
손상차손 환입	2,888	-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	571	2,680
환율변동효과	-	(215)
기말잔액	(16)	(3,475)

연결실체는 과거의 채무불이행율을 고려하였을 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과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를 초과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집합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연결실체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결실체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 됩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만기 미도래	367,465	94,553
30일 이내	-	7,267
합 계	367,465	101,820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 수준의 추정 및 자금수지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며, 계획대비 실적관리를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실체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실체 내부의 목표채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말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23,130	-	-	23,130
전환사채	6,250	211,465	-	217,7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9,892	334,962	36,255	831,109
합 계	489,272	546,427	36,255	1,071,954

② 전기말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9,592	-	7	9,599
전환사채	6,250	12,716	217,715	236,6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9,038	223,534	62,106	704,678
합 계	434,880	236,250	279,828	950,958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시장위험노출을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실체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 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실체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매일 외환시장의 모니터링과 각 관계기관에서 발행된 외환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환위험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매월 Var환율을 통한 환위험의 분석을 통해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헷지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위험이 금융자산 측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헷지하기 위해외화 금융부채의 발생을 통한 Matching이나, Lead and Lag 방법을 통해 환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종속기업들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간주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기능통화 이외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USD	351,560	85,479	64,980	12,046
EUR	94,903	67,915	53,709	96
HUF	241	18	7	276
THB	178	-	-	-
TRY	206	1	-	-
JPY	656	-	-	-
SGD	38	-	-	-
GBP	-	15	-	-
합 계	447,782	153,428	118,696	12,418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7% (전기 9%) 변동 시 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7% 상승	7% 하락	9% 상승	9% 하락
USD	14,118	(14,118)	3,611	(3,611)
EUR	1,432	(1,432)	3,657	(3,657)
HUF	12	(12)	(18)	18
THB	9	(9)	-	-
TRY	11	(11)	-	-
JPY	35	(35)	-	-
SGD	2	(2)	-	-
GBP	(1)	1	-	-
합 계	15,618	(15,618)	7,250	(7,250)

다만, 민감도 분석 대상 외화는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를 의미하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위험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명목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35,311	17,608
금융부채	(219,840)	(215,346)
합 계	(184,529)	(197,738)
변동이자율		
금융부채	(11,166)	(7,860)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전기 20BP) 변동시 연결실체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이자율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0BP 상승	10BP 하락	20BP 상승	20BP 하락
세후 손익	(8)	8	(12)	12

③ 기타 시장가격 위험

연결실체는 연결채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8.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5,867	95,867	36,861	36,8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23,100	18,882	18,88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366,521	366,521	93,084	93,084
합 계	485,488	485,488	148,827	148,827
금융부채				
차입금	22,666	22,666	9,365	9,365
전환사채	166,109	184,218	160,347	180,61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100,248	98,376	98,37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20,260	820,260	694,558	694,558
합 계	1,109,283	1,127,392	962,646	982,916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서열체계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23,100	-	-	18,882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100,248	-	-	98,376
- 전환사채	-	184,218	-	-	180,617	-

②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초잔액	18,882	98,376	-	1,096,798
총손익	4,218	10,291	(957)	(87,630)
당기손익 인식	4,218	10,291	(957)	(87,630)
보통주 전환	-	(8,419)	19,839	(910,792)
기말금액	23,100	100,248	18,882	98,376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42	(2,042)	1,664	(1,664)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5,429)	14,630	(12,911)	12,355

(*) 동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주가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주가의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연결실체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5.79%
				무위험이자율	1.4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2%
				무위험이자율	1.65%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8,882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60%
				무위험이자율	1.6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8,376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47%~7.67%
				무위험이자율	1.61%~1.8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및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95,867	95,867	-	36,861	36,861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364,156	364,156	-	62,131	62,131
소 계	-	460,023	460,023	-	98,992	98,992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2,365	2,365	-	30,953	30,95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	23,100	18,882	-	18,882
소 계	23,100	2,365	25,465	18,882	30,953	49,835
합 계	23,100	462,388	485,488	18,882	129,945	148,827

(2) 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	100,248	7,183	-	7,183
단기금융부채	-	188,775	188,775	-	15,149	15,14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7,429	787,429	-	642,279	642,279
소 계	100,248	976,204	1,076,452	7,183	657,428	664,611
비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91,193	-	91,193
장기금융부채	-	-	-	-	154,563	154,56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831	32,831	-	52,279	52,279
소 계	-	32,831	32,831	91,193	206,842	298,035
합 계	100,248	1,009,035	1,109,283	98,376	864,270	962,646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125	7,231
- 처분손익	(228)	(414)
- 이자손익	5,974	5,521
- 외환손익	13,491	2,124
- 자산손상환입	2,88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218	(957)
- 평가손익	4,218	(957)
단기매매금융자산	-	(2)
- 처분손익	-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316)	22,777
- 평가손익	(10,291)	87,630
- 처분손익	975	(64,85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36,077)	(56,297)
- 이자손익	(32,597)	(56,468)
- 외환손익	(3,480)	171
합 계	(19,050)	(27,248)

10.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중 Letter of Credit으로 발생한 매출채권 40,514백만원을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일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손실 22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이러한 매출채권 양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보유현금	14	5
은행예금 및 단기은행예치금	95,853	36,856
합 계	95,867	36,861

12.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자산		
매출채권	364,144	62,081
미수금	9	42
미수수익	3	8
소 계	364,156	62,131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2,142	30,740
보증금	223	213
소 계	2,365	30,953
합 계	366,521	93,084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 비유동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18,882

14. 재고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반제품	1,471,076	1,399,227
제품	1,044	58
합 계	1,472,120	1,399,28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각각 211,912백만원, 219,77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능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차량운반구	70	(40)	30	56	(20)	36
비품	884	(802)	82	842	(685)	157
합 계	954	(842)	112	898	(705)	193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기타	기말금액
차량운반구	36	-	-	(13)	7	30
비품	157	44	(1)	(119)	1	82
합 계	193	44	(1)	(132)	8	112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기타	기말금액
차량운반구	65	-	-	(13)	(16)	36
비품	280	41	(5)	(157)	(2)	157
합 계	345	41	(5)	(170)	(18)	193

16.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취득원가	상각(손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손상) 누계액	장부가액
영업권	734	-	734	734	-	734
소프트웨어	305	(161)	144	199	(116)	83
회원권	138	-	138	138	-	138
합 계	1,177	(161)	1,016	1,071	(116)	955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영업권	734	-	-	734
소프트웨어	83	107	(46)	144
회원권	138	-	-	138
합 계	955	107	(46)	1,016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영업권	734	-	-	734
소프트웨어	119	-	(36)	83
회원권	-	138	-	138
합 계	853	138	(36)	955

17.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선급금	1,037	545
부가세선급금	15,724	13,501
선급비용	122	118
합 계	16,883	14,164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선수금	15,659	12,711
예수금	739	2,918
부가세예수금	-	6
선수수익	14,539	992
소 계	30,937	16,627
비유동부채		
선수금	159,200	66,909
선수수익	3,386	10,629
소 계	162,586	77,538
합 계	193,523	94,165

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매입채무	641,305	580,201
미지급금	41,747	44,927
미지급비용	5,032	11,027
이행보증금	66,010	6,124
기타금융부채	33,335	-
소 계	787,429	642,279
비유동부채		
장기이행보증금	-	52,279
장기기타금융부채	32,831	-
소 계	32,831	52,279
합 계	820,260	694,558

19. 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은행차입금	22,666	9,360
전환사채	166,109	5,78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7,183
소 계	289,023	22,332
비유동부채		
은행차입금	-	5
전환사채	-	154,55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91,193
소 계	-	245,756
합 계	289,023	268,088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만기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이자율	만기	제 17(당) 기	제 16(전) 기
KDB BANK EUROPE LTD	3M Libor+3.8%	2017-06-27	11,166	5,860
한국산업은행	5.50%	2017-06-27	1,500	1,500
(주)한국씨티은행	4.45%	2017-06-28	10,000	-
(주)경남은행	-	-	-	2,000
Banco Itau	-	-	-	5
합 계			22,666	9,365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전환사채 액면금액	208,340	213,841
거래원가	(3,572)	(3,572)
순 현금유입액	204,768	210,269
사채상환할증금	-	800
전환권조정	(62,430)	(64,476)
발생이자(누적)	23,771	13,754
당기말 장부금액	166,109	160,347
- 유동	166,109	5,789
- 비유동	-	154,558

당기 및 전기 중 제1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각각 5,501백만원 및 84,499백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의 변동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8, 9, 20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2회 전환사채(*3)
발행일	2014.9.30
만기일	2019.9.30
액면금액	208,340백만원
발행가액	204,768백만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6%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6%(연복리)
상환방법	전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0%를 일시 상환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1)(*2)	기명식 보통주 7,974,736주(액면가액 1,000원)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의 3영업일전까지
전환가격(*1)(*2)	26,125원

- (*1)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가격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및 전환 시 발행할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3)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주석19 (5)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인식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초금액	653,263
평가	12,216
전환	(665,479)
기말금액	-
- 비유동	-

전기 중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어인식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금액	98,376	443,535
전환권	98,376	284,414
신주인수권	-	159,121
감소금액	(8,419)	(245,313)
전환권	(8,419)	(118,790)
신수인수권	-	(126,523)
평가금액	10,291	(99,846)
전환권	10,291	(67,248)
신주인수권	-	(32,598)
기말금액	100,248	98,376
- 유동	100,248	7,183
- 비유동	-	91,193

20. 자본금 등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 주	20,000,000 주
주당 액면금액	1,000	5,000
발행주식수	112,084,120 주	554,493 주
자본금	112,084,120,000	2,772,465,000

(2) 당기 및 전기 중 지배기업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 발행주식수	554,493	331,526
무상증자	21,643,284	-
액면분할	88,924,08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6,917
전환사채의 전환	476,820	36,61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39,001
주식선택권의 행사	485,443	432
기말 발행주식수	112,084,120	554,493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380,642	1,323,556

(4)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금액	1,323,556	144,211
무상증자	(108,217)	-
결손금의 보전	(859,366)	-
주식선택권의 행사	11,472	1,458
전환사채의 전환	13,197	193,81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06,434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777,638
기말금액	380,642	1,323,556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보통주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역은 주석 8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감자차손	(59,369)	(59,369)
주식선택권	13,317	12,769
합 계	(46,052)	(46,600)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해외사업환산손익	(3,625)	(3,390)

21.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05,603	(776,660)

(2) 당기 및 전기 중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처리에정일 : 2017년 3월 24일		처리확정일 : 2016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89,714		(776,94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82,417		(732,516)	
당기순이익(손실)	107,297		(44,433)	
II. 결손금처리액		-		859,366
주식발행초과금의 결손 보전		-	859,366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9,714		82,417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2. 주당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지배기업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22,896,340,971	20,584,360,284
보통주 당기순이익	122,896,340,971	20,584,360,28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1,416,066 주	66,551,970 주
기본주당이익	1,103	309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여,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은 재계산 되었습니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0,898,600	66,305,200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61,005
전환사채의 전환	221,474	20,06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1,370
주식선택권의 행사	295,992	44,33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1,416,066	66,551,970

(2) 당기 및 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보통주 당기순이익	122,896,340,971	20,584,360,284
보통주 희석당기순이익	122,896,340,971	20,584,360,28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808,032 주	97,148,864 주
희석주당이익	1,089	212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여, 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재계산 되었습니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1,416,066	66,551,970
상환전환우선주	-	29,141,893
주식선택권	1,391,966	1,455,0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112,808,032	97,148,864

23.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부여	2차 부여	3차 부여	4차 부여
부여시점	2012년 03월 23일	2013년 03월 22일	2015년 03월 27일	2016년 03월 29일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지배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3년 경과 시점에서 최초부여주식의 40%, 4년 경과 시점에서 30%, 5년 경과 시점에서 30% 를 행사			
발행할 주식수 (*)	2,998,000 주	388,000 주	937,688 주	370,891 주
행사가격 (*)	11,537 원	11,537 원	24,082 원	26,062 원

(*)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4차례에 걸쳐 상기 조건의 주식선택권을 주요 경영진과 종업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의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면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지배기업은 당기 및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4차 부여 분	3차 부여 분
당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1)	12,410	14,742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1)	26,468	28,913
행사가격(*1)	26,062	24,082
주가변동성(*2)	7.15% ~ 7.72%	6.89% ~ 7.48%
배당수익률	-	-
기대만기(*3)	4년 ~ 6년	4년 ~ 6년
무위험수익률	1.50% ~ 1.63%	1.81% ~ 1.92%

- (*1)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2) 주가변동성은 각 기대만기기간의 일별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유사 상장 회사의 주 환산 주가변동성입니다.
- (*3)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양도 불가능에 대한 영향을 기대 만기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3)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량(*)	행사가격(*)	수량(*)	행사가격(*)
기초 미행사분	3,396,888 주	15,000	2,860,000 주	11,537
기중 상실	(244,112) 주	23,342	(314,400) 주	11,537
기중 행사	(708,700) 주	11,537	(86,400) 주	11,537
당기 중 부여	370,891 주	26,062	937,688 주	24,082
기말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3,396,888 주	15,000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947,700 주	11,537	867,840 주	11,537

(*)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잔여기간의 가중평균치는 각각 1.0년과 1.2년입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총보상원가	25,790	22,824
기인식 주식보상원가	13,233	8,936
당기에 인식한 주식보상원가	4,462	4,297
당기말 누적인식 주식보상원가	17,695	13,233

24. 매출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재화판매	757,674	402,273
용역제공	67	116
합 계	757,741	402,389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재고자산의 변동	(79,904)	(242,929)
반제품의 매입	587,288	466,853
종업원급여	15,260	12,98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78	206
용역비	48	1,454
지급수수료	39,284	35,723
광고선전비	3,481	1,965
운반비	3,158	2,767
해외출장비	2,539	3,508
지급임차료	678	660
기타	7,155	7,292
합 계	579,165	290,484

26. 종업원급여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급여	9,015	7,114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	578	536
복리후생비	570	449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635	589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4,462	4,297
합 계	15,260	12,985

27.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급여	9,015	7,114
퇴직급여	635	589
복리후생비	1,148	985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888)	-
운반비	3,158	2,767
지급임차료	635	607
지급수수료	8,879	6,963
감가상각비	132	170
무형자산상각비	46	36
세금과공과	886	1,554
광고선전비	3,481	1,965
판매촉진비	541	338
해외출장비	2,539	3,508
시험연구비	7,130	4,120
주식보상비	4,462	4,297
기타	1,535	2,733
합 계	41,334	37,746

2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환산이익	12,185	4,035
외환차익	5,050	3,082
수입수수료(*)	606	50,280
기타	1,339	151
합 계	19,180	57,548

(*) 전기 중 Hospira Inc.가 허쥬마 및 트록시마의 판권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위 약금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환산손실	5,659	1,408
외환차손	7,334	2,509
유형자산처분손실	1	4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1
합 계	12,994	3,922

29.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39,793	20,559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34	12
소 계	39,827	20,571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384	95,356
세무상결손금으로 인한 변동	2	52
소 계	386	95,408
법인세비용	40,213	115,979

(*) 연결실체는 전기부터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가 당기말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는 향후 기간 동안 추정된 과세소득규모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기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32,082백만원이며, 차기로 이월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3,109	136,563
지배기업의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36,675	28,808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1,244	250,996
비과세수익	-	(164,920)
세액공제 등	(6)	(9)
기업소득환류세제	3,529	1,899
과거기간에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의 인식	(1)	(5)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144	67
일시적차이 미반영분	7	3
법인세추납액	-	25
기타	(1,379)	(885)
법인세비용	40,213	115,979
유효세율(*)	24.7%	84.9%

(*) 전기 중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관련 내재파생 상품 부채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됨에 따라 일시에 법인세비용으로 반영되어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손익반영	외화환산차이	기말잔액
유형자산	9	9	-	18
미지급비용	2,503	(1,397)	-	1,106
대손충당금	1,833	(1,833)	-	-
외화환산손실	183	(183)	-	-
종속기업투자자산	-	76	-	76
전환사채상환할증금	194	(194)	-	-
간주배당	78	-	-	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3,806	2,899	-	26,705
재고자산	101	(92)	-	9
선수수익	2,770	-	-	2,770
이월결손금	1,459	(1,442)	3	20
미수금	(4)	-	-	(4)
미수수익	(2)	1	-	(1)
재고자산	(1,387)	1,350	-	(37)
외화환산이익	(19)	19	-	-
전환권조정	(12,435)	1,794	-	(10,641)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6)	-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70)	(1,021)	-	(5,591)
이행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2,437)	1,237	-	(1,200)
기타금융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	(1,607)	-	(1,607)
기타	4	(2)	(2)	-
합 계	12,080	(386)	1	11,695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손익반영	외화환산차이	기말잔액
유형자산	2	7	-	9
미지급비용	3,905	(1,401)	(1)	2,503
대손충당금	365	1,468	-	1,833
외화환산손실	198	-	(15)	183
전환사채상환할증금	3,166	(2,972)	-	194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3,166	(3,166)	-	-
간주배당	78	-	-	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7,336	(83,530)	-	23,806
재고자산	13,590	(13,489)	-	101
선수수익	198	2,572	-	2,770
이월결손금	1,930	(301)	(170)	1,459
미수금	(4)	-	-	(4)
미수수익	(4)	2	-	(2)
재고자산	(1,676)	289	-	(1,387)
외화환산이익	(1,183)	28	1,136	(19)
전환권조정	(19,459)	7,024	-	(12,435)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6)	-	-	(6)
신주인수권조정	(4,870)	4,87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570)	-	(4,570)
이행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197)	(2,240)	-	(2,437)
기타	3	1	-	4
합 계	106,538	(95,408)	950	12,080

(4)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

연결실체는 차기 이후 예상 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이월액을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외 사유
이월결손금	307	157	미래과세소득의 불확실
일시적차이	10	3	
합 계	317	160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 금융수익		
이자수익	5,974	5,520
외화환산이익	3,530	-
외환차익	10,356	2,04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4,218	112,15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975	30,642
소 계	25,053	150,363
2. 금융비용		
이자비용	32,597	56,467
외화환산손실	45	332
외환차손	3,544	1,139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10,291	25,48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95,495
단기매매금융상품처분손실	-	2
매출채권처분손실	228	414
소 계	46,705	179,330
3. 순금융손익 (1-2)	(21,652)	(28,967)

31.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순이익	122,896	20,584
조정:	63,298	147,735
감가상각비	132	170
무형자산상각비	46	36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888)	-
외화환산손실	5,704	1,740
매출채권처분손실	228	414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10,291	25,48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95,495
단기매매금융상품처분손실	-	2
유형자산처분손실	1	4
주식보상비	4,462	4,297
이자비용	32,597	56,467
법인세비용	40,213	115,979
외화환산이익	(15,715)	(4,03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4,218)	(112,15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975)	(30,642)
이자수익	(5,974)	(5,520)
수입수수료	(606)	-
운전자본의 변동 :	(119,994)	(105,886)
매출채권	(314,144)	(9,600)
기타수취채권	21	23
단기매매금융자산	-	(2)
재고자산	(73,234)	(233,458)
기타유동자산	(6,948)	(5,936)
매입채무	117,526	253,096
기타채무	(3,636)	19,734
기타유동부채	(15,454)	(164,385)
장기기타채무	67,368	61,463
기타비유동부채	108,507	(26,82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66,200	62,433

(2)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무상증자	108,217	-
결손금 보전	859,366	-
장기매출채권의 유동성 대체	-	11,720
장기선수금의 유동성 대체	16,217	906
장기이행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56,703	-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33,335	-
전환사채의 유동성 대체	166,109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100,248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778,372
전환사채의 전환	13,674	193,99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06,629
장기선수수익의 유동성 대체	10,629	992

3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지배기업은 (주)셀트리온과 공동개발자로서 양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전세계독점 판매 및 유통권한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개발 중인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동 계약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국내외 제약 회사와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중 일부 유통업체와 인센티브, 매입할인, 가격정산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정사항이 존재합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담보설정일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Hospira Inc.	제2회 전환사채	2014-10-15	재고자산	211,912	357,204

(3) 지배기업은 2010년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와 분할 전 기존채무 (분할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췌마 제형 특허 소송

2013년 10월,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는 허셉틴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지배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기말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램시마 MTX 병용특허 특허소송

2013년 10월 Kennedy Trusts for Rheumatology Research와 Janssen Biotech, Inc.는 Hospira Inc., (주)셀트리온 및 지배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제기하였고, 당기 말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이 캐나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램시마 특허소송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Janssen Biotech, Inc.와 Janssen, Inc.(이하 "얀센")과의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하기와 같이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ibody Patent(2018년 9월 만료)는 2015년 5월 중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Patent Trial and Review Board에 2016년 11월 항소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중 동 특허에 대하여 미국지방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ulture Media Composition Patent(2027년 2월 만료)는 미국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기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지배인	서정진	서정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
	-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드림이앤엠(*)	(주)드림이앤엠(*)
	-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지배인인 서정진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단기종업원급여	2,024	1,351
퇴직급여	203	60
주식기준보상	506	872
합 계	2,733	2,283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급여, 비화폐성 급여 및 퇴직급여제도에 대한기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조).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매출	기타수입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530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22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102	514,847	36,310
	(주)셀트리온제약	9,814	3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7
합 계		9,814	105	514,847	36,889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유형자산의 취득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118
	ONE EQUITY PARTNERS IV,L.P.	-	-	-	6,500
	ION INVESTMENTS B.V.	-	-	-	12,538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881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6,613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	-	-	538
	(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2,674
	(주)셀트리온	123	466,853	2	38,919
	(주)셀트리온제약	-	-	-	976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4
	(주)드림이앤엠	-	-	-	1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19
합 계		123	466,853	2	69,801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부채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7	635,262	33,261
	(주)셀트리온제약	11,820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
합 계		11,820	7	635,262	33,263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채권	채무		
		기타채권	매입채무	금융부채	기타부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10
	ONE EQUITY PARTNERS IV, L.P.	-	-	-	457
	ION INVESTMENTS B.V.	-	-	-	881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5,789	62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617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8	580,201	-	35,524
합 계		8	580,201	5,789	37,551

(5)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 명	자금차입	
		차입	상환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46,500	46,500
	(주)셀트리온지에스씨	10,000	10,000
합 계		56,500	56,500

(6)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 천EUR, 원화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 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담보권자
	특수관계자	제공자	담보제공사실 또는 보증내용	담보 또는 보증금액		
지급보증	지배인	서정진	차입금 연대보증	1,800	1,500	한국산업은행
				13,000	10,000	(주)한국씨티은행
				EUR 8,809	11,166	KDB BANK EUROPE LTD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제18기 2017년 3월말	제17기 2016년 12월말	제16기 2015년 12월말	제15기 2014년 12월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 산				
유동자산	1,794,364,907,890	1,923,039,916,826	1,506,553,574,523	1,166,786,237,266
현금및현금성자산	34,597,435,974	67,627,591,386	20,172,431,825	2,702,763,685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69,159,463,318	371,249,246,805	77,235,758,075	42,217,545,749
재고자산	1,572,752,600,799	1,468,299,381,930	1,395,581,275,685	1,112,848,632,008
기타유동자산	17,855,407,799	15,863,696,705	13,564,108,938	9,017,295,824
비유동자산	46,796,098,597	48,202,377,545	68,292,291,331	133,813,141,067
종속기업투자주식	10,732,131,924	10,702,603,924	7,592,380,567	7,159,613,9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7,564,350	23,100,234,909	18,882,277,96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2,387,917,095	2,327,210,790	30,925,179,383	34,141,672,759
유형자산	144,277,428	61,250,018	134,926,447	261,844,046
무형자산	626,234,226	277,740,810	221,479,836	119,379,873
이연법인세자산	8,827,973,574	11,733,337,094	10,536,047,130	92,130,630,425
자 산 총 계	1,841,161,006,487	1,971,242,294,371	1,574,845,865,854	1,300,599,378,333
부 채				
유동부채	1,021,921,142,960	1,139,437,225,058	696,498,797,340	922,801,015,111
단기금융부채	143,505,812,684	188,774,850,904	15,149,205,506	179,855,259,4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032,910	100,247,704,069	7,182,751,806	318,242,560,47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3,940,530,265	783,627,092,085	641,095,921,212	361,559,312,060
당기법인세부채	2,930,595,427	35,981,072,942	18,113,253,785	8,530,573,961
기타유동부채	16,531,171,674	30,806,505,058	14,957,665,031	54,613,309,212
비유동부채	178,946,117,172	195,416,210,375	375,567,601,400	1,014,879,470,758
장기금융부채	-	-	154,558,134,536	144,603,653,80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91,192,681,481	778,555,127,547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830,599,235	52,278,601,489	6,155,924,696
기타비유동부채	178,946,117,172	162,585,611,140	77,538,183,894	85,564,764,706
부 채 총 계	1,200,867,260,132	1,334,853,435,433	1,072,066,398,740	1,937,680,485,869
자 본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772,465,000	1,657,630,000
자본잉여금	380,642,454,831	380,642,454,831	1,323,555,701,456	144,210,737,418
기타자본항목	(44,978,036,268)	(46,052,084,973)	(46,599,622,064)	(50,433,345,223)
이익잉여금(결손금)	192,545,207,792	189,714,369,080	(776,949,077,278)	(732,516,129,731)
자 본 총 계	640,293,746,355	636,388,858,938	502,779,467,114	(637,081,107,536)
부채와자본총계	1,841,161,006,487	1,971,242,294,371	1,574,845,865,854	1,300,599,378,333

나.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2017.1.1~2017.3.31	2016.1.1~2016.12.31	2015.1.1~2015.12.31	2014.1.1~2014.12.31
		1	1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매출액	97,867,289,359	733,462,408,733	269,585,790,624	196,416,479,555
매출원가	68,260,619,506	535,017,475,878	206,524,527,726	114,192,322,522
매출총이익	29,606,669,853	198,444,932,855	63,061,262,898	82,224,157,033
판매비와관리비	11,441,012,417	36,523,307,895	32,287,723,350	26,371,646,742
영업이익	18,165,657,436	161,921,624,960	30,773,539,548	55,852,510,291
기타수익	11,941,343,570	18,483,465,681	58,848,317,142	5,170,872,276
기타비용	20,643,368,179	13,465,402,797	3,901,570,184	1,942,556,288
금융수익	18,650,436,882	25,121,189,819	150,439,822,813	3,336,869,559
금융비용	20,972,934,932	46,665,090,687	179,357,179,238	449,941,461,0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41,134,777	145,395,786,976	56,802,930,081	(387,523,765,194)
법인세비용	4,310,296,065	38,098,734,178	101,235,877,628	(33,485,630,052)
당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107,297,052,798	(44,432,947,547)	(354,038,135,142)
총포괄이익(손실)	2,830,838,712	107,297,052,798	(44,432,947,547)	(354,038,135,142)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25	963	(668)	(5,478)
희석주당이익(손실)	25	951	(668)	(5,478)

다. 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자 본 총 계
2014년 1월 1일(제15기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500,000,000	-	(53,777,612,479)	(378,477,994,589)	(430,755,607,068)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354,038,135,142)	(354,038,135,1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선택권 인식	-	-	3,344,267,256	-	3,344,267,256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57,630,000	144,210,737,418	-	-	144,368,367,418
2014년 12월 31일(제15기 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657,630,000	144,210,737,418	(50,433,345,223)	(732,516,129,731)	(637,081,107,536)
2015년 1월 1일(제16기 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1,657,630,000	144,210,737,418	(50,433,345,223)	(732,516,129,731)	(637,081,107,536)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44,432,947,547)	(44,432,947,54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선택권 인식	-	-	4,297,128,263	-	4,297,128,263
주식선택권의 행사	2,160,000	1,458,085,104	(463,405,104)	-	996,840,000
전환사채의 전환	183,085,000	193,815,282,296	-	-	193,998,367,29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195,005,000	206,433,892,041	-	-	206,628,897,041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734,585,000	777,637,704,597	-	-	778,372,289,597
2015년 12월 31일(제16기 기말)	2,772,465,000	1,323,555,701,456	(46,599,622,064)	(776,949,077,278)	502,779,467,114
2016년 1월 1일(제17기 기초)	2,772,465,000	1,323,555,701,456	(46,599,622,064)	(776,949,077,278)	502,779,467,11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107,297,052,798	107,297,052,79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무상증자	108,216,420,000	(108,216,420,000)	-	-	-
결손금의 보전	-	(859,366,393,560)	-	859,366,393,560	-
주식선택권의 인식	-	-	4,461,711,306	-	4,461,711,306
주식선택권의 행사	618,415,000	11,472,142,975	(3,914,174,215)	-	8,176,383,760
전환사채의 전환	476,820,000	13,197,423,960	-	-	13,674,243,960
2016년 12월 31일(제17기 기말)	112,084,120,000	380,642,454,831	(46,052,084,973)	189,714,369,080	636,388,858,938
2017년 1월 1일(제18기 기초)	112,084,120,000	380,642,454,831	(46,052,084,973)	189,714,369,080	636,388,858,938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	-	-	-	2,830,838,712	2,830,838,71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선택권의 인식	-	-	1,074,048,705	-	1,074,048,705
2017년 3월 31일(제18기 1분기말)	112,084,120,000	380,642,454,831	(44,978,036,268)	192,545,207,792	640,293,746,355

라.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2017.1.1~2017.3.31	2016.1.1~2016.12.31	2015.1.1~2015.12.31	2014.1.1~2014.12.31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625,722,737		25,294,557,200		22,213,893,947		(240,930,230,8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5,615,640,295		59,425,956,853		52,647,095,382		(230,718,537,334)	
이자의 수취	165,698,571		197,189,832		185,992,798		537,766,102	
이자의 지급	(2,716,457,029)		(12,900,384,500)		(20,560,579,724)		(10,315,898,254)	
법인세의 납부	(15,439,159,100)		(21,428,204,985)		(10,058,614,509)		(433,561,34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0,212,285)		(2,825,300,064)		(911,453,482)		(4,990,000,88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6,151,573		820,601,200		177,172,264		12,155,305,818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0,514,300		815,601,200		168,007,200		12,150,000,00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2,000,000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5,000,000		5,000,000		604,56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7,451,824		-	
유형자산의 처분	-		-		1,108,680		3,305,818	
무형자산의 처분	170,637,273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26,363,858)		(3,645,901,264)		(1,088,625,746)		(17,145,306,706)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56,527,100		300,893,124		12,150,000,000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5,000,000		5,000,000		180,000,000		1,006,117,134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9,528,000		3,447,316,166		442,946,603		3,953,733,147	
유형자산의 취득	91,835,858		37,167,998		27,064,029		14,682,098	
무형자산의 취득	500,000,000		99,890,000		137,721,990		20,774,32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800,000,000)		21,796,562,895		(3,860,004,000)		221,985,284,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4,765,282,581		66,940,587,922		223,438,901,000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116,588,898,821		65,943,747,922		15,098,901,000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		-		-		208,340,000,000	
보통주의 발행	-		8,176,383,760		996,84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8,800,000,000)		(102,968,719,686)		(70,800,591,922)		(1,453,617,000)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102,968,719,686		70,800,591,922		1,453,617,000	
전환사채의 상환	58,8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1,604,489,548)		44,265,820,031		17,442,436,465		(23,934,947,71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425,665,864)		3,189,339,530		27,231,675		2,358,833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7,627,591,386		20,172,431,825		2,702,763,685		26,635,352,566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4,597,435,974		67,627,591,386		20,172,431,825		2,702,763,685

5. 재무제표 주석

제 18(당) 기 1분기 2017년 3월 31일 현재

제 17(전) 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당사")는 1999년 12월 29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1월 25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로 이전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12,084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서정진	49,454,360 주	44.12%
ONE EQUITY PARTNERS IV,L.P.	24,887,000 주	22.20%
ION INVESTMENT B.V.	17,319,600 주	15.45%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5,211,620 주	4.65%
OEP II PARTNERS CO-INVEST, L.P.	718,200 주	0.64%
기타 주주	14,493,340 주	12.94%
합 계	112,084,120 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요약분기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약분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 금융상품 공정가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 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적용시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31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정된 자본과 조정된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으며, 당사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조정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부채총계	1,200,867	1,334,853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34,597	67,628
조정 부채	1,166,270	1,267,225
자본총계	640,294	636,389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자본	-	-
조정 자본	640,294	636,389
조정 부채 비율	182.15%	199.13%

5.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요약분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 및 정책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1) 금융위험관리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34,587	67,615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71,547	373,57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3,100
소 계	230,212	464,291
신용보강	-	-
최대 노출정도	230,212	464,291

② 손상차손

당분기 및 전기 중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잔액	(16)	(3,475)
손상차손 환입	-	2,888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	-	571
기말잔액	(16)	(16)

당사는 과거의 채무불이행율을 고려하였을 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과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를 초과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집합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당사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 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당사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 됩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만기 미도래	172,266	374,522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합 계
차입금	22,237	-	22,237
전환사채	154,026	-	154,0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3,871	337,410	791,281
합 계	630,134	337,410	967,544

② 전기말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23,130	-	-	23,130
전환사채	6,250	211,465	-	217,7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6,089	334,962	36,255	827,306
합 계	485,469	546,427	36,255	1,068,15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기능통화 이외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USD	99,265	73,150	312,866	79,419
EUR	91,569	103,490	104,877	79,179
THB	228	-	236	-
TRY	1,861	1,654	2,294	1,857
JPY	632	-	656	-
SGD	34	-	37	14
GBP	-	192	-	15
합 계	193,589	178,486	420,966	160,484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4% (전기7%) 변동시 당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4% 상승	4% 하락	7% 상승	7% 하락
USD	792	(792)	12,387	(12,387)
EUR	(361)	361	1,364	(1,364)
THB	7	(7)	13	(13)
TRY	6	(6)	23	(23)
JPY	19	(19)	35	(35)
SGD	1	(1)	1	(1)
GBP	(6)	6	(1)	1
합 계	458	(458)	13,822	(13,822)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명목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208	7,072
금융부채	(161,040)	(219,840)
합 계	(160,832)	(212,768)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43	715
금융부채	(10,506)	(11,166)
합 계	(9,863)	(10,451)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전기 10BP) 변동시 당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이자율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0BP 상승	10BP 하락	10BP 상승	10BP 하락
세후 손익	(7)	7	(8)	8

③ 기타 시장가격 위험

당사는 요약분기채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4,597	34,597	67,628	67,62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4,078	23,100	23,10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71,547	171,547	373,576	373,576
합 계	230,222	230,222	464,304	464,304
금융부채				
차입금	22,006	22,006	22,666	22,666
전환사채	121,500	133,596	166,109	184,21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75,013	100,248	100,2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3,941	783,941	816,458	816,458
합 계	1,002,460	1,014,556	1,105,481	1,123,590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24,078	-	-	23,100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75,013	-	-	100,248
- 전환사채	-	133,596	-	-	184,218	-

②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초잔액	23,100	100,248	18,882	98,376
총손익	978	3,058	4,218	10,291
당기손익 인식	978	3,058	4,218	10,291
보통주 전환	-	-	-	(8,419)
전환사채의 상환	-	(28,293)	-	-
기말금액	24,078	75,013	23,100	100,248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분기 및 전기 중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16	(2,116)	2,042	(2,042)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1,634)	11,054	(15,429)	14,630

(*) 동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주가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주가의 10%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당사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05%
				무위험이자율	1.59%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4%
				무위험이자율	1.6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5.79%
				무위험이자율	1.4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2%
				무위험이자율	1.65%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사의 재무담당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97	34,597	-	67,628	67,628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169,159	169,159	-	371,249	371,249
소 계	-	203,756	203,756	-	438,877	438,877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2,388	2,388	-	2,327	2,32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	24,078	23,100	-	23,100
소 계	24,078	2,388	26,466	23,100	2,327	25,427
합 계	24,078	206,144	230,222	23,100	441,204	464,304

(2) 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	75,013	100,248	-	100,248
단기금융부채	-	143,506	143,506	-	188,775	188,7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3,941	783,941	-	783,627	783,627
소 계	75,013	927,447	1,002,460	100,248	972,402	1,072,650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32,831	32,831
합 계	75,013	927,447	1,002,460	100,248	1,005,233	1,105,481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9,192)	340
- 처분손익	-	(49)
- 이자손익	397	1,389
- 외화환산손익	(9,589)	(1,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78	551
- 평가손익	978	55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3,058)	486
- 평가손익	(3,058)	486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19,810	(8,747)
- 처분손익	16,355	-
- 이자손익	(7,926)	(7,765)
- 외화환산손익	11,381	(982)
합 계	8,538	(7,370)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보유현금	10	13
은행예금 및 단기은행예치금	34,587	67,615
합 계	34,597	67,628

9.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자산		
매출채권	168,429	370,472
미수금	22	2
미수수익	65	60
단기대여금	643	715
소 계	169,159	371,249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2,203	2,142
보증금	185	185
소 계	2,388	2,327
합 계	171,547	373,576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비유동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3,100

11.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반제품	1,565,382	1,467,315
제품	7,371	984
합 계	1,572,753	1,468,299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각각 209,820백만원, 211,912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능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933	(789)	144	841	(780)	61

(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분기말금액
비품	61	92	(9)	144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비품	135	37	(111)	61

13.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299	(173)	126	299	(159)	140
회원권	500	-	500	138	-	138
합 계	799	(173)	626	437	(159)	278

(2)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분기말금액
소프트웨어	140	-	-	(14)	126
회원권	138	500	(138)	-	500
합 계	278	500	(138)	(14)	626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소프트웨어	83	100	(43)	140
회원권	138	-	-	138
합 계	221	100	(43)	278

14. 종속기업투자주식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인도	-	-	99.96%	-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터키	100.00%	3,404	100.00%	3,404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헝가리	100.00%	94	100.00%	94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필리핀	99.99%	227	99.99%	227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49	100.00%	49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홍콩	100.00%	361	100.00%	332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태국	100.00%	398	100.00%	398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브라질	100.00%	2,990	100.00%	2,99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100.00%	179	100.00%	179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멕시코	99.99%	-	99.99%	-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일본	100.00%	2,904	100.00%	2,904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스위스	100.00%	-	100.00%	-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대만	100.00%	126	100.00%	126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이스라엘	-	-	-	-
합 계			10,732		10,703

(*) 당분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15.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선급금	1,490	881
부가세선급금	16,286	14,869
선급비용	79	114
합 계	17,855	15,864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선수금	3,873	15,655
예수금	221	674
선수수익	12,437	14,478
소 계	16,531	30,807
비유동부채		
선수금	159,200	159,200
선수수익	19,746	3,386
소 계	178,946	162,586
합 계	195,477	193,393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매입채무	572,173	641,305
미지급금	53,785	39,667
미지급비용	4,124	4,152
이행보증금	91,466	65,168
기타금융부채	62,393	33,335
소 계	783,941	783,627
비유동부채		
장기기타금융부채	-	32,831
합 계	783,941	816,458

17. 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유동부채		
은행차입금	22,006	22,666
전환사채	121,500	166,10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100,248
합 계	218,519	289,02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만기 및 이자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이자율	만기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KDB BANK EUROPE LTD	3M Libor+3.8%	2017-06-27	10,506	11,166
한국산업은행	5.50%	2017-06-27	1,500	1,500
(주)한국씨티은행	4.45%	2017-06-28	10,000	10,000
합 계			22,006	22,666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전환사채 액면금액	149,540	208,340
거래원가	(2,564)	(3,572)
순 현금유입액	146,976	204,768
전환권조정	(44,810)	(62,430)
발생이자(누적)	19,334	23,771
기말 장부금액	121,500	166,109
- 유동	121,500	166,109
- 비유동	-	-

당분기 중 제2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58,8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전기 중 제1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5,501백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의 변동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6, 7, 19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2 회 전환사채(*3)(*4)
발행일	2014-9-30
만기일	2019-9-30
액면금액(*1)	149,540백만원
발행가액(*1)	146,976백만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6%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6%(연복리)
상환방법	전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0%를 일시 상환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1)(*2)	기명식 보통주 5,724,019주(액면가액 1,000원)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의 3영업일전까지
전환가격(*2)	26,125원

(*1) 당분기 중 전환사채의 상환에 따른 변동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가격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및 전
환시 발행할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 동
은 주석 17 (4)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4)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분리되어 인식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금액	100,248	98,376
감소금액	(28,293)	(8,419)
평가금액	3,058	10,291
기말금액	75,013	100,248
- 유동	75,013	100,248
- 비유동	-	-

18. 자본금 등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 주	200,000,000 주
주당 액면금액	1,000	1,000
발행주식수	112,084,120 주	112,084,120 주
자본금	112,084,120,000	112,084,120,000

(2) 당분기와 전기 중 당사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 발행주식수	112,084,120	554,493
무상증자	-	21,643,284
액면분할	-	88,924,080
전환사채의 전환	-	476,820
주식선택권의 행사	-	485,443
기말 발행주식수	112,084,120	112,084,12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380,642	380,642

(4) 당분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기초금액	380,642	1,323,556
무상증자	-	(108,217)
결손금의 보전	-	(859,366)
주식선택권의 행사	-	11,472
전환사채의 전환	-	13,197
기말금액	380,642	380,642

전기 중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시 보통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역은 주석 6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감자차손	(59,369)	(59,369)
주식선택권	14,391	13,317
합 계	(44,978)	(46,052)

19.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92,545	189,714

20.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분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3,793,117,069)
보통주 분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3,793,117,06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084,120 주	110,968,813 주
기본주당이익(손실)	25	(3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2,084,120	110,898,600
주식선택권의 행사	-	70,21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084,120	110,968,813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보통주 분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3,793,117,069)
보통주 희석분기순이익(손실)	2,830,838,712	(3,793,117,06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3,270,644 주	110,968,813 주
희석주당이익(손실)	25	(3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2,084,120	110,968,813
주식선택권	1,186,52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113,270,644	110,968,813

21.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부여	2차 부여	3차 부여	4차 부여
부여시점	2012년 03월 23일	2013년 03월 22일	2015년 03월 27일	2016년 03월 29일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 가능하며 3년 경과 시점에서 최초부여주식의 40%, 4년 경과 시점에서 30%, 5년 경과 시점에서 30% 를 행사			
발행할 주식수	2,998,000 주	388,000 주	937,688 주	370,891 주
행사가격	11,537 원	11,537 원	24,082 원	26,062 원

당사는 4차례에 걸쳐 상기 조건의 주식선택권을 주요 경영진과 종업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의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면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4차 부여 분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12,410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26,468
행사가격	26,062
주가변동성(*1)	7.15% ~ 7.72%
배당수익률	-
기대만기(*2)	4년 ~ 6년
무위험수익률	1.50% ~ 1.63%

(*1) 주가변동성은 각 기대만기기간의 일별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유사 상장 회
사의 주 환산 주가변동성입니다.

(*2)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양도 불가능에 대한 영향을 기대 만기 산정
에
고려했습니다.

(3)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수량	행사가격	수량	행사가격
기초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3,396,888 주	15,000
기중 상실	-	-	(244,112) 주	23,342
기중 행사	-	-	(708,700) 주	11,537
기중 부여	-	-	370,891 주	26,062
기말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2,814,967 주	16,606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1,688,100 주	11,537	947,700 주	11,53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잔여기간의 가중평균치는 각각 0.9년과 1.0년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 하여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총보상원가	25,790	25,790
기인식 주식보상원가	17,695	13,233
당분기에 인식한 주식보상원가	1,074	1,132
분기말 누적인식 주식보상원가	18,769	14,365

22. 매출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재화판매	96,970	50,123
용역제공	6	35
기타매출	891	-
합 계	97,867	50,158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106,301)	(47,413)
반제품의 매입	166,850	85,200
종업원급여	3,411	3,028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3	44
용역비	-	32
지급수수료	9,876	5,357
광고선전비	1,703	358
운반비	578	245
해외출장비	1,048	569
지급임차료	151	109
기타	2,363	2,991
합 계	79,702	50,520

24. 종업원급여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급여	1,878	1,553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	102	121
복리후생비	141	91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216	13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1,074	1,132
합 계	3,411	3,028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급여	1,878	1,553
퇴직급여	216	131
복리후생비	243	212
운반비	578	245
지급임차료	151	109
지급수수료	2,165	1,403
감가상각비	9	35
무형자산상각비	14	9
세금과공과	18	537
광고선전비	1,703	358
판매촉진비	19	56
해외출장비	1,048	569
시험연구비	1,828	2,167
주식보상비	1,074	1,132
기타	497	262
합 계	11,441	8,778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외화환산이익	11,273	487
외환차익	41	3,060
무형자산처분이익	33	-
기타	594	-
합 계	11,941	3,54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외화환산손실	8,715	2,577
외환차손	11,928	359
합 계	20,643	2,936

27. 법인세비용(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1,405	-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2,905	(472)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	(372)
소 계	2,905	(844)
법인세비용(수익)	4,310	(844)

(*) 당사는 전기이전부터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당분기말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는 향후 기간 동안 추정된 과세소득규모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분기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1,326백만원이며, 차기기로 이월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141	(4,638)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466	(660)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2,259	278
기업소득환류세제	146	-
기타	439	(462)
법인세비용(수익)	4,310	(844)
평균유효세율	60.4%	-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1. 금융수익		
이자수익	397	1,389
외화환산이익	660	124
외환차익	-	89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978	1,440
사채상환이익	16,615	-
합 계	18,650	3,848
2. 금융비용		
이자비용	7,926	7,765
외화환산손실	1,426	16
외환차손	8,303	50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058	403
매출채권처분손실	-	49
금융부채처분손실	260	-
합 계	20,973	8,734
3. 순금융손익 (1-2)	(2,323)	(4,886)

29.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분기순이익(손실)	2,831	(3,793)
조정	(4,649)	7,702
감가상각비	9	35
무형자산상각비	14	9
외화환산손실	10,141	2,593
매출채권처분손실	-	49
금융부채처분손실	260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058	403
주식보상비	1,074	1,132
이자비용	7,926	7,765
법인세비용(수익)	4,310	(844)
외화환산이익	(11,933)	(611)
무형자산처분이익	(33)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978)	(1,440)
사채상환이익	(16,615)	-
이자수익	(397)	(1,389)
기타수익	(594)	-
기타매출	(891)	-
운전자본의 변동	47,434	(27,411)
매출채권	194,097	19,693
기타수취채권	(20)	(1)
재고자산	(104,453)	(45,190)
기타유동자산	(1,992)	3,652
매입채무	(68,670)	2,064
기타채무	28,543	(1,831)
기타유동부채	(71)	(5,79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5,616	(23,502)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무상증자	-	108,217
결손금의 보전	-	859,366
장기선수금의 유동성대체	-	2,048

장기이행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7,843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33,528	-
장기선수수익의 유동성 대체	780	869
이행보증금의 선수금대체	3,642	-
선수금의 장기선수수익대체	15,805	-

3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사는 (주)셀트리온과 공동개발자로서 양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전세계 독점 판매 및 유통권한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개발 중인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계약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국내외 제약회사와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중 일부 유통업체와 인센티브, 매입할인, 가격정산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정사항이 존재합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담보설정일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Hospira Inc.	제2회 전환사채	2014-10-15	재고자산	209,820	357,204

(3) 당사는 2010년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와 분할 전 기존채무(분할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쥬마 제형 특허 소송

2013년 10월,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는 허셉틴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당사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6일자로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의 제형 특허가 진보성 근거로 무효하며, 이에 따라 2016년 가치분신청과 2013년 침해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② 램시마 MTX 병용특허 특허소송

2013년 10월 Kennedy Trusts for Rheumatology Research와 Janssen Biotech, Inc.는 Hospira Inc., (주)셀트리온 및 당사에 특허침해 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제기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이 캐나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램시마 특허소송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Janssen Biotech, Inc.와 Janssen, Inc.(이하 "얀센")과의 특허 관련 2건의 소송이 미국에서 하기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ibody Patent(2018년 9월 만료)는 2015년 5월 중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Patent Trial and Review Board에 2016년 11월 항소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중 동 특허에 대하여 미국지방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ulture media composition patent(2027년 2월 만료)는 미국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기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지배인	서정진	서정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종속기업	-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드림이앤엠(*)	(주)드림이앤엠(*)

(*) 지배인인 서정진은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59	315
퇴직급여	62	49
주식기준보상	141	80
합 계	662	444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급여, 비화폐성 급여 및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조).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	594	-	-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78,345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1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	-	79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	-	-	1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166,850
	(주)셀트리온제약	-	226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
합 계		78,345	820	166,850	9,198

② 제 17(전)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239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2,532	-	-	135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1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1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5	-	120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6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85,200	5,592
	(주)셀트리온에스티	-	-	-	6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1
합 계		2,532	12	85,200	6,094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1,861	-	-	-	1,989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76,103	-	-	-	-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90	-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1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36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607	57	-	5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	-	-	-	-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2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28	566,592
(주)셀트리온제약		10,526	-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	-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	23
합 계		88,580	643	87	566,592	33,742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2,089	-	-	-	1,856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9,974	-	-	-	-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220	-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1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58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657	57	-	41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	-	-	-	13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2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7	635,262
(주)셀트리온제약		11,820	-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	2
합 계		24,103	715	66	635,262	35,183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의 회수	현금출자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	3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21	-
합 계		21	30

② 제 17(전)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의 대여	현금출자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	31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21	-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	16
합 계		21	47

(6)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 천EUR, 원화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 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담보권자
	특수관계자	제공자	담보제공사실 또는 보증내용	담보 또는 보증금액		
지급보증	지배인	서정진	차입금 연대보증	1,800	1,500	한국산업은행
				13,000	10,000	(주)한국씨티은행
				EUR 8,809	10,506	KDB BANK EUROPE LTD

제 17(당)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당사")는 1999년 12월 29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1월 25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로 이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12,084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서정진	49,454,360	44.12%
ONE EQUITY PARTNERS IV,L.P.	24,887,000	22.20%
ION INVESTMENT B.V.	17,319,600	15.45%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5,211,620	4.65%
OEP II PARTNERS CO-INVEST, L.P.	718,200	0.64%
기타 주주	14,493,340	12.94%
합 계	112,084,12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 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 종속기업투자주식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 재고자산

- 주석 25 : 종업원급여

- 주석 28 : 법인세비용

- 주석 31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 금융상품 공정가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 :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 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 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 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부분과 기타요소부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무적으로 신뢰성 있게 지급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대상으로 파악된 약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대가가 지급되면 부채는 감소하고, 부채에 대한 내재금융원가는 구매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전환사채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전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 시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 및 전환가격이 고정되는 경우 전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15)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당기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과 할인, 환입 및 가격정산은 수익금액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은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라이선스 수익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계약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이연하여 수익인식 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약정은 유통업체로의 재화의 판매 거래와는 구분이 됩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 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금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정된 자본과 조정된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지키고 있으며, 당사의 당기말과전기말 현재 조정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부채총계	1,334,853	1,072,06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67,628	20,172
조정 부채	1,267,225	1,051,895
자본총계	636,389	502,779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자본	-	-
조정 자본	636,389	502,779
조정 부채 비율	199.13%	209.22%

5.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목표, 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담당 이사회에 대한 위험관리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담당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금융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금융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예치금을 (주)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주)한국씨티은행, BNP Paribas,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장기간 거래가능성과 당사와 사업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우량 거래처를 선별 후 독점적인 판권을 부여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한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Letter of Credit 을 통해 처리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67,615	20,17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373,576	108,1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18,882
소 계	464,291	147,213
신용보강	-	-
최대 노출정도	464,291	147,213

② 손상차손

당기 및 전기 중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잔액	(3,475)	(5,940)
손상차손 환입	2,888	-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	571	2,680
환율변동효과	-	(215)
기말잔액	(16)	(3,475)

당사는 과거의 채무불이행율을 고려하였을 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과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부여된 신용한도를 초과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집합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당사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기 전 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당사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 됩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만기 미도래	374,522	109,631
30일 이내	-	7,267
합 계	374,522	116,898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 수준의 추정 및 자금수지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며, 계획대비 실적관리를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담당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23,130	-	-	23,130
전환사채	6,250	211,465	-	217,7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6,089	334,962	36,255	827,306
합 계	485,469	546,427	36,255	1,068,151

② 전기말 현재 비과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내	6 ~ 12개월	1 ~ 2년	합 계
차입금	9,592	-	-	9,592
전환사채	6,250	12,716	217,715	236,6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7,836	223,534	62,106	703,476
합 계	433,678	236,250	279,821	949,749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시장위험노출을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당사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담당은 매일 외환시장의 모니터링과 각 관계기관에서 발행된 외환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환위험관리 규정을 바탕으로 매월 Var환율을 통한 환위험의 분석을 통해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헷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위험이 금융자산 측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헷지하기 위해외화 금융부채의 발생을 통한 Matching이나, Lead and Lag 방법을 통해 환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중속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격으로 간주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기능통화 이외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	외화부채
USD	312,866	79,419	65,736	12,009
EUR	104,877	79,179	67,235	96
THB	236	-	168	-
TRY	2,294	1,857	-	6,199
JPY	656	-	603	-
SGD	37	14	-	-
GBP	-	15	-	-
합 계	420,966	160,484	133,742	18,304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7% (전기 9%) 변동시 당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7% 상승	7% 하락	9% 상승	9% 하락
USD	12,387	(12,387)	3,665	(3,665)
EUR	1,364	(1,364)	4,580	(4,580)
THB	13	(13)	11	(11)
TRY	23	(23)	(423)	423
JPY	35	(35)	41	(41)
SGD	1	(1)	-	-
GBP	(1)	1	-	-
합 계	13,822	(13,822)	7,874	(7,874)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명목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7,072	923
금융부채	(219,840)	(215,341)
합 계	(212,768)	(214,418)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715	1,453
금융부채	(11,166)	(7,860)
합 계	(10,451)	(6,407)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전기 20BP) 변동시 당사의 세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동 비율은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변동이자율에 대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0BP 상승	10BP 하락	20bp 상승	20bp 하락
세후 손익	(8)	8	(10)	10

③ 기타 시장가격 위험

당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7,628	67,628	20,172	20,17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23,100	18,882	18,88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373,576	373,576	108,161	108,161
합 계	464,304	464,304	147,215	147,215
금융부채				
차입금	22,666	22,666	9,360	9,360
전환사채	166,109	184,218	160,347	180,61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100,248	98,376	98,37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16,458	816,458	693,375	693,375
합 계	1,105,481	1,123,590	961,458	981,728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23,100	-	-	18,882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100,248	-	-	98,376
- 전환사채	-	184,218	-	-	180,617	-

②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초잔액	18,882	98,376	-	1,096,798
총손익	4,218	10,291	(957)	(87,630)
당기손익 인식	4,218	10,291	(957)	(87,630)
보통주 전환	-	(8,419)	19,839	(910,792)
기말금액	23,100	100,248	18,882	98,376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42	(2,042)	1,664	(1,664)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5,429)	14,630	(12,911)	12,355

(*) 동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주가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주가의 10%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당사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5.79%
				무위험이자율	1.4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22%
				무위험이자율	1.65%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8,882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60%
				무위험이자율	1.6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8,376	3	옵션모델	주환산 주가변동성	6.47%~7.67%
				무위험이자율	1.61%~1.8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사의 재무담당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67,628	67,628	-	20,172	20,17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371,249	371,249	-	77,236	77,236
소 계	-	438,877	438,877	-	97,408	97,408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2,327	2,327	-	30,925	30,92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	23,100	18,882	-	18,882
소 계	23,100	2,327	25,427	18,882	30,925	49,807
합 계	23,100	441,204	464,304	18,882	128,333	147,215

(2) 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	100,248	7,183	-	7,183
단기금융부채	-	188,775	188,775	-	15,149	15,14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3,627	783,627	-	641,096	641,096
소 계	100,248	972,402	1,072,650	7,183	656,245	663,428
비유동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91,193	-	91,193
장기금융부채	-	-	-	-	154,558	154,55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831	32,831	-	52,279	52,279
소 계	-	32,831	32,831	91,193	206,837	298,030
합 계	100,248	1,005,233	1,105,481	98,376	863,082	961,458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754	8,623
- 처분손익	(228)	(414)
- 이자손익	6,024	5,570
- 외화환산손익	14,070	3,467
- 자산손상환입	2,88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218	(957)
- 평가손익	4,218	(957)
단기매매금융자산	-	(2)
- 처분손익	-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316)	22,777
- 평가손익	(10,291)	87,630
- 처분손익	975	(64,85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36,230)	(56,357)
- 이자손익	(32,571)	(56,543)
- 외화환산손익	(3,659)	186
합 계	(18,574)	(25,916)

8. 금융자산의 양도

당사는 보고기간 중 Letter of Credit으로 발생한 매출채권 40,514백만원을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일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손실 228백만원을 인식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매출채권 양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9.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보유현금	13	2
은행예금 및 단기은행예치금	67,615	20,170
합 계	67,628	20,172

10.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자산		
매출채권	370,472	75,682
미수금	2	32
미수수익	60	69
단기대여금	715	1,453
소 계	371,249	77,236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2,142	30,740
보증금	185	185
소 계	2,327	30,925
합 계	373,576	108,161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비유동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18,882

12. 재고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반제품	1,467,315	1,395,555
제품	984	26
합 계	1,468,299	1,395,58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은 각각 211,912백만원, 219,77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능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비품	841	(780)	61	804	(669)	135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비품	135	37	(111)	61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상각액	기말금액
비품	262	27	(5)	(149)	135

14.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손상)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299	(159)	140	199	(116)	83
회원권	138	-	138	138	-	138
합 계	437	(159)	278	337	(116)	221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소프트웨어	83	100	(43)	140
회원권	138	-	-	138
합 계	221	100	(43)	278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상각액	기말금액
소프트웨어	119	-	(36)	83
회원권	-	138	-	138
합 계	119	138	(36)	221

15. 종속기업투자주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인도	99.96%	-	99.96%	12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터키	100.00%	3,404	100.00%	3,404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헝가리	100.00%	94	100.00%	94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필리핀	99.99%	227	99.99%	227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49	100.00%	49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홍콩	100.00%	332	100.00%	184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태국	100.00%	398	100.00%	108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브라질	100.00%	2,990	100.00%	2,99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100.00%	179	100.00%	179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멕시코	99.99%	-	99.98%	252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일본	100.00%	2,904	100.00%	7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스위스	100.00%	-	100.00%	23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대만	100.00%	126	-	-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이스라엘	-	-	-	-
합 계			10,703		7,592

16.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선급금	881	533
부가세선급금	14,869	12,920
선급비용	114	111
합 계	15,864	13,564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선수금	15,655	12,705
예수금	674	1,323
선수수익	14,478	930
소 계	30,807	14,958
비유동부채		
선수금	159,200	66,909
선수수익	3,386	10,629
소 계	162,586	77,538
합 계	193,393	92,496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매입채무	641,305	580,201
미지급금	39,667	44,488
미지급비용	4,152	10,665
이행보증금	65,168	5,742
기타금융부채	33,335	-
소 계	783,627	641,096
비유동부채		
장기이행보증금	-	52,279
장기기타금융부채	32,831	-
소 계	32,831	52,279
합 계	816,458	693,375

18. 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유동부채		
은행차입금	22,666	9,360
전환사채	166,109	5,78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7,183
소 계	289,023	22,332
비유동부채		
전환사채	-	154,55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91,193
소 계	-	245,751
합 계	289,023	268,083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만기 및 이자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이자율	만기	제 17(당) 기	제 16(전) 기
KDB BANK EUROPE LTD	3M Libor+3.8%	2017-06-27	11,166	5,860
한국산업은행	5.50%	2017-06-27	1,500	1,500
(주)한국씨티은행	4.45%	2017-06-28	10,000	-
(주)경남은행	-	-	-	2,000
합 계			22,666	9,360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전환사채 액면금액	208,340	213,841
거래원가	(3,572)	(3,572)
순 현금유입액	204,768	210,269
사채상환할증금	-	800
전환권조정	(62,430)	(64,476)
발생이자(누적)	23,771	13,754
당기말 장부금액	166,109	160,347
- 유동	166,109	5,789
- 비유동	-	154,558

당기 및 전기 중 제1회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각각 5,501백만원 및 84,499백만원에 대해서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의 변동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6, 7, 19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2 회 전환사채(*3)
발행일	2014-9-30
만기일	2019-9-30
액면금액	208,340백만원
발행가액	204,768백만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6%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6%(연복리)
상환방법	전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0%를 일시 상환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1)(*2)	기명식 보통주 7,974,736주(액면가액 1,000원)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의 3영업일전까지
전환가격(*1)(*2)	26,125원

(*1)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가격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및 전
환시 발행할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 동
은 주석 18 (5)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인식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초금액	653,263
평가	12,216
전환	(665,479)
기말금액	-
- 비유동	-

전기 중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어 인식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금액	98,376	443,535
전환권	98,376	284,414
신주인수권	-	159,121
감소금액	(8,419)	(245,313)
전환권	(8,419)	(118,790)
신주인수권	-	(126,523)
평가금액	10,291	(99,846)
전환권	10,291	(67,248)
신주인수권	-	(32,598)
기말금액	100,248	98,376
- 유동	100,248	7,183
- 비유동	-	91,193

19. 자본금 등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 주	20,000,000 주
주당 액면금액	1,000	5,000
발행주식수	112,084,120 주	554,493 주
자본금	112,084,120,000	2,772,465,000

(2)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 발행주식수	554,493	331,526
무상증자	21,643,284	-
액면분할	88,924,08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46,917
전환사채의 전환	476,820	36,61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39,001
주식선택권의 행사	485,443	432
기말 발행주식수	112,084,120	554,493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380,642	1,323,556

(4)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금액	1,323,556	144,211
무상증자	(108,217)	-
결손금의 보전	(859,366)	-
주식선택권의 행사	11,472	1,458
전환사채의 전환	13,197	193,81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06,434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777,638
기말금액	380,642	1,323,556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보통주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역은 주석 6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감자차손	(59,369)	(59,369)
주식선택권	13,317	12,769
합 계	(46,052)	(46,600)

20.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89,714	(776,949)

(2) 당기 및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처리에정일 : 2017년 3월 24일		처리확정일 : 2016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89,714		(776,94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82,417		(732,516)	
당기순이익(손실)	107,297		(44,433)	
II. 결손금처리액		-		859,366
주식발행초과금의 결손 보전		-	859,366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9,714		82,417

21. 주당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107,297,052,798	(44,432,947,547)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107,297,052,798	(44,432,947,54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1,416,066 주	66,551,970 주
기본주당이익(손실)	963	(668)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여,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은 재계산 되었습니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0,898,600	66,305,200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61,005
전환사채의 전환	221,474	20,06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1,370
주식선택권의 행사	295,992	44,33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1,416,066	66,551,970

(2) 당기 및 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107,297,052,798	(44,432,947,547)
보통주 희석당기순이익(손실)	107,297,052,798	(44,432,947,54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808,032 주	66,551,970 주
희석주당이익(손실)	951	(668)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여, 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재계산 되었습니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11,416,066	66,551,970
주식선택권	1,391,96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112,808,032	66,551,970

22.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부여	2차 부여	3차 부여	4차 부여
부여시점	2012년 03월 23일	2013년 03월 22일	2015년 03월 27일	2016년 03월 29일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3년 경과 시점에서 최초부여주식의 40%, 4년 경과 시점에서 30%, 5년 경과 시점에서 30% 를 행사			
발행할 주식수 (*)	2,998,000주	388,000 주	937,688 주	370,891 주
행사가격 (*)	11,537 원	11,537 원	24,082 원	26,062 원

(*)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4차에 걸쳐 상기 조건의 주식선택권을 주요 경영진과 종업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의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면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당기 및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4차 부여 분	3차 부여 분
당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1)	12,410	14,742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1)	26,468	28,913
행사가격(*1)	26,062	24,082
주가변동성(*2)	7.15% ~ 7.72%	6.89% ~ 7.48%
배당수익률	-	-
기대만기(*3)	4년 ~ 6년	4년 ~ 6년
무위험수익률	1.50% ~ 1.63%	1.81% ~ 1.92%

(*1)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 주가변동성은 각 기대만기기간의 일별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유사 상장사의 주 환산 주가변동성입니다.

(*3)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양도 불가능에 대한 영향을 기대만기 산정에 고려했습니다.

(3)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수량(*)	행사가격(*)	수량(*)	행사가격(*)
기초 미행사분	3,396,888 주	15,000	2,860,000 주	11,537
기중 상실	(244,112) 주	23,342	(314,400) 주	11,537
기중 행사	(708,700) 주	11,537	(86,400) 주	11,537
당기 중 부여	370,891 주	26,062	937,688 주	24,082
기말 미행사분	2,814,967 주	16,606	3,396,888 주	15,000
기말 현재 행사가능 수량	947,700 주	11,537	867,840 주	11,537

(*) 당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 액면분할 및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잔여기간의 가중평균치는 각각 1.0년과 1.2년입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 하여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총보상원가	25,790	22,824
기인식 주식보상원가	13,233	8,936
당기에 인식한 주식보상원가	4,462	4,297
당기말 누적인식 주식보상원가	17,695	13,233

23. 매출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재화판매	733,395	265,719
용역제공	67	3,867
합 계	733,462	269,586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재고자산의 변동	(81,178)	(283,839)
반제품의 매입	587,288	466,853
종업원급여	14,151	11,878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54	185
용역비	43	1,422
지급수수료	36,686	29,063
광고선전비	2,254	1,958
운반비	2,545	1,855
해외출장비	2,496	3,444
지급임차료	461	440
기타	6,641	5,553
합 계	571,541	238,812

25. 종업원급여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급여	8,101	6,192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	578	536
복리후생비	395	278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615	575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4,462	4,297
합 계	14,151	11,878

26.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급여	8,101	6,192
퇴직급여	615	575
복리후생비	973	814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888)	-
운반비	2,545	1,855
지급임차료	461	440
지급수수료	7,779	5,552
감가상각비	111	149
무형자산상각비	43	36
세금과공과	642	43
광고선전비	2,254	1,958
판매촉진비	533	332
해외출장비	2,496	3,444
시험연구비	7,051	4,044
주식보상비	4,462	4,297
기타	1,345	2,557
합 계	36,523	32,288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환산이익	12,746	5,350
외환차익	5,031	3,078
수입수수료(*)	606	50,280
기타	100	140
합 계	18,483	58,848

(*) 전기 중 Hospira Inc.가 허쥬마 및 트록시마의 판권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위 약금을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외화환산손실	5,837	1,439
외환차손	7,291	2,456
유형자산처분손실	-	4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337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3
합 계	13,465	3,902

2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39,296	19,654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	(13)
소 계	39,296	19,641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1,197)	81,595
법인세비용	38,099	101,236

(*) 당사는 전기부터 3년간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당기말 현재 기업 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는 향후 기간 동안 추정된 과세소득규모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 소득환류세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기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32,082백만원이며, 차기기로 이월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5,396	56,803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34,724	13,284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1,242	250,989
비과세수익	-	(164,914)
세액공제	(6)	(9)
기업소득환류세제	3,529	1,899
기타	(1,390)	(13)
법인세비용	38,099	101,236
평균유효세율(*)	26.2%	178.2%

(*) 전기 중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관련 내재과생 상품 부채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됨에 따라 일시에 법인세비용으로 반영되어 전기의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손익반영	기말잔액
유형자산	9	9	18
미지급비용	2,503	(1,400)	1,103
대손충당금	1,833	(1,833)	-
외화환산손실	184	(184)	-
종속기업투자주식	-	82	82
전환사채상환할증금	194	(194)	-
간주배당	78	-	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3,806	2,899	26,705
선수수익	2,797	-	2,797
미수금	(4)	-	(4)
미수수익	(2)	1	(1)
재고자산	(1,386)	1,386	-
외화환산이익	(21)	21	-
전환권조정	(12,435)	1,794	(10,641)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6)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570)	(1,021)	(5,591)
이행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2,444)	1,244	(1,200)
기타금융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1,607)	(1,607)
합 계	10,536	1,197	11,733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손익반영	기말잔액
유형자산	2	7	9
미지급비용	3,900	(1,397)	2,503
대손충당금	365	1,468	1,833
외화환산손실	184	-	184
전환사채상환할증금	3,166	(2,972)	194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3,166	(3,166)	-
간주배당	78	-	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7,336	(83,530)	23,806
선수수익	225	2,572	2,797
미수금	(4)	-	(4)
미수수익	(4)	2	(2)
재고자산	(1,676)	290	(1,386)
외화환산이익	(49)	28	(21)
전환권조정	(19,459)	7,024	(12,435)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6)	-	(6)
신주인수권조정	(4,870)	4,87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570)	(4,570)
이행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223)	(2,221)	(2,444)
합 계	92,131	(81,595)	10,536

2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1. 금융수익		
이자수익	6,024	5,570
외화환산이익	3,548	27
외환차익	10,356	2,04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4,218	112,15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975	30,642
합 계	25,121	150,440
2. 금융비용		
이자비용	32,571	56,543
외화환산손실	46	285
외환차손	3,529	1,13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10,291	25,48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95,495
단기매매금융상품처분손실	-	2
매출채권처분손실	228	414
합 계	46,665	179,357
3. 순금융손익 (1-2)	(21,544)	(28,917)

30.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107,297	(44,433)
조정	61,020	131,641
감가상각비	111	149
무형자산상각비	43	36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888)	-
외화환산손실	5,883	1,724
매출채권처분손실	228	414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337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3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10,291	25,48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95,495
단기매매금융상품처분손실	-	2
유형자산처분손실	-	4
주식보상비	4,462	4,297
이자비용	32,571	56,543
법인세비용	38,099	101,236
외화환산이익	(16,294)	(5,37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4,218)	(112,15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975)	(30,642)
이자수익	(6,024)	(5,570)
수입수수료	(606)	-
운전자본의 변동	(108,891)	(34,561)
매출채권	(307,554)	(23,094)
기타수취채권	30	12
단기매매금융자산	-	(2)
재고자산	(72,717)	(282,255)
기타유동자산	(2,300)	(4,547)
매입채무	117,527	253,001
기타채무	(5,836)	19,170
기타유동부채	(13,916)	(31,491)
장기기타채무	67,368	61,463
기타비유동부채	108,507	(26,81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9,426	52,647

(2)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무상증자	108,217	-
결손금의 보전	859,366	-
장기매출채권의 유동성 대체	-	11,720
장기선수금의 유동성 대체	16,217	906
장기이행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56,703	6,016
장기기타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33,335	-
전환사채의 유동성 대체	166,109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100,248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778,372
전환사채의 전환	13,674	193,99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206,629
장기선수수익의 유동성 대체	10,629	930

3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사는 (주)셀트리온과 공동개발자로서 양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전세계 독점 판매 및 유통권한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개발 중인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계약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국내외 제약회사와 판매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중 일부 유통업체와 인센티브, 매입할인, 가격정산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정사항이 존재합니다.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담보설정일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Hospira Inc.	제2회 전환사채	2014-10-15	재고자산	211,912	357,204

(3) 당사는 2010년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와 분할 전 기존채무(분할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췌마 제형 특허 소송

2013년 10월, Roche Diagnostics GmbH와 (주)한국로슈는 허셉틴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당사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기말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램시마 MTX 병용특허 특허소송

2013년 10월 Kennedy Trusts for Rheumatology Research와 Janssen Biotech, Inc.는 Hospira Inc., (주)셀트리온 및 당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제기하였고, 당기말 현재 특허관련 소송이 캐나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램시마 특허소송

당기말 현재 당사는 Janssen Biotech, Inc.와 Janssen, Inc.(이하 "얀센")과의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하기와 같이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ibody Patent(2018년 9월 만료)는 2015년 5월 중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는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Patent Trial and Review Board에 2016년 11월 항소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중 동 특허에 대하여 미국지방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하였으며, 얀센은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ulture Media Composition Patent(2027년 2월 만료)는 미국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기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나,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특수관계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지배인	서정진	서정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EP II PARTNERS CO-INVEST, L.P.
	ONE EQUITY PARTNERS IV,L.P.	ONE EQUITY PARTNERS IV,L.P.
	ION INVESTMENTS B.V.	ION INVESTMENTS B.V.
	페트라헬스케어1호(유)	-
	-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India Privated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케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지에스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에스티	(주)셀트리온에스티
	(주)드림이앤엠(*)	(주)드림이앤엠(*)
	-	(주)셀트리온스킨케어

(*) 지배인인 서정진은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7(당) 기	제 16(전) 기
단기종업원급여	2,024	1,351
퇴직급여	203	60
주식기준보상	506	872
합 계	2,733	2,283

당사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급여, 비화폐성 급여 및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530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7,212	-	-	274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28,347	-	-	-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256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25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6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24	-	405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	-	-	16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2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구,(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주)셀트리온		-	101	514,761	36,295
(주)셀트리온제약		9,814	3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27
합 계		145,629	154	514,761	37,594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재화의 매입	유형자산의 취득	기타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	118	
	ONE EQUITY PARTNERS IV,L.P.	-	-	-	-	6,500	
	ION INVESTMENTS B.V.	-	-	-	-	12,538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881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6,613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4,461	4	-	-	601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46,916	2	-	-	47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108	-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2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4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21	-	-	162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	-	-	-	22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2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	-	-	-	538
		(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	-	2,674
(주)셀트리온		-	116	466,853	2	38,859	
(주)셀트리온제약		-	-	-	-	976	
(주)셀트리온에스티		-	-	-	-	24	
(주)드림이앤엠		-	-	-	-	1	
(주)셀트리온스킨큐어		-	-	-	-	19	
합 계	51,485	167	466,853	2	70,575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2,089	-	-	-	1,856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9,974	-	-	-	-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220	-	-	-	-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1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58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657	57	-	41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	-	-	-	13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2	-	-
	합 계	24,103	715	66	635,262	35,183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7	635,262	33,261
	(주)셀트리온제약	11,820	-	-	-	-
	(주)셀트리온에스티	-	-	-	-	2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매입채무	금융부채	기타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OEP II PARTNERS CO-INVEST, L.P.	-	-	-	-	-	10
	ONE EQUITY PARTNERS IV,L.P.	-	-	-	-	-	457
	ION INVESTMENTS B.V.	-	-	-	-	-	881
	페트라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5,789	62
	페트라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617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	-	-	-	-	5,925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3,526	-	-	-	-	-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102	-	-	-	-	45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	1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	162	6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708	35	-	-	41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583	20	-	-	-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	4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	-	-	8	580,201	-	35,524
합 계		13,628	1,453	73	580,201	5,789	43,563

(5)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7(당)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현금출자
		대여	회수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	-	148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57	162	29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	70	-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	-	50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583	2,833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	-	126
합 계		57	815	3,447

② 제 16(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자금차입		현금출자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종속기업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	94	-	-	-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	-	-	2,940	-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	-	-	-	78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67	-	-	-	-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234	-	-	-	317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	-	-	-	10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	-	-	-	38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	74	-	-	-
기타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홀딩스	-	-	46,500	46,500	-
	(주)셀트리온지에스씨	-	-	10,000	10,000	-
합 계		301	168	56,500	59,440	443

(6)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 천EUR, 원화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 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담보권자
	특수관계자	제공자	담보제공사실 또는 보증내용	담보 또는 보증금액		
지급보증	지배인	서정진	차입금 연대보증	1,800	1,500	한국산업은행
				13,000	10,000	(주)한국씨티은행
				EUR 8,809	11,166	KDB BANK EUROPE LTD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유의사항

연결실체는 장기계약이행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와 관련하여 계약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수익 인식 시기 조정으로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과거의 수정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누적 효과를 2015년과 2014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말과 2015년초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5년말			2015년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자산						
유동자산	1,512,462	-	1,512,462	1,241,806	-	1,241,806
비유동자산	60,432	2,632	63,064	141,876	17	141,893
이연법인세자산	9,448	2,632	12,080	91,906	17	91,923
자산총계	1,572,894	2,632	1,575,526	1,383,682	17	1,383,699
부채						
유동부채	699,282	992	700,274	1,053,018	-	1,053,018
선수수익	-	992	992	-	-	-
비유동부채	365,082	10,491	375,573	1,014,541	811	1,015,352
선수수익	-	10,629	10,629	-	992	992
이연법인세부채	138	(138)	-	181	(181)	-
부채총계	1,064,364	11,483	1,075,847	2,067,559	811	2,068,370
자본						
자본금	2,772	-	2,772	1,657	-	1,657
자본잉여금	1,323,556	-	1,323,556	144,211	-	144,211
기타자본	(46,600)	-	(46,600)	(50,433)	-	(50,4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90)	-	(3,390)	17,138	-	17,138

이익잉여금	(767,808)	(8,851)	(776,659)	(796,450)	(794)	(797,244)
자본총계	508,530	(8,851)	499,679	(683,877)	(794)	(684,671)
부채및자본총계	1,572,894	2,632	1,575,526	1,383,682	17	1,383,699

(2) 2015년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재작성전	영향	재작성후
매출액	402,389	-	402,389
매출원가	252,738	-	252,738
매출총이익	149,651	-	149,651
판매비와관리비	37,746	-	37,746
영업이익	111,905	-	111,905
기타수익	57,547	-	57,547
기타비용	3,922	-	3,922
금융수익	160,992	(10,629)	150,363
금융비용	179,330	-	179,330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147,192	(10,629)	136,563
법인세비용	118,551	(2,572)	115,979
당기순이익	28,641	(8,057)	20,58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8,641	(8,057)	20,584
비지배지분	-	-	-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20,528)	-	(20,528)
총포괄이익	8,113	(8,057)	5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113	(8,057)	56
비지배지분	-	-	-
기본주당이익(원)	86,071	(24,211)	61,860
희석주당이익(원)	59,049	(16,610)	42,439

(3) 2015년말 연결재무상태표 및 2015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함에 따라 변동된 현금흐름내역과 주식을 조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과거 기간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식과 재작성 영향들을 반영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식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개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주)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매출채권	142,152	-	0.0%
	미수금	64	16	25.7%
	합계	142,216	16	25.7%
2016년도 (제17기)	매출채권	367,215	-	0.0%
	미수금	25	16	65.3%
	합계	367,240	16	0.0%
2015년도 (제16기)	매출채권	101,541	3,459	3.4%
	미수금	58	16	28.1%
	합계	101,599	3,475	3.4%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아니함)	매출채권	88,440	5,924	6.7%
	미수금	67	16	24.5%
	합계	88,507	5,940	6.7%

주) 동 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반영하지 않은 채권의 명목가액입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아니함)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6	3,475	5,940	7,875
2.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459)	(2,680)	(2,165)
3. 기타(외화환산)	-	-	215	230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6	16	3,475	5,940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의 손상검토를 수행하여 평가하고, 손상징후가 발견된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채권중 추가적인 현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설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손상검토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아닌, 채권회수기간의 조정에 따른 채권 채무재조정회계처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초과	계
금액	일반	127,575	3,348	-	130,923

	특수관계자	11,229	-	-	11,229
	계	138,804	3,348	-	142,152
	구성비율	97.6%	2.4%	0.0%	10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개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7년도1분기 (제18기 1분기)	2016년도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감사받지 아니함)	비고
반제품	1,592,004	1,471,076	1,399,227	1,180,646	-
제품	7,402	1,044	58	6,142	
원재료	-	-	-	9	-
소계	1,599,406	1,472,120	1,399,285	1,186,797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86	74	89	86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12	0.37	0.20	0.08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실사일자

- 실사는 매년 12월말 ~ 익년 1월초 기준 외부감사인 입회 하 연 1회 실시하며, 내
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분기초 실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신고서 작성함에 있어서 2017년 1월 2일 재고 실사를 수행하였습니 다.
- 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입출고 발생분은 입/출고지시서 등으로 확인하였 습니
다.

② 실사방법

- 매분기 실시하는 자체 재고실사의 경우 전수조사로 수행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을 추출
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하였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제 16(전전) 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3,263	53,263	95,867	95,867	36,861	36,8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24,078	23,100	23,100	18,882	18,88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41,926	141,926	366,521	366,521	93,084	93,084
합 계	219,267	219,267	485,488	485,488	148,827	148,827
금융부채						
차입금	22,006	22,006	22,666	22,666	9,365	9,365
전환사채	121,500	133,596	166,109	184,218	160,347	180,61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75,013	100,248	100,248	98,376	98,37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86,042	786,042	820,260	820,260	694,558	694,558
합 계	1,004,561	1,016,657	1,109,283	1,127,392	962,646	982,916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서열체계

①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제 16(전전) 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24,078	-	-	23,100	-	-	18,882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75,013	-	-	100,248	-	-	98,376
- 전환사채	-	133,596	-	-	184,218	-	-	180,617	-

② 당분기, 전기 및 전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제 16(전전) 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기초잔액	23,100	100,248	18,882	98,376	-
총손익	978	3,058	4,218	10,291	(957)	(87,630)
당기손익 인식	978	3,058	4,218	10,291	(957)	(87,630)
보통주 전환	-	-	-	(8,419)	19,839	(910,792)
전환사채의 상환	-	(28,293)	-	-	-	-
기말금액	24,078	75,013	23,100	100,248	18,882	98,376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분기, 전기 및 전전기 중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8(당) 기 1분기		제 17(전) 기		제 16(전전) 기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16	(2,116)	2,042	(2,042)	1,664	(1,664)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1,634)	11,054	(15,429)	14,630	(12,911)	12,355

(*) 동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주가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주가의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당사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제 18(당) 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078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6.05%
				무위험이자율	1.59%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75,013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6.24%
				무위험이자율	1.6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② 제 17(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100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5.79%
				무위험이자율	1.4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00,248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6.22%
				무위험이자율	1.65%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③ 제 16(전전) 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수준3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8,882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6.60%
				무위험이자율	1.6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8,376	3	옵션모델	주환산 추가변동성	6.47%~7.67%
				무위험이자율	1.61%~1.82%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14.00%
				영구성장률	1.00%

당사의 채무담당은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회사채	사모	2014.09.30	208,340	6%	-	2019.09.30	부분상환	-
합 계	-	-	-	208,340	-	-	-	-	-

주) 발행총액 중 2017년 1월 58,800백만원 상환하였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채택회계기준	감사인	감사의견	특기사항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K-IFRS	삼정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주)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제17기)	K-IFRS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제16기)	K-IFRS	삼정회계법인	적정	<p>강조사항</p> <p>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p> <p>기타사항</p> <p>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그 종속기업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p> <p>본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전회계법인이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3월 19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안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연결재무제표는 주석35에서 기술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연결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4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p>
2014년도 (제15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주) 제 18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사업연도	채택회계기준	감사인	감사의견	특기사항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K-IFRS	삼정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주)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제17기)	K-IFRS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제16기)	K-IFRS	삼정회계법인	적정	<p>강조사항</p> <p>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서 설명하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p> <p>기타사항</p> <p>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p> <p>본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전회계법인이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3월 19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안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주석 34에서 기술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p>
2014년도 (제15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주) 제 18기 1분기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7년도 1분기 (제18기 1분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265,000	715
2016년도 (제17기)	삼정회계법인	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205,000	1,883
2015년도 (제16기)	삼정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215,000	1,411
2014년도 (제15기)	안전회계법인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65,000	670

다.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2017년도 (제18기 1분기)	삼정회계법인	국내 및 해외 Comfort Letter 발행	2017년 1월 23일 ~ 진행 중	370,000	-

2014연도 (제15기)	안진회계법인	세무조정 자문	~ 2015년 3월 31일	15,000	-
------------------	--------	---------	----------------	--------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감사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11월 30일 삼정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10년 2월 9일 제정)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비고
2016연도 (제17기)	2017.03.03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 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음	-
2015연도 (제16기)	2016.03.11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2014연도 (제15기)	2015.03.11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2)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비고
2016연도 (제17기)	2017.03.0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2015연도 (제16기)	2016.03.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2014연도 (제15기)	2015.03.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사업연도	종합의견	의견내용	개선계획 또는 결과	비고
2016연도 (제17기)	적정	특이사항 없음	-	-
2015연도 (제16기)	적정	특이사항 없음	-	-
2014연도 (제15기)	적정	특이사항 없음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서정진, 김만훈), 기타비상무이사 3인(서정수, 유현영, 문광영) 및 사외이사 4인(이준근, 박정륜,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이상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고
이준근	서울대학교 경영학(90) 메리츠자산운용/경영관리본부장(08.05~09.03) 메리츠화재/리스크관리본부장(09.04~12.03) 메리츠금융지주/리스크관리실장(12.04~13.03) KTB투자증권/경영관리본부장(15.04~16.06)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전무(16~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11~현재)	-	-	-
박정륜	Tufts University B.A.(01)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M.S.(02) Director of Temasek International Pte Ltd (07.05~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11~현재)	-	-	-
David Han	Cornell University B.A.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M.B.A Vice President at Morgan Stanley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04~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2.03~13.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3.03~16.03)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03~현재)	-	-	-
Gregory Belinfanti	New York University B.A. (Politics) Harvard University J. D. Vice President at Lehman Brothers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06~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2.03~13.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13.03~16.03)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16.03~현재)	-	-	-

다.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참석	사외이사 성명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이준근	박정훈
					참반여부			
2016-1	2016.01.06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임원 겸임 승인의 건 * 대상자: 김만춘	O		찬성	찬성	-	-
		- 정관 변경의 건	O		찬성	찬성	-	-
		- 이사회규정 변경의 건	O		찬성	찬성	-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O		찬성	찬성	-	-
		-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건	X		보류	보류	-	-
2016-2	2016.02.1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O		찬성	찬성	-	-
		-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건	O		찬성	찬성	-	-
2016-3	2016.03.11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제16기 영업보고서 승인	O		찬성	찬성	-	-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O		찬성	찬성	-	-
		- 감사 후보 추천의 건	O		찬성	찬성	-	-
		- 임원 겸임 승인의 건 * 대상자: 서정수, 문광영, 정일부,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Fidah Alsagoff	O		찬성	찬성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
		- 제4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O		찬성	찬성	-	-
		- 액면분할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
		- 정관 변경의 건	O		찬성	찬성	-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O		찬성	찬성	-	-
		- 매출채권 유통화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
		- 계열사 간 계약/거래 승인의 건 * 계약/거래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	O		찬성	찬성	-	-
2016-4	2016.09.20	-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계열사 간 계약/거래 승인의 건 * 계약/거래내역: 램시마 매입, 용역 위탁, 해외법 인 증자	O		찬성	찬성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O		찬성	찬성	-	-
2016-5	2016.10.07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O		찬성	찬성	-	-
2016-6	2016.11.21	- 주권 상장 추진의 건	O	참석	찬성	찬성	-	-
		-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 변경의 건	O		찬성	찬성	-	-
2016-7	2016.12.16	- 계열사 간 계약/거래 승인의 건 * 계약/거래내역: 램시마 매입, 트룩시마 매출, 용 역 위탁	O	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1	2017.03.09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O	참석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O		찬성		찬성	
		- 임원 겸임 승인의 건 * 대상자: 유현영, 서정수, 문광영, David Han, Gregory Belinfanti	O		찬성		찬성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O		찬성		찬성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O		찬성		찬성	
		- 계열사 간 계약/거래 승인의 건 * 계약/거래내역: 원료의약품 매입, 용역 위탁, 제	O		찬성		찬성	

		품공급계약 체결, 해외법인 증자/대여						
2017-2	2017.03.15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	참석	불참	불참	찬성	불참
2017-3	2017.03.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	불참	불참	찬성	불참
		- 계열사 간 계약/거래 승인의 건 * 계약/거래내역: 제품공급계약 체결	○				찬성	

주) 이준근 이사 및 박정륜 이사는 2016년 1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 명	활동분야 (담당업무)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서정진	사내이사 (이사회 의장)	이사회	-	본인
김만훈	대표이사	이사회	-	-
서정수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	친족
유현영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	-
문광영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	-
이준근	사외이사	이사회	-	-
박정륜	사외이사	이사회	-	-
David Han	사외이사	이사회	-	-
Gregory Belinfanti	사외이사	이사회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여부	비 고
황석영	'06 ~ '07 교육신문사 '08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	-	부	2016.03.29 선임 (상근감사)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른 상근감사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며,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52조_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 감사의 활동

당사의 감사는 선임 이후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 시 감사로서 의사를 개진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성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김정	- 동국대 법학석사 (2005)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2016) - 셀트리온헬스케어 준법지원파트 근무 중 (2016.5 ~현재)	적격 (상법시행령 제41조 2호)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및 지분율			
			기초 (2017.1.1)		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서정진	본인	보통주	49,454,360	44.12	49,454,360	44.12
박준성	친족	보통주	259,800	0.23	259,800	0.23
문광영	임원	보통주	240,000	0.21	240,000	0.21
유현영	임원	보통주	152,400	0.14	152,400	0.14
김형기	계열사 임원	보통주	100,000	0.09	100,000	0.09
기우성	계열사 임원	보통주	61,600	0.05	61,600	0.05
이병률	계열사 임원	보통주	48,000	0.04	48,000	0.04
이한기	계열사 임원	보통주	11,400	0.01	11,400	0.01
합계	-	-	50,327,560	44.90	50,327,560	44.90

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을 기초로 하여 제출인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소유주식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명	서정진
주요경력	(주)셀트리온/회장(02~현재) (주)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이사(03.02~15.03) (주)셀트리온헬스케어/회장(15.03~현재)
주요 겸직현황	(주)셀트리온 사내이사 (주)셀트리온홀딩스 사내이사 (주)셀트리온제약 사내이사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 변동 이력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서정진	49,714,160	44.35	주1
	ONE EQUITY PARTNERS IV,L.P.	25,605,200	22.84	주2
	ION INVESTMENTS B.V.	17,319,600	15.45	-
	Petra Healthcare 1, Inc. and other entities affiliated with IMM Investment Corp.	8,843,460	7.89	주3
우리사주조합		-	-	-

주1) 서정진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박준성의 소유주식수 259,800주를 포함하였습니다.

주2) OEP II Partners Co-Invest, L.P.의 소유주식수 718,200주를 포함하였습니다.

주3) Petra Healthcare 1, Inc.의 소유주식수 5,211,620주, Feroz, Inc.의 소유주식수 1,898,240주, IMM 14th Corporate Restructuring Fund의 소유주식수 1,040,200주 및 IMM 16th Corporate Restructuring Fund의 소유주식수 693,40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17년 03월 31일)

(단위: 명,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733	99.19%	11,688,700	10.43%	-

주1)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을 기초로 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확인 가능한 소유주식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2조)	<p>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국내 및 국외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

	<p>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구조의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p> <p>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p>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광고방법	<p>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elltrionhealthcare.com)에 한다.</p> <p>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 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5. 주가 및 자기거래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1) 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서정진	남	1957.10	사내이사	등기	상근	경영총괄	㈜셀트리온/회장(02~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이사 (03.02~15.03) ㈜셀트리온헬스케어/회장(15.03~현재)	49,454,360	-	1999. 12 ~	2018.03.30
김만훈	남	1958.10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총괄	㈜셀트리온제약/수석부사장 (11.10~13.08) ㈜셀트리온제약/대표이사(13.09~15.12) ㈜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이사 (16.02~현재)	-	-	2016. 02 ~	2018.03.25
유현영	남	1961.02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기타 비상무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사내이사 (10.11~14.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 (17.03~현재)	152,400	-	2017. 03 ~	2018.03.28
서정수	남	1959.12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기타 비상무이사	㈜셀트리온/비서실장(12.01~15.12)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 (15.07~현재)	-	-	2015. 07 ~	2018.03.28
문광영	남	1966.03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기타 비상무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사내이사 (10.10~14.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 (14.03~현재)	240,000	-	2010. 10 ~	2018.03.28
이준근	남	1962.09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90) 메리츠자산운용/경영관리본부장 (08.05~09.03) 메리츠화재/리스크관리본부장 (09.04~12.03) 메리츠금융지주/리스크관리실장 (12.04~13.03) KTB투자증권/경영관리본부장 (15.04~16.06)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전무(16~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6.11~현재)	-	-	2016. 11 ~	2018.03.31

박정륜	남	1979.05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Tufts University B.A.(01)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M.S.(02) Director of Temasek International Pte Ltd (07.05~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6.11~현재)	-	-	2016. 11 ~	2018.03.31
David Han	남	1956.03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Cornell University B.A.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M.B.A Vice President at Morgan Stanley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 (04~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2.03~13.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 (13.03~16.03)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6.03~현재)	-	-	2012. 03 ~	2018.03.28
Gregory Belinfanti	남	1974.12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New York University B.A. (Politics) Harvard University J. D. Vice President at Lehman Brothers Senior Managing Director of OEP (06~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2.03~13.03) ㈜셀트리온헬스케어/기타비상무이사 (13.03~16.03) ㈜셀트리온헬스케어/사외이사 (16.03~현재)	-	-	2012. 03 ~	2018.03.28
황석영	남	1963.06	감사	등기	상근	감사	교육신문사(06~07) ㈜셀트리온헬스케어 감사(08~현재)	-	-	2008. 03 ~	2019.03.28

(2) 임원 겸직현황

겸직임원		겸직사항	
직 위	성 명	회사명	직 위
사내이사	서정진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서정수	(주)셀트리온제약 (주)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유현영	(주)셀트리온홀딩스 (주)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문광영	(주)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David Han	One Equity Partners	Senior Managing Director
사외이사	Gregory Belinfanti	One Equity Partners	Senior Managing Director
사외이사	박정륜	Temasek International Pte Ltd	Director
사외이사	이준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전무

(3)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홍승서	남	1957.09	수석 고문	미등기	상근	수석고문	서울대 농화학과(학) 서울대 식품공학(석) 서울대 식품공학(박) 위스컨신대 미생물학 Post doc. '81 ~ '02 삼양제백스 생명공학연구소 '02 ~ '14 ㈜셀트리온 '14 ~ '15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16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상근 수석고문	-	-	2016.08 ~	-
김재현	여	1968.08	상무	미등기	상근	사업	숙명여대 생물학 Univ. of Texas Austin Molecular Biology (박사) Univ. of Texas Austin Executive M.B.A '00 ~ '04 Chemcross USA '04 ~ '05 Sinochem USA '05 ~ '14 셀트리온 기획조정실 '15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복미사업담당	-	-	2014. 12 ~	-
안익성	남	1972.11	상무	미등기	상근	사업	Univ. of Hawaii Biology UC Berkeley Integrated Biology '07 ~ '15 셀트리온 비서실 '15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복미사업담당	-	-	2015. 07 ~	-
김성진	남	1967.09	상무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	고려대 경영대학원 MBA '06 ~ '11 대웅제약 '11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경영지원담당	-	-	2011. 06 ~	-
권혁찬	남	1968.08	상무	미등기	상근	Medical Affairs	동아대 의학 동아대 의학대학원 (석사) 동아대 의학대학원 (박사) '01 ~ '12 동아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16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Medical Affairs담당	-	-	2016. 12 ~	-
김호중	남	1973.04	상무	미등기	상근	전략운영	중앙대 약학 중앙대 약학 (석사) SIMT Intl. Business MBA '08 ~ '14 셀트리온 경영전략실 '14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전략운영본부장	-	-	2014. 12 ~	-

최병서	남	1969.07	이사	미등기	상근	마케팅	중앙대 약학 중앙대 약학 (석사) '13 ~ '15 종외제약 '16 ~ '16 건강보험공단 '16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마케팅 담당	-	-	2016. 08 ~	-
이한기	남	1977.09	이사	미등기	상근	재무	연세대 경영학 '02 ~ '11 삼일회계법인 Senior Manager '11 ~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담당	11,400	-	2011. 08 ~	-

나. 직원현황

(기준일: 2017년 03월 31일)

(단위: 명,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원 수				합 계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영업	남	39	-	-	-	39	3년 10개월	521	13	-
	여	12	-	-	-	12	3년 5개월	140	12	-
마케팅	남	9	-	-	-	9	1년 11개월	119	13	-
	여	14	-	-	-	14	2년 4개월	158	11	-
Medical	남	2	-	-	-	2	1년 2개월	39	20	-
	여	8	-	-	-	8	1년 8개월	87	11	-
관리	남	16	-	3	-	19	3년 2개월	267	17	-
	여	10	-	2	-	12	2년	127	13	-
합 계		110	-	5	-	115	3년3개월	1,458	110	-

주1) 이사 이상 임원, 주재원 및 해외법인의 현채인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은 2017년 1분기 기준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총승인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9	2,000,000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금액
감사	1	200,000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승인 금액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기준일: 2017년 03월 31일)

(단위: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1	160,576	14,598	-

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의 ①에 대한 작성지침 ii.에 따라 작성기준일(2017.3.31)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2)-2. 유형별

(기준일: 2017년 03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6	148,576	24,763	17년 3월 28일로 임기 만료된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6,000	1,5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000	6,000	-

주) 1인당 평균보수액은 분기 동안의 보수총액을 분기간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나.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1)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 5억원 미만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1) 이사, 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기준일: 2017년 03월 31일)

(단위: 원)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사내이사	2	53,929,845	-
기타비상무이사	4	57,871,851	17년3월28일로 임기 만료된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
사외이사	4	-	-
감사	1	-	-
계	11	-	-

주) 상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신주가 교부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공정가치는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주)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조정(주2)			
장연재 외 34명	직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1,818,000	614,900	626,800	-	576,300	2015.03.23~2021.03.22	11,537
유현영	등기임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290,000	90,000	-	-	200,000	상동	11,537
문광영	등기임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564,000	-	-	-	564,000	상동	11,537
이병률	계열회사 임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158,000	-	-	-	158,000	상동	11,537
김성진	미등기임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84,000	58,800	-	-	25,200	상동	11,537
이한기	미등기임원	2012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84,000	11,400	-	-	72,600	상동	11,537
김은수 외 5명	직원	2013년 03월 22일	신주교부	보통주	388,000	20,000	228,000	-	140,000	2016.03.22~2022.03.21	11,537
김기현 외 12명	직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662,000	-	121,270	54,998	595,728	2018.03.27~2024.03.26	24,082
홍승서	미등기임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	108,442	8,442	-	상동	24,136
김재현	미등기임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26,000	-	-	2,062	28,062	상동	24,082
김성진	미등기임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26,000	-	-	2,062	28,062	상동	24,082
김호웅	미등기임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26,000	-	-	2,062	28,062	상동	24,082
이한기	미등기임원	2015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26,000	-	-	2,062	28,062	상동	24,082
손남석 외 4명	직원	2016년 03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244,000	-	-	588	244,588	2019.03.29~2025.03.28	26,062
김만훈	등기임원	2016년 03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	-	241	100,241	상동	26,062
안익성	미등기임원	2016년 03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26,000	-	-	62	26,062	상동	26,062
합계	-	-	-	-	4,622,000	795,100	1,084,512	72,579	2,814,967	-	-

주1) 부여 수량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13년 8월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와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행사청구에 따른 희석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3) 이병률은 2012년 3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셀트리온

(2)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 셀트리온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8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총 2개사이며, 비상장사는 총 6개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장사 (2사)	(주)셀트리온	133-81-23603
	(주)셀트리온제약	214-86-71641
비상장사 (6사)	(주)셀트리온홀딩스	131-86-24858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주1)	107-87-63802
	(주)셀트리온화학연구소,	135-81-52064
	(주)셀트리온스킨큐어	105-86-13560
	(주)티에스이엔엠	113-81-82345
	(주)티에스이엔씨	122-81-87650

주1) ㈜드림이엔엠은 2017년 3월 24일자로 사명을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2) ㈜셀트리온에스티는 2017년 4월 11일자로 청산종결 하였습니다.

나. 계열회사간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

(1) 국내 계열회사간 지분 보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제약	(주)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주)셀트리온 화학연구소	(주)셀트리온 에스티	(주)티에스 이엔엠
(주)셀트리온		55.29			100	
(주)셀트리온홀딩스	19.68		100			
(주)셀트리온스킨큐어	2.14					
(주)셀트리온제약				100		
(주)티에스이엔씨						60

(2) 해외 종속회사 지분 보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 %)

종속기업명	지분율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100.00%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100.00%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99.99%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100.00%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100.00%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00.00%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Mexico, S.A. DE C.V.	99.99%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100.00%
Celltrion Healthcare Switzerland Sarl	100.00%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00.00%
Celltrion Healthcare Israel Co., Ltd.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겸직임원		겸직사항	
직 위	성 명	회사명	직 위
사내이사	서정진	(주)셀트리온	사내이사
		(주)셀트리온홀딩스	사내이사
		(주)셀트리온제약	사내이사
		(주)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서정수	(주)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유현영	(주)셀트리온홀딩스	대표이사
		(주)셀트리온스킨큐어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문광영	(주)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2. 타법인 출자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증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자산양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증권 등 매수 또는 매도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	안 건	가결여부	비 고
2014. 0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감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
2015. 0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결	-
2015. 0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16. 0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선임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
2016. 0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감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액면분할 승인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
2016.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17. 0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한국 허쥬마 제형 특허 소송

항목	내용
소송의 내용	허쥬마 한국 허가신청을 근거로 허쥬마 제형 관련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 제기
소 제기일	2013년 10월
소송 당사자	Roche
진행상황	2013년 10월 - 침해소송 소장 접수 2014년 01월 - 셀트리온 답변서 제출 2016년 08월 - 특허권자 가처분신청 제기 2017년 04월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하여 침해소송과 가처분신청 기각 2017년 05월 - 특허권자 항소 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특허무효소송 병행 중 2014년 01월 - 특허심판원에 관련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 2015년 05월 - 1심 승소 2016년 07월 - 2심 패소 2016년 07월 - 대법원 상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	최종 패소할 경우, 특허만료일(2017년 11월)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 불가능

(2) 캐나다 램시마 MTX 병용 특허

항목	내용
소송의 내용	램시마 캐나다 시장 조기 진입을 목적으로 Hospira를 통해 특허 무효소송 진행 특허권자가 답변서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소송당사자로 지목하면서 침해소송 반소
소 제기일	2013년 3월
소송 당사자	KIRT(The Kennedy Institute of Rheumatology), Janssen
진행상황	2013년 03월 - Hospira 소장 제출 2013년 10월 - KIRT/Janssen의 반소 침해소장 접수 2016년 09/10월, 2017년 1월 - 기일 진행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2017년 3분기 - 1심 판결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	패소할 경우, 특허만료일(2017년 8월 1일)까지 로열티 지급
-----------------------	-------------------------------------

(3) 미국 램시마 특허 소송

항목	내용
소송의 내용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정(BPCIA)의 특허 소송절차 조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Hospira를 상대로 Infliximab 물질, Crohn's fistulas 질환의 치료방법, 동물세포 배양방법, 정제공정, 세포배양 media에 대해 특허침해소송 제기
소 제기일	2015년 3월
소송 당사자	Janssen, New York University
진행상황	2015년 03월 - Janssen 소장 제출 2015년 04월 - 셀트리온 답변서 제출 2016년 08월 - 물질특허에 대해 법원 1심 무효판결 2016년 10월 - Janssen 항소 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현재는 media 특허에 대한 소송만 진행 중 기타 특허는 특허권자가 소를 취하하였거나, 특허가 만료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	패소할 경우, 특허만료일까지 로열티 지급

(4) 아일랜드 트룩시마 특허 소송

항목	내용
소송의 내용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헝가리법인, Mundipharma를 상대로 리룩시마의 2가지 적응증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 제기
소 제기일	2017년 5월
소송 당사자	Biogen, Roche, Genentech
진행상황	2017년 05월 - 특허권자 소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셀트리온이 영국에서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포기한 특허 2건에 대한 침해소송이므로, 영국 소송 결과 및 강력한 무효 근거로 소송을 대응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	패소할 경우, 특허만료일까지 로열티 지급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당사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주)셀트리온홀딩스와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인적분할 전 기존 채무(분할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합병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